PROJECT BASED LEARNING

2019 1학년 교과융합 PBL

인천국제고등학교
Incheon International High School

2019학년도 1학년 교과융합-PBL

1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을 목표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의 함양을 토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아울러 학생 참여 수업을 통해 학습의 흥미와 동기를 높여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행복교육을 구현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2 교과융합-PBL(Project Based Learning)

PBL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으로 문제해결**을 강조합니다. 문제인식, 문제파악, 해결안 도출, 해결안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또한 소그룹이 팀을 이루어 역할 분담을 통해 자료수집, 분석, 해결방안 도출까지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업 능력이 향상**됩니다.

3 인천국제고의 교과융합-PBL은?

선정된 대주제를 바탕으로 각 교과별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지식에 대한 학습 및 코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각 모둠별로 **소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에 이르는 문제해결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실에서 적용가능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 창의적인 최종 산출물을 도출하기 위해 모둠별로 협업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창의성, 비판적 사고 능력,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4 융합형 교육과정

교과융합-PBL은 인천국제고등학교의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역량 강화를 극대화합니다.

2019학년도 대주제 : 공정(Fairness)

1 교과별 학습목표

① 사회: 공정의 의미와 기준을 탐구하고,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국어: 쟁점을 바탕으로 한 토론, 이해관계를 고려한 협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성취할 수 있다.

③ 영어: SANDEL의 정의관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나타난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수학: 게임이론을 탐구하며 수학에서의 공정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⑤ 역사: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정한 평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학급별 탐구 주제 선정 및 자료 탐색

① 모둠 구성

② 모둠별 가설 설정(탐구 주제안 제시)

③ 모둠별 가설 발표

3 교과 탐구 활동

① 조별 탐구 활동

㉮ 교과별로 조별 자료 탐색 시간 제공

㉯ 교과 교사의 피드백

② 조별 연구 결과 정리

㉮ 연구 결과의 내면화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 방안 마련

㉰ 최종 결과물 발표

| CONTENTS

| 2019학년도 1학년 교과융합-PBL

| 2019학년도 대주제 : 공정(Fairness)

| 1장 수상작

3 | 공정의 이기성 : 그들의 공정은 공정이 아니다
|| 10605 서효원, 10610 윤하나, 10611 이비아, 10618 김민규, 10619 박성강
||| 책

31 | 수저계급론을 통해 바라본 사회의 불공정
|| 10109 박세정, 10110 박수빈, 10111 성승은, 10115 조유정, 10118 박상원 10119 박수석
||| 보고서, 연극대본

49 | 문화, 예술활동 이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사운드 드라마를 중심으로
|| 10401 김미소, 10410 장혜주, 10417 권근모, 10419 김현호, 10421 유시우, 10423 정은준
||| 보고서, 포스터

67 | 교육, 문화, 취업 분야에서의 소년소녀가정의 불공정
|| 10601 강유하, 10604 류진, 10614 정희애, 10615 진서영, 10620 박성호, 10624 정인준
||| 현황보고서, 창업계획서

83 | 음원 사재기
|| 10504 금유빈, 10508 안소연, 10510 이연우, 10511 이유나, 10520 박찬영
||| 보고서, 사설, 인포그래픽, 입법청원서, 포스터, 희곡대본

| 2장 법, 정치, 외교, 경제, 경영

117 | 맞벌이 가정과 노인을 위한 공존상생도시
|| 10101 가예림, 10106 김혜윤, 10108 류시아, 10114 유채연, 10121 오은택
||| 보고서

126 | 수도권 내 지역격차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 발언을 중심으로
|| 10221 이승현, 10207 신윤진, 10213 전혜림, 10214 정채영, 10217 길경준, 10224 이한서
||| 보고서

139 | 공정무역은 정말 공정할까?
|| 10502 권수민, 10506 김지원, 10512 이해슬, 10512 임채원, 10516 한희진, 10509 이세연
||| 보고서, 정책제안서, 카드뉴스, 기업제안서

154 | 서울공화국 (수도권 중심주의)
|| 10503 권현민, 10505 김서현, 10514 장채은, 10515 최윤서, 10521 방예성, 10523 정찬호
||| 보고서, 인포그래픽, 포스터, 희곡(영상, 대본)

168 | 대한민국 기업에서의 불공정
|| 10602 김령은, 10603 김은우, 10607 송예나, 10609 윤려원, 10617 김대원, 10622 송주영
||| 보고서, 입법청원서, 인포그래픽

178 | 현대 사회의 암묵적 권력 계층 구조에 대한 고찰 - 영화 설국열차를 중심으로
|| 10608 안혜린, 10612 이서연, 10613 이채현, 10616 채윤희, 10621 박윤재, 10623 이진우
||| 보고서

CONTENTS|

| 3장 언론, 미디어, 심리, 교육, 인문

197 | 국내 문화 산업 내의 불공정 : 스크린 독과점 사례를 중심으로
|| 10209 이인서, 10211 이하연, 10218 송의호, 10219 신휘수, 10220 이성현, 10223 이진섭
||| 보고서

208 | 낙수효과와 불공정에 관한 철학적 고찰
|| 10201 강예린, 10204 박나영, 10208 심정민, 10212 전해인, 10215 김은빈, 10222 이영찬
||| 보고서, 칼럼

219 | 문학작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찾는 사회의 불공정 문제 분석
|| 10202 김은우, 10203 남수빈, 10205 박사라, 10206 박제이, 10210 이채원, 10216 최한별
||| 보고서, 소설, 소설포스터

242 | 외모지상주의 [외?! 모! 내 외모가 어때서!]
|| 10303 김유진, 10307 박수민, 10311 이도윤, 10313 조다빈, 10315 최정민, 10321 이재승
||| 보고서, 인트로영상

262 | 언론 조작과 공정
|| 10305 김하은, 10308 박혜상, 10312 정은혜, 10314 주에스더, 10316 홍혜연, 10324 정의준
||| 보고서, 연극대본

281 |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사회 형성
|| 10301 김민서, 10304 김은지, 10306 박서현, 10309 안가은, 10317 김주호, 10320 유건재
||| 보고서, 사업제안서, 정책제안서

| 4장 사회, 인문, 역사, 철학

295 | 성과주의 사회가 야기한 불공정한 역사 기록 : 위인 미화를 중심으로
|| 10102 강민서, 10103 김민교, 10104 김민정, 10105 김윤민, 10123 이태양, 10124 최재헌
||| 보고서, 신문사설, 출판사 독자투고

309 | 영화로 알아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공정은 어디에?
|| 10107 노위나, 10112 안소현, 10114 전지현, 10116 조은지, 10120 방승원, 10122 이상현
||| 보고서, 카드뉴스, 모의고사, 영상

328 | 게임으로 바라본 현대 사회의 불평등
|| 10302 김서현, 10310 유하임, 10319 배정민, 10323 정의민
||| 보고서

353 | 노키즈존 해결방안 : 공정을 중심으로
|| 10404 박소민, 10407 이다빈, 10408 이연주, 10412 정지원, 10413 최세진
||| 보고서

370 | 키오스크로 인한 불공정 - 세대격차 측면 / 노동차 측면
|| 10402 김민하, 10403 김어진, 10405 박소은, 10409 이정연, 10414 최현승, 10415 홍유림
||| 보고서

391 |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 10406 오은빈, 10411 정수진, 10418 권윤석, 10420 석지웅, 10422 윤서준
||| 보고서, 정책제안서

402 |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 10501 강윤아, 10507 박민서, 10518 박준원, 10519 박준표, 10522 이유준, 10524 최민재
||| 책

1장

수상작

공정의 이기성 : 그들의 공정은 공정이 아니다
| 책

수저계급론을 토해 바라본 사회의 불공정
| 보고서, 연극대본

문화, 예술활동 이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사운드 드라마를 중심으로
| 보고서, 포스터

교육, 문화, 취업 분야에서의 소년소녀가정의 불공정
| 현황보고서, 창업계획서

음원사재기
| 보고서, 사설, 인포그래픽, 입법청원서, 포스터, 희곡대본

| 책 |

10605 서효원, 10610 윤하나, 10611 이비아
10618 김민규, 10619 박성강

“그들의 공정은 공정이 아니다.”

목 차

起

오늘날의 '공정'과 무지의 베일

- 근대 '공정'에 대한 논의
- '공정'의 변질

承

공정의 이기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스크린 쿼터제
- 특목고·자사고 폐지
  1. 현재 중학생들에게 입시란
  2. 특목고,자사고 폐지가 드러낸 공정의 이기성
- 최저임금 인상
  1. 대한민국과 최저임금
  2.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
- 공정의 이기성의 만연

轉

시작의 공정과 과정에서의 공정

- "시작의 공정"의 대두
- 대표적 정책·상속세 부과 정책
- "시작의 공정" 정책의 문제와 "과정에서의 공정"
- 정의론과 무지의 베일
- 베일로부터의 탈피와 "사회적 담론"의 활성화

結

공정의 타락

公正

起. 오늘날의 '공정'과 무지의 베일

起.
오늘날의 '공정'과 무지의 베일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인류를 온전히 잠식시키기까지의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개인은 효율과 편익을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도 이러한 태동에 자연스레 녹아들었다. '인류의 자유와 경제적 효율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에, 우리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었고, 물질 만능주의와 인간 소외라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공정'이란 덕목을 나름의 해답으로 제시하였고, 실제로 이는 수많은 현대 사회의 화두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하는 공정의 정의는 무엇이며, 기원은 어디서부터인가?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른 일'이다. 이러한 공정의 미덕을 수호하기 위해 인류는 지금까지 투쟁해왔다. 동서양사 전반을 재고해볼 때, 우리의 선조들은 '철저한 위계서열'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지는 역사 속에 살았다. 태생으로 인류의 귀천을 결정하는 신분제 사회, 영주와 농노 간의 절대적 지배 관계로부터 비롯된 봉건제, 경제학의 비정한 논리라는 단편적인 이유로 이어지는 자본가들의 횡포에 분노한 시민들은 '공정'을 부르짖으며 약자들의 사회적 결속을 위해 궐기하였고, 이는 현대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역사적 시각에서 살짝 벗어나 철학사 전반을 재고해볼 때, 각 시대는 시대별로 '공정'에 대해 나름의 철학적 정의를 내려왔다. 고대 그리스에서의 공정은 단순히 '국가의 법규를 따르는 것'이었다. 중세 시대의 유럽에서의 정의는 '신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었다.

근대 '공정'에 대한 논의

근대로 넘어오며 조금 더 발전된 시민의식이 반영된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책의 전반에서 다룰 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이다. 20세기에 등장한 롤스의 '무지의 베일 이론'은 모든 사람들이 정의의 원리가 공정한 협력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 재산, 신분 등 사회적 조건을 서로 알 수 없게 만든 가설적 상황으로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인 원초적 입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이 갖는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순수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계약 당사자들의 제약 조건이다. 추가적으로, 합의도 원칙이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원초적 입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무지의 베일은 합의 당사자들의 특수한 사정을 모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자연적 여건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의 인지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결론을 미리 제시하자면, 현대에 들어서 무지의 베일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론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있다. 단순히 원초적인 '시작의 공정'을 추구하는 가상의 장인 무지의 베일을 상정하는 것이 실제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무지의 베일을 뛰어넘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날의 공정'이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할 것이다.

'공정'의 변질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는 공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공정하고 올바른 일'이라는 윤리적 강령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미덕인가? 적어도 '21세기에 들어서 화두에 오르는 공정의 의미'는 이러한 본질로부터 상당히 변질되었다. 현대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공정은, 부분적으로 사회적 선의 영위라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면에서는 개인의 편익을 위해 정의라는 매혹적 페르소나를 이용하고 있다. 문화 산업에서의 소수 제작자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스크린 쿼터제, 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인 특목고, 자사고 폐지문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정책, 이러한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정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조성'인가? 혹은 공정이라는 페르소나를 빙자한 '공정의 이기성'인가?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오늘날의 공정을 성찰하여 '공정의 이기성'을 극복하고 고결했던 '공정의 윤리적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질 것이다.

公正

承. 공정의 이기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承.
공정의 이기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공정의 이기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정의 이기성이란, '공정'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내세워, 이러한 가치를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회적 현상이다. 즉, 부분적으로 사회적 선의 영위라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면에서는 개인의 편익을 위해 정의라는 매혹적 페르소나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정의 이기성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을까?

스크린쿼터제

2019년 겨울, 한국에서 〈겨울왕국 2〉가 개봉했다. 점유율을 80% 이상 차지하여 17 일차에 1000만 관람객을 기록했고, 개봉 이후 3주 동안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한편에서는 이런 겨울왕국의 흥행에 비난이 쏟아졌다. 월트디즈니와 같은 해외의 배급사가 우리나라의 영화시장에 침입하여 점점 독식의 체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해마다 수많은 외국영화가 유입되면서 한국 영화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겨울왕국 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정책은 ‘스크린 쿼터제’이다.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 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적인 시장 잠식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화시장을 보호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0년 전에 처음 의무 상영 기간을 지정하는 제도가 생겨나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며 스크린쿼터를 대폭 축소하기는 했지만, 다시 최근 들어서는 영화의 시간대와 요일별로 세분화하여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스크린 쿼터제는 외국영화의 과도한 독점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마블, 드림웍스와 같은 유명 해외 배급사에서 영화를 개봉했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어벤져스:엔드게임〉이 한국에 나왔을 당시, 1300만 관람객을 모으며 국내영화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스크린 독점이 해외 영화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작품에서도 영화 독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왔었다. 2006년에 개봉한 〈괴물〉은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고, 올해 최고의 흥행작 〈극한 직업〉 또한 1600만 명을 넘어 논란에 휩싸였다. 대부분이 한국의 주요 배급사인 NEW, 쇼박스,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기업들이 배급한 것이었으며, 이

[그림 1] 오늘날 영화 독과점이 심해지자, 일부 영화인들은 스크린 쿼터제를 주장하고 있다.

사례를 통해 국내 배급사에 의한 독과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인들은 외국영화의 독점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스크린 상한의 목적이 적절하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보고자 한다.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 산업의 공정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연간 일정 비율 이상 국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중소배급사와 영화 제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소수를 위해 법률로써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왜 해외 영화만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제도가 공정을 향해가고 있는지는 고민해보아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공정을 향해가고 있는가? 이 제도의 목적이 공정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국내 배급사, 해외 배급사와 영화관 모두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화관의 경우 스크린 수는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관객들의 수요에 따라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영화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첫 개봉날에는 그 전주의 모든 영화의 관람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하루 만에 발생했다. 국내산업을 위해 영화관에게 특정 영화의 상영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다. 이 제도에는 이기심이 숨어있다. 국내 배급사들이 자유로운 경쟁이 아닌 국가와 법의 보호에 따라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제가 실행되면 스크린의 일정 비율 이상은 한국영화가 차지하게 되고, 영화의 작품성과 완성도에 상관없이 스크린 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시장에 풀어진 질 떨어진 영화들은 많은 관람객의 비난과 낮은 평점을 받고 있다.

요즘 극장가에서는 볼 만한 한국영화가 없다는 한탄이 자주 들린다. 개봉 편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재미와 의미를 갖춘 '웰메이드' 영화가 없다는 것이다. 올해 여름에는 100억 원대의 제작료를 들인 영화 중 〈엑시트〉, 〈봉오동전투〉만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2018년 추석과 겨울 시즌의 흥행 실패가 계속 이어진 것이다. 금년 7월의 한국 영화 관객 수는 1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문제는 심각한데, 올해 한국 영화 흥행 50위권 중 손익분기점을 넘은 작품은 14편에 불과하다.[1)]

또한 한국 영화의 단골 소재인 조폭, 정치인, 검사, 재벌 2세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안전한 소재, 안정적인 흥행을 추구하며 새로운 시도를 망설여하는 한국의 투자배급사들의 이기심이 영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진부한 스토리와 설정, 유명 배우에 의존하는 한국 영화를 계속 지원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가?

이런 현상은 전반적인 영화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스크린쿼터제를 강력하게 실시할수록 제작사가 영화의 질과 상관없이 상영관을 확보할 수 있기에 영화의 수준은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1)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조사(2019)

특목고·자사고 폐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18대 대선에 이어 19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말한 그의 캐치프레이즈이다. 그래서 그는 특목고를 걸고 넘어졌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를 위해서.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학생을 구분 짓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래서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를 통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더 좋은 학교에서 자신들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받기 어려워졌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고 하였지만 누군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줄어드는 불공정함을 체감하게 되었다.

1. 현재 중학생들에게 입시란

전국의 특목고 및 자사고는 총 79곳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 재학하는 학생 수는 2019년 4월 기준으로 총 5만 9045명이다. 전국 학생 수의 4.2%가 특목고 및 자사고에 재학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학생들의 특목고 입학은 전혀 허무맹랑하지 않다. 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자신들이 입학을 희망하는 특목고의 입학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어렵게 인정받아 '특수 목적'의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특화된 교육을 받으며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특목·자사고 입시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들은 중학교 성적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다. 비평준화된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그저 입시를 희망한다는 서류만 작성하면 일명 '뺑뺑이'를 통해 자동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랜덤 배치되기 때문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시는 또 어땠는가. 대학교보다 취업을 더 희망하거나 기술 쪽의 진로를 둔 중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만의 입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다른 학생들과는 또 구분되는 별개의 노력을 했다. 공부와 조금 동떨어진 분야라고 해서 입시가 쉽지는 않았다. 일례로 인천 소재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한 중학교에서 단 한 명이 합격했을 만큼 입시가 치열했고, 면접에서는 합격자의 몇 배수에 달하는 불합격자들이 발생했다. 예체능계에 해당하는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예체능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입학 조건에 맞도록 피나는 노력을 했다. 현재도 중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진학을 위해 중학교에서 서로 다른 삶을 보내고 있고, 이는 노력한 만큼 쟁취하는, 현대 사회의 기본 원리에 단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더 좋은 교육이 제공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면 그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면 된다. 치열한 입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만큼의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는 당연히 그 노력과 비례할 것이다. '공부'와는 다른 방향의 진로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쪽 진로에 적합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면 된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성취하기. 이 기본적인 원리에 틀린 말은 없다.

교육부는 분명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는 각자 다른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노력을 하던 학생들의 앞길을 막는 꼴이 될 수 있다. 교육부가 말한 '맞춤형 교육'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2. 특목고 · 자사고 폐지가 드러낸 공정의 이기성

특목·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측의 근거 중 하나는 '일반고 슬럼화', 다른 말로 '일반고의 황폐화'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대신 특목고나 자사고로 진학하다 보니 일반계 고등학교에 남은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져 공부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근원을 엉뚱한 데에 둔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 애초에 고교 입시 경쟁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특목·자사고를 바라보는 이유를 떠올려보자. 그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한다. 중학교 때부터 상급 학교의 입시 조건에 맞춰 공부하던 학생들이 특목고와 자사고에 모였으니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구체적인 꿈을 갖고 대학 입시를 위해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아붓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고는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비평준화 입시에 한해서 자신들의 성적표가 고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망하면서도 자신의 중학교 성적을 열심히 챙길 수도 있겠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공부환경이 특목고 수준으로 조성될 수는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반고와 특목고는 각각 중학교 때 다른 노력을 한 학생들이 모여 있고 말 그대로 특목고는 '특수 목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런 '특수 목적'의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재학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목고만큼의 공부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일반고가 너무 황폐화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특목고가 특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저 '일반계'고등학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정의 이기성'을 볼 수 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치열한 입시에 일찍부터 뛰어드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특목고 지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끌어내려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게 만드는 것은 '공정함'의 탈을 쓴 이기적인 심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베르너 귀스(Werner Guth)가 1980년대 초에 만들어낸 유명한 실험경제학 실험인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을 생각해보면 특목·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정의 이기성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최후통첩게임에서는 두 명의 참여자가 등장해 돈을 분배한다. 1번 참여자가 돈을 어떻게 분배할지 제안하면, 2번 참여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완전히 거절할 수도 있다. 만약 2번 참여자가 1번 참여자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그 제안에 따라 돈이 분배되지만, 거절할 경우 두 사람 모두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게 된다. 이 게임의 결과에서 1번 참여자가 주어진 돈 중 자신이 더 많은 비율을 가지고 2번 참여자가 더 돈을 적게 받기로 분배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하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고전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2번 참여자는 이 제안을 수용해야만 한다. 1번 참여자보다는 적은 양의 돈을 받더라도 이 제안을 수용해야 자신이 조금이라도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고전경제학과 방향을 달리 한다. 2번 참여자에게 총액의 20% 미만의 금액이 제시될 경우, 대부분의 2번 참여자들은 거절을 선택한다고 한다. 2번 참여자가 아예 아무도 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마치 특목·자사고 폐지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모두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그들이 말하는 '공정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남을 끌어내리는 것, 자신이 무언가를 부족하게 제공받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 이는 사람들을 같은 상태를 누리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마치 평등하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공정'의 탈을 쓴 이기심이다.

물론 최후통첩게임과 특목·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같게 볼 수는 없다. 최후통첩게임에서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돈은 자신이 일한 만큼 번 돈도 아닌 그저 새롭게 얻는 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 고찰할 수 있는 점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듯 보여지는 사람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없는 자'들이 드러내는 이기심이다. 모두의 상태가 균등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불공평함과 질투심을 느낄 수는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을 '공정'이라는 좋은 말로 감싸며 자신들의 이기심을 펼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공정의 이기성'이다.

최근 정부는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받는 혜택이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대입에서의 수시 비율을 줄이고 정시 비율을 크게 확장했다. 어쩌면 이제 특목고 학생들은 정시를 위해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배우는 수능 공부를 하러 사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학교 중심으로 공부를 하며 대입을 준비하던 특목고 학생들이 마치 일반고 학생들처럼 학교 밖의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제 정말 사교육이 팽배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처장과 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전국 대학 입학 관련 처장 협의회'는 최근 정시확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관계자는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늘린다고 대입 제도는 공정해지지 않는다. 사교육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 대통령 발언 직후 사교육 업체의 주식은 폭등했다. 정시확대는 교육적 가치보다 여론만 추종하는 우매한 대입정책이다."라고 정부 정책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모두가 입시를 위해 긴 시간 동안 경쟁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은 공정하지 않은 수단일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은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런데 과연 특목·자사고를 폐지하고, 수시가 특목고 학생들의 것이라며 축소하는 교육부 정책이 우리 사회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잘하는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특목·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교육을 줄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목·자사고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들은 마치 일반고 학생을 특목·자사고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로 보고 있고 특목·자사고 학생들을 마치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해자로 여기고 있다. 선의 경쟁을 통한 상생 대신 무작정 특목고를 끌어내려 같은 줄에 세우려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특목·자사고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걸림돌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과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다른 교육을 받게 된다. 특목고 학생은 학교 특성상 일반고 학생에 비해 더 수준 높은,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의 '차별화된 교육'이 특목·자사고 폐지의 찬성 측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데의 방해요소이다. 그러나 학생별로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교육은 공정을 위한 요소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학교 공부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교사는 그 학생에게 일반 학생들과 다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학생을 가르칠 것이고, 이것도 차별화된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차별화된 교육은 사회의 공정성과 어긋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특목고 폐지에 찬성하는 자들의 이기적인 공정성에 따른다면 이러한 차별화된 교육 또한 폐지되어야 옳다.

다른 나라의 특목·자사고와 비슷한 개념을 가진 학교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영국에서는 579년 전통의 명문 학교 이튼스쿨과 웨스트민스터 두 개 학교에서 명문대학교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입학생 중 50% 정도를 점유하며 현 총리 보리스 존슨도 이튼스쿨이 배출한 20명의 총리 중 한 명이다. 프랑스의 경우 공립 고등학교 교육은 무료이고 일반대학도 무료이다. 그러나 그랑제콜이라는 이름의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비싼 사립고등학교를 가는 게 일반적이다. 프랑스 언론들은 명문대생을 많이 배출한 사립학교 순위를 매기는데 명문 학교는 국가의 리더와 인재들을 길러내는 곳으로 여겨져 국민들은 이에 대해 질투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국가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깨우치지 못해서 이런 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겠는가? 특목·

자사고를 폐지해버리는 것은 진정한 '맞춤형 교육'과 반대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에 가깝다.

다시 한번 묻겠다. 차별화된 교육은 사회가 공정해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가? 특목·자사고 폐지를 통해 공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진짜 '공정한 사회'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심리를 접합한 것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민주화.

장미 대선 이후,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받던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기조였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을 늘리고, 그중 빈곤층의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냈다. 이 카드는 내놓음과 동시에 무수한 논란을 낳았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을 시작으로, 물가 상승, 고용 구조 변화, 자영업자의 위기 등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목표한 계층의 소득 증가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에 반해 정부의 최저임금 시급 만 원의 실현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 증대가 가능하고, 이는 내수 경제 활성화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열쇠라는 주장이 서로 팽팽히 대립했다.

1. 대한민국과 최저임금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勞使)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정의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최저임금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제 32조 제 1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최저임금법'에서 그 구체적 시행 방안을 다루고 있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 공포되고 1988년 실시된 이후 매년 인상되어 왔고, 근 10년간 적게는 3%, 많게는 8%까지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왔다. 그리고 2017년 7월,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10년간 인상 평균치의 10%p 가량 인상되었고, 예년에 비해 1000원 이상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시도였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 옹호론자들의 근거는 단순히 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 유효 수요 창출뿐만이 아니었다.

[표 1] 2014년 ~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연도	최저임금(시급)	전년 대비 인상률
2014년	5,210원	7.2%
2015년	5,580원	7.1%
2016년	6,030원	8.1%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	16.4%
2019년	8,350원	10.9%

인상률이 7~8%대로 유지되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인상을 기준으로 금년까지 10%대 인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소득 불평등 해소와 임금에서의 정의, 즉 다시 말해 ‘경제적인 공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무엇인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노력한 만큼 대우받고, 인정받으며 평가받는 사회일 것이다. 모두가 노동할 권리, 정당한 급여를 받을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이 공정한 사회였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갖는다. 그들의 공정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 ‘공평하고 올바름’이라는 가치였을까? 어쩌면 특정한 이익집단이 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공정이라는 탈을 쓴 건 아니었을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결국 자신의 이익, 즉 임금 상승을 기대했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것은 아니었는가?

경제학 원론을 펴보자.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단적인 예시이다. 고용 시장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하한선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법으로 규정한 제도이다. 시장에서 유효한 가격 하한선이 생겨난다면, 시장 가격에 비해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이 높아지고, 초과 공급과 수요 부족이 발생해 결국 잉여 인력, 다시 말해 실업이 생겨난다. 최저임금 인상 옹호론자들이 말한 사람답게 살 권리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결국 실업에서 살아남은 이들만이 누리는 것이다. 다른 이를 경쟁에서 몰아

내고 남은 몫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공평하고 올바른 가치,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정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결과이며 실제 시장은 불완전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며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표는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다. 먼저 그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의 급한 인상은 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부'를 외쳐온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후 3년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61조 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부었고 2019년의 실업급여는 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 직후 월평균 취업자 증가 수가 2014년의 59.8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7월에는 5천 명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식될 것으로 기대했던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 역시 2019년까지는 완화보다는 심화 추세를 띄고 있다.

2.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공정인가

결국 최저임금은 모두를 위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살아남은 누군가가 실업한 누군가의 몫을 가져갈 뿐이다. 살아남는 자는 누구일까? 비숙련 저소득 노동자일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경력이 있는 교육받은 노동자일까?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가 목표하는 빈곤층의 소득 증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자 공정의 탈을 쓴 채 특정 그룹의 이익과 이기심을 대변하는 도구였다.

과한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공정의 타락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현대 사회에서 과한 이익 추구와 효율 추구 아래 많은 사회적, 공동체적 가치들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고 마침내 타락하고 있다. 각자의 이기심과 이익 추구, 사적인 득을 정당화하기 위해 너무나도 쉽게 이 가치들을 이용한다. 공정의 탈을 쓴 이기심이 바로 그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공정의 실현이라고 부르짖었지만 실상은 타자의 자리를 뺏고 그 몫을 나눠가졌을 뿐이다. 그렇게 이기심은 공정으로 둔갑했다. 공정은 상대적인 가치다. 공정의 상대성은 악용되어 누군가의 이기심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추악함을 가리기 위한 페르소나가 되어버렸다.

최저임금은 결국 이기심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명분과 설득력을 위해 공정이라는 단어를 이용했다. 공정함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누군가의 이기심이 결국 비뚤어진 정책과 결과를 낳은 것이다.

공정의 이기성의 만연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 공정의 이기성은 팽배해 있다.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영화를 배급하는 과정에서 스크린 독점이 발생했을 때 외국 기업들만이 모든 비난을 떠맡는 현상에서 우리는 국내 배급사들이 법의 보호에 따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기심을 엿볼 수 있었다. '과정의 공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정한 공정성을 감춘 채 맞춤형 교육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현 교육 체제와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정'의 탈을 쓰고 있던 이기적인 심리에 대해서도 파헤쳐 보았다. 정부가 말한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실현하지 못한 최저임금제도 공정의 이기성이 나타난 예시 중 하나였다.

공정의 이기성은 상대적 가치인 공정을 남발한 결과였다. 공정의 본질적 원리를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잘못 대입해왔다는 말이다. 특히 이것을 '공정'이라는 말로 좋게 포장해가며 그 진실을 가리던 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여차하면 '공정'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는 지경에 까지 이를 뻔했다. 지금이라도 사회에 만연한 공정의 이기성을 인지하고 공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한국 사회의 많은 부분에 녹아 있는 이기적인 공정성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 정의가 보장될 수 있고 공정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부터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정'을 실현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자기보다 '잘 사는' 듯 보이는 남을 아무 명분 없이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공정과 달리 자유주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 말이다.

公正

轉. 시작의 공정과 과정에서의 공정

轉.
시작의 공정과 과정에서의 공정

독점적 영화 상영에 따른 스크린 쿼터제를 주장하는 그 이면에는 자국 영화인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이 숨어 있었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면에는 특목고를 폐지함으로써 대입을 마주했을 때 이익을 얻을 학생과 학부모의 이기심이 숨어 있었다.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그로 인해 자리를 잃을 타자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이기심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공정으로 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시작의 공정'의 대두

起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르다'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가치가 직접적인 화두로 오른 것은 본격적으로 부의 양극화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1970년대 산업화시대부터 정부는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자본과 기술이 어느 정도 모인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혜택을 주었다. 대표적 조치가 바로 박정희 정부가 1972년 석유파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발표한 8·3 긴급 경제 조치[2)]다. 다양한 불공정하면서도 특권적인 정책들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부가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되며 부의 양극화는 가속화되었고,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않은 노동자 인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계층에 따른 경제적 소외 문제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시작의 공정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를 표방하는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다.

2) 8 · 3 긴급 경제 조치 : 기업들의 막대한 사채를 재구성하여 경제적 특혜를 준 조치였기에 오늘날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문화와 불건전한 경영방식을 통한 무리한 사업확장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대표적 정책 - 상속세 부과 정책

시작의 공정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상속세 부과'다. 상속세란,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동법 제7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3](표 1)은 최대 50%(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시 6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많은 상속세를 내는 상황 속에서 상속세 부과에 찬성하는 옹호론자들은 상속세 부과를 통해 경쟁 출발선의 평등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한다.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편향된 부와 자본을 사회 전반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다. 부과한 상속세를 바탕으로, 사회 기반 시설 및 교육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줄이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보편적 복지를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부과한 결과 진정한 공정이 실현되고 학생 간 교육적 차이는 줄었을까? 그렇지 않다. 상속세는 오히려 계층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권층과 비특권층을 구분하여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 분열이 발생하게 되면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권층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곧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제적 차이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포기하게 된다. 사람들이 아예 노력할 수도 없도록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 단순히 오늘날의 경제적 재분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재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풍토 역시 고려해야 한다.

'시작의 공정'정책의 문제와 '과정에서의 공정'

이처럼 시작의 공정을 표방하는 정책들을 시행하였지만, 여전히 '공정'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최고 상속세율이 한국 65%,일본 55%, 미국과 영국 40%, 독일 30% 등으로 한국이 상속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2] 2019년 상속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1억 원 이하	10%	0원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많은 사람이 시작의 공정에 동의하였지만, 시작의 공정을 완전히 실현하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이익을 얻는다”라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단순 경제 정책 하나로 봉건 사회부터 자본주의 초기까지 끊임없이 발생한 경제적 격차를 그 이전으로 되돌려 모두가 평등한 완전 평등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주의적인 생각일 뿐이다. 만에 하나 모두가 평등한 자본을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시작’에 집중하는 ‘시작의 공정’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로써 사회가 공정해졌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시작의 공정’을 실현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하는 출발선을 맞추는 것이다. 즉, 모두가 똑같은 선상 위에서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달리기를 하는 방법과 달리는 길의 상태는 중요치 않다. 달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행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또한 한 사람이 좋은 트랙을 달릴 때 다른 한 사람이 흙길을 달리든, 시작했던 선이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말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시작의 공정’만으로는 완벽히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시작의 공정에만 집중했던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공정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바로 **‘과정에서의 공정’**이다. 과정의 공정이란 위의 비유를 든다면, 달리기를 하는 방법을 통일하거나 두 사람이 달리는 길을 같게 하여 진정으로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달리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노력을 거듭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과정이 공정하지 않더라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결과가 실제 상황과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결국 공정하지 않음은 물론 사회는 효율적이지 못한 자원의 분배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정을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즉 노력하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그림 2] 과정이 공정할 때 진정한 공정은 실현될 수 있다.

오늘날, 부와 권력을 가진 특권층의 부패와 새치기로 많은 사람이 경쟁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회의를 품고 있다. 특히, 경쟁에서의 부패가 가장 청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4]하며 경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더욱 낮아졌다. 진정한 공정을 실현하려면 시작부터 공정한 것뿐만 아니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해야 한다. 노력의 결과로 어떠한 것이 산출되던, 과정이 공정하였다면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 반박할 수 없다. 과정에서의 부패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 경쟁은 그야말로 '정의로웠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결과는 공정한 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시작의 공정'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공정'이 같이 실현될 때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론과 무지의 베일

역사적으로'과정에서의 공정'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담론이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의 공정은 롤스의 정의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다. 즉, 공정이 실현될 때 사회는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롤스는 완전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원

4)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불공정 사례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지사장이 자신의 조카를 직접 합격시킨 경우, 교육부 산하 경북대병원에서 자격증도 없는 직원의 자녀와 조카를 간호조무사로 채용한 경우, 인천대학교에서 면접날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따로 면접까지 보게 하여 전임교수로 채용한 경우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2017년 1천 200여 개 공공기관을 합동 조사한 결과, 182건이 적발되었다.

초적 입장의 상황을 가정한다. 원초적 입장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이다. 원초적 입장이 가진 본질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특수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② 각각의 개인은 합리적이고 상호 무관심하다.

자신의 특수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며, 이러한 특징은 원초적 입장을 공정하게 만들어 준다. 이 때문에 순수 절차적 정의로서의 공정, 즉 정의라는 말이 성립한다. 결국,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는 공정한 것이 된다. 각각의 개인이 합리적이며 상호 무관심하다는 것은 서로 타인의 이해관계에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무지의 베일의 상황에서는 개개인은 타인에 대한 시기심만으로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무지의 베일 속에서 진정한 공정이 실현된다는 롤스의 주장은 매혹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이다. 현실상에서, 자신의 특수한 경제적, 사회적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가정은 불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실현될 수 있었다면 이미 세상은 공정이 실현되었어야 한다. 롤스의 주장은 단순히 “이러면 좋았을 텐데….”라고 가정하고 상상하는 것이자 정의에 대해 다루는 학자로서 현실에서의 공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롤스의 주장만으로는 절대 현실 세계에서의 공정을 이뤄낼 수 없다.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공정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베일로부터의 탈피와 ‘사회적 담론’의 활성화

현실 세계에서의‘시작의 공정’과‘과정에서의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진정한 공정’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상주의적인 롤스의 이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바탕으로‘공정’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무지의 베일로부터 비롯된다고 여겨지던‘공정’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베일로부터의 탈피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다.

5) 개개인이 타인에 대한 시기심으로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는 최후통첩 게임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만약,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경우, 불공정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가 얻을 이익에 시기심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상대가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협상을 결렬시킨다. 여기서, 롤스가 주장한 무지의 베일이 적용될 때는 단순히 타인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 자신이 얻을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베일 속에서는 자신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획득될 수 있도록만 노력한다. 그렇기에 순수 절차적 정의로서의 공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롤스는 주장했다.

오늘날 경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다른 경제 계층 또는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면하여 계층 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세대 간 의사소통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되듯 계층 간 의사소통이 이뤄져야만 사회적 공정과 규범에 대한 정의를 확립할 수 있다. 직접적인 대면과 담론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시작의 공정'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 '과정에서의 공정'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숙의해야 한다.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의 개념과 실현 방안이 도출되고, 그것이 본래의 취지대로 실천될 때 모두를 위한 공정, 즉 '이타적 공정'이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시작의 공정'과'과정에서의 공정' 중 하나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오늘날까지의 길을 다시 걷는 꼴이 될 것이다. 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내기 위한 적정선은 어디인지 역시 사회적 담론을 통해 규정해야 할 것이다.

公正

結. 공정의 타락

結.
공정의 타락

“공정은 타락했다.”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단적인 예시에선 그러했다. 우리는 오늘 불평등의 홍수와 그를 극복하기 위해 공정에 목메는 세상에 살고 있다. 공동체와 사회에 사는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 존엄한 존재이다.”라는 것 이외에 애초에 절대적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할 수 없었다. 소유의 개념이 생기고 소유의 차이가 생기고 공동체적 동물인 인간은 곧 다름을 알아챘다. 다름은 다름이었다. 하지만 불공정한 다름은 불평등이다. 인간은 언제나 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을 추구하기 위해 싸워왔다. 구제도의 모순과 일방적 착취를 해소하기 위한 시민혁명, 노예제와 인종주의에 대항했던 흑인 운동, 인류 역사상 항상 억압받는 존재였던 여성의 해방. 이 역사 속에서 공정은 말 그대로 ‘공정하고 올바름’ 이었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 이름을 알지 못하는 동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공정을 추구하는 이타적 공정이었다.

그러나 다시 말한다. **오늘날 공정은 타락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정의 상대성 때문이다. 공정의 상대성은 아름다움의 상대성만큼이나 당연하다.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각자의 이해가 있으며, 각자의 올바름이 있으므로 결국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공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네가 생각하는 공정과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공동체에는 수많은 올바름과 수많은 공정에 대한 정의가 자신이 바로 진정한 정의라고 외치게 된다. 많은 사람은 이 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기심을 공정이라는 정당함과 고결한 것으로 포장하는 추악한 짓을 자행해왔다.

앞서 설명했듯이, 스크린 쿼터제는 국내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해외 영화의 유입을 제한하고, 상영일수를 조절하는 제도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와 많은 사람에게 정당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스크린 쿼터제는 공정을 가정한 악랄한 제도이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무능한 배급사들이 이 제도의 최대수혜자이다. 마땅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상영관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영화 관련 전문가들은 스크린쿼터제가 다양한 제작사와 배급사, 그리고 극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사익을 챙기는 개인들에 의해 오염되었을 뿐이다.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있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의 뒤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얻을 이익에 대한 이기심과 이를 공정으로 포장한 위선이 있었다. 최저임금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답게 살 권리' 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밀려난 타자의 몫을 살아남은 이들이 나누어 가진 것뿐, 공정하고 올바른 가치의 실현보다는 나의 이익의 증대를 추구하는 이기심이었다. 그렇게 이기심은 경제에서 공정으로 둔갑했고, 결국 비뚤어진 정책과 결과를 낳은 것이다.

'공정'의 탈을 쓴 이기적인 심리는 교육에서도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목·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 뒤에는 공정의 이기성이 숨어있었다. 우리는 이기적인 가짜 '공정'을 따르다가 진정한 공정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멀리 나아갈 뻔했다.

가짜 공정이 판치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공정' 들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 비판적 사고방식이다. 끊임없는 사고와 고찰, 의심과 의문이 필요하다. 타락한 공정은 무엇인가? 공정의 탈을 쓴 다른 무언가는 아닌가? 공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공정의 본질에는 자기희생과 이타심이 있다. 개인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써의 공정과 '공평하고 올바름',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정을 구분해주는 잣대는 바로 그것이다. 스포츠 경기 중 상대 팀의 반칙에 불공정을 외치며 비난하는 것과 본인의 팀에서 반칙했을 때, 비록 상대 팀이 보지 못했더라도 공정한 경기를 위해 반칙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비교해보자. 전자의 경우 공정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띤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 이것이 바로 자기희생적인 태도이며 이타적인, 정말로 공정을 추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정이 옳은 가치로써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라 그것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

공정의 본질이 자기희생과 이타심에 있다면, 공정의 원초적인 성질은 바로 '공정이란 미덕이 내재하여 있는 행위의 동기 자체'로부터 발현된다. 18세기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정언

명령, 즉 조건 없는 선한 동기로부터 비롯된 행위야말로 선의 본질'이라 주장하였다. 칸트의 도덕 원칙은 '공정'이라는 윤리적 가치에도 같게 적용된다. 사회적 선의 영위라는 숭고하고도 '순수한' 목적하에서 공정은 그 윤리적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와 사익에 뒤얽힌 상태로 발현되는 공정은 가시적으로는 '정의와 공평'을 주장하는 듯하나, 그 이면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의 내재적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원칙으로 논증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 볼 때, 이 책의 전반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규탄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미덕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모든 윤리적 강령은 공정에 근거하고 있다. 인류 전반의 인격 회복을 위해 생명을 걸고 궐기했던 시민혁명의 뜨거운 함성,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라 외치며 노동자의 별이 되었던 전태일, '정의롭고 공평한' 국가를 재건한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거리로 나선 민주화 열사들의 투쟁에 담겨 있는 숭고한 공정의 본질을 이기심에 근거한 행동이라 폄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정의 공정'을 추구하고 이타심과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공정'을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적인 무지의 베일이 아니다. 베일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최초의 민주주의가 태동했던 때처럼 담론과 대화, 의사소통 그리고 상호 이해를 통해 공정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함께 고민하고, 끊임없는 토론과 사유를 통해 우리는 진보해야 한다. 개인의 성찰과 공정을 구분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담론을 형성해 사회의 의사소통이 이뤄질 때, 우리는 공정의 이기성에 속지 않고 진정한 공정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의 의미에 대해 재고해보자. 公正, 즉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단순히 공평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공정'을 위한 길인가? 시작의 조건이 같을 때 사회적 선(올바름)이 실현되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철학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대답은 '그렇지만은 않다'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사회는 和의 사회이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和合을 도모하며,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지 아니하고 和解의 태동을 조성하는 사회,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중용의 미덕을 수호할 수 있는 和睦한 사회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이상향이 아닐까.

公正이 供正의 본질을 회복하며 자신을 비우고 타자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기적(利己的) 공정성 너머의 본질적 공정성을 함양한 '인간다운 사회'에 위치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리라.

수저계급론을 통해 바라본 사회의 불공정

10109 박세정 10110 박수빈 10111 성승은
10115 조유정 10118 박상원 10119 박수석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요즘 젊은 세대의 큰 공감을 얻는 말은 ‘흙수저'와 ‘금수저'를 구분짓는 ‘수저계급론'이다. 많은 연령대를 아우르며 공감대를 사고 있는 수저계급론은 가난의 악순환과 극복할 수 없는 사회의 불평등을 고발하는 요즘 세대의 자조적인 신조어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표되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 사회 빈곤층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꼬집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은 꽤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다. 일부 기성세대는 혹독한 생활환경에서도 가정을 일으킨 이들, 힘든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일류 대학에 들어간 이들 등을 예시로 들며 현 사회 속 존재하는 카스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청년세대의 한탄을 단순한 ‘투정'으로만 받아들이며 오히려 상대에게 조언을 빙자한 핀잔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한국 사회는 2015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계급사회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단 2명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빈곤탈출율은 22.6%로 한국의 낮은 사회적 이동성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들에 의하면 많은 이들이 ‘금수저'라고 칭해지는 이들과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 앞에 무력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한다. 청년세대는 어느 순간 너머로부터는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포기하며, 도피한다.

수저계급론은 단순한 SNS상의 유머가 아니다. 정립된 이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양상을 그대로 시사하고 있기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가며 현재까지도 많이 쓰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수저계급론을 유머로만 소비할 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논의보다는 자기계발을 중시해야한다는 원론적 얘기만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성공에 있어서 특권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저계급론이 시사하는 사회의 불공정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불공정한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마련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가. 수저계급론이 나타내는 불공정 사례 탐구

금수저와 흙수저는 삶의 양상이 다르다. 경제적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수저가 가지는 특권과 흙수저가 가지는 기회의 불공정은 두 계층의 삶의 수준의 격차를 더욱 넓히며 갈등과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삶의 양상을 비교해보며 그들의 삶 속 어떤 요소가 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나. 수저계급론이 팽배한 현실에 대한 고찰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그것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계층이동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고, 자신을 '흙수저'로 칭하는 사람들의 경우 오히려 이러한 자학적이고 자조적인 단어의 사용이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의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등 용어 사용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악영향도 있다.

사회가 단어를 만들고 단어는 다시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흐름 속에서 수저계급론이라는 새로운 사회용어를 통해 뿌리 깊이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다. 수저계급론이 시사하는 사회 불공정 해결방안 마련

아직까지는 불공정한 사회의 계층을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수저계급론을 사회의 불평등을 시사하는 단어로서, 단순히 개인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수저계급론이 나타내고 있는 불공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인 우리가 참여하여 불공정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수저계급론 정의

위키백과에 따르면 수저계급론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수저계급론은 경제적인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다이아몬드 수저에서 흙수저로 나눈다. 그 경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Ⅱ-1〉 수저계급론 기준

수저 등급	상위	자산	가구 연수입
다이아수저	0.1% 이내	30억원 이상	3억 원 이상
금수저	1% 이내	20억원 이상	2억 원 이상
은수저	3% 이내	10억원 이상	8,000만원 이상
동수저	7.5% 내외	5억원 이상	5,500만원 이상
흙수저	7.5% 이외	50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2. 수저계급론 기원 및 어원

수저계급론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라는 유명한 영문 관용구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행운을 쥐고 태어나다.’라는 본 의미를 벗어나 현재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더욱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지위까지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본래 유럽에서는 은수저와 은그릇이 부를 상징하며 개개인을 분류하는 범주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왕의 음식을 확인하는 데에 은수저를 사용하는 등 유럽과 비슷한 관점이 존재하였고 이를 통해 계급을 나타낸다는 상징성이 점차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스포츠 대회에서 금은동이 서열화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면서 점차 부의 상징이 은에서부터 금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행운을 쥐고 태어나다.’라는 본 의미를 벗어나 현재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더욱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지위까지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수저계급론을 접근법으로 설정하고 이 수저계급론이 팽배한 현실을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의 형식을 이용하였다.

1. 연구 대상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 사회에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SNS와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저계급론이 모습을 연구하였다. 우선, 수저계급론에 대한 비판과 옹호의 관점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연구하였다. 대중들의 이용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선정하여 수저계급론에 따른 게시물들을 본 연구자들이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2. 데이터 수집

이 과정에서의 자료 수집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다음, 구글이 3개의 사이트를 통해 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여러 차례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들은 1. 수저계급론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기원, 정의, 수저 계급론 기준), 수저계급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 수저계급론이 팽배한 현실에 대한 고찰, 사설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저계급론이 왜 한국 사회에서 더 화제가 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사례(금, 흙수저들의 삶)들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연구의 진행을 도왔다.

3. 데이터 분석

위에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 수집 방법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연구자들의 연구와 분석을 하였다. 수저계급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통해 우선 수저계급론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잘못된 개념을 정정하였다. 더불어 수저계급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자료를 통해 수저계급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연구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대중들의 반응을 연구하고 현실 사회에서의 수저계급론에 대한 사설과 기사들을 연구하여 현실에서의 수저계급론에 대한 파급력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 수집을 통해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의 금수저와 흙수저의 기준을 심층 분석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현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수저계급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내에 있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정의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저계급론이 팽배해져있는 현실에 대한 사례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사전적 정의로 수저계급론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수저계급론은 경제적인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다이아몬드 수저에서 흙수저로 나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주관적이며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준이 아니기에 참고 정도의 자료의 그친다.

1. 수저계급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

이 수저계급론에 대하여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로는 수저계급론이 당연한 것이며 문제가 없고, 순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의 국제사회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시대이기에 낳아 놓고는 제대로 못 기른 죄를 저지른 부모는 대책도 없이 태어나 아무 잘못도 없이 남들보다 한참 뒤의 출발선에 서게 된 자식에게 무한대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수저계급의 원인을 부모의 무책임으로 드는 것이다. 또한 출발선이 어떻든 노력 없이는 성공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수저계급론에 대한 순응을 주장한다.

둘째로는 수저계급론은 사회가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수저계급론을 나누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수저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수저로 보이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둘째로는 수저계급론이 금수저에 대한 비판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 잘 만나서 인생 핀 놈' 등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이 금수저를 죄인 마냥 몰아붙이거나 그들의 노력이 폄하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마지막으로는 수저계급론에 의해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한 소득 차이에 의한 기회의 불공정이 생긴다는 점을 비판한다. 서로를 소득에 의해 수저계급론과 같이 계급을 나누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소득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까지 사회에 퍼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2. 수저계급론이 팽배한 현실에 대한 고찰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바라본 뒤 정말 수저계급론에 대한 순응만이 답인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내린 결론은 ‘아니다’였다. 수저계급론이 팽배해지며 점점 사용되는 빈

도수가 높아지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일만이 늘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매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저계급론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1) 자료 1

중앙일보 : 농담인데 불편하네 ‘수저 계급론’

다음은 중앙일보의 뉴스 기사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조혜경(2105)에 따르면

> “ 한우는 육질에 따라 1++부터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소고기가 아니라 사람에게도 저런 등급이 매겨진다면 어떨까요. 요즘 청춘 세대 사이에 ‘인간 등급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저계급론.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등으로 나누는 겁니다. 수저론은 인터넷에서 놀이처럼 번지고 있지만 그냥 웃어넘길 수 없습니다. 여기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감이 투영돼 있기 때문입니다. ”

자료 1에서는 사람들을 ‘수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계급화하는 현상 자체를 비판한다. 더불어, 수저론이라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급격하게 퍼진 한국 사회에 대한 관찰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수저론이 고용난이 심해지고 있는 현대의 사회를 향한 젊은 세대의 반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2) 자료 2

- 금수저와 흙수저를 구분하는 빙고 게임

다음 사진은 인터넷과 SNS 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금수저, 흙수저 빙고이다. 한국일보(2015)에 따르면

- 빙고 사용 방법 : 각 칸에는 구체적인 '흙수저', '금수저''로서의 조건이 쓰여 있다. 많이 해당할수록 각각의 빙고판에 따라 금수저, 흙수저에 가깝다. 위의 자료에서는 그 기준을 7개로 설정해놓았다.

- 빙고 판의 구성: 이 빙고판에도 기준이 있다.

가) 숫자로 기록할 수 있는 재산이다.

가계부채나 월셋집인지 전셋집인지를 묻는다. 차는 몇 년 된 건지, TV는 몇 인치 짜리인지가 기준이 된다.

나) 양적 지표가 아니라 생활 지표다.

소비 습관이나 집안 분위기를 따진다. 유행이 지난 옷을 꾸역꾸역 옷장에 쟁여둔다거나, 음식 남기지 말라고 잔소리를 듣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다) 부모님에 대한 기준이 있다.

부모가 너무 자식 교육에 집착하거나 본인들의 취미가 없다면 흙수저이다.

-빙고 판에 대한 의문점 : 취미를 가질 새도 없이 부모가 일을 하고, 아이 교육에 등골을 뽑아 쏟고, 집에 빚도 있고, 여름에 전기세 걱정하며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집이 과연 흙수저 집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보통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다. 즉, 중산층과 하위층의 구분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는 주장도 있다. 빚도 재산이라고 겉만 그럴싸한 집들이 쌔고 쌨고,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상태가 모두의 가정에서 볼 수 있다.

능력도 아니고, 학벌도 아닌, 원래 집에 가진 게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금, 은, 동, 흙의 계급을 나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 없었던 계급사회랑 비슷하다. 교육이나 개인 능력으로도 천장 뚫고 못 올라가는 사회. 그런 사회를 그려두고 사람들이 자조한다. 예전엔 위협받지 않던 영역까지 위협받는다. 청년들이 나이 들수록 더 각박해질 사회라서 금수저 빼곤 다 불안하다. 금수저만 에어백 있고, 다들 맨몸이다. 청년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 결국 금수저가 아니면 안 되는게 아닌가. 노력 따윈 상관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말이다

위의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금수저와 나머지 수저들의 차이가 커져간다는 것이다. 금수저를 바라보는 나머지 사람들의 눈에는 금수저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3) 자료 3

- [온스타일] 수저계급론, 도대체 왜! 누가! 만든거야? (ㅂㄷㅂㄷ)

“수저게임의 창시자이자 월간잉여 편집장인 최서윤씨는 요런 의견도 냈어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가 더 불행해" 라는 불행배틀이 되어버리거나, "부자는 비난해도 괜찮아"라는 자조적인 방식으로 표출된다는 점은 부정적인 부분일 수 있다고!“

위의 자료에서는 ‘수저’ 계급 간의 이질감으로 인한 문제를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환경에 대한 ‘불행’이라는 인식이 커져가며 그 부작용으로 행복이 아닌 불행을 남들에게 더 내세우는 사회가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 자료들을 통해 바라본 현재 사회

위의 자료들을 통해 수저계급론은 이제 우리의 사회에 깊게 파고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심지어 자신을 흙수저라고 지칭하며 계급 성장의 희망을 버리기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언제부터 사회에 의문과 비판을 던지던 수저계급론이 우리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되었을까. 이는 사회의 구조가 심각한 불평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수저계급론의 사례

1) 금수저 인물 조사

“나무위키, 네이버 검색을 통한 금수저 인물 참고”에 따르면

① 조현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하기시키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갑질을 한 적이 있다.

② 정유라

최순실의 딸이다. 이화여대 특혜 의혹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처절히 은폐해왔던 비선 실세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돈도 실력이라는 글을 쓰기도 하며 흙수저를 무시하기도했다.

③ 노엘(장용준)

래퍼 노엘은 과거 성매매 의혹과 각종 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금품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려고 했다. 피해 운전자에게 아버지 장제원의 이름을 말하며 1000만원으로 반강제적 합의를 시도하며 자신의 금수저라는 지위를 악용하려 했다.

2) 입시에서의 흙수저와 금수저

한겨레 신문 “죽음의 헥사곤 전형, 흙수저 학생엔 더 가혹했다”에 따르면

현행 학종은 ‘죽음의 헥사곤’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다. 결국 부모, 사교육, 학교 등의 조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고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이른바 ‘흙수저 학생’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 해결방안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들을 제안해보았다.

첫째는 공기업 DSI (Develop Supporting Institution) 설립이다.

공기업을 설립하여 목표와 비전은 희망의 메시지 전달, 성장의 발판 마련 및 진정한 노력에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노력을 해도 쉽게 계층 이동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술과 학문에 관련된 세분화된 활동을 육성하고 훈련한다. 이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며 더불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산출물은 판매하여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다.

둘째는 자선 단체 RTH 추진 (Run To Hope)이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며 달려가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RTH라는 자선 단체를 추진하고 구성함으로써 우리도 직접적으로 해결점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까지 계획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가 초청 강연 (단, 힘든 환경에서 잘 성장한 사람)

경제적 한계가 있는 사람들은 강연이나 강의와 같은 좋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부족하다. 힘든 환경에서 버티고 잘 성장하여 목표를 이룬 인물들을 초청해 힘든 사람들을 위한 강연을 진행하는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고된 환경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정보를 통해 그들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알려주는 강연은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가. 난새 캠페인 활동 진행

① 난새 : 한껏 날아오르는 새

② 희망 수저 나무 제작, 용어 사전 만들기 대회, 유리 수저 꾸미기 대회

③ 그들의 노력을 북돋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음

등 이와같은 해결방안을 토대로 사회적 불공정을 줄여나가며 수저계급론이 팽배한 현실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과 사회적 맥락을 살펴봤을 때, 수저계급론의 등장과 확산은 힘든 경제적 굴레에서 노력을 해도 벗어나기 힘든 불공정한 사회 구조에 대한 간접적인 접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흙수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학적인 선언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일정한 프레임에 가둠으로써 더 큰 성장을 저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을 중점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해결방안에는 첫 번째, 공기업 DSI (Develop Supporting Institution)을 설립하여 기술, 학문과 같은 분야에서의 체험을 제공하고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판매를 통해 공기업을 운영하는 자금으로 뒷받침될 예정이고 그들에게 진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선 단체 RTH (Run To Hope)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두 가지 정도의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하나는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인데, 여기서 전문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목표를 잘 이루어낸 인물로 국한한다. 일반적인 전문가 강연은 가격이 싸지 않고 자리도 수요에 비해 희소해서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앞서 국한한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그들만을 위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라 접할 기회도 많을 것이다. 이 강연을 통해 어떤 노력을 구

체적으로 실행하면 좋을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난새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난새란 한껏 날아오르는 새로 그들이 힘껏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을 의미한다. 추진하려는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희망 수저 나무 제작, 용어 사전 만들기 대회, 유리 수저 꾸미기 대회가 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사회의 뿌리에 깊이 박혀있는 진정한 불공정을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수저계급론의 확산도 어느 정도는 저지하고 새로운 인식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나무위키, “네이버 검색을 통한 금수저 인물 참고”
온스타인, 2017.8.1. “수저계급론, 도대체 왜! 누가! 만든거야? (ㅂㄷㅂㄷ)” , 〈1boon〉
썸머, 2015.07.3., '흙수저 빙고게임'을 아시나요, 〈한국일보〉
위키백과, 수저계급론
조혜경·윤정민·박병현. 2015.10.28. “농담인데 불편하네, 수저 계급론”, 〈중앙일보〉
진명선, 2016-03-16, “죽음의 헥사곤 전형, 흙수저 학생엔 더 가혹했다” 〈한겨레〉
희씨, 2017. 11. 10. "수저계급론 : 한국 사회 불평등에 대한 담론", 〈BERKELEY OPINION〉

| 연극대본 |

검은 화면에 배경화면 오페라
"Some folks are born silver spoon in hand."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를 들고 나오지."
-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 《Fortunate Son》중(1969)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제시 (임팩트 있게)

곧이어 들리는 오페라의 하이라이트
등용문 그림이 벽에 붙어있다.

S#1
흙: (나레이션)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옛말이다.
(벽에 붙은 등용문 그림을 거칠게 뜯어버린다. 찢어져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뜯은 그림을 무력하게 꾸겨 던져 버리고 이를 지나쳐 걸어나온다. 이를 따라가는 카메라.) (억울하게, 약간 분에 찬 듯) 아무리 노력해봤자, 지금은 개천에서 지렁이만 나오는 시대인 걸 어쩌라고.
(흙수저는 문을 연 뒤 그 자리에서 멈추고, 카메라는 주위 동료와 즐겁게 서 있는, 약간 뻐기는 듯한 금수저에게로 초점을 옮긴다.)
흙: 나는 흙수저고, 쟤는 망할 금수저다.

오페라 배경음악 페이드아웃
검은 화면

S#2
흙: (나레이션) (흙수저가 집 바닥 한가운데에 멍하니 앉아 있다.) 나는 부족한 상황을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집구석에 곰팡이가 슬어도, 매 여름을 에어컨 하나 없이 보내도, 나는 그냥 당연하게 살아왔다.

S#3
(핸드폰에 열중하는 모습)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중고나라를 들락거리고, 최저가를 찾는 데만 몇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당연했다. 아니, 사실은 갖고 싶은 것이 생겨도 포기하는 쪽이 내게는 더 당연했다.

S#4

금: (나레이션) (흙수저와 똑같은 구도로 집 바닥 한가운데에 앉아있으나, 책을 펴 읽고 있다.) 나는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어릴 때부터 책장에는 항상 책이 가득하고, 내가 원하는 장난감은 무엇이든 살 수 있었다. 나이를 몇 살 더 먹어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원하는 걸 사는 데 우리 집안 사정을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매우 당연했다.

공부하는 금수저의 등 뒤에서 등장한 부모님. 금수저를 독려하고 있다.

금: (나레이션)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 주신다. 나는 언제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흙수저는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다. 금수저의 밝은 분위기와는 달리 지금은 늦은 밤이다.
흙수저는 시계를 한 번 보고 그대로 힘없이 소파에 누워 눈을 감는다.
TV 불빛(노트북 불빛 등으로 대체. 불빛이 보이게끔?)만이 그 모습을 희미하게 밝힌다.

흙: (나레이션)...그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늦게까지 맞벌이를 하셨다.

금수저, 깨끗하고 정돈된 교실에서 학구열 넘치는 모습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금: (나레이션) 나는 좋은 고등학교에 다녔다. 학비가 다른 일반고에 비해 좀 비싸더라도, 학교 시설은 훌륭했으며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와서 인사한다.) 선생님은 열정이 가득하시고 친구들도 학구열이 넘쳤다.

흙수저, 너저분한 교실 속에서 의욕 없는 듯 팔꿈치로 머리를 기대고 있다.
시끄럽게 떠들며 장난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카메라 초점도 거기에 맞춰진다.

흙: (나레이션) 나는 꼴통 학교에 다녔다. 의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선생님들 아래 학생들도 미래에 대한 의욕을 잃어갔다. 그러니 부모님이 내게 건 기대도 크지 않았다. 공부에는 뜻이 없는 애들 사이에서 어쩌다 반 3등 정도 했을 뿐인데...

흙수저,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내민다.

부모님: (호들갑을 떨며) 3등? 이야~~ 잘했네.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전교 1등도 하겠는데?
흙: (멋쩍고 약간 귀찮은 듯 웃어 넘긴다.) 아니, 뭐...
부모님: 우리 아들/딸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면 참... 좋겠다. (흙의 두 손을 부여잡고 쓰다듬는다. 흙, 그런 부모님의 행동이 기쁘면서도 부담스럽다. 여전히 멋쩍게 웃으며 시선을 피한다.) 공부만 잘해도 인생 역전할 수 있는데. 우리 딸/아들 잘할 수 있지?
흙: 네...

금수저, 부모님에게 성적표를 내민다.

금의 부모님: 반에서 3등이라고? 큰일이네. 과외 선생님이라도 모셔야 하나...

금: 대학 생활을 한 지도 벌써 몇 해를 넘겼다. (강의실에 앉아 인사하는 동기의 인사를 받아주고, 동기에게 잠깐 자료를 보여주며 함께 의논한다. 짧게 의논을 마치고 다시 공부에 열중한다.) 동아리 활동으로 쉴 틈이 없었지만, 취업을 위해 자격증과 영어 인증 시험 준비도 부지런히 하는 중이다. 어학연수도 이미 두 번이나 갔다 왔다.
취업을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노력해서 대기업에 입사하고 자리를 잡아가면 부모님만큼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삶의 무게는 무겁지만은 않은 것 같다.

자막으로 "5년 후"
금수저의 최연소 과장 취임식이 열림.
새로운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취임 소감을 발표하는 금수저.

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제가 불평 없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죠.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나 재수 없어 보여야 함) 무상복지니 뭐니 하는 것들은 배부른 소리 아닐까요? 전 아무것도 거저 이룬 게 없거든요.
꿈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은 열정과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흙수저, 같은 장소에서 알바로 컵을 나르고 있다. (청소를 하고 있다.)

흙: (나레이션,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흙, 금수저의 말이 들리지 않는듯 완전히 무시하고 일만 한다.) 배부른 소리는 무슨 개뿔이... 열정이고 꿈이고 뭐고 무기력할 뿐이다. 노력하면 뭐해, 사회가 받아주길 하나? 애초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저놈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나는 출발선부터가 다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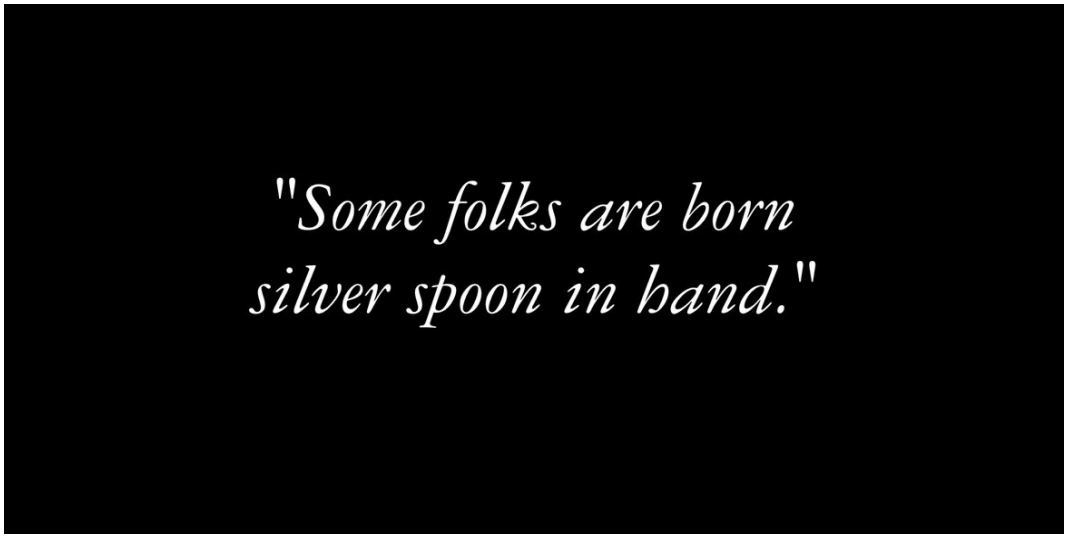
(상반되는 관점 제시) ++(대사가 아닌 화면, 연기만 제시) (같은 장면 안에 금수저와 흙수저가 공존) (오묘한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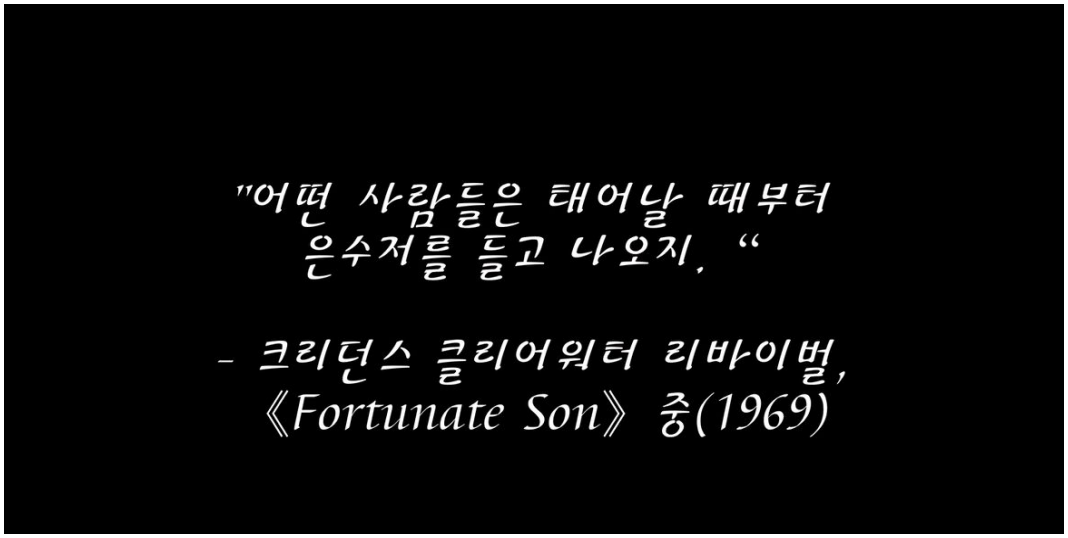
금수저의 책상을 닦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리는 유정, 컵을 줍기 위해 무릎을 꿇은 흙수저.

좋은 의자에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앉아있는 금수저(약간 거만해보여야 함. 너무 거만하면 또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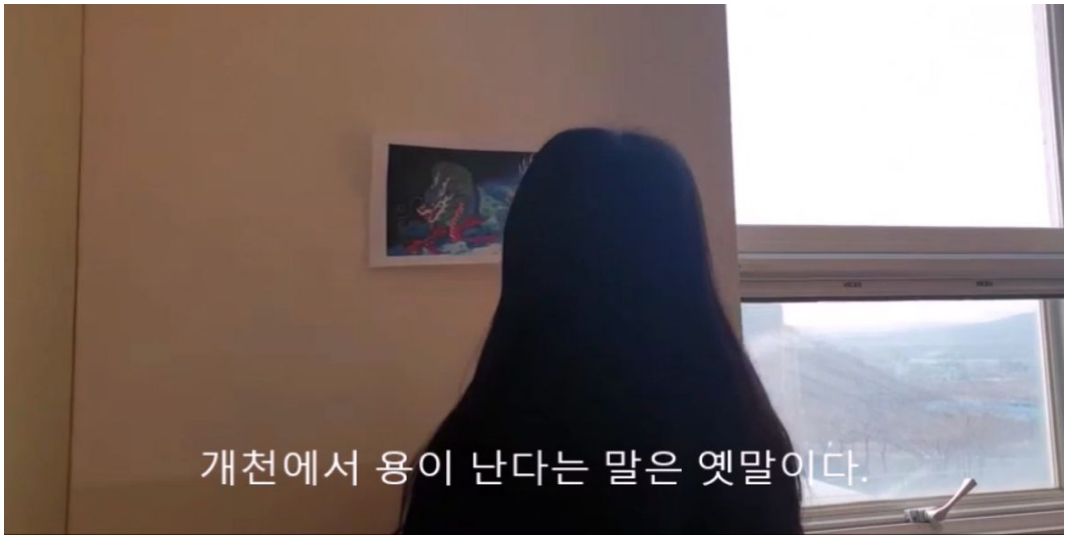
둘이 한동안 눈을 마주치고 있는 상태로 끝나는, 오묘한 마무리

| 연극(동영상) |


"Some folks are born
silver spoon in hand."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를 들고 나오지. "
-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
《Fortunate Son》 중(1969)

집구석에 곰팡이가 슬어도, 매 여름을 에어컨 하나
없이 보내도, 나는 그냥 당연하게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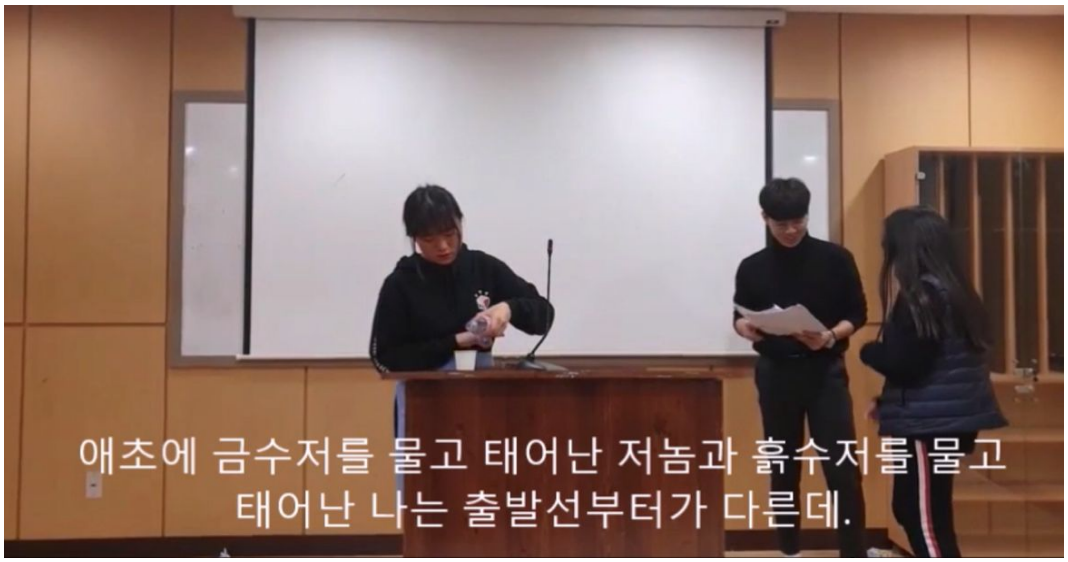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옛말이다.

어릴 때부터 책장에는 항상 책이 가득하고,
내가 원하는 장난감은 무엇이든 살 수 있었다.

나는 좋은 고등학교에 다녔다.
학비가 다른 일반고에 비해 좀 비싸더라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제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입니다.

배부른 소리는 무슨 개뿔이... 열정이고 꿈이고 뭐고 무기
력할 뿐이다. 노력하면 뭐해, 사회가 받아주길 하나?


애초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저놈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나는 출발선부터가 다른데.

문화예술 활동 이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사운드 드라마를 중심으로-

10401 김미소, 10410 장혜주, 10417 권근모
10419 김현호, 10421 유시우, 10423 정은준

Ⅰ. 서론

1. 문제 서술

가) 문화 활동에 있어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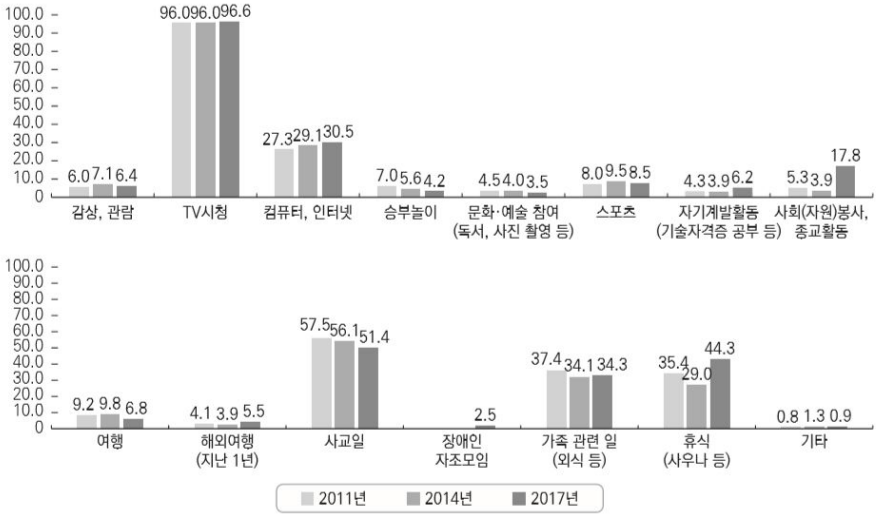
문화적 접근도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 접근도와 이용도에 관해 격차가 생기는 현상을 문화 격차라고 정의한다.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는 빈곤으로 인한 문화비 지출 여유 부족, 생업으로 인한 여가시간 부족이 있으며 지리적 요인에는 물리적 거리, 낮은 인구밀도로 인한 문화 재원 투여 미흡이 있다. 신체적 요인으로는 신체적 장애가 있으며 사회적 요인에는 적절한 문화콘텐츠 부재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여러 요인 중 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문화 접근도와 이용도의 차이에 중점을 맞추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장애인 문화권은 장애인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장애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 제4조 1항 제1호에 따르면 장애인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장애를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원활한 문화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문화권 확보를 위한 공공정책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에서 문화환경 정비, 문화예술 활동 차별금지, 문화 소외계층 문화예술 복지 증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문화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역시 미흡하다. 장애인들이 문화를 누리는 데 있어 가장 부족한 것은 공연장, 영화관. 복합 문화공간 등에서의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 확보에 필요한 AD(음성해설/화면해설), CAP(폐쇄자막) 서비스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르면 현재는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방송에 한정하고 있고,

문화, 예술 활동에는 보조 인력과 보조장비 제공 등의 소극적인 차별금지만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4조 1항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이야기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게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권리만 명시할 뿐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는 마련되어있지 않을뿐더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한다.

나) 문제 현황

그림 3. 장애인의 지난 1주간의 문화·여가활동(2011년, 2014년, 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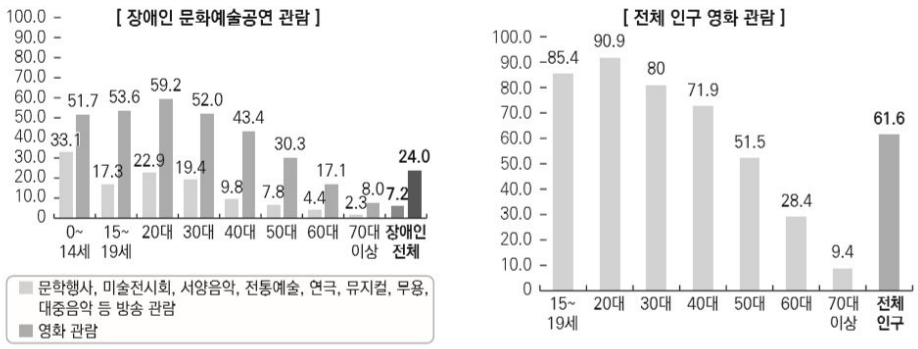


주: 중복 응답.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에 따르면 문화와 여가활동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벽을 없애기 위해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영화 상영 등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다른 국민과 비교하여 적극적이지 않은 소극적인 활동에 그친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며 문화, 예술 공연 관람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4. 지난 1년 동안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 및 영화 관람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2018. 9. 4. 인출.

(출처:보건복지포럼)

지난 1주일 동안의 여가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 중 텔레비전 시청을 한 경우는 96.6%, 컴퓨터를 비롯한 인터넷 사용은 30.5%, 사우나 등의 휴식을 취한 경우는 44.3%을 기록했다. 또한, 친구나 친척을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는 등 사교일정을 가진 비율은 51.4%, 가족과 관련된 외식 등에 참여한 경우는 34.3%을 기록했다. 사회활동을 비롯한 종교 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17.8%였으며, 스포츠활동을 한 비율은 8.5%에 그쳤다. 또한, 영화·연극을 관람한 경우는 6.4%를 기록했다.

장애인 중 지난 1년간 영화관람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4.0%를 기록했으며, 영화 이외의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한 사람은 7.2%로, 전 국민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영화관람 비율인 61.6%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화 체육관광부, 2016).

표 12.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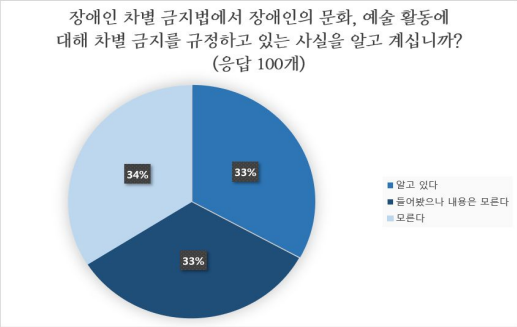
(단위: %)

	외부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 기관장애	전체 장애인
	지체·뇌병변·안면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	발달장애 (지적·자폐성)	정신장애		
매우 만족한다	3.3	5.6	4.7	4.3	3.4	4.0
약간 만족한다	44.4	47.8	48.6	40.8	43.6	45.3
약간 불만이다	39.2	38.3	32.8	43.3	38.1	38.5
매우 불만이다	13.1	8.3	13.9	11.6	14.9	1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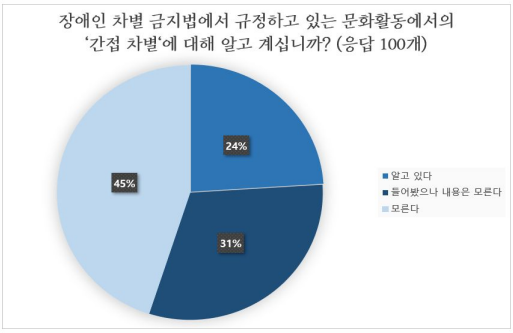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함.

(출처: 보건복지포럼)

문화·여가활동에 관해서 장애인의 49.3%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50.7%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절반 이상이 불만족에 답했지만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42.9%의 수치를 보인 것과 비교하여 만족 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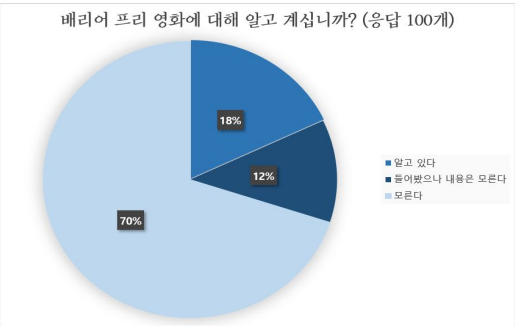


[도표 1: 문화 활동에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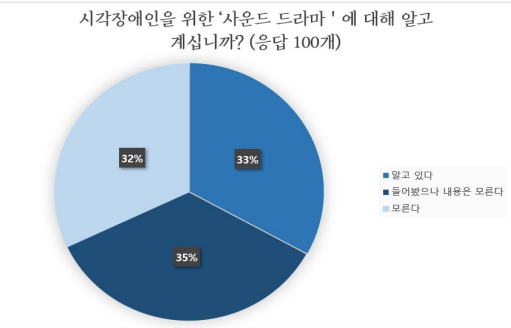


[도표 2: 문화 활동에서의 간접차별 인식]

다음 도표는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문화, 예술 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 인식 조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첫 번째 질문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해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였다. 이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33%, 들어봤으나 내용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3%,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4%였다. 즉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비율이 총 67%를 기록한 것인데, 이를 통해 인천국제고 1학년 학생의 대부분은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 활동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 활동에서의 간접차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였다. 이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이 24%, 들어봤으나 내용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1%,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45%였다. 이를 통해 총 76%가 간접차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표 3: 사운드 드라마에 대한 인식]



[도표 4: 배리어 프리 영화에 대한 인식]

세 번째 질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에 계십니까?'였다. 이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33%, 들어봤으나 내용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5%,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2%였다. 즉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비율이 67%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고 1학년 학생 대부분은 사운드 드라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질문은 '베리어프리 영화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율은 18%, 들어봤으나 내용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12% 기록했다. 이 질문 역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비율은 82%를 기록했다. 따라서 학생들은 베리어프리 영화에 대해 사운드 드라마 보다 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고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1학년 학생들의 대부분은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 활동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간접차별에 대한 내용 역시 정확히 숙지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고 학생들이 베리어프리 영화와 사운드 드라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을 통해 인천국제고 학생들은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시설의 존재 여부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Ⅱ. 선정이유

한국사회가 수많은 불평등을 극복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개념인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느낄 수 있다"를 넘어서는 문화생활, 여가생활의 활성화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 역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시청각 장애인이다.

흔히 장애인들의 문화 소외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여기서 문화 소외란 문화적 영역에서 배제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대표적인 문화생활 중 하나인 영화를 예로 들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는 1,627편이지만 그 중 배리어프리 영화는 단 29편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배리어프리 영화(Barrier Free Films)란 기존의 영화에 화면해설과 대사, 음악, 음향 등의 소리 정보가 포함된 자막을 추가하고 더빙을 하는 등,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영화를 뜻한다. 시청각 장애인은 그들의 선천적인 신체적 특정 때문에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아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처:kpcsports)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83.3%가 1년에 영화를 한 편도 보지 못한다고 한다. 시각장애인의 상황 또한(81.7%) 비슷하다. 이처럼 문화 소외가 심각한 편에 속하는 시청각 장애인들은 문화생활을 할 때 큰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따라 영화 산업에서의 문화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최근 한 판결 중 2019년 12월경, 시청각 장애인 4명은 지난 2016년,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대형 영화관을 상대로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승소하였다. 영화관 측은 비용 부분에서 큰 부담을 차지한다는 의견을 내세워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장애인도 차별 없이 영화를 보고 싶다는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형 복합영화관의 장애인 관람데이는 시간과 영화 종류가 제한적이다. 화요일 19시대, 목요일 14시대, 토요일 10시대의 영화만을 관람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시간에 맞춰서 영화를 관람해야 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 다른 때에는 영화를 감상할 수 없다.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시청각 장애인들의 문화 소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CC' 역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CC는 Closed Caption의 약자로 폐쇄형 자막을 뜻한다. 캡션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대화나 음향 관련 정보를 자막으로 표시해주는 서비스다. 스크린에 직접 캡션을 나타내는 개방형과 달리 폐쇄형은 별도 기기를 통해 볼 수 있어 시청각 장애인들의 문화 소외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 역시 각종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장애인과 같은 소수를 배려하기보단 다수를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방침 때문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장애인 문화 소외 문제 해결 또한 지지부진하다. 이처럼 점차 심화하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문화 소외 문제를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인식을 했다.

따라서 시청각 장애인들의 문화 소외 문제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에 집중하여 앞으로 참여하는 '기회의 동등함'에 그치지 않고, 문화, 예술 활동의 목적까지 똑같은 수준에 가깝게 상당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무대 공연 등에서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확보에 필요한 음성해설, 폐쇄자막 서비스 등을 적정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회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Ⅲ. 원하는 사회상

문화는 한 사회를 이루면서 그 사회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생활 모습이 형성된다. 그렇기에 한 사회 내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가 존재한다.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이 한 국가의 공동체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다 같이 즐기며 결속을 도모할 힘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가 즐기는 문화가 있으며 영화와 공연 관람과 같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이 특히 두드러진다.

빠른 현대화와 함께 형성된 우리나라의 여가문화는 바로 영화&공연 관람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일상의 피로함을 날리는 주말, 소중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과 함께 평소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을 관람하는 것이 다수의 취미이자 엄연한 문화로써 자리 잡았다. 주말에 본 작품의 재미있는 장면이나 잘생긴 배우의 얼굴을 회상하며 즐겁게 대화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모습에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장애인이다.

(출처: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영화관이나 공연장에는 신체적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좌석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그 외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AD(음성해설/화면해설) 서비스나 수화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공연장에서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면 다른 관람객이 연극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하는 등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엔 이러한 문제가 장애인들이 우리 문화에 배제당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장애인들이 제한되고 분리되는 모습이 보이길 원치 않는다. 장애인들도 비(非)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생활을 즐기고 함께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바란다. 우리는 “다수의 사람”이 즐기는 문화가 아닌 “모든 사람”이 즐기는 문화가 있는 사회를 바란다.

Ⅳ. 해결책

1. 시각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활발한 SNS 마케팅: 최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 경험을 올리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접하고 있다. 식당, 가수, 영화 혹은 공연, 페스티벌, 기업 등의 SNS 홍보가 실제로도 좋은 광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 음향 드라마 또한 SNS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인이 SNS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 특히 시각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홍보한다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이 공연을 관람할 것이고, 사운드 드라마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관람할 수 있으므로 사운드 드라마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더욱 다양한 사운드 드라마의 제작과 공연장소, 시간대의 확대: 시각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의 종류는 많지 않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영화나 공연 관람 등이 어려우므로 콘서트 혹은 사운드 드라마밖에 접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사운드 드라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종류가 거의 없고, 일반 뮤지컬이나 영화보다 상영 장소나 시간대 또한 극히 적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사운드 드라마를 즐길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운드 드라마의 종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다양한 사운드 드라마의 감상을 통한 더 큰 즐거움을 느끼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가 이전보다 많이 제작되고 사람들에게 공연된다면 사람들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사운드 드라마를 제작하려 할 것이다.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책자 등 장비 제공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활성화: 시각장애인은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부족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해도 보청기나 점자로 된 안내 책자 등이 일반 안내 자료보다 매우 부족해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른 장애인도 공연에 대한 정보를 받고 공연을 관람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않고 관람하는 것은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그것에 비교해 이해도나 재미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점자 안내 책자나 그 외의 음성 지원 시스템 마련을 더욱 확대한다면 공연 감상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공연 관람을 통한 즐거움이 현재보다 풍부해질 것이다.

V. 실현 가능성

1. 장애인들을 위한 SNS 마케팅 실현 가능성

에이블뉴스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 기준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서비스 이용률이 68.1%로 일반 국민의 사용률인 86.7%보다 18.6%로 낮았다. 국가통계 포털 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수는 약 251만 명이고 이중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애인 인구수는 약 1,709,310명이다. 따라서 장애인 인구 중에 SNS 마케팅에 노출될 수 있는 인구수가 의미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SNS를 이용한 마케팅은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

2. 사운드 드라마의 확대

현재 '알퐁스 도데의 별' 이라는 작품이 공연되고 있다. 이 공연은 연초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되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객들 모두 공연에 만족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사운드 드라마가 제작될 전망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 유희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3.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공연 홍보 책자 발행

현재 우리나라에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 읽어주는 도서관이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을 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개수는 44개이고 이용 현황은 2016년을 기준으로 40,000명 정도이다. 따라서 시

각장애인을 위한 홍보자료 안내 책자를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도서관에서 발행한다면 홍보 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

Ⅵ. 산출물

1. 작품 설명

가. 뉴스 시나리오

뉴스라는 매체의 특성을 살려 문제의 현황과 해결책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뉴스 시나리오는 실제로 보도된 사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각색한 것으로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에서의 차별과 소외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함과 동시에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운드 드라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가상인터뷰를 담았다.

나. Sound Drama - concert without barriers

공연장은 참여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의 장이다. 우리라면 쉽게 참여자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장애인들에게는 참여를 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래를 듣고 싶지만 듣지 못하며 장면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그들은 늘 남들과 동 떨어져 살아간다. 이 포스터는 이러한 장벽을 허문 사운드드라마 콘서트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다. 인국 사운드라마 정기연주회

이 포스터는 인천국제고에서 사운드라마를 기획한다면 어떠한 모습일지를 상상하여 제작하였다. 정기연주회의 공연은 가상으로 만들었는데 〈알퐁스 도데의 별〉과 〈즐거운 4반〉 이렇게 총 2가지로 구성하였다. 공연들은 풍부한 효과음과 배우들의 청각 중심의 연기를 기반을 했다는 것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만들었다. 또한 사운드드라마임을 강조하기 위해 "당신의 모습이 우리의 공연회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의 드라마를 즐겨주세요"라는 구절을 삽입하였다.

[작품 1]

장혜주 앵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인국뉴스룸 앵커 장혜주, 김현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들이 영화와 공연을 접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편함이 계속 심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장애인 중 1년간 영화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4.0%, 영화 이외의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한 사람은 7.2%로, 전 국민의 지난 한 해 영화 관람 비율인 61.6%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문화·여가활동에 대해 장애인의 49.3%는 만족한다고 답하였지만 50.7%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 실태를 김미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미소 기자?

김미소 기자: 네, 사회부 김미소 기자입니다. 문화와 여가활동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소외현상과 장벽을 없애기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 상영 등의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런데도 장애인의 문화와 여가활동은 비장애인보다 소극적인 활동에 그쳤으며, 문

화·예술 공연 등의 관람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2016년 2월 시·청각 장애인들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비롯한 대형 영화관에 "화면해설과 자막, 보청기기 제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2019년 12월 9일 서울고법의 재판부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영화를 관람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국 뉴스룸 김미소 기자였습니다.

장혜주 앵커: 네 그렇군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 지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은준 초빙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준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초빙연구원 정은준 입니다.
저는 10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결함과 한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연구원이신 제 동료 이민경 연구원께서 작성하신 장애인 사회활동 및 문화, 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에서, 현재 장애인들이 문화를 유희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신체적인 결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전국에 44개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호 앵커: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 차별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정은준 연구원: 첫 번째로 시각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활발한 SNS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 홍보를 통하여 관람객의 수가 증가할 것이고, 사운드 드라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관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운드 드라마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로 더욱 다양한 사운드 드라마의 제작과 공연장소, 시간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책자 등 장비 제공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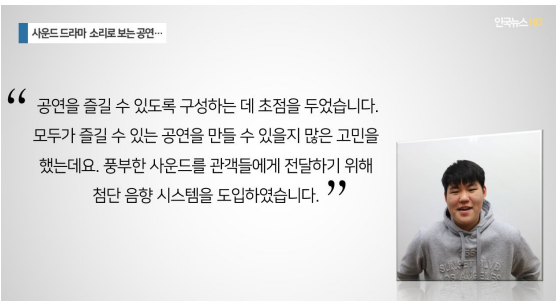
김현호 앵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인들이 공연, 예술 활동 관람에 있어 겪고 있는 차별 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사운드 드라마'가 이번에 관객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배리어 프리 영화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반면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극 장르의 공연은 음성, 화면해설이 쉽지 않았는데 12월 2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연극 '알퐁스 도데의 별'을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상영했습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공연과 달리 배우들의 대사와 배경음악만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은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요. 유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시우 기자?

유시우 기자: 네, 문화부 유시우 기자입니다 . '사운드 드라마'란 음성해설을 활용하는 배리어 프리 방식을 벗어나 오로지 배우의 대사와 배경 효과음, 음악으로만 공연의 줄거리를 온전히 전달하는 공연을 말합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라이브 연주와, 생생한 효과음악, 그리고 배우들만의 개성 있고 인상적인 목소리로 이루어져 공연되었는데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 객석과 공연장 천장에 60개가 넘는 스피커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공연장을 세팅하여 객석 어디에서도 균일한 품질의 사운드와 공간감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이 공연이 무엇보다 좋은 점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연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같은 경험을 같은 공간에서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해 공감하고 인정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에 출연하시는 중국 배우 한 분을 인터뷰해보겠는데요, 권근모 씨? 안녕하세요?

권근모 배우 : 大家好,我是在《Alphon's Dodde的星星》中饰演榴莲的杜丽安. 안녕하세요, “알퐁스 도데의 별”에서 두리안 역할을 맡은 권근모입니다.

유 시우 기자: 일단 사운드 드라마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권근모 배우 : 네, 저희는 이 공연을 기획하면서 비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 또한 저희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무엇을 하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풍부한 사운드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첨단 음향 시스템을 도입하여 배경음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배우들은 더욱 정확한 발음과 발성을 노력함으로써 공연의 내용이 관객들에게 더욱 와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유시우 기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국 뉴스룸 유시우 기자였습니다.

김현호 앵커: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 여러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도입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단지 장애인의 참여하는 ‘기회의 동등함’에 그치지 않고, 문화생활의 목적까지 일반인들과 똑같은 수준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60% 대폭 증액되며 개선 방향이 나왔지만, 열악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 해소되지 않아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장혜주 앵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겐…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마음. 가난하게 살거나, 흑인으로 사는 것. 장애인으로 사는 것. 노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마음. 곧 공감을 지닌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감,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닐지라도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공명하는 마음, 이 마

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공정한 사회는 시작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공정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인국인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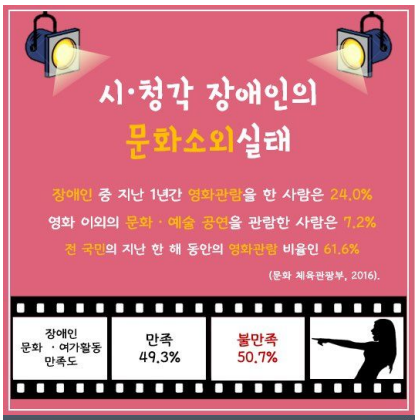
[작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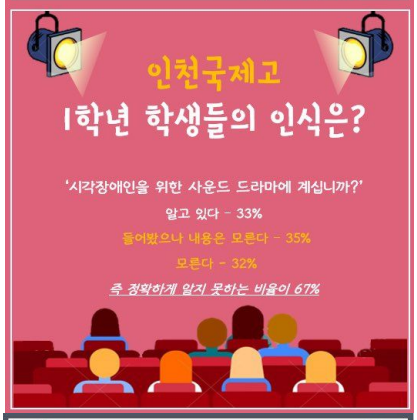
[작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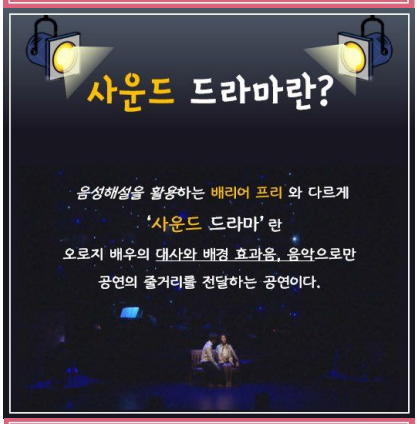
TOGETHER CONCERT
제 1회 인국엠넷 공연회
인국사운드드라마
정기공연회
당신의 모습이 우리의 공연회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우리의
드리미를 즐겨주세요.
PROGRAM
1부
Durian, Alphon's Dodde of Star
두리안, 알퐁스 도데의 별
2부
joo yeon, Enjoying 4 class
주연,, 즐거운 4반
2019. 01.15 (수) PM 6:00
인천국제고 소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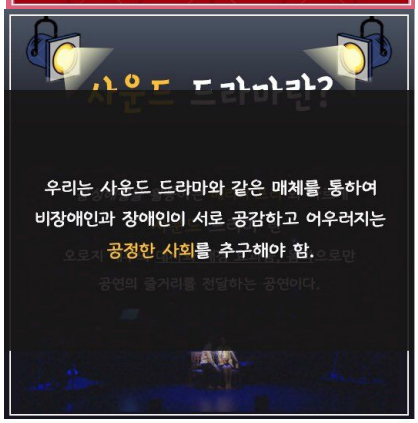
[작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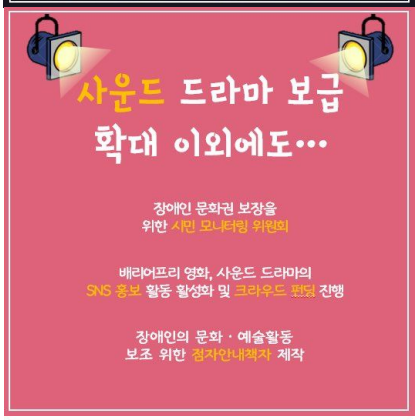
사운드 드라마
혹은
베리어프리 영화
아니?
인천국제고등학교 10401 김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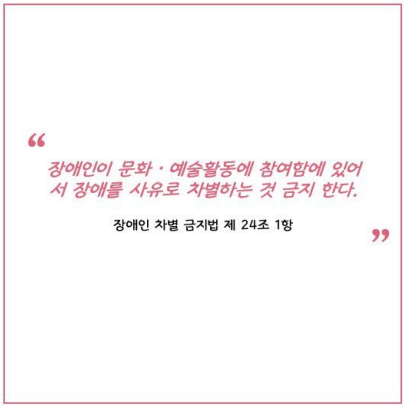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소외실태
장애인 중 지난 1년간 영화관람을 한 사람은 24.0%
영화 이외의 문화 · 예술 공연을 관람한 사람은 7.2%
전 국민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영화관람 비율인 61.6%
(문화 체육관광부, 2016).
장애인 문화 · 여가활동 만족도
만족 49.3%
불만족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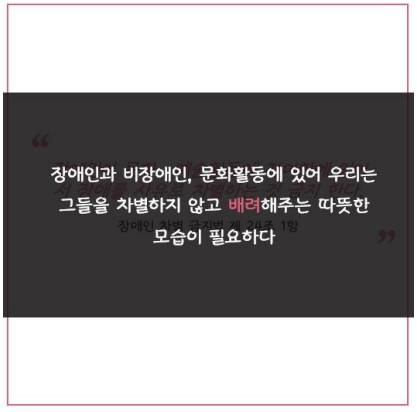

인천국제고
1학년 학생들의 인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에 계십니까?'
알고 있다 - 33%
들어봤으나 내용은 모른다 - 35%
모른다 - 32%
즉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비율이 67%


사운드 드라마란?
음성해설을 활용하는 배리어 프리 와 다르게
'사운드 드라마' 란
오로지 배우의 대사와 배경 효과음, 음악으로만
공연의 줄거리를 전달하는 공연이다.


우리는 사운드 드라마와 같은 매체를 통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공감하고 어우러지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해야 함.


사운드 드라마 보급
확대 이외에도…
장애인 문화권 보장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 위원회
배리어프리 영화, 사운드 드라마의
SNS 홍보 활동 활성화 및 크라우드 펀딩 진행
장애인의 문화 · 예술활동
보조 위한 점자안내책자 제작


장애인이 문화 · 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서 장애를 사유로 차별하는 것 금지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 24조 1항


장애인과 비장애인, 문화활동에 있어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배려해주는 따뜻한
모습이 필요하다

Ⅶ. 참고문헌

이민경. (2018).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김성희, 이연희, 오욱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등. (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2018. 9. 4. 인출.

소년소녀가정의 '불공정' 현황 분석 보고서

10601 강유하, 10604 류 진, 10614 정희애
10615 진서영, 10620 박성호, 10624 정인준

Ⅰ. 기본 개념 정의

1. 공정

공정(公正)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정당(正當), 공명정대(公明正大), 공평(公平) 등과 비슷한 의미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정과 공평을 비교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의미이다. 공평은 수치적으로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공정은 분배라는 것에 옳고 그름에 관한 관념, 즉 윤리적 판단과 같은 가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국립국어원, 2015) 즉, 공정은 공평을 포괄하고 있는 더 큰 개념이다. 이처럼 공정은 다른 공평, 평등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큰 범주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표적인 덕목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공정경제, 공정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이때,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책을 의미한다.(정책위키, 2019) 따라서 대한민국은 윤리적으로 공평하게 경쟁하고 분배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소년소녀가정

우선 소년소녀가정의 사전적 의미는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소년 및 소녀를 일컫는 말이다.(소년소녀가정, 2019) 만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세대를 의미하기도 한다.(문선화, 1992) 대부분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따위로 세대가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경우이지만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이나 장애 따위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이들을 이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년소녀가정보다는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가 더욱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후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소년소녀

가장제 폐지 권고를 받아, 2000년도에 소년소녀가장제에서 가정위탁제 즉 '소년소녀가정'으로 전환되었다. 국내 전문가들도 곁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이 아이들끼리만 살도록 하는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아동방임을 승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폐지돼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황혜진, 2016)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앞서, 가족은 생물학적으로 기초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사회적 그리고 사회화 단위이다. 가족의 사실은 변화하지 않지만 가족의 형태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 현대인은 살고 있다. 이렇게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는 상황이지만 이 사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최소한의 짜임새를 갖추고 있는 가족 혹은 가정의 보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은 가족 형태 변화의 소산물 중 하나이다.

Ⅱ. 소년소녀가정을 선택하게 된 이유

현대 사회에서 특목고 폐지, 입시제도의 변화 등을 통해 기회불평등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소득 격차와 기회불평등을 19세가 되어서야 해결하려는 것이 과연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자신의 능력이 아닌 사회 경제적 배경이 성공을 결정하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n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년소녀가정이 겪고 있는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은 이러한 문제들 중 하나이다. 국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금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소녀가정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어리고 보호자의 관심이 부족한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회에서 잠식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소년소녀가정의 가장을 비롯한 아이들은 여러 문제로 인해 교육, 취업, 문화체험 등의 측면에서 기회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또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었고, 단순한 도움이 아닌 이들과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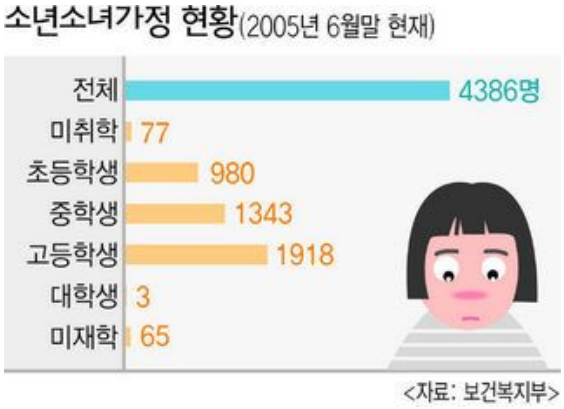
Ⅲ. 문제 현황 및 원인

2005년 6월말 전체 4386명이었던 소년소녀가장은 가정위탁제로 바뀌며 33명으로 줄어들었다.(보건복지부, 2018) 그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성취와 노력보다는 가정 배경, 출신지역, 성별 등이 삶을 결정하는 추세가 요즘

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급인턴 생활 동안 버틸만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어 지원하려 했던 해외 무급인턴을 포기해야 하는 등 꿈을 단념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는 소년, 소녀들이 늘고 있다.(박준용, 2016) 소년소녀가정의 발생 요인은 다양한데, 부모의 사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도 이혼, 가출과 행방불명, 폐질 및 심신장애, 노령 등의 이유가 있었다.(황혜진, 2016)

200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초등학교 17.7%, 중학교 32.5%, 고등학교 33.3%, 대학교 1.9%이었다. 그들의 절대다수(96.7%)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며 그중 44.0%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특별취재팀, 2005)

〈그림 1〉 2005년 소년소녀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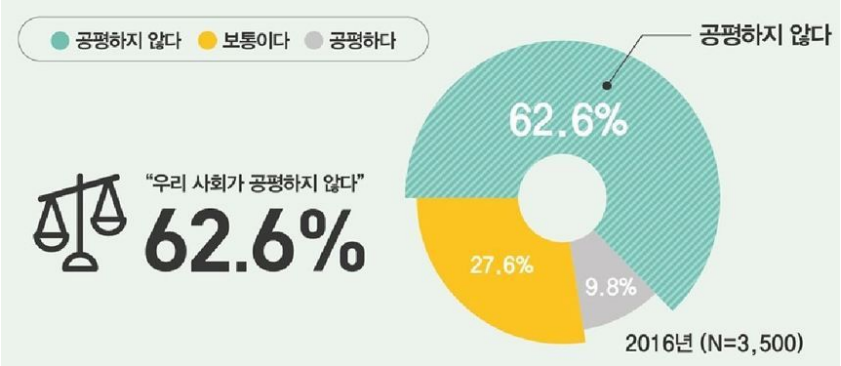


그러나 중퇴를 하는 학생들은 매우 많았고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도 다수였다. 아동상담 전문가들은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우울증 등 정서적인 문제로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사회적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소년소녀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가들은 입양이나 가정위탁, 충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사업학 교수는 “소년소녀가정은 우리사회 전반에 ‘불쌍하긴 하지만 형편에 따라서는 아들끼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방임된 아이들에 대한 더 높은 경각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규모 그룹 홈이나 가정위탁, 입양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의 대학진학률은 낮았다. 학업과 생업을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전문가들은 소년소녀가정이 기본적인 학업을 잘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성균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2016:14-37)는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정책들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회불평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동그라미재단이

펴낸 기회불평등 2016: 생애주기별 경험과 인식 조사(김영미, 신광영, 양재진, 이성균, 2016)는 표본 3520명을 조사했는데 조사 대상의 62.6%가 '공평하지 않다'고 답한 반면 9.8%가 '공평하다'고 답하며 우리 사회에서 가난이 도전의 기회를 가로막는 것을 입증했다. 고등학생 역시 61.7%가 '사회경제적 성취과정에서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2015년 보고서에서는 설문대상자의 65.7%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렇게 답한 응답자는 1년 만에 8.1%p 증가했다.

〈그림 2〉 '우리 사회가 공평하지 않다'의 질문에 대한 응답



연구에 참여한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2016:6-12)는 보고서의 서문에서 기회의 불평등을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계층에 따라 달라 발생하는 꿈의 격차를 의미하는 '희망격차'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가족 배경(상층과 하층), 출신 지역(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과 성(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른 꿈을 꾸게 되고 대학 진학, 가족 형성, 사회이동, 노후 소득, 사회적 성취, 계층이동 등 다양한 차원의 '희망'이 달라진다.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2016:38-68)는 "오늘날 청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족배경의 효과(사회·경제적 성취에서 한 개인의 가족배경이 개인의 노력보다 비중 있게 작용하는 것)는 한국사회가 개방적 사회(open society)에서 폐쇄적 사회(closed society)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 라고 표현하며 한국 사회 내의 변화를 촉구하였다.(박준용, 2016)

Ⅳ. 기존의 문제 해결 방법

1. 교육희망사다리

지난 2011년,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결의된 공정사회 실천을 위한 중점과제 중에서 교육 분야에서 선정된 과제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이었다.(이국헌, 2019) 이 과제의 기본 방향은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의·인성 교육을 확대하고 공정한 진학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육부는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창의지성 및 감성 교육, 자율역량 확대 교육, 미래혁신교육 등을 표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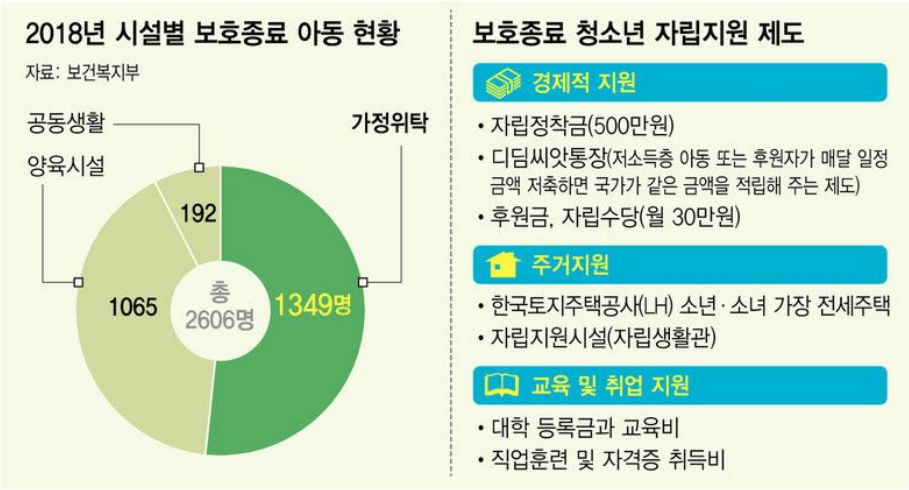
2. 도서관 사업

Read_Us Company에서 진행한 도서관 사업은 소년소녀 가정을 위해 집에 쌓여있는 읽지 않는 책을 기부하고 중고 책을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모은다. 이렇게 모은 자금을 통해 도서관을 짓는 사업이다.(안용재, 2015) 도서관 사업을 통해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는 Read_Us Company가 ‘움직이는 재단’과 합병하여 안산을 중심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3. 파자마 프로그램(미국)

미국의 한 단체, ‘파자마 프로그램’은 설립자인 피투로의 일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피투로가 봉사활동 중 보호소의 한 아이에게 파자마를 선물했고 파자마를 받은 아이는 “파자마가 무엇인가요?”라고 이야기했다. 파자마는 흔히 책을 읽어주는 부모의 곁에서 잠들어, ‘따뜻한 가정’의 이미지를 상징한다.(김정필, 2019) 이런 파자마의 존재를 보호소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슬픈 현실에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파자마 프로그램에서는 보호소의 아이들도 평범한 미국의 아이들처럼 따뜻함을 누릴 수 있도록 새 잠옷과 책을 나눠주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조금 더 의미 있는 까닭은 보호소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닌 정서적 결핍까지 보살핀 질적 복지이기 때문이다. 소년소녀 가장들은 보호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한다. 그들을 아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양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서, 심리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재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이다.

〈그림 3〉 시설별 보호 종료 아동 현황과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V. 기존 해결방법의 문제점

1. 경제적 지원(정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저소득 가족의 생활을 획일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는 지역이나 가구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지원과 각종 사회단체 및 후원자의 도움만으로 원활한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것 역시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들에게 경제적 불안정은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진학 및 취업

현재 정부에서는 교육적 지원으로 공적 부조로서 학비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비지원은 단순 교육비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외에 학습에 필요한 여건 마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지속된다. 또한 교육비는 실업계의 경우 교육비를 전액지원하고 인문계학생의 경우 30/100의 성적이 해당되는 자에게만 학비를 100% 지원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소녀가정의 학생들은 대체로 인문계 고등학교나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취업 측면에서 보자면 많은 소년소녀가정의 가장들이 생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위험한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3. 정서

현장에서 소년소녀 가정과 가장 가깝게 교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경제적 지원만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가사 도움 및 대화상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춘천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소년소녀가정 아이들의 욕구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행정기관, 지역아동센터, 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심체가 절실하다”고 했다.(이성현, 2006) 이처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 사회단체의 지원만으로는 소년소녀 가정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Ⅵ.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소년소녀 가정들을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을 한 연구(황국자, 2003)를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년소녀 가정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다. 부자 가정 또는 모자 가정에 대해 가족조성에 필요한 가정상담을 제공하여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경제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정조성수당 지급이나 직장알선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년소녀 가정이 발생된 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소년소녀 가정이 발생하기 전 미리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국가의 지원을 중복적으로 받거나 누락되어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소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년소녀 가정에 대한 지원체계의 정리와 일원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소년소녀 가정의 가장들은 학령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교육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이들을 지원하기위해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 가정들에게 취업보장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생업과 학

업을 병행하는 소년소녀 가정의 가장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취업보장의 경우, 현재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년소녀 가정의 가장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지속적이고 정기적이지 못하며 근무 환경 또한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취업보장의 기회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국립국어원. 2015. '공정'과 '공평'의 차이 상담

김영미, 신광영, 양재진, 이성균. 2016.「생애주기별 기회불평등 연구」.《동그라미재단 연구리포트》. 4호. 1-121

김정필. 2019. “나를 키운 것은 열여덟의 공포였다”.《한겨레》

문선화. 1992.「소년 소녀 가장 가정의 개선방안」.《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77-96

박준용. 2016. “[기회불평등 보고서] 가난하면 꿈도 가난해진다”.《시사저널 1573호》

박준용. 2016. “[기회불평등 보고서] 고등학생마저 이렇게 말한다 “우리사회, 노력보다 집안이 중요하다””.《시사저널 1573호》

보건복지부(2018). 소년소녀가정 현황

소년소녀가정. 2019. 네이버 국어사전

안용재. 2015.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도서관을 지어주세요”. 유튜브. https://youtu.be/xtmRpWmcN_w

이국헌. 2019. “공정사회의 조건”.《교수신문》

이성현. 2006. “소년소녀가정 "대화상대가 필요하다"”.《강원일보》

정책위키. 2019. 공정경제.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특별취재팀. 2005. “소년소녀가정도, 시설보호 아동도 없는 세상을”.《한겨레》

황국자. 2003.「소년소녀가장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2

황혜진. 2016. “[집중취재-부모 없는 아동들②] "부모 없는 아이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데일리한국》

SOSO 프로젝트 창업 계획서

10601 강유하, 10604 류 진, 10614 정희애
10615 진서영, 10620 박성호, 10624 정인준

Ⅰ. 사업 개요

‘소소’는 ‘소년소녀가정’의 줄임말로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소년과 소녀를 말한다. 이러한 소년 소녀를 돕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소소’라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다. 기업의 모토는 크게 ‘나눔, 사랑, 믿음’이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펴는 것이 기업의 비전이다.

〈기업 모토〉

1) 나눔 : 어려움을 나누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나누어 기쁨을 늘림으로써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2) 사랑 : 함께 참여하여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화합하고 함께하는 삶을 추구한다.

3) 믿음 :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개인정보와 비밀에 대한 안전이 보장된다. 또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희망을 품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Ⅱ. 기존 문제 해결 방법과의 차별성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은 주로 금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사업과 달리 이번 ‘소소’ 사업은 소년소녀가정 아이들의 자립과 정서적 교류에 초점을 두어 지원 사업을 실행한다. 지원방법은 취업 정보 제공, 정보 문화 체험, 교육 기회 제공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기존의 정부24의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소소’는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되 만 18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지원의 폭을 넓혔다. 예를 들어 기존의 취업 정보 제공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소의 일자리 검색 시스템은 소년소녀에도 맞추어져 있기 때

문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아르바이트 탐색이 가능하다. 또, 출판사로부터 책을 지원받아 소년소녀가정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활동을 통하여 타 기업과의 연계도 모색하였다.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와 캠페인을 진행하여 소년소녀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마련하였다. 소년소녀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봉사 시간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이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소소’의 필요성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년소녀가정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소년소녀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 고등학교까지는 진학하지만, 대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 어려움으로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이처럼, 소년소녀가정의 대다수 아이가 열악한 교육과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우리 사회에서 ‘소소’와 같은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다.

Ⅳ.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방안

1. ‘소소’ 애플리케이션 개발

소소 애플리케이션은 소년소녀가정의 아이들에게 취업 정보, 문화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업, 자원 봉사자와 도움이 필요한 소년소녀가정의 아이들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페인, 대회를 홍보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소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하여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가. 취업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년소녀가정의 아이들에게 개개인의 상황에 적절한 개인 맞춤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취업 정보를 나타내지 않고, 건전하고 안전한 취업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아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과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소소 아이들이 손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정보·문화 체험

소년소녀가정의 아이들이 정보·문화 체험 기회가 부족한 것을 인식하여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손글씨 캠페인과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글씨 캠페인과 글쓰기 대회를 홍보하여 다함께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문화의 날을 위한 기금(펀드)을 마련하고 모은 자금을 문화의 날의 행사 진행에 활용하여 캠페인 및 대회 운영과 전시회 개최, 참가 상품 제공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교육 기회 제공

‘소소’가 제공하는 교육 기회 중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채팅을 통한 ‘멘토링’ 기능이다. 소년소녀가정의 아이들이 멘토링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어, 바쁜 생활에 안식처가 될 것이다. 또한, 조사 결과 소년소녀가정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 부족과 생계를 위한 활동 때문에,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번 멘토링 활동이 아이들에게 삶의 힘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채팅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특징이다. 두 번째 교육 기회 제공의 방법은 중고 도서를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중고 도서는 후원자나 학생들을 통해 기부 받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출판사나 타 기업으로부터 교재나 책, E북 등을 지원받아 소소 아이들과 나누어,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제공받은 교재들을 통해 소소들은 원하는 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V. 홍보 및 마케팅

〈표 1〉 소소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유튜브 채널 개설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소소를 알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소소 회사를 위한 SNS 계정 개설
-굿네이버스와 같은 NGO 단체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여 홍보
-다양한 언론매체(신문, 방송 등)에 광고
-지하철,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광고
-인플루언서나 유명 상담사 등 소소의 이미지와 적합한 모델 발탁

현재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유튜브나 SNS를 잘 공략한다면 1020 세대에 큰 호응을 이끌어내어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NGO 단체나 사회적 기업과 협력한다면 인지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매체나 시설물에 광고를 하는 것 역시 큰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소’ 어플리케이션의 주력 서비스 중 하나인 채팅 서비스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상담사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여 홍보를 진행한다면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Ⅵ. 비용

창업을 위한 기본비용으로 사무실 등의 임대료와 인건비 등 기타 회사 운영비, 광고료 등의 마케팅 비용 등이 요구된다. 또한 소소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소소 애플리케이션의 관리 및 개발 비용에 투자할 비용이 필요하다. 소소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도서 제공 서비스에 필요한 택배비 및 관리비, 문화의 날 대회 개최의 상품 제공 비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Ⅶ. 수익 구조

〈표 2〉 소소의 수익 창출 계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건비, 사업개발비의 지원
-어플리케이션 내 배너를 통한 광고수익
-기업의 후원금, 후원물품
-정기 후원, 일시 후원과 같은 시민들의 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기업의 요건을 충족시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는다. 비록 고정적인 수입이 많지 않아 후원금, 지원금 등이 수익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경영 전략을 통해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발전해나갈 것이다. 또 재정 상태가 안정적 궤도에 오른다면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Ⅷ. SOSO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시안

(모바일을 기준으로 제작되었다.)

사진 1) 애플리케이션의 시작화면으로 '함께하기'라는 표현을 사용해 포근한 느낌을 잡았다.

사진 2)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글쓰기 공모전과 같은 작은 대회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소 홍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사진 3) 메뉴를 누르면 소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 대회/행사 일정, 공지사항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소소들의 공간' 코너를 포함해 캠페인 활동을 하며 찍은 사진이나 나눔 후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사진 1) 소소의 사업 목적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참여한다' 라는 느낌을 강조해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임을 상기시켰다.

사진 2, 3) 책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나누기' 페이지에 들어가 글을 쓰면, 자신이 평소에 읽지 않는 책이나 기증하고 싶은 책을 기증하여 작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게 한다. '이용하기' 페이지에 들어가면 나누기에 등록된 책을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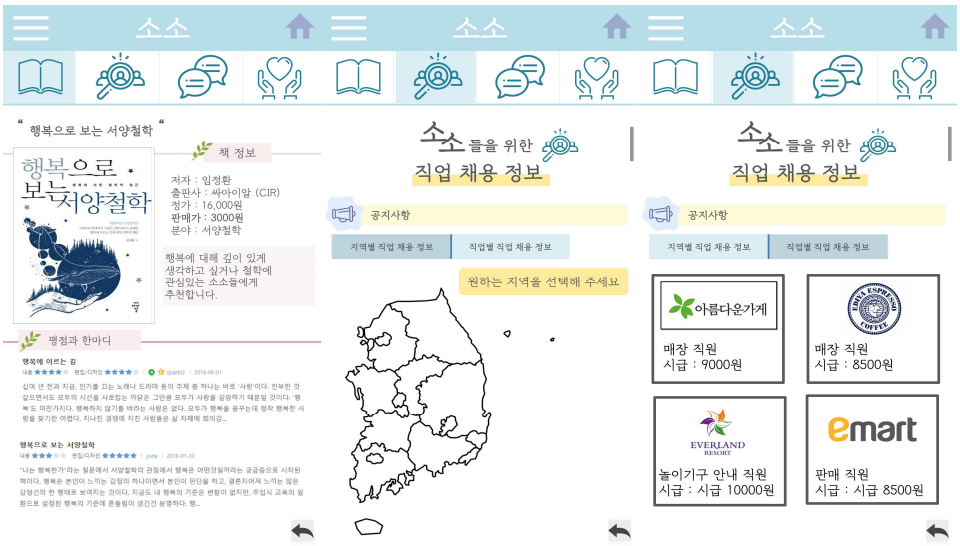


사진 1) 이용하고 싶은 책을 클릭하면, 저자와 판매가 등 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책을 나누기에 등록한 사람의 한 줄 평을 볼 수 있다. 또 책에 대한 평점과 한마디를 알 수 있다.

사진 2, 3) 상단의 돋보기를 클릭하면 직업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년소녀들을 위한 안전하고 검증된 일자리들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각 지역에서 제시되어 있는 직업 채용 공고를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원하는 기업은 소소에 제의할 수 있다.

사진 1) 직업별 채용공고는 원하는 분야 또는 직업을 선택해 관련된 채용 공고가 확인 가능하다. 맡을 수 있는 일과 시급이 적혀 있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 상단의 채팅 버튼을 누르면 '소소의 상담실'로 이동할 수 있다. 소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며, 멘토링 신청과 검색이 가능하다. 최근 대화 내용 역시 원하는 때에 확인할 수 있다.

사진 1) 대화방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멘토와 함께한 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멘토 등록은 일정 절차를 거치고 상담을 시작하기 전 멘토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검증된 멘토와 고민 상담을 나눌 수 있다.

사진 2) 상단의 하트 버튼을 누르면 '후원하기' 코너로 이동을 하게 되며,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 중 선택할 수 있다.

Ⅸ. 기대효과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금전적 측면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소소' 애플리케이션은 소년소녀 아이들의 취업과 문화, 교육에 중점을 두어 진행함으로써, 소소 아이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다가가 도움을 준다. 아이들의 기본 생계를 돕는 금전적 지원과 달리 '소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다양한 취업 정보를 알려주어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며 자립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정서적 측면에서 채팅으로 이루어지는 멘토링 활동은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여 건강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배움에 활력을 더하였다. 마지막으로 힘든 생활 속에서 글쓰기 대회, 손글씨 캠페인을 통해 힐링 타임을 마련하였다. '소소' 애플리케이션의 이와 같은 활동으로 소년소녀가정에 현실적 생활의 윤택함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음원 사재기의 불공정성에 대한 제고: 음원 사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 개선 방법을 중심으로

10504 금유빈, 10508 안소연, 10510 이연우
10511 이유나, 10520 박찬영

요약

최근 한국 음원 시장은 세계 9위를 차지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런데 디지털 음원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인 '음원 사재기'이다. 사재기한 곡은 크게 세 가지의 양상을 보인다. 곡의 순위 상승 그래프가 완만한 상승세가 아닌 수직 상승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1위를 차지한 것, 인기 상승으로 인해 노래방과 여러 음원 사이트에서의 순위가 동시 상승해야 하는데 특정 사이트에서만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실제로 음원 사재기는 매우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아이디를 불법으로 도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집중적으로 음원을 클릭해 순위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형 소속사 같은 경우 핸드폰 수천 대를 구입하여 동시에 같은 음악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한 업체는 음원 사재기용 멜론 아이디를 판매하는데, 한 개당 해킹 아이디는 1200원, 생성 아이디는 3000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이러한 사재기 행위가 만연하고 관련 업체들이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정밀한 방법을 통해 사재기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 범죄를 밝혀내기 힘들며 규제 법안이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이 모두 사재기라면 청소년 등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연령층은 음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없게 된다.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관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돈에 의해 차트 순위가 결정되는 사회는 음악의 고유한 가치와 그로부터 얻는 소비자들의 순수한 만족감을 타락시킨다.

1940년대부터 집계해온 미국의 빌보드 차트는 음반 판매량이 기본 척도다.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횟수는 별도의 수치로 환산해 차트에 반영한다. 최근에는 콘텐츠 소비 시장을 반영해 유튜브 다운로드 및 조회 수까지 합쳐 종합 차트 순위를 매긴다. 오리콘 차트는 실제 음반 판매량을 실적에 반영하기보다 음반 판매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샘플 지점의 판매량을 차트에 반영한다. 스트리밍 횟수에 따라서 집계하는 한국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음원 사재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음원 사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원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어 기존 스트리밍 횟수보다는 음원 판매량 음반 판매량,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건수, 방송 횟수 등등 산출 가능한 모든 지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순위를 집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원 사이트와 소속사가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고, 미국과 같이 영화계의 통합 전산망과 같은 신뢰할 만한 공공 차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음원 사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순위를 중요시하는 구조와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사재기라고 발표된 음원들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 사재기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바람직한 소비자로서의 행위이다.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바람직한 음원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 음악 산업 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글로벌 음악 산업 규모는 471억7300만 달러(한화 약 51조원)로 2015년 대비 15억4700만 달러(한화 약 1조6602억 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로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는 8억5800만 달러(한화 약 9172억 원) 가치로 음악 시장에 올라 세계 9위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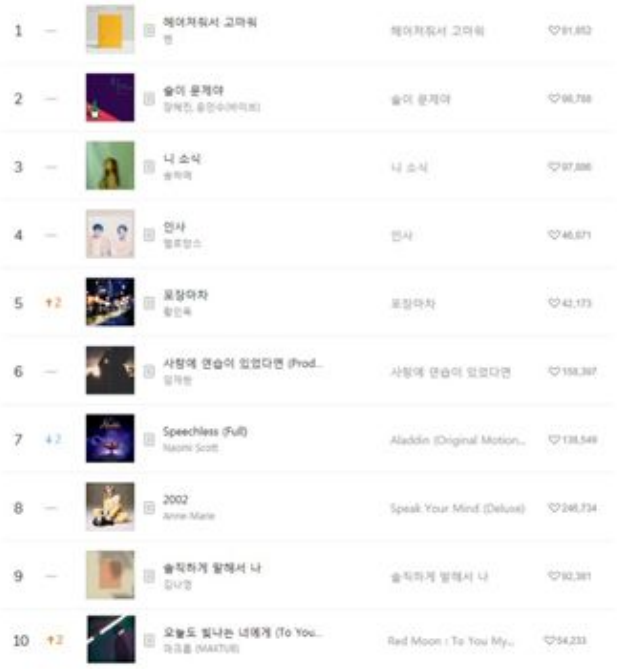
분야별로는 오프라인 음반 시장은 규모가 크게 줄고 디지털 음원 시장이 초강세를 나타내

며 디지털 음원 시장이 오프라인 음반 시장 규모를 앞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전의 상황을 보면 소비자들의 음원 소비는 테이프나 CD에 녹음된 음반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소매점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음악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며 2004년에 새로운 유료 온라인 음원 시장이 개척되었는데, 바로 'SK텔레콤' 의 음원 서비스 '멜론'이다.

당시 대부분의 소비자가 '벅스' 와 '소리바다' 등의 무료 음원 제공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는 173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무료 음원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제재와 함께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유료 서비스 출시, 기존 서비스들에 대한 유료 전환이 이어지며 음원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디지털 음원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음원 사재기'이다. 음원 사재기란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 및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6) 이는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며, 음원 사재기가 의심되는 가수들은 사회적인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인을 하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림 1〉 멜론 순위 차트

〈그림 1〉의 차트에는 외국 팝송 두 곡을 뺀 모두가 사재기한 곡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다. 놀랍게도 주요 차트 순위를 완전히 장악하는 음원 사재기는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음원 시장이 더욱 발달한 타 국가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음원 사재기에 지친 사람들이 외국 차트를 듣는 상황에까지 다다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음원 사재기에 대한 논란이 가요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2012년 SBS 〈본격연예 한밤〉의 방송이다. 당시 걸그룹 씨스타가 이로 인해 아이돌 팬덤 사이에서 많은 의혹과 공격을 받았다. 2013년 8월에는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에서 직접 음원 사재기 브로커를 검거했으나 2014년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또한 같은 해에 JYP와 SM 등 대형기획사들이 순위 조작 업체를 수사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으며, 당시 JYP 대표 박진영은 한 업체로부터 "차트 10위 안에 6곡 정도를 넣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BBC Korea, 2019)

따라서 이러한 한국 음원 시장의 온라인 확장에 따라 음원 사재기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이슈가 된 '음원 사재기'의 공정성 측면의 문제점과 한국의 음악 문화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데에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비교와 함께 경제/경영·법·역사·철학적으로 문제를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음원 소비자들이 가져야 할 소비 윤리와 국가적 측면에서의 규제, 기업의 의무 등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음원 시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음원 사재기의 패턴: 특정 곡 분석을 중심으로

〈그림 2〉 '지나오다'의 순위 상승 그래프

음원 사재기가 의심되는 대표적인 곡인 닐로의 ‘지나오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재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7년 10월 말 발매된 뒤 다섯 달 동안 순위권에 들지 못했던 ‘지나오다’는 2018년 3월 말부터 갑자기 순위가 치솟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2〉를 보면, 3월 18일 236위였던 순위가 한 주 만에 60위로 치솟더니 그다음 주에는 28위로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4월 12일 새벽에는 음원 사이트인 멜론에서 1위를 차지한다. 닐로의 소속사 측은 입소문에 의한 순위 상승이라고 추측하지만, 음원 사재기의 대표적인 양상 3가지를 보여 의심을 거둘 수 없다. (홍신영, 2018)

첫 번째로, 차트의 순위 상승이 입소문에 의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완만한 상승세가 아닌 수직 상승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두 번째로, 입소문이 맞다면 그만큼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어야 하는데, 당시 닐로의 노래는 노래방 기계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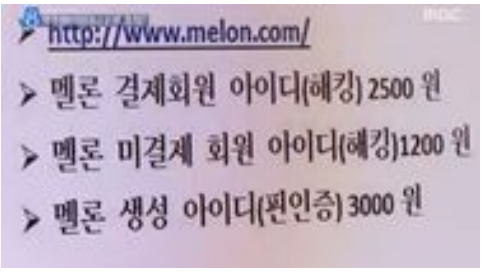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곡의 인지도가 상승하면 여러 차트들에서 순위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상승하는 것이 보통인데, 멜론 등 일부 차트에서만 순위가 급상승하며 음원 사재기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웠다.

2. 음원 사재기 방식

〈그림 3〉 음원 사재기를 하는 모습

실제로 음원 사재기는 매우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아이디를 불법으로 도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집중적으로 음원을 클릭해 순위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대형 소속사 같은 경우 핸드폰 수천 대를 구입하여 동시에 같은 음악을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홍신영, 2018)

한 업체는 음원 사재기용 멜론 아이디를 판매하는데(〈그림 4〉 참고), 한 개당 해킹 아이디는 1200원, 생성 아이디는 3000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약 1000만원을 투자하면 50위, 3억을 투자하면 차트 1위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 5〉 참고). (일간스포츠, 2018)



〈그림 4〉 멜론 불법 아이디 가격

[redacted] 급상승 키워드 (실시간 검색어)	1시간 가격	W5,000,000	[redacted] 급상승 검색어 10위안에 올려 드립니다
[redacted] 차트 100위권	1일	W88,000,000	[redacted] 차트 100위권 1일 동안 올려 드립니다(하루 원할때마다 10% 씩 800만원 추시면 됩니다)
[redacted] 차트 50위권	1일	W250,000,000	[redacted] 차트 50위권 1일 동안 올려 드립니다(동일합니다)
[redacted] 유직 차트	하루보장	W30,000,000	[redacted] 차트 50위권에 올려 드립니다
[redacted] 유직 차트	하루보장	W50,000,000	[redacted] 차트 10위권에 올려 드립니다
[redacted] 급상승 키워드 (실시간 검색어)	1시간 가격	W4,000,000	[redacted] 실시간 검색어를 올려 드립니다
[redacted] 실시간 차트	1시간 가격	W50,000,000	(1일유지마다 10%) 하루 500백만원 추가
[redacted] 실시간 차트	1시간 가격	W80,000,000	(1일유지마다 10%) 하루 800백만원 추가
[redacted] 메인 컨텐츠	1건당	W8,000,000	[redacted] 메인 컨텐츠에 올려 드립니다
[redacted] 메인컨텐츠 노출	1건당	W70,000,000	[redacted] 메인 컨텐츠에 올려 드립니다

〈그림 5〉 차트 진입 비용 견적표

이러한 사재기 행위가 만연해지고 관련 업체들이 점점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정밀한 방법을 통해 사재기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 범죄를 밝혀내기 힘들며 규제 법안이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다. (KBS NEWS, 2019)

Ⅲ. 문제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1. 다각적 측면

가. 윤리(철학)적 측면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이 모두 사재기라면, 청소년 등 상대적으로 나이가(삭제가 나을 것 같아) 어린 연령층은 음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없게 된다. 또한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만능주의적 인식, 혹은 열심히 노력하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하버드대학교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관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는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돈에 의해 차트 순위가 결정되는 사회는 음악의 고유한 가치와 그로부터 얻는 소비자들의 순수한 만족감을 타락시킨다. 우리가 가볍게

즐기는 대중음악에서까지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면, 정말로 우리 사회 속에 남아 있는 고유의 가치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예술가들의 재능마저도 돈에 가려져 묻힌 채로 남아 있다면, 한국의 음악 문화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비슷한 노래들만 차트를 차지하니 점점 우리나라 노래를 듣지 않고 외국 차트를 듣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사회·문화적 측면

단순한 팬심에서 비롯된 아이돌 노래 '총공[6]' 등의 무분별 스트리밍으로 신인 가수들은 차트 진입이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원 사재기까지 발생하면 음원 순위 차트에 신인들이 발디딜 틈은 아예 없을 것이다. 이는 한국 음악 문화의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음원 차트상위권에 사재기한 곡들이 만연하다면 전체적인 음악의 질이 떨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김나영, 양다일의 듀엣곡 등 실제로 인기가 급격히 상승해 1위를 차지한 곡들도 사재기 의혹에 휩싸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서로간의 불신만 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다. 경제적 측면

대형 이동통신사의 음원 플랫폼 독과점, 그리고 돈이 돈을 버는 빈익빈 부익부 구조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대형 음원 플랫폼의 발달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부터 음악은 소모의 개념이 강해졌다.

	수익자	비율
멜론 음원 수익 구조	스트리밍 업체	40%
	작사, 작곡, 편곡자	10%
	가수	6%
	음원 유통자	8.8%
	제작사	35.5%

〈표 1〉음원 사이트 '멜론'의 수익 구조

[7]

6) 아이돌의 노래를 팬들이 반복적으로 재생하여 음원 순위를 높이는 행위

7) 〈표1〉 홍현규(2018). 한국 온라인 음원 플랫폼의 현실과 문제점: 음원 사재기 및 음원 원가상승과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학과, 3(3), 26-33.

위와 같이 음원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곡을 구매했을 때 나타나는 수익 구조가 매우 불공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음원 제작자에 비해 음원 제공 사이트가 가져가는 몫이 상당히 크다.

스트리밍 이용권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은 음원 보다는 스트리밍 이용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음원 제작에 기여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은 더더욱 적어진다.

다음은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들의 이용권 가격이다.

	이용권	가격
멜론 이용권 가격	스트리밍 플러스 (무제한 듣기+오프라인 재생 가능)	정기결제 10900원 30일권 11400원
	Hi-Fi 스트리밍 클럽 (무제한·무손실 고음질 음원파일)	정기결제 12000원
	스트리밍 클럽	정기결제 7900원 30일권 8900원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 (휴대폰과 태블릿만)	정기결제 6900원
	무제한 듣기 + MP3 다운로드	MP3 30 플러스 정기결제 16000원 30일권 17500원
		MP3 50 플러스 정기결제 19000원 30일권 20500원
		MP3 100 플러스 정기결제 28000원 30일권 29500원
	MP3 다운로드	MP3 30 정기결제 12000원 30일권 13000원
		MP3 50 정기결제 15000원 30일권 16000원
		MP3 100 정기결제 24000원 30일권 25000원
	개별 곡 다운로드	MP3 700원 FLAC(원음) 1000원

[8]

〈표 2〉 음원 사이트 '멜론'의 이용권 가격

	이용권	가격
지니 이용권 가격	스마트 다운로드(DRM다운로드) + 무제한 음악 감상	30일 기준 10800원
	무제한 음악 감상	30일 기준 8400원
	스마트 음악 감상(모바일 전용)	(30일 기준) 7400원
	MP3 다운로드+무제한 음악 감상	MP3 30곡 10800원
		MP3 50곡 15000원
	MP3 다운로드	MP3 5곡 3000원
		MP3 10곡 5500원
		MP3 30곡 8800원
		MP3 50곡 12500원
	음악 감상	50회 800원
		100회 1600원
		300회 4800원
		1000회 16000원

9)

〈표 3〉 음원 사이트 '지니'의 이용권 가격

〈표 2〉, 〈표 3〉을 보면 일반 MP3 다운로드 이용권에 비해 스트리밍 이용권의 가격이 확연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원 1개 구매 가격이 600원인 데 비해 음원 플랫폼 측의 단품 스트리밍 1회 이용료는 회당 12원으로 이때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는 1.2원에서 수익이 분배되고 가수, 연주자는 0.72원에서 수익을 나누게 된다. 무한 스트리밍은 할인율이 적용되면 재생 횟수당 가격은 6원으로 책정된다. 만약 소비자가 3,000원을 내고 무제한 스트리밍으로 곡을 듣게 된다면, 작

8) 〈표2〉 홍현규(2018). 한국 온라인 음원 플랫폼의 현실과 문제점: 음원 사재기 및 음원 원가상승과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학과, 3(3), 26-33.

9) 〈표3〉 홍현규(2018). 한국 온라인 음원 플랫폼의 현실과 문제점: 음원 사재기 및 음원 원가상승과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학과, 3(3), 26-33.

사가, 작곡가, 편곡자는 회당 0.6원에서 수익이 분배되며 가수, 연주자는 0.36원에서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 (김희경, 2018) 이러한 수익 구조 때문에 기획사들은 소속된 가수가 인기를 얻어 방송에 진출하는 등 다른 방식의 수익 창출을 위해 사재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라. 경영적 측면

현재 최다 유료가입자를 거느리고 있는 '멜론'은 매 시간당 서비스 이용량 중 스트리밍 40%, 다운로드 60%를 반영하여 실시간 차트를 운영하고 있다. 멜론 측은 전 날 24시간 누적이용자 수만을 밝히며 공정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매 시간대별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치를 비롯하여 중복 이용자 수 등의 세부 지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닐로의 음원 사재기 의혹도 각 음원 플랫폼에서 공개한 누적 이용자 수 이외에 시간대별 수치, 중복 이용자 수 등의 절대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순위 집계에 대한 투명한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승한, 2018)

현재 멜론 측에서는 같은 아이디를 이용해 같은 컴퓨터에서 반복해 클릭하면 이를 감지해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사들은 예전보다 더욱 정밀한 방식으로 사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역주행 곡선처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차트인을 하는 곡들도 많다. 이러한 경우 자연히 사재기의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고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멜론 측도 해당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음원 사재기 여부와 관련 없이 멜론 측에서는 곡 재생 수가 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마. 법적 측면

현재 대한민국은 음원 사재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에 음반 · 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 · 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음반 · 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 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에 따르면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처벌이나 제재는 미미하다. 강진석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에 따르면 음원 사재기와 차트 조작의 조항에 따른 처벌이나 비슷한 선례도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장휘, 2019)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음원 사재기에 관련된 청원글이 게시되기도 하였다. '음원 차트를 조작하는 사재기를 막아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은 대중들의 들을 권리를 무시하고, 동업자들과 가수, 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사재기 행위를 막아달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유명 연예인들 역시 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공석에서 비판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 진은 2019 MAMA 시상식에서 "부정적인 방법도 좋지만 조금 더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어떨까. 모두 다 좋은 음악을 하고 듣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였다. 헤이즈 역시 동일한 시상식에서 수상 직후 "2020년에는 하나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너무 고민하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모든 아티스트의 정당한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게 좀 더 좋은 음악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그룹 블락비의 멤버 박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지난 11월 24일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인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비판글을 올렸다. 이후 송하예 측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바이브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냈다.

〈그림 6〉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그림 7〉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그림 8〉 가수 박경의 트위터 게시물

이후 가수 김간지, 딘딘, 성시경, 마미손, 이승환,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 등도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자신의 노래에 사재기를 비판하는 내용의 가사를 담은 아티스트도 있다. 다음은 마미손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에 수록된 가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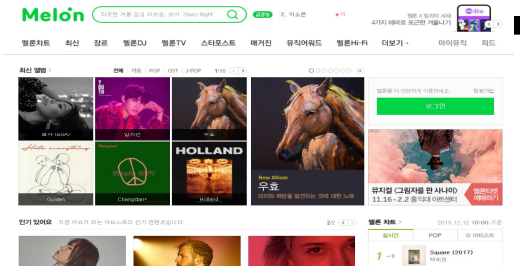
짬에서 나온 바이브가 그 정도라면 야 쪽팔린 줄 알아야지
별거 없더라 유튜브 조회 수 페북으로 가서 돈 써야지
천개의 핸드폰이 있다면 별의 노래만 틀고 싶어
기계를 어떻게 이기라는 말이냐 내가 이세돌도 아니고

이는 아티스트 '바이브'의 음원 사재기를 저격 비판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연예인들의 발언만으로도 음원 사재기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음원 사재기 행위에 분노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Ⅳ.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

1. 미국의 온라인 음원 시장과 순위 집결 방식

미국, 일본 등 해외에도 수많은 음원 사이트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음원 이용 실적이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구조는 아니다. 1940년대부터 집계해온 미국의 빌보드 차트는 음반 판매량이 기본 척도다.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횟수는 별도의 수치로 환산해 차트에 반영한다. 최근에는 콘텐트 소비 시장을 반영해 유튜브 다운로드 및 조회 수까지 합쳐 종합 차트 순위를 매긴다. 오리콘 차트는 실제 음반 판매량을 실적에 반영하기보다, 음반 판매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샘플 지점의 판매량을 차트에 반영한다. 또 1위를 했다는 사실보다 몇 주에서 길게는 몇십 주 동안 차트에 머물렀는지에 대해 의미 부여를 더 많이 한다. (김나윤,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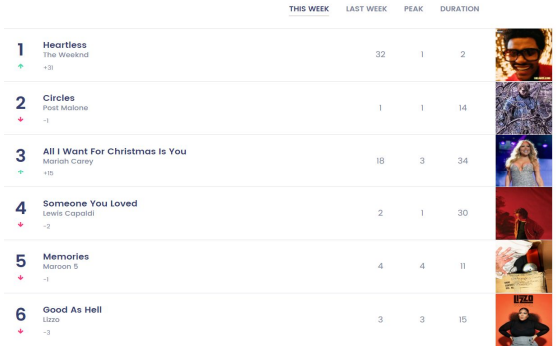
〈그림 9〉 한국 멜론 사이트의 메인 화면

〈그림 10〉 미국 빌보드 사이트의 메인 화면

차트 운영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은 음원 제작사와 이해관계가 깊다. 카카오는 지난해 멜론을 인수했고 자회사 카카오M을 설립해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수 아이유가 이 회사 소속이다.

지니는 지난해 CJ디지털뮤직과 합병해 CJ ENM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 음악제작자가 유통 플랫폼까지 장악한 탓에 소속 가수가 차트 순위에서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면 빌보드, 오리콘 차트는 음반사와는 별개로 유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시간대별 차트 순위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다 보니 차트 순위는 결국 음반 유통의 수익과 직결된다. 디지털 음원 순위가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이미 자리 잡은 한국의 문화는 변화하기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나윤, 2019)

〈그림 11〉 한국 멜론 사이트의 순위 차트



〈그림 12〉 미국 빌보드 사이트의 순위 차트

〈그림 9〉의 멜론 사이트 메인 화면은 주로 최신 발매 앨범을 보여주고, 〈그림 10〉의 빌보드 메인 화면은 여러 앨범의 수록곡을 돌아가며 화면에 띄우는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특정 곡을 더욱 부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곡들은 순위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한 곡만 강조·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곡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다. 반면 순위 차트를 보면 단순히 순위만 보여주는 〈그림 12〉의 빌보드 차트와는 달리 〈그림 11〉의 멜론 사이트는 1,2,3위의 순위 상승 그래프와 함께 화면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상위권의 곡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선행 연구인 '한국 온라인 음원 플랫폼의 현실과 문제점: 음원 사재기 및 음원 원가상승과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유통사가 수익률의 3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제작자, 가수 등 저작권자들이 자체적으로 나누고 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음원 플랫폼 업체와 유통사가 제작자 및 저작권자보다는 수익을 덜 가져가는 구조다. (홍현규, 2018)

2. 음원 사재기 규제에 대한 국가 및 비영리 단체의 노력

음원 사재기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등장한 비영리 단체들도 있다. '바이닐' 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음원 플랫폼으로 기존의 음원사이트와는 달리 창작자에게 가격결정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 새로운 음원 플랫폼의 창작자 음원 수입 분배율은 최고 74%에 달한다. '바른음원협동조합' 역시 창작자의 권익 문제와 창작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바른음원협동조합의 최종 목표는 음원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이은호, 201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도 창작자의 권익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은 문체부에서 발표한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이다. ‘온라인 음원 플랫폼 내 음악차트 순위조작에 관련된 음원 재생에 대하여 1일 1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을 설정하여 물량화로 조작이 가능한 근본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짧은 음원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간 차트를 지양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16) 지난 2015년도 12월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 음원 다운로드 수익분배의 저작권자 수익분배율이었던 60%에서 10% 인상된 70%로 정하였고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을 75%에서 65%로 인하 한 바 있지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제외된 다운로드 서비스 부분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또한 온라인 음원 플랫폼 업계에서는 2015년 징수규정 개정 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수익에 대한 분배비율이 재조정된다면 플랫폼 운영에 대한 심각한 타격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음원플랫폼 평균 9,000원 수준대인 서비스 상품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대 34,000원 까지 인상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실행 가능성은 매우 적다.

V. 결론 및 해결 방안

음원 사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외에는 비슷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음원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어 기존 스트리밍 횟수보다는 음원 판매량 음반 판매량,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건수, 방송 횟수 등등 산출 가능한 모든 지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순위를 집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음악 관련 게시물(김작가, 2018)에서는 음원 사이트와 소속사가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게 하고, 미국과 같이 영화계의 통합 전산망과 같은 신뢰할 만한 공공 차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음원 사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관련 규제와 처벌의 강화 또한 필요하다. 현행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부적절한 방법으로 음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정당한 방법으로 음원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순위를 중요시하는 구조와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켜야 한다. 현재 멜론 사이트는 1위를 화면에 크게 띄워준다. 이는 한국의 1위만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법 행위들은 어디에서나 만연하기 때문에 완전히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그런 불법행위가 '소용이 없도록' 애초에 음원 소비자들이 바람직한 음원 소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재기라고 발표된 음원들을 소비하지 않아 사재기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Ⅵ. 기대효과 및 전망

본 연구는 음원 사재기라는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문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안한 데에 있어서 그 의의가 있다. 경제/경영·법·역사·철학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에서 음원 사재기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음원 집계 방식의 변화, 법의 개정, 전반적인 사회 인식의 개선 등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실제 음원 사재기 관련 대책을 수립할 때 활용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식 개선 즉, 한국 음악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1위만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고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음원 사재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은 사재기한 곡도 다른 곡 못지않게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으며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소비자들은 사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위가 높으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오히려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음악 시장에서의 승자독식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부도덕적인 방식의 차트인이 사회적인 질타를 받으며 사재기한 곡들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다면 그것이 양심에서든, 후폭풍이 두려워서든 어느 쪽이라도 소속사들의 자연히 음원 사재기는 사라질 것이다.

음원 사재기가 사라진다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바람직한 음원 소비문화를 형성될 것이다. 그것이 한국의 음악 문화가 발전하는 길이며, 공정한 음악 시장이다.

참고 문헌

[1] 김나윤. 2019.11.30. “업자는 음원 사재기, 팬은 ‘스밍 총공’…차트 조작 꼼수 난무”. 《중앙일보》

[2] 김병용. 2019.12.10. “[뉴스 따라잡기] 가요계 강타한 ‘음원 사재기’…의혹과 진실은?”. 《KBS 뉴스》

[3] 김수민. 2019.12.8. ”BTS도 가세한 ’음원사재기‘ 비판…“기계를 어떻게 이기라는 말이냐”.《중앙일보》

[4] 김우람. 2012.7.26. “ '한밤' 음원차트 순위조작설 제기...가요계 '충격'”. 《머니투데이》

[5] 김예랑. 2019.12.3. “"음악 인생 걸었다"…바이브, 음원 사재기 결백 입증 가능할까?”. 《한국경제》

[6] 김작가. 2019.12.9. “음원사이트 사재기 논란 끝장내는 방법”. 《주간동아》

[7] 김지만. 2019.12.6. ”‘음원 사재기’ 견적어 유출됐나...? ‘차트 100위권=8천만 원“. 《뉴스타운》

[8] 김희경 (2018). 국내 음원 시장의 수직계열화 현상에 대한 통시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10), 267-278.

[9] [이슈]음원사재기 해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래. 2019.12.9.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gg6647/221732067381

[10] BBC Korea. 2019.11.25. “음원 사재기: 이례적인 실명 거론... 박경 '사재기' 사태 3분 정리”. 《BBC 코리아》

[11] 모바일한경. 2019.12.9. “음원 사재기 실체는… "마케팅 회사 자료 공개해야". 《한국경제》

[12] 문화체육관광부. 2016.2.29. 음원 사재기 규제를 위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13] 문화체육관광부. 2018.6.20.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14] 박경, 딘딘 등 ‘음원 사재기’ 공개 저격한 스타5. 2019.11.25. Retrieved from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943375&memberNo=16711396&vType=VERTICAL

[15] 이세현. 2019.12.9. “50위 진입에 2억 5000만원?”...음원 사재기 견적서 공개돼 파문“. 《매일경제》

[16] 이은정. 2018.4.27. “의혹만 제기되는 음원 사재기…"고발 대상 특정도 어려워". 《연합뉴스》

[17] 이은호. 2016.7.19. “바이닐, 2.0 서비스 시작...유통 시장 새바람 몰고 올까”.《중앙일보》

[18] 이혜진. 2019.11.28 “'음원 사재기' 논란에 靑 청원도.. "충분히 의심하고 조사해볼만". 《파이낸셜 뉴스》

[19] 일간스포츠. 2018.5.14. ““멜론차트 조작가능”...변질된 역주행→대중음악 위기“. 《중앙일보》

[20] 장휘. 2019.1.22. “음원 사재기와 차트 조작, 처벌 조항 있지만 사례는 ‘미미’. 《스냅타임》

[21] 다시 터진 음원 사재기 논란 정리- ‘숀 안대고 닐로먹기’?. 2018.7.20. Retrieved from
https://m.blog.naver.com/canjelluv1117/221322552949

[2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4조.

[2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음악 산업백서 2016 =Music industry white paper』. 〈음악 산업백서〉. 2016년호.

[24] 홍승한. 2018.4.15. “[SS이슈]닐로 논란 속 음원차트, 음원 사이트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스포츠서울》

[25] 홍신영. 2018.5.12. “음원 역주행의 비밀…'사재기'로 순위 조작?”. 《MBC 뉴스》

[26] 저작권 상식 (1) 음원 스트리밍 수익 분배 구조. 2019. 3. 28.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youramp?Redirect=Log&logNo=221498703289

[27] 홍현규 (2018). 한국 온라인 음원 플랫폼의 현실과 문제점: 음원 사재기 및 음원 원가 상승과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영상문화콘텐츠학과 , 3(3), 26-33.

[28] 언제까지 음원차트 조작과 사재기 논란에 시달려야 하나. 2018. 5. 9. Retrieved from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569661&memberNo=39087579

| 사설 | 2019-12-13

[오늘의 사설] 음원 사재기의 불공정성에 대한 고찰

박찬영 학생기자

최근 그룹 블락비 소속 가수 박경의 폭로를 시작으로 가요계 곳곳에서 음원 사재기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박경의 폭로 이후 가수 김간지, 딘딘, 성시경, 마미손, 이승환,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 등도 폭로 대열에 동참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총 39건의 음원 사재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2019.12.12.목 기준), 그 중 하나인 '음원 차트를 조작하는 사재기를 막아주세요' 청원에는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기준 6,720명의 국민들이 동의하였다.

음원 사재기는 우리에게 개인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먼저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이 모두 사재기를 통해 음원 차트에 오른 음악이라면 우리는 음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없다. 돈이면 다 된다는, 열심히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돈이 없는 회사나 가수들이 돈이 많은 회사의 가수들보다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돈'으로 모든 성공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물질만능주의 사회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에 이러한 악영향을 끼치는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고 단속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고'는' 있다. 2016년 2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 개정된 지 거의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음원 사재기는 계속 되고 있다. 처벌의 미약함 때문이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원 사재기 업자들이 음원 사재기를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해 아주 약하다. 우리는 이러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여 업자들이 음원 사재기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법을 통해 받는 손해가 더 많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음원 사재기를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여야 한다. 법 개정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집계 방식인 스트리밍 횟수 보다는 음원 판매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집계하여 여러 핸드폰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지금의 사재기를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영화계의 통합전산망과 같은 신뢰할 만한 공공 차트 시스템을 구축도 고려해볼만 하다.

불공정한 음원 사재기는 근절되어야 하며, 그것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음원 사재기를 한 가수들에게 한 마디 하고 싶다. *우디서 숀 안 대고 닐로 먹냐.*

| 입법청원서 |

입 법 청 원 서

수　　신: 국회의장
제　　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청원서 1부 끝.

청원자(대표): 박찬영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74-40 인천국제고등학교
성　　명: 박찬영 외 4인

소개의원(대표):　　(인) 외　　인

청 원 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이하 국회의원 제위께.

1. 청원제목:「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요청

2. 청원배경(請援背景)

지난 11월 23일 그룹 블락비 소속 가수 박경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그룹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고 밝히며 국내 음원 시장에 음원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폭로하였습니다. 또, 박경의 폭로 이후 가수 김간지, 딘딘, 성시경, 마미손, 이승환,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 등도 폭로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래퍼 마미손은 음원 사재기를 비판하는 노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발표하여 음원 사재기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것을 비판하였습니다. 여기서 음원 사재기는 대중들이 음원차트 최상위에 있는 곡들을 인기곡으로서 듣게 되는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 브로커 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한 뒤, 특정 가수의 특정 음원을 연속 재생하여 음악 순위 목록 및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음원 사재기는 가수들 사이의 동등한 조건에서의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에 음원시장의 공정성을 저해시킵니다. 또, 음원 사재기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음원 차트와 음원시장의 가치를 저해시킵니다. 음원 사재기는 음원시장 뿐만 아니라 음악을 듣는 대중에게도, 우리 사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음악을 듣는 대중이 음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없게 하고, 대중들이 돈이면 다 된다는 바르지 못한 인식 혹은 열심히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잘못된 사고를 하게 합니다. 또, 돈이 없는 회사나 가수들이 돈이 많은 회사의 가수들보다 성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면서 우리 사회를 '돈'으로 성공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물질만능주의 사회로 만듭니다.

이렇게 음원 사재기는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22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 3항을 개정하며 음원 사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였으나, 이것은 음원 사재기 업자와 가수들이 음원 사재기를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음원 사재기를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해가 더 많도록 하기 위해 입법을 청원합니다.

3. 청원요지

본 청원의 요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34조 3항 2의 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음원 사재기'의 부적절한 음원 생산 때문에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부적절한 방법으로 음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음원의 가치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상승시키기 위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희곡대본 |

2019 교과융합 Project Based Learning 특별희곡

음악을 듣는 게 아니었어

각본/ 안소연

〈인물〉

김신입/ 여

우수한 성적으로 '에스엔엔터테인먼트' 홍보부에 수석 입사. 박신입과 고등학교 때부터 라이벌이었지만 항상 박신입보다 뛰어났음. 당차고 밝은 성격에 일 처리 능력도 좋고 상사 말도 빠릿빠릿 하게 잘 따르는 사회생활까지 수석.

박신입/남

몇 번의 시도 끝에 '에스엔엔터테인먼트' 재무부 직원으로 입사.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 경험이 있음. 계속 김신입에게 지는 것이 못마땅해도 내심 김신입이 잘되기를 바람. 할 말은 하는 당당함.

신부장/ 남

3년차 부장. 슬슬 일이 지쳐가고 모든 게 귀찮아짐. 직원은 그저 회사의 한 부품뿐이라는 가치관.

이상무/ 남

부장은 갈구고 회장에게 딸랑거리는 것이 회사생활의 취미.

남회장/ 남

한국의 3대 기획사 중 한곳인 '에스엔엔터테인먼트'의 회장. 모든 뒷거래의 중심.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강한 신념.

구회장/ 남

한국 최대의 음원 사이트 '메롱 Melong'의 회장. 남회장에게 대접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권위적. 이미 타락해버린 인물.

#1: 에스엔엔터테인먼트 앞 | 김신입, 박신입

김신입 회사 앞에 서 있고, 박신입 마침 뛰어 옆으로 온다.

김신입: (웃으며) 야 박~ 첫날부터 지각이냐! 어제 열심히 하자고 한 말씀은 바로 어디 갔대?

박신입: (헉헉거리며) 헉.. 헉.. 첫날부터 지각할 뻔했네 다행이다 헉..

김신입: (어깨를 토닥여주며) 진정하고 진정! 같이 열심히 하자! 박! 화이팅

박신입: (아직도 헉헉거리며) 그..래.. 고오..맙다…

김신입: (박신입을 끌고가며) 빨리 같이 가자! 자자 어서!

김신입과 박신입 회사 안으로 들어가니 상수에서 신부장이 앞에 서 있는데..

오픈전환.

2 :에스엔엔터테인먼트 로비 | 김신입, 박신입, 신부장

김신입, 박신입: (90도 인사를 하며) 안녕하세요!

신부장: (심드렁한 목소리로) 응~ 안녕~ 저는 신부장이고 3년차! 궁금한 점?

김신입: 어디 총괄하고 계신지?

신부장: 아! 그 홍보부랑 재무부 모두 내가 총괄한다고 하자! 사실 누가 총괄하는지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하거덩 우리 회사가.. 아유 아니다 신입한테 벌써 이런 말을 왜 하니 허허

박신입: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신부장: 아냐아냐~ 그냥 모르는게 나아 위층으로 올라와서 인사 지도 받으면 돼 난 잠깐 밖에 나가서 업무전화 좀..

신부장 무대 밖으로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업무전화는커녕 담배를 피며 퇴장.

박신입: (김신입에게 속삭이며) 아니 여기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에스엔 아니냐? 뭐가 이렇게 허술해? 재무부랑 홍보부 총괄이 한 사람이라고..?

김신입: (박신입을 말리며) 아유 조용히 좀 해 다 듣겠다! 야 너가 몇 년 동안 바라던 일인데 뭐 이리 비관적이야?

박신입: 아이씨 무슨 콩가루 집안이야? 입사하자마자 퇴사하고 싶게 만드네 하 진짜

김신입: 아이 그러지 말래도~

불이 꺼지고 막전환.

#3: 홍보부와 재무부 사무실 안 | 김신입, 박신입, 신부장, 이상무

신부장 앉아 있고 김신입, 박신입 하수에서 등장.

김신입 : 다시 뵙네요! 김신입입니다.

신부장: 응~ 소개는 필요없고 아니 이놈의 회사 무슨 인사담당자도 안 보내고 이걸 내가 왜 해

박신입 갸우뚱거리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있다.

신부장: (박신입을 위아래로 보며) 자네는 뭐가 문제인가? 표정이 왜 그러나?

박신입: 아니 그냥 시스템이 좀 허술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고 왔는데 딱히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김신입: (당황하며 속삭인다) 야! 박! 정신차려 오늘 첫날이야

신부장: (심드렁하게) 응 지금 소개해줄게. 우리가 지금 신인 아이돌 '비자르'를 런칭할 예정이야 아마 3일 뒤쯤? 걔네 홍보 돕고 수익 세보던가. 아니 근데 신입은 딱히 나서서 하진 말고 그냥 불리면 하는 일 하면 돼 뭐,

김신입: 비자르 말씀이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신입: (마지못해) 예.

신부장: 아, 아까 이상무님이 신입들 오늘 갈 데 있다고 여기로 오신다 하셨어 괜히 부서에 피해 가게 하지 말고 잘해라 엉?

김신입: 네 부장님.

김신입, 박신입 자리에 앉고

때마침 이상무 전화를 받으며 하수에서 등장.

이상무: (전화통화 중) 예예 상무님! 예 오늘 7시 맞죠? 그럼요! 근처 B호텔 스페셜룸 예약해놓았습니다! 아 구회장님 요즘 심기가 불편하시다고요! 예예 주의하겠습니다 예예 들어가세요!

신부장: (반색하며) 예 상무님 고생하십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V접인가요?

이상무: 응 오늘 7시 자네가 갈건가? 아니면 신입들 보내게 구회장 요즘 기분 안좋나봐 그 늙은이 노망났네 왜 그래?

신부장: 예 그냥 신입 둘 보내겠습니다. 시키는데로 잘하겠죠 뭐.

박신입: (자리에서 속삭이며 혼잣말로) V접? 무슨 소리 하는거야?

이상무: 응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네 조심히 진행하고 알려지면 우리 다.. 알지?

신부장: (90도 인사를 하며) 예 상무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이상무 하수에서 퇴장. 신부장 김신입, 박신입을 자기 자리로 부름.

신부장: 응~ 방금 잘 들었지? 오늘 7시 H호텔이야 그냥 그 분 잘 모셔?

김신입: (조심스럽게) 그.. 분이 누구신데요?

신부장: 아 메롱 회장 알지? 그분? 오늘 V접이거든? 아 VIP 접대 그런건 아니고 그냥 친목 도모 우리 회장님이랑 친하셔 식사 자리야

박신입: 그런 자리에 신입이 가도 되겠습니까?

신부장: (약간 성가신 투로) 아이 그냥 하라면 해 어차피 신경 안 써 (속삭이며) 돈 거래나 할텐데 뭘 새삼스럽게..

박신입: 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부장: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잘하라고

김신입: 예!

박신입: (마지못해) 예

불이 꺼지고 Fade out.

#4: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 김신입, 박신입, 신부장

김신입, 박신입 같이 밥을 먹고 있다.

박신입: 야 김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일이 없고 모시기만 하라고?

김신입: (약간 고민하며) 근데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왜지.. 하…

신부장 밥 먹는데 뛰어와서 김신입, 박신입을 재촉하는데

신부장: (큰 목소리로) 지금! 지금 당장 출발! 당장 가야 돼 점심으로 바꿨대 H 호텔로 둘 다 지금!

김신입, 박신입: (동시에) 예?

신부장: 지금 그럴 시간 없어 빨리 회사 차 타고 가! 가! 가!

불이 꺼지고 막 전환.

#5: H 호텔 스폐셜 룸 안 | 김신입, 박신입, 신부장, 남회장, 구회장

김신입, 박신입 뻘쭘하게 서 있고 남회장 들어온다.

남회장: 우리 회사 직원들인가? (비장한 말투로) 오늘 튀지 말고 잘 넘어가게 중요한 자리야.. 엉?

김신입, 박신입: (긴장하여) 예..

남회장: 외부 노출되지 않게 문 밖에 지키고 있어 잡 심부름 빠릿빠릿하게 하고..

구회장 인상 쓰며 들어오고 김신입, 박신입 문 밖으로 나간다.

박신입: 이게 진짜 그냥 식사자리일까? 외부에 노출되면 왜 안되는건데?

김신입: 조금 무서운 것 같아 그냥..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긴 해

박신입 서류를 가져다주러 들어가다가 잠자코 서 있어본다.

남회장: (깍듯하게) 저희 이번 신인 아이돌 '비자르'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구회장: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 이번에도 지원해줘야겠나? 우리 메롱은 이거 안한다고 해서 피해보지 않는다네 그냥 이제 그만할 때도 되...

남회장: (재빨리) 아닙니다 회장님 이번에 그럼 조금 더 투자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 한 번만 더..

박신입: (눈치없이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며) 여기 서류요

구회장: 회장님 제.. ㅂ…

박신입이 들어오자 황급히 말을 멈추고 박신입은 눈치채고

문을 살짝 열어놓고 나온다.

박신입: 야 김 너도 들어봐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남회장: 이번에 저희가 두 배 드리겠습니다.. 차트도 좀 봐주시고 그 요즘 폰 여러 개 공장으로 돌리는 것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 회장님...

구회장: (책상을 쾅치며) 두 배? 그걸로 될 것 같아? 이거 수사 들어가면 끝인거 알지? 우리는 다 막을 수 있어 자네 회사만 문제네 잘 생각해보게

남회장: 예.. 세 배..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더 투자하겠습니다

구회장: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세 배면 생각해보겠네 지금 '제이에이피엔터'랑도 약속 잡혀 있어서 이만

남회장: (절망하며) 예? 회장님? 어디 가세요? 예? 아..

박신입 문을 박차고 들어와 분개하면서.

김신입은 들어와서 바라보고만 있다.

박신입: 이게 지금 무슨 행동이십니까? 왜 돈 얘기가 오가죠?

남회장: (가뜩이나 화났는데 더욱 성가신 듯이) 조용히 좀 하게나

박신입: (계속 흥분하여) 이게 에스엔엔터테인먼트의 비결이었습니까? 고작 이게? 음원 차트 조작에 사

재기 핸드폰 공장에? 우리나라 최고 기획사면서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남회장: (분노를 참지 못하며) 시끄럽다고 했잖아!

어디서인지 갑자기 신부장이 하수에서 등장하고

남회장: (살벌하게) 자네.. 내가 신입 교육 제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나

남회장 박신입을 한 번 째려보고 무대에서 퇴장한다.

신부장: (매우 분노하여) 자네 같은 신입이 지금 회장님한테 뭐하는 짓이야? 내가 조심히 행동하라고 했잖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거야?

박신입: (흥분하여) 부장님은 이걸 그냥 받아들이십니까? 양심 없으세요? 이게 회사입니까? 콩가루 집안이지?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신부장: (비아냥 거리며) 그래 너 첫날부터 마음에 안들었어 그냥 받아들이라고. 직원이 뭔 줄 알아? 그냥 회사의 한 부품이야. 위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된다고? 너가 뭔데 양심을 운운해?

김신입: (말리며) 제발 두 분 다 그만해주세요.. 제발

박신입: (김신입을 밀치며)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비윤리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은 듯이) 저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합니다. 아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 고발할겁니다. 그게 제일 두렵잖아 당신들.

신부장: (비웃으며) 고발? 고작 신입이? 고발?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아니 전혀 아무도 네 얘기 안 들어줄거야.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 엔터테인먼트인데 그것도 못 막을 것 같나?

박신입: 아니요. 제가 할 겁니다. (분노하며) 아니 지금 여기서 아무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잖아! 회장이고 상무고 부장이던 뭐던 그렇게 돈이 최고야? 연습생들 이 상황 알기나 해? 다 지들이 열심히 해서 인기 많은 줄 알겠지 이거 기만이야 당신들

신부장: (비웃으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는 회사야 회사. 돈만 벌면 돼 그러니까 안 맞으면 너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당장 나가 여기 꼴보기 싫으니까

박신입: 네 저 나갑니다 지금

박신입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고 울며 서 있는 김신입.

그리고 신부장 씩 비웃어 보이고는 나가버린다.

불이 꺼지고 막전환.

#6: 새벽, 박신입의 집 | 박신입

박신입 책상에 앉아 고뇌에 빠져있는 듯하다.

책상 한 켠에 놓여 있는 고소장.

박신입(나레이션): 내가 지금 고발한다고 해서 바뀌는게 있을까? 이 거대한 검은 무리 속에서 내가 왜 내 발로 들어간 걸까. 직원은 진짜 그냥 부품인걸까 그냥... 내가.. 무시하고 살아가는게 그게 맞는걸까 음..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

박신입 침대에 누우려다가 일어나 고소장을 찢어버린다.

박신입: 그래.. 나는 그냥 회사의 부품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Fade out.

"Chart panic buying is one of the great ills of our society." – TOYSTORY5

WHAT MONEY CAN B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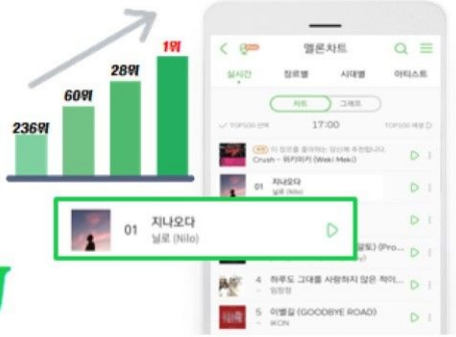
THE UNFAIRNESS OF CHART PANIC BUYING

105 TOYSTORY FIVE

THE MOST CREATIVE IIHS PBL TEAM EVER

10504 금유빈 10508 안소연 10510 이연우 10511 이유나 10520 박찬영

What Money Can Buy: Music Chart Panic Buying



음악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 목적으로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수직 상승하는 그래프

순위에 비해 낮은 인지도

입력 차트에서만 순위 급상승

아이디를 불법으로 도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집중적으로 음원 클릭

핸드폰 수천 대 구입 후
동시에 같은 음악 재생

차트 운영 방식의 전환

국가 및 비영리 단체의 노력

강력한 법을 통한 규제

How to solve

음원 사이트와 소속사 간의 독립적인 관계 구축

순위를 중요시하는 구조 및 사회적 분위기 변화

사재기 음원 소비 X

공정한 경쟁을 하는 그날까지

2장

법 | 정치 | 외교 | 경제 | 경영

맞벌이 가정과 노인을 위한 공존상생도시
| 보고서

수도권 내 지역격차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 발언을 중심으로
| 보고서

공정무역은 정말 공정할까?
| 보고서, 정책제안서, 카드뉴스, 기업제안서

서울공화국 (수도권 중심주의)
| 보고서, 인포그래픽, 포스터, 희곡(영상, 대본)

대한민국 기업에서의 불공정
| 보고서, 입법청원서, 인포그래픽

현대 사회의 암묵적 권력 계층 구조에 대한 고찰 – 영화 설국열차를 중심으로
| 보고서

맞벌이 가정과 노인을 위한 공존상생도시

10101가예림, 10106김혜윤, 10108류시아
10113유채연, 10121오은택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가. 현대사회 인간소외 문제

1) 아파트 주민들의 소외와 경시

가) 타인의방이 보여주는 인간소외현상

이 작품은 ‘그’라는 주인공의 의식세계를 통하여 삶에 내재한 개인적 고독 내지는 단절된 현대적 삶의 의미를 보여주며, 이를 하루 저녁의 생활을 통하여 적절히 서사화하였다. 작가는 이러한 작품을 통하여 비친숙성(非親熟性), 즉 낯선 의미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의식추구의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을 이루어놓고 있다. 주인공은 출장을 마치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가구를 노려보지만 가구들은 일제히 움직이다 제자리에 가라앉는다. 소설의 주인공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삶의 근거를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과 거리를 느낀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

은 마침내 주위의 사물에까지 투영되어 그 사물들을 움직이게 한다. 가구들이 어제의 가구가 아닌 것처럼 그 아파트는 자신의 집이면서도 낯설고 불편하다. 곧 타인의 방인 것이다 주인공은 거기서 도망갈 수도 없다.

나) 타인의 방에서 나타나는 아파트의 속성

효율성과 경제성을 우선시한 서구적 합리성의 개념은 한국의 아파트 공간개념에 침투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근대적 합리성의 개념이 다양한 색과 결을 갖는 일상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환원시킬 뿐 만 아니라 양적이고 획일적인 가치에 의해 지배되도록 함으로써, 일상의 범위가 축소되고 진부해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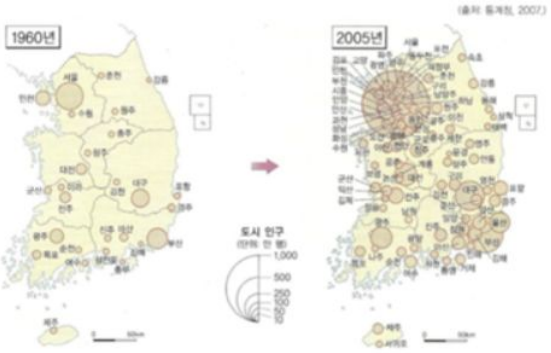
획일화된 거주공간으로 인간이 느끼는 소외감은 '타인의 방'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 상징적인 이야기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조차도 철저한 소외감과 고립감을 맛보는 현대인의 의식 일반에 대한 비유로 읽힐 수 있다.

2) 증가하는 고독사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가족, 친척, 사회에서 격리돼 홀로 떨어져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에 이르러 대부분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홀로 살던 A (57)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숨진 지 일주일 넘게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자보수문제를 의논하려고 찾기 전까지 누구도 그의 죽음을 몰랐다. A씨 사례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고독사 유형 중 하나다. A씨처럼 홀로 지내다 임종을 지키는 사람 없이 숨진 뒤 일정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서울에서만 이틀에 한 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 물론 고독사의 원인이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도 있지만, 첫 번째 도시인구 비율의 상승 현상과 고독사 사례 현황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을 봐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의 분포도와 고독사의 지역현황도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가.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맞벌이 가구가 1년 전과 비교해 21만9000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부부 1224만5000쌍 가운데 맞벌이 부부는 567만5000쌍으로 46.3%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1만9000가구(1.7%p) 증가한 것이다. 맞벌이 부부 비중은 2013년 42.9%, 2014년 43.9%, 2015년 43.9%, 2016년 45.5%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7년 44.6%로 하락한 뒤 작년에 반등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이 자녀를 매일 9시간가량 맡아 주길 원하는 반면 실제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채 8시간이 되지 않았다. 영유아 10명 중 8명(80.6%)은 종일반 정규 시간(오후 7시 30분)보다 2시간 이상 이른 오후 5시 이전에 집으로 돌아갔다. 맞벌이 부부가 퇴근 뒤 자녀를 데리고 하원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보육실태조사에서 맞벌이 부부는 평균 7시간 48분, 외벌이 부부는 6시간 54분가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현장에서 늘 지적되는 문제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맞벌이를 하며 세 살 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A(35·여)씨는 "다른 아이들이 오후 4시에 하원하면 내 아이만 남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육아도우미를 고용해 오후 5시 이전에 하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	249	298	288	338	308
부산	51	56	64	88	91
대구	12	43	30	87	55
인천	52	81	92	119	146
광주	2	12	5	20	13
대전	18	17	20	22	25
울산	17	18	17	22	24
세종	1	3	2	2	3
경기	115	168	184	204	193
강원	35	41	35	56	75
충북	20	15	17	31	34
충남	31	50	37	39	52
전북	10	26	22	25	26
전남	21	25	49	32	39
경북	28	37	42	55	39
경남	47	43	54	68	87
제주	40	32	34	47	22
합계	749	965	992	1245	1232

2.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인간소외, 고독사,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등 다양한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주거 공동체의 연대의식 부족'으로 바라보았다. 오늘날 공동체의 문화와 경제, 사회 시스템이 개인화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어 갔다. 이웃이 무엇을 하는지, 누군가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는지, 외로이 고

독사하고 있지나 않은지를 살피던 시절의 '함께'의 정신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정의 문화가 있었다. 품앗이는 예로부터 품(일,노동)을 서로 주고 받는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이며, '두레'는 힘든 노동을 함께 나누는 공동 노동 풍습이다. 이웃주민들을 함께 살피고 마을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두레와 품앗이 같은 제도와 마을을 만든다면 고독사, 인간소외현상,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거공동체의 사례

가. 코르넷

코르넷에는 개방형 평면으로 계획된 44개의 채광이 좋은 아파트가 있고 규모는 40제곱미터의 원룸형부터 70제곱미터의 2R+K까지 다양하다. 각 아파트에는 설비가 좋은 부엌. 욕실, 거실, 침실이 있고 케이블 TV와 전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모든 입주자는 자신의 아파트와 창고를 유지관리하고 수선할 책임이 있지만 냉·온수 파이프, 배수구, 난방, 전기, 물, 환기구의 수리는 이사회에서 책임진다. 개인 아파트의 실내디자인과 설치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은 아파트를 거주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주택의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서 5,100~7,000크로나(690,000원~950,000원) 정도이다. 수돗물은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기료는 별도이다. 부가하여 1인당 연회비1,000크로나(135,000원)를 지불하는데 가족이 많더라도 가구당 최대 2,000크로나(270,000원)로, 이 비용은 공동공간의 유지관리에 사용된다.

나. 코르넷의 커먼 하우스

커먼하우스의 1층에는 주민 모두가 함께 앉을 수 있는 넉넉한 규모의 식당이 있고 인접하여 소파, 안락의자가 놓인 거실, 그리고 작은 도서실이 있다.

그 외에도 설비가 좋은 운동실과 사우나실 그리고 2개의 손님방도 갖추어져 있다. 11층에는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카우치가 놓인 방이 있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한 넓은 테라스도 있다. 주민들은 커먼하우스에서 매일 공동 저녁식사를 하고 여러가지 활동도 함께 할 수 있다. 지하실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 1층에 공동세탁실이 있다. 조합에서는 열선이 설치된 주차장을 임대하여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편리한 주차공간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단지 내에 재활용과 퇴비장을 갖춘 친환경 쓰레기 처리장이 있다.

다. 코르넷의 공동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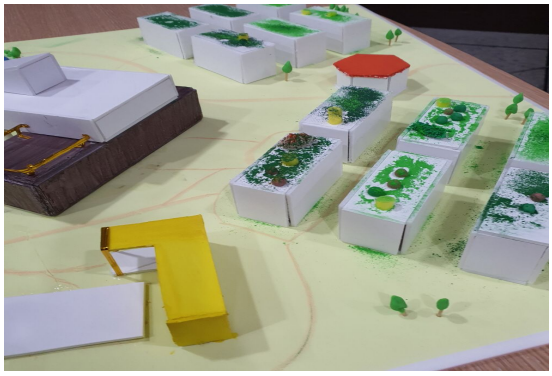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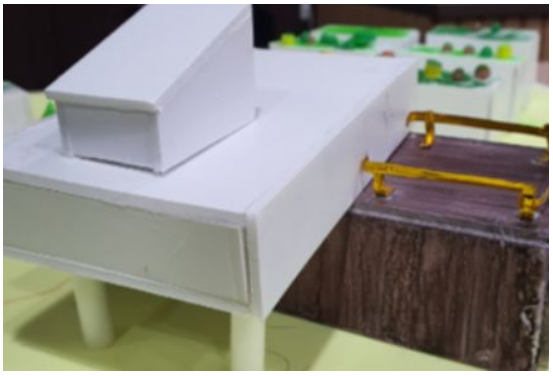
코르넷 공동활동의 중심은 공동식사이다. 주민들은 돌아가며 취사당번을 맡아서 식사준비를 하고 조리와 설거지까지 맡는다. 조리작업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는 활동이고 당번은 6주에 한 번씩 돌아온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매일 저녁에 열리는 공동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공동식사는 매일의 식사준비 걱정을 덜어주므로 코하우징 주민에게는 중요한 활동이다. 취사당번이 아닌 주민들은 직장에서 돌아와 하루를 마감하며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편하게 앉아서 잘 준비된 식사를 한다. 코르넷에는 개인적 흥미에 따라 여러 가지 취미활동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면 요가, 필라테스, 기공, 명상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청어 초절임, 왕새우와 함께 와인이나 술을 마시는 모임, 영화를 함께 보고 탁구나 다트게임을 하는 모임도 있다. 또한 어떤 모임에서는 이웃과 함께 답사나 외국여행을 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웃과 함께 재미난 일을 하고 웃고 즐기며 사는 것은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일이다. 유머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 따라서 공동체에서 사는 일은 건강에 유익하고, 좋은 이웃과 접촉하며 사는 것은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라고 코르넷의 주민들은 믿는다.

Ⅲ. 연구방법

1. 공존상생도시의 목적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 사회는 도시 내부의 인간 소외 및 차별 현상과 노인 고독사,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증가와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위 문제의 원인을 개인주의의 팽배, 주거 공간 및 계층의 분리로 인한 소통의 단절로 본다면 주거 시설과 주거공간 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위 문제 상황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공존상생도시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거 환경 및 문화를 형성하여 앞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제작되었다.

2. 공존상생도시의 시설 및 제도

1) 저층 건물: 현대의 주거 시설 및 계획도시에는 고층건물과 빌딩들이 주를 이룬다. 대부분의 고층 빌딩에서 가장 매매가가 높은 곳은 최상층에 위치한 일명 펜트하우스인데, 실제로 같은 건물의 다른 층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동시에 도시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구조 덕에 많은 자산가들이 이 곳에 거주한다. 반면에 공존상생도시의 건물들은 모두 3층을 넘지 않는 저층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상류층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 양상을 띠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의 이동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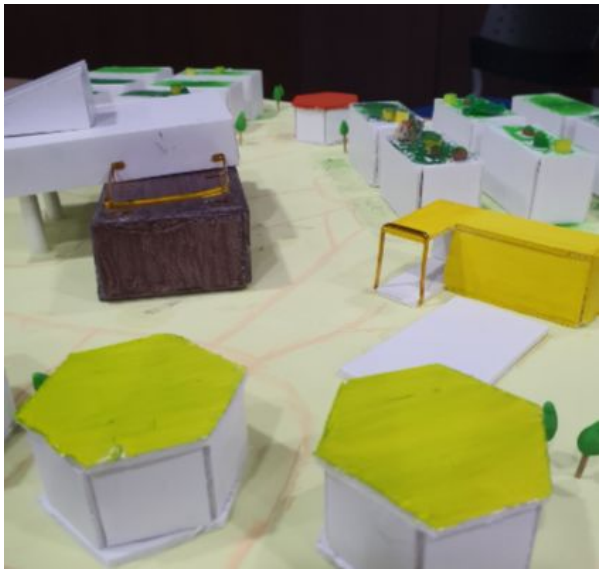
2) '필로티'를 보완하는 구조: 필로티란 1층은 건물을 지지하는 형태의 기둥만을 세워두고 2층 이상부터 방을 만든 형태의 건물에서 1층의 개방형 공용공간을 일컫는 말이다. 대부분의 고층아파트에서 필로티 공간은 주민 모두가 소유권을 가지고 함께 이용하며 관리한다는 점에서 거주민의 커뮤니티 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이러한 필로티 공간은 제작 목적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주민 커뮤니티 의식을 증진시키기보다는 단순 이동의 통로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필로티 공간 주변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광장 등이 시각적, 동선적으로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로티 공간의 이용 빈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필로티공간의 목적 및 기능을 공존상생도시의 전반적인 구조로 가져오되,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들 사이 동선을 고려하여 둘렛길을 만듬으로서 그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3) 공존상생센터: 마을 중앙에 위치한 주민 센터로 거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이다. 내부에는 어린이 도서관, 미술실, 도미노실, 보드게임실, 영화관람실, 생활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더불어 회의실과 소강당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곳은 첫째, 공동육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의 기능을 한다. 거주민들은 이 곳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가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를 이 곳에

맡겨두어 은퇴한 이웃이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공동육아를 위한 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주민자치활동을 하는 공간의 기능을 수행한다. 마을 거주민들은 내부에 위치한 회의실과 소강당에 모여 마을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마을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공존상생센터는 거주민들을 위해 개방된 공간으로 주민들이 언제든 만나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으며, 공동육아와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민 커뮤니티 및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소이다.

3. 공존상생도시의 기대효과

1) 사회 문제 해결: 개인주의의 팽배와 도시과 시골의 공간적인 인프라가 분리되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 즉 고독사, 인간 소외현상, 맞벌이 가족의 부담 증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현대 사회 맞벌이 가정은 출산 및 육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아이 입장에서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부모가 집에 없는 동안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겪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한 편, 은퇴한 노인이 도시에서 소외되고 고독사하는 사례 현황이 증가하며 이 또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존상생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육아 활동, 즉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를 은퇴한 이웃에게 맡겨 하루의 일과를 함께하고 대신 돌보아주는 문화는 앞서 언급한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육아부담비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웃과 교류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계층의 분리, 소외, 차별을 막음: 공존상생도시의 저층건물 구조, 필로티 공간의 한계를 보완한 동선 조정, 함께 이용하고 관리하는 공동 시설,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할 공동육아 문화 등은 모두 공동체 생활을 기반으로 하여 거주민들의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거주민이 사회의 어떤 계층의 속해있든 마을의 이웃들과 섞여 살아가게 함으로서 소통의 단절을 막고 자연스럽게 특정 계층의 소외와 이 때문에 일어나는 부당한 차별을 보다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내 지역격차에 대한 분석적 고찰 :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 발언을 중심으로

10221 이승현, 10207 신윤진, 10213 전혜림
10214 정채영, 10217 길경준, 10224 이한서

Ⅰ.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6월 7일,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 정태옥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저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 그럼 저기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에 갑니다." 일명 '이부망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 발언의 본디 목적은 같은 당 소속인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옹호하기 위해서였지만, 그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부천시 시민들을 싸잡아서 서울에서 밀려난 빈민으로 비하함으로써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평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지역격차 문제에 수도권 내 지역격차라는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성장거점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 과정에서 성장거점지역의 발전을 통해 주변 지역까지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경제개발방식은 우리나라가 모두가 놀랄 만큼 단시간 내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게 했지만, 인구와 산업을 대도시로 집중시켜 경제, 사회, 문화적 등의 측면에서 부의 편중 현상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즉, 특정 지역에만 개발이 집중되어 해당 지역만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이 나뉘게 되고 두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격차는 어느 정도 낙후지역주민의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으나, 결국 지역격차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켜 더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 균등발전을 명목으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간 균등발전, 지방우선개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수도권규제정책이 있으며 이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여 혼잡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으로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많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등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에서의 지역격차가 상대적으로 심화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격차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태옥 의원의 발언을 바탕으로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로 분류해 지역적 격차를 확인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역격차의 정의

지역격차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협의적 지역격차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지역격차를 소득격차의 의미로 받아들여 소득과 관련된 지표를 사용하여 격차를 설명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협의적 지역격차는 정치·사회·행정적 요인들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지역격차의 개념을 경제적 측면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 교육 등의 비화폐적인 요인까지를 포함한 생활의 질적 차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경제적 요소가 아닌 사회적 요소를 지역격차에 반영하는 것이 광의적 지역격차이다. 즉, 광의적 지역격차는 협의적 지역격차와는 달리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문화, 교육 등과 같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격차를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광의적 지역격차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서의 격차를 드러낼 수 있는 데 반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소득'이라는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협의적 지역격차보다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격차를 특정한 한 종류의 격차로 한정하지 않고, 협의적 측면과 광의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역격차를 정의한다.

III. 연구 방법

일반적으로 지역격차를 측정할 때 주로 협의적 지역격차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격차를 나타내기 위해 '소득'이라는 통일된 지표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협의적 지역격차 뿐만 아니라 광의적 지역격차 또한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간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적 지역격차

1) 지역내총생산 (GRDP)
2)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2. 광의적 지역격차

1) 교통시설 추이
2) 문화시설 추이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격차의 원인이 세 도시의 기초적인 산업구조에 있다고 판단, 아래의 지표 분석을 통해 같은 수도권 내에서 존재하는 지역적 격차의 원인 역시 밝혀내고자 했다.

3. 원인 분석

1) 직업종사자 비율
2) 토지 지목별 이용비율

IV.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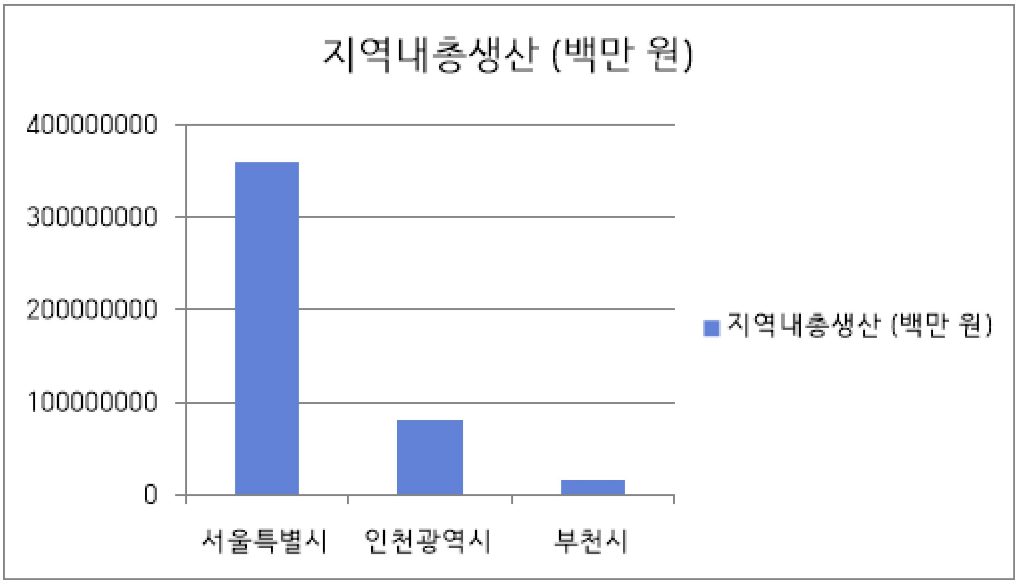
1. 협의적 지역격차

1) 지역내총생산

서울·인천·부천의 2016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살펴보면 서울은 3648만 원, 인천은 2782만 원, 부천은 2013만 원으로, 부천이 서울에 비해 1600만 원 가량 낮고, 인천과 부천 사이에는 800만 원 가량의 지역내총생산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이웃 도시인 서울·인천·부천 사이에도 격차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서울, 인천, 부천 3개 도시 간 지역내총생산 비교

2016	지역내총생산 (백만 원)	1인당 지역내총생산 (천원)
서울특별시	359,439,923	36,484
인천광역시	80,859,230	27,817
부천시	15,668,412	20,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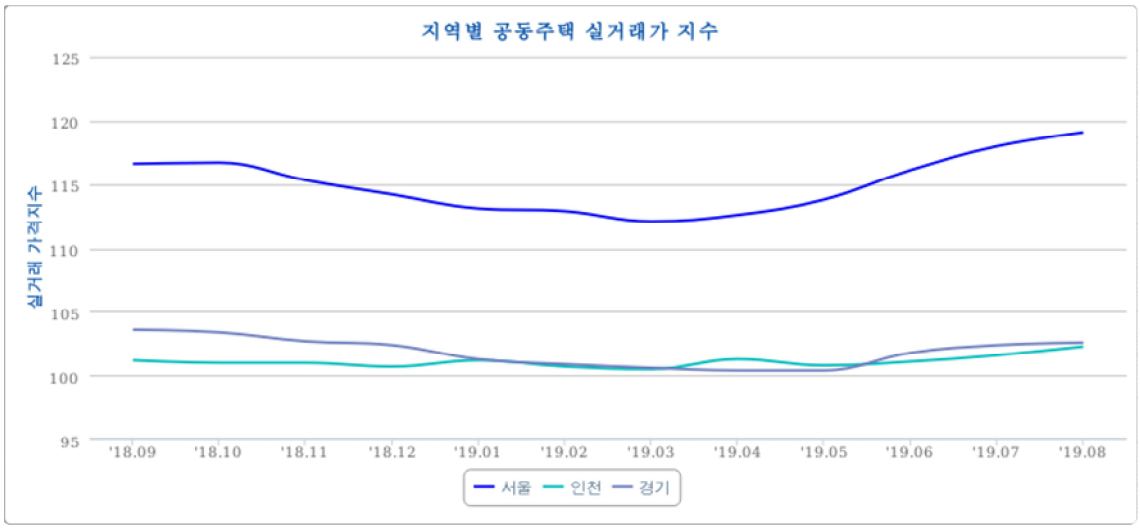
2) 지가지수 및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지가지수란 전국 247개 대도시, 시지역, 군지역, 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평가하고 있는 지가를 변동지수로 만들어 표기한 것인데, 쉽게 말해 감정 평가사가 평가한 표본지의 적정 가격을 지수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발췌한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자로 서울의 지가시수는 115.705, 인천 110.455, 부천 111.102로 예상보다 좁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서울, 인천, 부천 3개 도시 간 지가지수 비교

그러나 지가지수는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감정가일 뿐이며,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토지매매가 차이에 있어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지수 또한 비교해보았다.

〈표 3〉 서울, 인천, 부천 3개 도시 간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비교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지가지수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의하면, 위의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천 102.3, 부천 102.6으로 인천광역시와 부천시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데 반해, 두 도시 모두 서울특별시와는 평균적으로 2억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위의 두 자료를 통해 전문가가 감정한 세 도시의 토지 가치는 근소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실거래가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나. 광의적 지역격차

1) 교통시설 추이

서울은 지하철역 288개, 버스노선 약 400여 개로 인천과 부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의 면적은 605.2km^2인 반면, 인천은 1,063km^2으로 서울의 2배가 조금 안 되는 면적이다. 서울은 지하철역 288개, 인천은 지하철역 56개로 서울이 면적 대비 10배 정도 지하철역이 많다. 또한 서울의 버스노선이 버스노선 421개인 것에 비해 인천의 버스노선은 215개로, 면적 대비 버스노선은 서울이 약 4배 정도 많다. 부천은 버스노선이 134개, 지하철역은 12개로 서울과 인천보다 적다. 부천의 면적은 53.44km^2으로, 서울이 면적 대비 부천보다 지하철역이 약 6배 정도 많다. 하지만 버스노선은 부천이 서울보다 약 4배 정도 많다.

〈표 4〉 서울, 인천, 부천 3개 도시 간 면적 대비 교통시설 수

지역	서울	인천	부천
버스노선	421개	215개	134개
지하철	288개	56개	12개
면적(㎢)	605.2	1,063	53.44

일부는 서울 지하철이 수송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도 서울에 지하철역이 편중된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표 5〉 서울, 부천 간 일 평균 승하차량 상위 3개 역 비교

순위	역명	일평균 승하차량
1	서울역	108,775명
2	종각	85,370명
3	종로 3가	65,905명

순위	역명	일평균 승하차량
1	부천	81,410명
2	부평	64,969명
3	송내	63,972명

위의 왼쪽 표는 서울 1호선에서 일평균 승하차량이 높은 지하철역 3개, 오른쪽 표는 경인선에서 일평균 승하차량이 높은 지하철역 3개를 다루고 있다. 서울 1호선에서 1위를 차지한 서울역은 10만명이 넘으며 수인선에서 1위인 부천역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3위인 종로 3가와 송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서울이 인천보다 면적 대비 10배, 부천보다 6배 정도 지하철역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에 비해 일평균 승하차량 수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문화시설 추이

문화시설 역시 광의적 측면에서의 지역격차, 즉 삶의 질에 있어서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표 1〉을 참고하면, 인천광역시 전체의 문화시설 개수는 55개, 부천시의 문화시설 개수는 5개, 서울시의 문화시설 개수는 111개로, 서울시 전체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문화시설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서울, 인천, 부천 3개 도시 간 면적 대비 문화시설 수 비교

소재지(시군구)별	2018	
	계	
	시설수 (개)	면적 (㎡)
서울특별시	111	739,722
인천광역시	55	454,010
부천시	5	73,801

다. 원인 분석

1) 직업종사자 비율

직업종사자 비율은 그 도시의 산업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간 직업종사자별 비율 비교를 통해 세 도시 간의 지역적 격차 현황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했다. 원활한 분석을 위해 2015년 기준 국가통계포털 KOSIS의 기준에 따라 모든 직업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의 10개 직업군으로 분류하였다.

〈표 7〉 서울특별시 직업종사자별 비율

관리자	124,924	2.6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88,705	27.39%
사무 종사자	979,576	20.82%
서비스 종사자	503,786	10.71%
판매 종사자	661,439	14.06%
농어어업 숙련 종사자	6,284	0.1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94,439	8.3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83,597	6.03%
단순 노무 종사자	452,881	9.63%
군인	8,937	0.19%

〈표 8〉 경기도 부천시 직업종사자별 비율

관리자	8,301	2.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7,717	21.32%
사무 종사자	76,876	18.69%
서비스 종사자	42,194	10.26%
판매 종사자	55,222	13.43%
농어어업 숙련 종사자	689	0.1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445	10.3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6,573	13.75%
단순노무 종사자	40,957	9.96%
군인	56,573	0.08%

〈표 9〉 인천광역시 직업종사자별 비율

관리자	26,728	1.3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21,076	19.16%
사무 종사자	210,725	18.27%
서비스 종사자	122,382	10.78%
판매 종사자	157,965	12.56%
농어어업 숙련 종사자	20,333	1.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3,404	10.3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2,474	15.35%
단순노무 종사자	133,336	10.72%
군인	2,772	0.34%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부문에서 타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와 매우 비슷한 직업 분포를 보였으나, 특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이 타 도시보다 많은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3차 산업이 타 도시보다 발달했다고 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의 경우에는 재료를 가공해 완성된 산물을 만들어내는 직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통해 2차 산업이 비교적으로 발달했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었다.

2) 토지 지목별 이용현황

〈표 1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의 토지 지목별 이용현황

소재지(시군구)별	2017							
	총면적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전	답	과수원	임야
전국	100,363,714,247	3,093,503,950	991,334,635	306,071,784	7,611,003,916	11,282,071,297	598,602,893	63,834,414,064
서울특별시	605,242,751	218,594,265	2,939,237	24,426,910	10,814,798	11,839,240	307,415	139,957,848
인천광역시	1,063,115,301	108,647,891	25,063,496	11,569,388	80,925,959	164,128,623	1,567,637	394,539,978
부천시	53,442,446.0	17367499	2827001	1,991,288.30	2,969,955.80	3,633,368.70	46,139.00	8,134,103.30

가) 서울특별시의 토지 구성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토지의 구성 또한 변화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 임야, 학교용지

이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대지 1.1% 증가, 공장용지 -0.3 % 감소, 학교용지 2.7 % 증가, 전 -14.2 % 감소, 답- 15.1 % 감소, 과수원 -4.9 % 감소, 임야 -2.9 %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 답, 과수원과 임야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차와 2차 산업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므로 학교용지, 대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공장용지의 감소 원인은 대기업의 공장 이전으로 추측된다.

나) 인천광역시의 토지 구성

인천광역시의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는 임야, 답과 대지이다. 그러나 각 항목별 비중의 변화추이를 보면 전, 답, 과수원, 임야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인천은 대지 16.9% 증가, 공장용지 12.7 % 증가, 학교용지 14.4 % 증가, 전 -5.4 % 감소, 답 -9% 감소, 과수원 -3.6 % 감소, 임야 -2.5 % 감소한 것으로 드러난다. 공장용지의 경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므로 학교용지, 공장용지 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 부천시의 토지 구성

부천시의 토지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 임야와 답이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대지 3.2% 증가, 공장 용지 -3.9 % 감소, 학교 용지 11% 증가, 전 19.6 % 증가, 답 -9.3 % 감소, 과수원 15.8 %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대지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장용지는 감소, 학교용지와 전은 증가하였으며 답은 감소하였고 과수원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교용지가 증가하였고, 공장용지는 감소하고 전과 과수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아 3차 산업보다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V. 결론 및 해결방안 제시

1. 장·차관 등 고위 행정공무원의 집무실 이전

2002년,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을 발족시켰고,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가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일부 행정 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립하고, 국민 공모를 통해 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지으며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그해 9월 14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이 시작되었고, 현재 16개의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시설이 이전한 상태이다. 세종은 2012년 113,117명이었던 인구가 2018년 314,126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점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중심 도시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며 행정 기관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서울 출장이 잦아 세종 근무율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초 “1주일에 4일은 세종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일은 서울에 있겠다”고 밝혔지만, 2019년 7월 기준 세종 근무율은 36.1%로 서울 근무율보다 10%가량 낮았다. 세종에 많이 머물렀다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또한 세종 근무율은 50%에 불과했다. 이는 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청와대 등의 주요 기관이 아직 서울에 위치해 있어, 고위직 행정공무원들의 서울 근무율이 높은 실상을 보여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연말까지 세종시 소재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을 없앤다는 방안을 지난 5월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국회와 청와대의 잦은 장·차관 호출, 서울에서 열리는 많은 회의와 행사 등이 고위 공무원의 높은 서울 근무율의 근본적 원인이다. 때문에, 국회 세종 분원을 하루빨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 때문에 어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회는 분원을 설치해도 시스템적 문제가 생길 확률이 낮다. 국회의 세종 분원을 설치함으로써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세종 근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융통성 있게 국회 세종 분원을 활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세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더 높은 업무 효율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공기관 이전

지역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을 서울이 아닌 타지로 이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정책으로, 시설을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사실 이외에도 많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 '혁신도시'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서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정의에 나와있듯 서울 이외의 도시에서의 혁신 역량과 정주환경 상승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크게 아래와 같은 세 종류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 생산성 측면에서의 이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이미 투자가 과열되어 생산성이 한계에 다다른 서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생산성을 늘리기 쉬운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여 '서울 집중'이라는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규모 측면에서의 이점

일명 '서울권'이 아닌 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은 투자가 과열된 서울에서는 작은 사업 중 일부일 수 있으나, 타지에서는 큰 규모의 투자가 되어 지역에 실익을 전달함으로서 해당 지역들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 자치의 밑거름이 된다.

□ 지역 자치단체와의 상생 측면에서의 이점

실제 2015년 한국서부발전이 태안군으로 이전하며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약 1000여 명 이상의 인구 증가 이외에도 여러 상생협력 사업들에서의 이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교육부문,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지역개발 및 활성화, 공동협력분야, 지역활성화/문화 분야 등에서 추진 실적을 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75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153개의 기관을 이전 완료했으며, 혁신도시는 현재 부산동삼혁신지구, 부산문현금융단지, 부산센텀시티, 대구신서혁신도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울산우정혁신도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강원원주혁신도시, 충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경북드림밸리, 경남진주혁신도시, 제주서귀포혁신도시의 13개 도시가 자리잡고 있다. 위의 현황을 이어나가, 적절한 지역에 개발을 실행하면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새란, 허재완. 2017.「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내 지역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초의수. 2000.「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지방정부연구》

문동진, 홍준현. 2010.「지방재정역량의 격차와 지역격차 간의 상관관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경영, 정주희, 전희정. 2018.「서울시 강남강북권 간 지역격차 및 주거특성이 주민의 사회적 지위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시행정학보》

이해종. 2005.「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연구」.《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윤호. 2012.「인천시 자치구(군)간의 지역격차에 대한 구인동등성 검증 및 잠재평균분석」.《인천학연구》

공정무역은 정말 공정한가?

10502 권수민 10506 김지원 10509 이세연
10512 이해슬 10513 임채원 10516 한희진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정무역 기업들의 비합리적인 이윤 배분으로 인해, 공정무역 제품 생산자들이 합당한 이익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 공정무역 기업 관리 및 공정무역 카드 발행과 같은 정책을 담당해주기를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공정무역 주요 문제점을 담은 카드뉴스를 SNS에 게시함으로써 공정무역의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정무역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고, 대중의 인식 개선 및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도모함으로써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정무역

공정무역이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역을 하는 무역협력을 의미한다. 1차 생산자에게 정당한 이익을 돌림으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무역과 상업 거래에 관한 세계화 문제에 관심을 일으킴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2. 현재 공정무역 문제점의 유형

1) 1차 생산국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과 환경 파괴의 위험성

공정무역의 주된 대상은 커피, 차, 카카오, 바나나, 설탕 등과 같은 기호식품이다. 전 세계 기호식품 주요 생산지에는 서구 열강들의 무자비한 수탈을 위한 생필품 중심의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정무역이 일반 무역에 비해 공정하긴 하지만 단일품목 경작으로 인한 외부 의존형으로 변모한 원주민들의 삶을 온전하게 복원시켜주진 않는다. 결과적으로 국제 분업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 기업, 자본가, 지배그룹이 사실상 1차 생산국을 사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무역은 자원 거래를 장악하고 있는 강자들의 이익을 더욱 배가시킨다. 즉, 공정무역 이념은 옛 식민지 착취구조를 현재와 미래까지도 계속 연장 확대하려는 제국주의 국제 분업체제의 신식민지주의 논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2) 공정무역 기업의 불공정한 이익 배분

‘공정무역운동’을 통해 유통 방식이 직거래로 변화되었지만, 기업에서는 확보하는 이윤을 농가에 배분하길 꺼려하여 농가에서 나타나는 경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여전히 적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공정무역에 소비자가 지불한 돈의 대부분 역시 중개인이나 외부에 돌아가게 된다. 많은 농부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지속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서아프리카 농장에서는 아동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런던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연구 저자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크레이머는 “비교를 위해 같은 품종을 생산하지만 공정무역 인증을 받지 않은 다른 작업군에서 통상적으로보다 임금 수준이 높았으며 노동조건도 더 괜찮았다. 우리가 조사한 지역에서는,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빈곤에 시달리는 시골의 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공정무역의 목적은 애초에 빈곤에 시달리는 농부들의 삶과 근무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은 까다로운 공정무역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해, 결국 공정무역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생산자들이 얻게 된다. 이처럼 공정무역은 일부 지역의 빈곤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농부들이 아닌 공정 무역 단체나 기업의 크기와 소득이 증가시켰다.

3)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공정무역

2011년 8월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 해 출시된 롯데칠성의 ‘칸타타 베스트 컬렉션’은 “공정무역을 통한 최고급 원두 100%”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캔에는 세계공정무역인증 기구의 로

고가 붙어 있지 않았다. 세계 최대의 다국적 커피 기업인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이다. 공정무역에 앞장선다고 많은 광고를 했으며 홈페이지에도 공정무역을 언급했지만, 정작 매장에서는 공정무역 원두로 만든 커피를 팔지 않고 공정무역 원두만 파는 정도였다. A 공정무역 단체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은 스타벅스코리아의 공정무역 유통량은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즉, 공정무역이라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해 소비자의 공정무역 과정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기업들은 공정무역으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공정무역의 정신을 실천해 경제적 정의를 이룬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위와 같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공정무역 산업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 인식 개선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만하임의 한 커피 로스팅 업자가 에티오피아에서 고원의 소농장들로부터 받은 공정 무역 커피 원두라고 속여 대중에게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위에 제시된 기업들의 세 가지 문제로 인해, 공정무역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다. 공정무역은 본래 윤리적인 소비를 촉진하여 불평등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다양한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공정무역의 부당한 비리를 막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며,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먼저 공정무역이 알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불공정 무역을 하는 특정 기업을 선정해, 공정무역 제품이 사용된 상품이나 판매 현황을 조사했다. 그 후,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허위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및 기업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알아보았다.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완료된 후,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공정무역을 형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정책을 알아보고 해외의 공정무역 협의회나 공정무역 상품의 이윤 분배 수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Ⅳ. 결과 및 논의

1. 해결방안

이러한 공정무역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토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가. 청와대 청원을 통한 정책 제안

연구팀은 토의 결과 공정 무역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정 무역 정책을 도출하여 청와대 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의 국민 청원란에 제안하였다.

국민 청원에 게시한 공정 무역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불공정무역 기업에 10~20% 과세하는 불이익을 주는 구조 확립

'공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무역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1차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매우 적다는 것, 윤리적인 생산을 지향한다는 허위 광고를 이용한 기업 이미지 미화는 끊임없이 대두되어 온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독일 만하임 한 커피 로스팅 업자의 사례 역시 이를 입증한다. 또한, 비영리 기업인 피스트레이드의 장승환 판매 매니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통되는 커피들은 생산자들에게 수십 kg당 1,2달러 정도만 지급된다고 밝혔고, 이 같은 방법으로 커피가 계속 유통된다면 생산자들의 생존권 보호는 더 어려울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즉, 1차 생산자와 다국적 기업 사이의 적절한 수익 배분이라는 목적이 흐릿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허위광고 방지와 1차 생산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 현황을 정확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조사가 끝나면 정부 차원에서 공정무역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한국 공정무역 사이트'를 개설하도록 추진한다. 본 사이트에 가입할 때, 공정무역 기업들은 원료 생산 과정에서 생산자에게 시간당 얼마만큼의 임금을 지불했으며 생산지는 어디인지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영양성분 및 설명 부분과 사이트에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분기별 수익의 얼마만큼의 일정부분이 생산자에 지불되는지 신고하도록 한다. (이 경우, 국가의 법적인 차원에서 공정무역 기업이 총 수익 중 생산자 임금 지불 기준을 마련한다.) 공정무역 기업들의 사이트 등록이 끝나면, 정부는 분기별로 공정무역 기업들이 신고한 생산자들의 임금 지불 현황, 기업의 총 수익 신고를 확인한다. 만약, 기업이 등록한 생산자 지불 수준과 임금 지불

현황이 일치하지 않을시, 정부는 해당기업에 대해 조사를 한다. 조사 중 불공정 무역 적발 시, 다음 분기 세금 납부액을 원래보다 10~20% 과세한다. 이때, 정부와 기업에 대한 과세로 벌어들인 세입은 국고로 환수되도록 한다. 정부는 공정무역 과세액만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부서를 개설하고 환수된 과세액의 20%는 한국 공정 무역 협의회의 예산에 할당한다. 그 후, 남은 80%는 공정무역 기업들과 거래하는 국내외 1차 생산자들에게 기부한다.

정부는 거짓 공정무역 기업에 10~20% 과세하는 불이익을 주는 구조를 이용해 공정 무역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정부에서 공정무역 기업의 인증마크를 검열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닌 공정무역 '원두'만을 판매하고 있었고, 칠성에서는 칸타타가 공정무역으로 인증된 커피라고 홍보했으나 공정 무역 로고 자체가 붙어 있지 않았다. 또한, 투썸플레이스는 공정 무역 기업 원두가 아닌 일반 원두를 사용하면서 공정무역 마크를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대중이 공정무역 로고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공정무역 타이틀을 상업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물론, 로고를 달고 실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바가 없겠지만, 실상은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정부에 제안한 바는 정부에서 공정무역 기업이라고 알려진 기업에 대해서 인증 마크의 출처 및 전문성을 검열하는 것이다. 검열 과정을 거친다면 그 기업은 이제 공정무역 기업으로서 보장성을 확보한 채로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 또한 인증된 기업들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공정무역 기업들의 논란에 대한 보도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를 망설일 수 있는데, 이는 그 제품들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논란으로 신뢰성이 확연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정무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공정무역기구에서 받은 인증마크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정무역 정의 카드 (캐시백 적립 카드)

세 번째로, 공정무역을 실천하는 기업에서 '공정무역 적립 카드'를 만들어서 소비자 수요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농민에게 더 많은 금액을 환원되게 하여 윤리적인 소비를 창출하는 방안이 있다.

공정무역 구조의 문제점 중 하나는 경쟁하는 일반 상품보다 소비자의 수요가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수요가 줄어들면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무역 가격이 더욱 높아지거나, 기업의 2차 생산, 가공비용으로 들어가는 일정 비율을 제외하고 1차 생산자인 농민에게 전해지는 수익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이는 현재 공정무역의 한계점이다.

성균관대 사회혁신비즈니스학회의 2018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공정무역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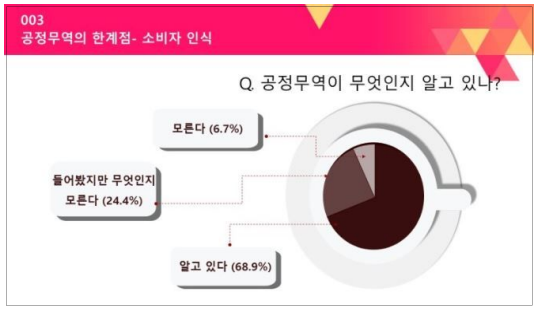


그림 1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알고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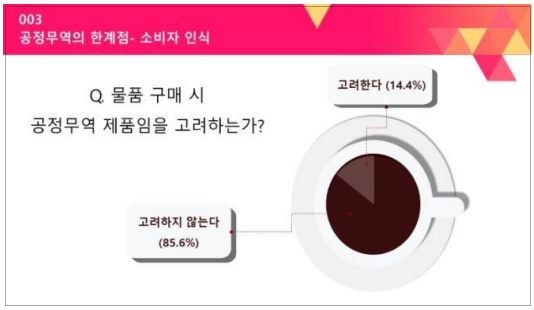


그림 2 공정무역제품임을 고려하나?

그림1의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의 질문에 '알고 있다'라는 답변이 68.9%, '들어봤지만 무엇인지 모른다'는 답변이 24.4%, '모른다'라는 답변이 6.7%였다. 이 설문을 보면 소비자가 공정무역 제품의 취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공정무역 상품의 특징과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적은 수요로 이어진다.

또한 그림2를 보면 공정무역 제품의 취지와 목적을 알고 있음에도 물품 구매 시 공정무역 제품임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자가 85.6%의 비율에 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공정무역 제품이 다른 일반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비자 유인 수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정무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소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주는 일종의 전자 상품권인 '공정무역 정의 카드'를 만드는 해결책이 있다. '공정무역 정의 카드'는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전자 상품권이다. 공정무역 정의 카드는 공정 무역 기업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결제액의 일부가 포인트로 쌓이며 그 누적된 포인트로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나 이벤트 혜택을 주고, 나머지 포인트의 일부를 1차 생산자인 농민에게 돌리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이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공정무역 제품에서 1차 생산자가 받은 만큼의 수익과 도움을 연관 앱 페이지에 게시하고, 쌓은 포인트를 기부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무역 제품의 수익이 온전히 1차 생산자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청렴하게 드러내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참여율을 높이고 공정무역의 취지를 더 부각시킬 수 있다.

공정무역 적립 카드의 자세한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플레이스토어 연동 앱 '공정무역 정의 카드'를 다운받는다. 그리고 카드 발급은 기존 공정무역 매점에서 제공하거나 일반 교통 카드 '카드 등록' 메뉴에서 바코드를 입력한 후 카드를 등록한다. 소비자의 계좌와 연동하거나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서 소비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벤트 및 혜택란에는 이번 달의 소비자 혜택 제공 내역이 올라오며, 자신이 모은 캐시백의 일부가 1차 생

산자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이 전달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자신의 누적 캐시백을 어떤 기부 활동에 전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공정무역의 과정을 소비자가 감시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1차 생산자가 공정무역 제품의 수익을 어떻게 전달 받는지를 청렴하게 공개하여 공정 무역의 기본 취지와 목적을 부각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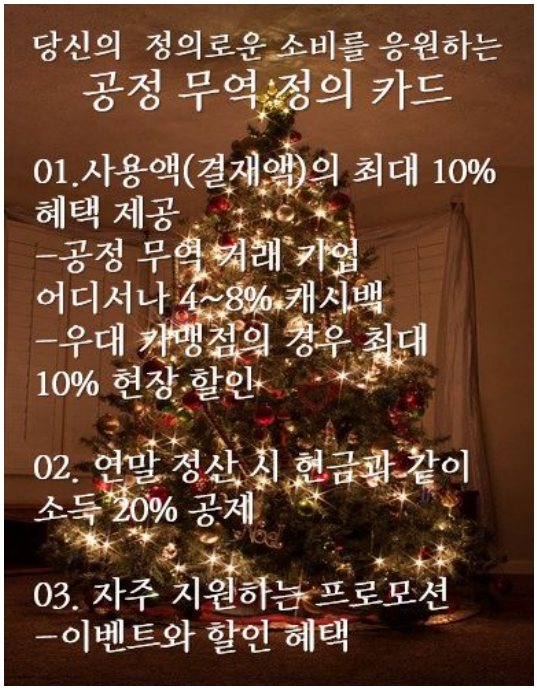


그림 3 공정무역 정의 카드 혜택

그림 4 공정무역 정의 카드 앱 예시

공정무역 정의 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어디서나 소비자가 소비 활동을 할 때 구매한 상품의 총 사용액 (결제액)의 최대 10% 혜택을 제공한다. 공정무역 거래 기업 어디서나 4~8%의 캐시백으로 적립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우대 가맹점의 경우 최대 10%의 현장 할인을 제공한다.

둘째, 연말 정산 시 현금과 같이 소득 20% 공제를 제공한다.

셋째, 자주 지원하는 프로모션으로 각종 이벤트와 결합된 할인 혜택을 수시로 제공해 소비자의 수요를 증가 · 유지한다. 적립된 캐시백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환원되게 하며, 공정무역 거래와 관련된 기부 캠페인을 자주 마련하여 캐시백으로 적립된 돈을 직접 기부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러한 공정무역 정의 카드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벤트를 포함한 프로모션을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제품과 경쟁할 만큼의 수요를 높일 것일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해낼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정부의 공정무역 기업과 생산자 간의 이윤 분배 감사, 제품의 국제 공정무역 인증마크 검열, 공정무역 제품 구매 시 적립카드 발행 및 포인트 적립과 같은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공정무역 산업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정책들로 하여금 일부 공정무역 기업들이 상업적 수단으로 공정무역 로고를 사용하고, 1차 생산자에게 분배되는 이익보다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현상은 줄어들 것이다. 더하여, 이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민은 중간에서 검열 및 감시를 해주는 정부의 역할에 신뢰감을 얻게 될 것이고, 공정무역에 대한 저조한 참여도도 적립카드 발행을 통한 포인트 적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 기업의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까지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 세계적인 공정무역 산업에 도움을 주고 국민들을 보다 지원해주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와대 공식 웹사이트의 국민 청원란에 게시하여 공정 무역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림 5 불공정한 공정무역 제재 국민청원

나. 공정 무역의 문제와 해결을 담은 카드 뉴스를 SNS에 연재

위의 자료에 나타난 문제점 중 공정 무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였다. 많은 대중들에게 공정 무역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공정에 대한 의미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IIHS 공정 무역 지킴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제작한 카드 뉴스를 게시하

였다. 카드 뉴스 1탄에는 공정 무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았다. 카드 뉴스의 2탄에는 공정 무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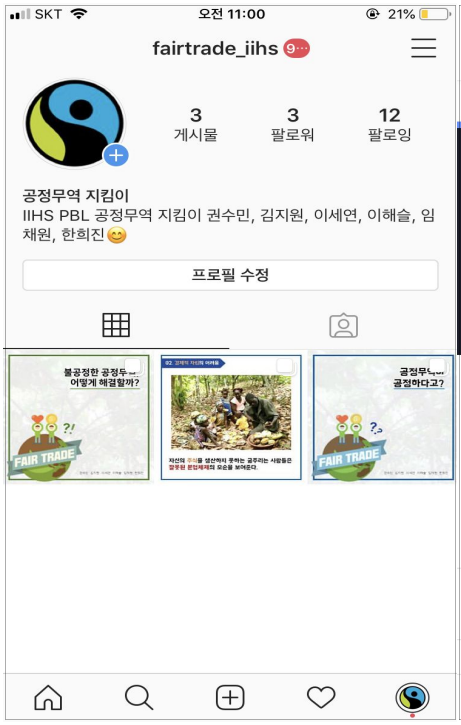


그림 6 공정무역 인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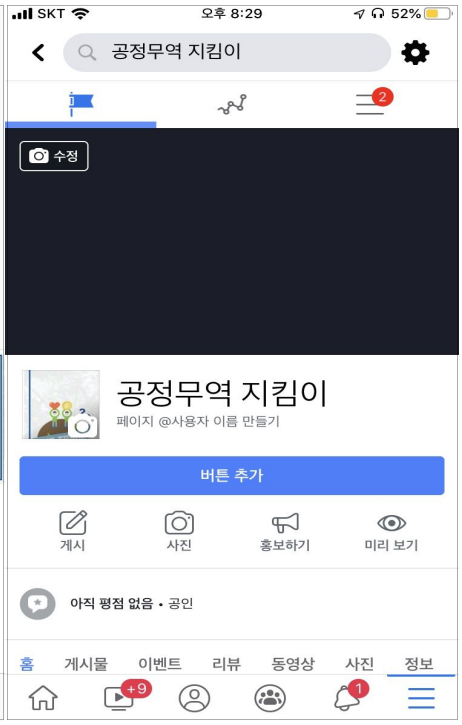


그림 7 공정무역 페이스북 페이지

그림 8 카드뉴스 1편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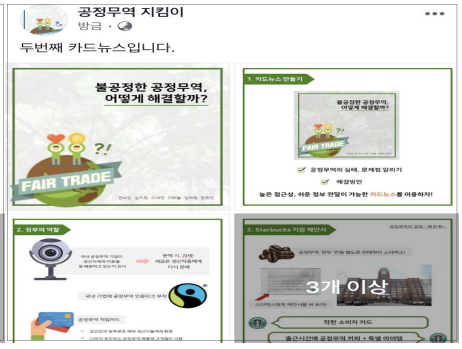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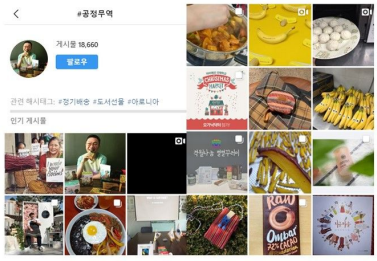


그림 9 카드뉴스 2편 업로드

〈카드뉴스 1,2편〉

#윤리적_소비 #착한_소비



날이 갈수록 공정 무역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공정무역의 실태

하지만
공정 무역이 늘어나도 왜 그들은 여전히 가난할까?
공정 무역은 정말 공정할까?

01. 마케팅 수단으로의 변질

공정무역을 통한 최고급 원두 100%

하지만,
세계공정무역인증 기구의 로고가 붙어 있지 않다

01. 마케팅 수단으로의 변질

스타벅스는 100% 윤리적 소비를 한다.

하지만,
점작 판매되는 공정무역 제품은 원두뿐이다.

02.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공정무역의 주된 대상은
기호식품인 커피, 차, 카카오, 바나나, 설탕

02.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그들은 왜 자신의 주식을 생산하지 않고
선진국의 기호식품을 생산하는 것일까?

02.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제국주의 시절, 서구가
아프리카의 전통 농업 기술을 파괴시켜서
이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생산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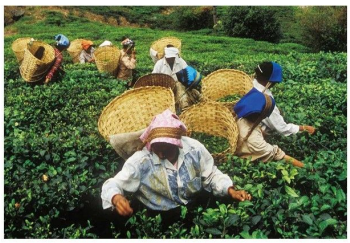
02.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공정무역은 커피, 초콜릿 등의 단일품목
경작때문에 외부 의존형으로 바뀐 원주민들의
삶을 온전하게 복원시켜주지 못한다.

02.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자신의 주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굶주리는 사람들은
잘못된 분업체제의 모순을 보여준다.

03. 잘못된 이익 배분



기업에서 확보한 이윤을 농가에 배분하길 꺼려하여
농가에서 나타나는 경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03. 잘못된 이익 배분

그리고 대부분의 돈이 중개인이나 외부에 돌아가며
실제로 생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03. 잘못된 이익 배분

크리스토퍼 크레이머 교수

"같은 품종을 생산하지만
공정무역 인증을 받지 않은 다른 작업군에서
통상적으로 공정무역보다 임금수준이 높았으며
노동조건도 더 괜찮았다."

불공정한 공정 무역

공정무역은
공정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이익이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소비자 운동이다.

공정한 공정 무역을 위해서

진정한 공정한 공정무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까?

1. 카드뉴스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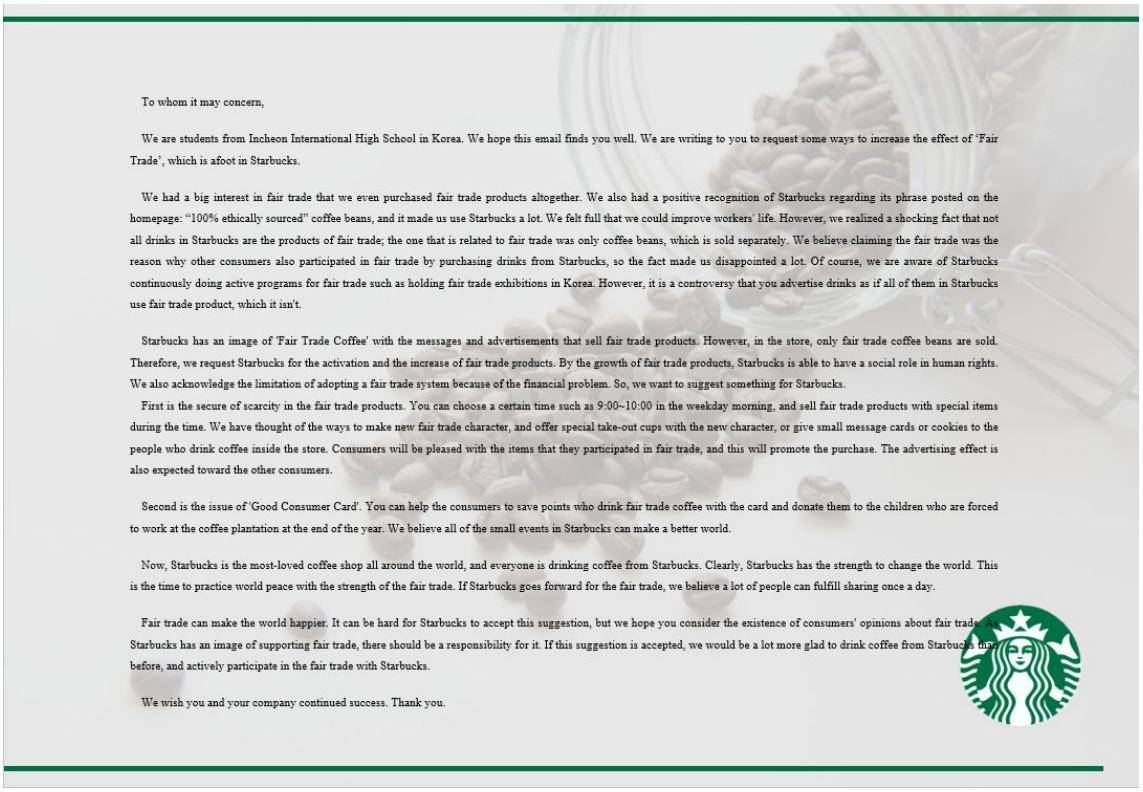
☑ 공정무역의 실태, 문제점 알리기

☑ 해결방안

높은 접근성, 쉬운 정보 전달이 가능한 카드뉴스를 이용하자!

다.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는 대기업에 제안서 보내기

100%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해 윤리적 소비에 앞장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원두만 판매하고 커피로는 출시되어 있지 않았던 스타벅스에 제안서를 보냈다. 스타벅스는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는 기업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과장광고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했다. 따라서 대표적인 공정무역 허위 광고 기업으로 스타벅스를 선정했고, 공정무역 캐릭터를 새긴 테이크아웃 컵과 같은 공정무역 아이템을 판매해 공정무역 메시지를 전하면서 소비도 촉진시킬 수 있는 제안을 했다. 또한,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는 구매자에게 착한 소비자 카드 발급을 함으로써 포인트 적립을 하고, 그 포인트를 노동착취 아동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이벤트 제안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정무역 허위 광고로 알려져 있는 스타벅스가 다시 한 번 기업 이미지 회복 및 공정무역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무역을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업에 제안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To whom it may concern,

We are students from Incheon International High School in Korea. We hope this email finds you well. We are writing to you to request some ways to increase the effect of 'Fair Trade', which is afoot in Starbucks.

We had a big interest in fair trade that we even purchased fair trade products altogether. We also had a positive recognition of Starbucks regarding its phrase posted on the homepage: "100% ethically sourced" coffee beans, and it made us use Starbucks a lot. We felt full that we could improve workers' life. However, we realized a shocking fact that not all drinks in Starbucks are the products of fair trade; the one that is related to fair trade was only coffee beans, which is sold separately. We believe claiming the fair trade was the reason why other consumers also participated in fair trade by purchasing drinks from Starbucks, so the fact made us disappointed a lot. Of course, we are aware of Starbucks continuously doing active programs for fair trade such as holding fair trade exhibitions in Korea. However, it is a controversy that you advertise drinks as if all of them in Starbucks use fair trade product, which it isn't.

Starbucks has an image of 'Fair Trade Coffee' with the messages and advertisements that sell fair trade products. However, in the store, only fair trade coffee beans are sold. Therefore, we request Starbucks for the activation and the increase of fair trade products. By the growth of fair trade products, Starbucks is able to have a social role in human rights. We also acknowledge the limitation of adopting a fair trade system because of the financial problem. So, we want to suggest something for Starbucks.

First is the secure of scarcity in the fair trade products. You can choose a certain time such as 9:00~10:00 in the weekday morning, and sell fair trade products with special items during the time. We have thought of the ways to make new fair trade character, and offer special take-out cups with the new character, or give small message cards or cookies to the people who drink coffee inside the store. Consumers will be pleased with the items that they participated in fair trade, and this will promote the purchase. The advertising effect is also expected toward the other consumers.

Second is the issue of 'Good Consumer Card'. You can help the consumers to save points who drink fair trade coffee with the card and donate them to the children who are forced to work at the coffee plantation at the end of the year. We believe all of the small events in Starbucks can make a better world.

Now, Starbucks is the most-loved coffee shop all around the world, and everyone is drinking coffee from Starbucks. Clearly, Starbucks has the strength to change the world. This is the time to practice world peace with the strength of the fair trade. If Starbucks goes forward for the fair trade, we believe a lot of people can fulfill sharing once a day.

Fair trade can make the world happier. It can be hard for Starbucks to accept this suggestion, but we hope you consider the existence of consumers' opinions about fair trade. As Starbucks has an image of supporting fair trade, there should be a responsibility for it. If this suggestion is accepted, we would be a lot more glad to drink coffee from Starbucks than befor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fair trade with Starbucks.

We wish you and your company continued success. Thank you.

그림 10 스타벅스 공정무역 기업제안서

다음 제안서를 https://www.starbucks.com/-스타벅스의 소비자 제안란과 스타벅스 공식 인스타그램(@starbucks)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제출하였다.

제안서의 한국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의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권수민, 김지원, 이세연, 이해슬, 임채원, 한희진입니다. 저희는 원래 공정무역 상품을 다 같이 구매할 만큼 공정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100% 윤리적 소비를 한다"는 문구를 보고 스타벅스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공정무역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의 모든 음료가 공정무역 제품이 아니며 공정무역 제품은 별도로 판매하는 원두뿐이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스타벅스의 음료수를 사 마실 때마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고, 다른 소비자들도 이러한 태도로 공정무역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더욱 더 배신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한국 스타벅스에서 공정무역 박람회를 하는 등 공정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모든 커피를 공정무역 제품이라는 식으로 광고하고, 정작 커피 제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시점에서

스타벅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스타벅스는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한다는 광고와 메시지로 소비자들에게 공정무역 커피라는 이미지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매장 내에서는 공정무역 원두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스타벅스에게 공정무역 제품의 활성화와 증가를 요구합니다. 물론 공정무역 제품을 통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해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스타벅스 공정무역 제품의 희소성 확보입니다. 평일 아침 9시 ~ 10시 와 같은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만 특별한 아이템을 더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공정무역 캐릭터를 따로 만들어 그 캐릭터가 새겨진 특별한 테이크아웃 컵을 제공하거나,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구매자에게는 작은 메시지카드나 쿠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공정무역을 했다는 표시가 되는 아이템 덕분에 뿌듯함을 느끼고, 이는 소비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비자들에게 홍보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 소비자카드 발급입니다.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는 구매자에게 착한 소비자카드 발급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말에 그 포인트들을 이용하여 노동착취 아동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작은 이벤트 하나하나가 더 좋고,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커피숍이며, 전 세계인들이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만큼, 스타벅스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 있는 힘을 이제는 공정무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세계 평화를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가 먼저 공정무역으로 한 발자국 나아간다면 많은 세계인들은 하루에 한 번씩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매자들은 자신이 윤리적 소비를 했다는 행복을 느낄 것이며 그러한 작은 변화는 세상을 더욱 살기 좋게 만듭니다. 물론 스타벅스의 입장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소비자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정무역을 지향한다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만큼 공정무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무역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제품을 늘리는 것은 그러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런 저희의 입장이 반영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욱 활발하게 공정무역에 참여하며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V. 요약 및 결론

결론적으로, 공정해야만 하는 공정무역은 실제로는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개인 및 단체는 각자의 의무를 다하며 진정한 공정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내 공정무역 기업들이 생산자에게 이윤을 잘 분배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는 세금을 부과해, 그 과정에서 모인 세금을 생산자들에게 재분배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업에 엄격한 절차를 통한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부착해 공정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 공정무역 적립카드를 통해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일정 포인트는 공정무역 제품 생산자들에게, 나머지 포인트는 다른 공정무역 제품들에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기업 측에서는 착한 소비자 카드를 만들거나 공정무역 커피 생산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이 공정무역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단체에서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급해서 높은 접근성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공정한 공정무역이 무엇인지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련 실태를 알릴 수 있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무역이 되어야만 한다. 만약 그 과정에서 생산자에게 조금의 불이익이라도 돌아간다면 이는 더 이상 공정무역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공정한 공정무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참고 문헌

1) 전북일보 기사, 윤리적 소비, 공정 무역의 득과 실 (2017),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057&replyAll=&reply_sc_order_by=I
2) 코너 우드먼, (2012), *나는 세계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갤리온.
3) 프레시안 기사, *우리의 커피는 공정합니까?,* (201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2158
4) [스터디] 공정무역과 적정기술 . (2018).
https://blog.naver.com/senskku/221367094060.

서울공화국: 수도권 중심주의의 폐해 및 해결방안

10503 권현민 10505 김서현 10514 장채은
10515 최윤서 10521 방예성 10523 정찬호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지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여전히 지방은 지방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산다. 지방은 또 하나의 관광명소이자 우리들의 전통이 보존되어 있는 터이며, 서울은 이와 공생하며 적절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새로운 발전의 공간이다. 지방을 적절히 지원하며 다시 일으키고, 서울만의 혜택이 차별이 되어가는 일을 막으며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다. 최근 들어 '서울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생김과 더불어 서울만의 특혜가 부각되고 있다. 즉, 서울만의 것이 생겼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이를 차별로 바라보는 시선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방에서의 청년들은 안정된 미래를 위해 서울로의 진출을 갈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우리 연구는 서울공화국 즉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해 야기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격차를 제거한 공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문제 상황

1. 인프라의 부족

가. 교육 인프라의 부족

서울과 지역의 인프라 차이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지만 교육 인프라의 차이는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교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과 서울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격차는 이후의 소득 격차로 이어져 악순환은 지속된다. 실제로 서울과 지역의 격차는 이미 벌어져 있다. 충청북도는 원래 도내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의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4년 1.7%로 높아진 뒤 2015년 1.9%, 2016년 2.4%로 매년 증가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줄곧 1%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 2%로 상승했다. 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분석했을 때에도 수능의 국어, 수학, 영어의 표준점수는 서울과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충북의 국어 과목 평균은 97.7점인데 비해 서울의 국어 과목 평균은 100.4점으로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수학 과목의 경우에도 93.4점으로 전국 평균인 98.0에 밑돌았다. 격차는 학력뿐만 아니라 예체능의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과거 세광고, 청주고 등은 충남의 천안북일고나 공주고와 함께 야구 명문고로 명성을 떨치던 때가 있었다. 공주고에서는 박찬호선수를 배출했고, 북일고에서는 김태균선수를 배출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 고교 야구 전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인재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심지어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뽑힌 지역 선수가 불과 1년 만에 기량미달로 구단에서 방출되기도 했다. 지역 인재 고갈현상으로 빚어진 촌극이다. 이에 유망주들은 전학 패널티를 감수하면서도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학력은 물론 재능의 하향평준화가 지속되면서 지역의 인재 유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되풀이되고 있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인재라는 개념은 학력은 물론 분야별 재능 유망주 등으로 폭 넓게 봐야 한다"며 "다만 충북은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보다 실질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중앙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학당 현황사진>

구분			합계	
			금액	대학당
수도권	소계	금액	2,441,766	21,273
		비율	50.4	
비수도권	소계	금액	2,407,507	10,845
		비율	49.6	
합계			4,849,273	14,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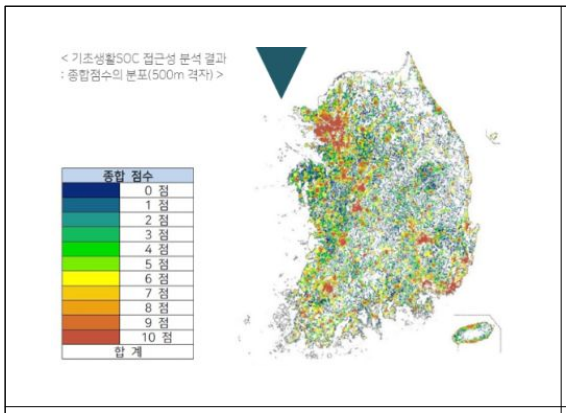
▲국가장학금과 국립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제외하면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1/2수준에 불과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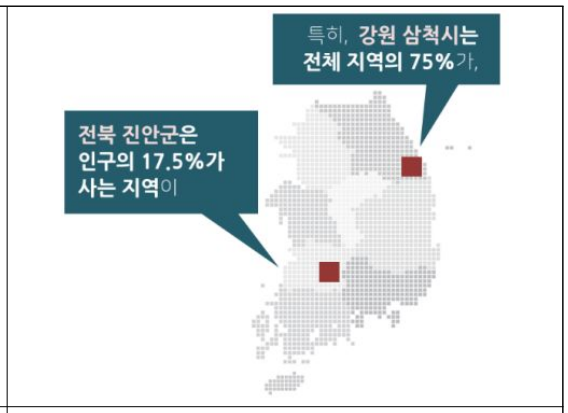
[표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지원 차이]

나. 생활, 문화적 인프라의 부족

생활, 문화적 인프라의 경우에도 지역격차가 매우 크다. 우리가 생활하는데에는 보육, 교육, 문화, 의료, 체육, 교통 등 다양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시설들을 '생활 SOC(간접자본)'이라고 부른다. 생활 SOC는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값이 높은 지역의 특징이 되며,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있다.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전국을 가로세로 500m단위로 세분화하고, 자동차로 10분 거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수를 평가한 생활 SOC 수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과는 예상할 수 있듯이 수도권이나 기타 도시 지역에 생활 SOC가 집중되었고,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의 생활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0분 내 거리에 SOC가 1곳도 없는 '생활 취약 지역'이 강원 삼척시 전체 지역의 75%, 전북 진안군의 인구의 17.5%가 사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1 기초생활SOC 접근성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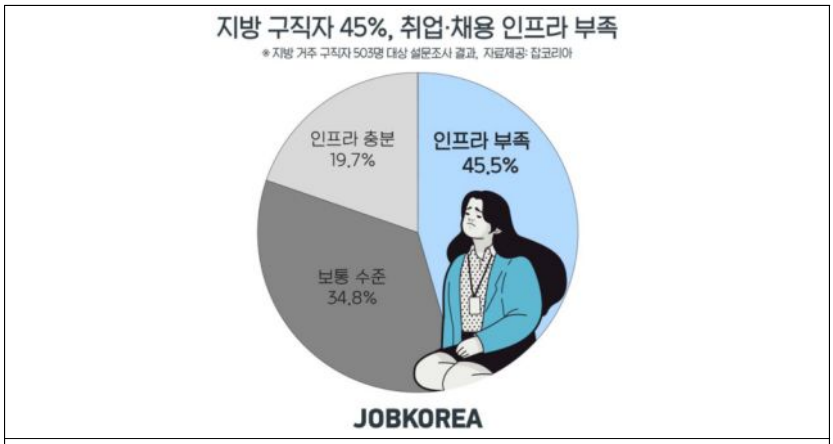


[사진 2 '생활 취약 지역' 표시]

이 차이는 서울과 지방을 비교했을 때 더 크게 나타난다. 서울의 25개 구 전부가 접근성 평가에서 최고 구간인 8~10점에 속한 반면, 지방 27개 시,군은 최하 등급인 2점 이하를 받았다. 2점 이하를 받았다는 것은 10분 내 도달 가능한 SOC가 2개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SOC 접근성 점수 최하 등급 지자체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런 생활, 문화 인프라의 부족은 노인 복지, 취업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도 이어진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남지역 65세 이상 인구수는 40만7,498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수 182만5,189명의 22.3%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최다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0%)에 진입한 뒤 줄곧 전국 최고령 인구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흥군의 경우 65% 이상 인구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도내 22개 시군 중 18곳이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다. 우선 노인들의 각종 질환을 치료해주는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도내 노인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시설은 한 군데도 없으며, 응급시설도 크게 부족하다. 특히 곡성·구례 지역의 경우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상황이나, 전문 검진에 대한 의료체계가 극 히 열악한 실정이다. 여기에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도 전국 꼴찌 수준이다. 공공실버주택 또는 고령자 복지주택 가구수가 장성 등 400가구에 불과하다.

문화 시설의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예술 분야에 강세를 보이는 대전권 대학교는 많지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만한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해 청년 예술인들의 설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취업 인프라의 부족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잡코리아에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 중 45%가 취업, 채용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 인프라는 취업, 채용박람회였다. 이러한 인프라의 부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취업 소외감을 느끼냐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 중 80.3%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채용설명회/면접 등 취업활동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돼서'란 답변이 응답률 65.8%로 1위에 올랐다. 한편, 지방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근무 희망지역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다. 결국, 지방의 인프라 부족으로 고생하던 구직자도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있고, 살기 좋은 '서울공화국'에서 일하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도표 1 지방의 취업, 채용 인프라 부족]

2. 심리적 박탈감

가.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곤 한다. 2018년 한반도를 강타한 19호 태풍 '솔릭'은 원래 수도권을 강타할 예정이었으나,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 치우쳐 지나갔다. 수도권이 태풍 피해를 입지 않게 되면서, '몹시 서두르고 부산하다'라는 의미의 설레발이라는 단어와 솔릭을 합쳐 '솔레발'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수도권과 달리 큰 피해를 입었다. 솔릭으로 인한 제주도의 피해액은 무려 53억 5천만원정도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심지어는 관광객이 실종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처럼 제주도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솔릭을 마치 별 피해 없는 태풍이었던 것처럼 여기는 이유는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언론의 보도에서도 나타난다. 언론에서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내려간다'라고 표현한다. 물론 이동하는 지방이 전라도나 경상도와 같이 정말 남부 지방에 위치한다면 맞는 말이겠지만 만약 그 지방이 서울보다 남부에 위치하지 않는 지역인 강원도와 같은 지역이라면 이는 지극히 서울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언어 선택일 것이다.

나. 언어 사용에서 비롯된 박탈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표준어와 지방 방언으로 나뉜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고, 지방 방언은 '한 언어에서,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이다. 즉, 지방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서울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곤 한다. 이런 현상은

상경한 사람들이 자신의 방언을 고치려 하고, 어리숙하게 표준어를 구사하는 것이 유머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지역 방언은 고쳐야 하는 좋지 않은 말처럼 인식되고, 표준어는 추구해야 하는 이상향과 같이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3. 면접에서의 불공정

면접에서의 불평등은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이다. 우선 교육 인프라의 부족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로 이어진다. 교육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지방 출신의 지원자들은 수도권 출신의 지원자들에 비해 질이 낮은 교육을 받게 된다. 또, 다양한 전형이 있으며,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는 현재의 입시 시스템에서 정보의 부족은 매우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한다. 앞서 소개했듯이 현재 지방에는 취업박람회와 같은 취업 관련 인프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출신의 지원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수도권 출신의 지원자와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 출신 지원자가 면접 과정에서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도 서울 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한 사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심지어 승무원과 같은 서비스업 직종들은 사투리를 사용하는 지원자는 뽑지 않아 승무원 준비 학원에는 사투리 교정 수업도 존재한다. 물론 그 직업이 공적인 자리에 나가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확한 의사 전달이 중요한 직업이라면 사투리의 사용이 방해요소가 되겠지만 승무원과 같은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사투리의 사용 여부가 그리 큰 중요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지방 출신의 지원자들은 면접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불공정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Ⅲ. 해결방안

1. 교육 인프라의 불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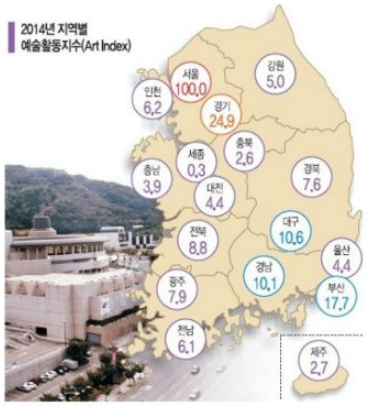
서울공화국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지방과 서울의 교육 수준이 달라 불공정한 문제가 유발되는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단위의 방안과 기업 단위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활발한 교육 지원책을 제공해야 하는데, 특히 서울 지역에만 매체를 이용한 인터넷 강의나 현장 강의 등이 활성화되어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주체의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여 모두가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각 지역별로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과정에서 중점으로 두는 단원 등이 다르므로, 이러

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세부화 된 인터넷 매체 강의 시스템 등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다. 나아가 이를 통해 쌓은 기본적 학문 소양을 토대로 정시 등에서의 공정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학 등은 대학생을 지방 학교 등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파견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업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로가 비슷한 계열의 학생들을 지방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봉사활동으로 파견하여 진로의 폭을 넓히고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교육에서의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사진 3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예시]

2. 문화 인프라의 차이

주요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편의시설을 설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의료기관, 영화관, 수영장, 도서관등의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있는 반면, 서울을 조금 벗어난 경기도만 해도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기 위해 오랜시간을 들여 이동해야 한다. 서울의 인구밀집도가 집중되는 이유는 편의시설이 서울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다른 지역의 인프라의 부족이 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어쩔 수 없이 서울 공화국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외한 지역에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인프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기여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장려책)를 제공해야한다. 지역의 경제가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의 편의시설을 홍보하고, 지역을 관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공정하게 여러 문화를 누림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통해 정보의 격차도 줄일 수 있도록 지역적인 불공정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진 4 지역별 예술활동지수]

[사진 5 문화, 복지 인프라 확충 정책]

3.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 및 언론의 언어 선택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지방이 소외되고 있고 이를 우린 어느 순간부터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지방을 살리는 것이다. 즉, 지방의 고유의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언론매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방사투리를 이용하여, 지방에서 사는 국민들도 쉽게 미디어를 잡히고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채널 마련에 힘을 쓴다. 예를 들자면, 부산 채널 혹은 전라 채널 등을 개설하여 그 지역의 사투리를 부각시키는 사투리를 보전하며 아나운서가 정보를 전하는 방식으로 영상들을 구성한다. 또한, 수도권의 사건사고들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닌, 지방에서의 사소한 행사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을 보도하며, 지방에서의 발생하는 일들도 주목받게 한다. 더불어, 유튜브를 제외하고도 뉴스나 이런 접근성이 높은 언론매체에서는 전국단위의 사건이 발생했을 시에, 지방의 현황 또한 동시에 보도하며 사건들에 대한 현황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진 6 지역의 특색을 살린 채널 '붓싼뉴스']

4. 면접 과정에서의 불공정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커지게 된다. 그리하여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 할당제와 같은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해결방안에서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안이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모순적인 상황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사람들을 더 뽑아 서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표면적인 역차별의 의미 말고도 그 속에는 더 큰 불공정의 문제가 내포되어있다. 바로 이 역차별을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 사람들을 무조건 일정 수만큼 뽑아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서울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서울에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린 후 대학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다니거나 대기업의 면접에서 지방 할당제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지방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등에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방 할당제의 기준점으로 고등학교 3년을 반드시 채우고 졸업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기간을 제시한다. 또한, 지방에 거주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 할당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득 분위 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 할당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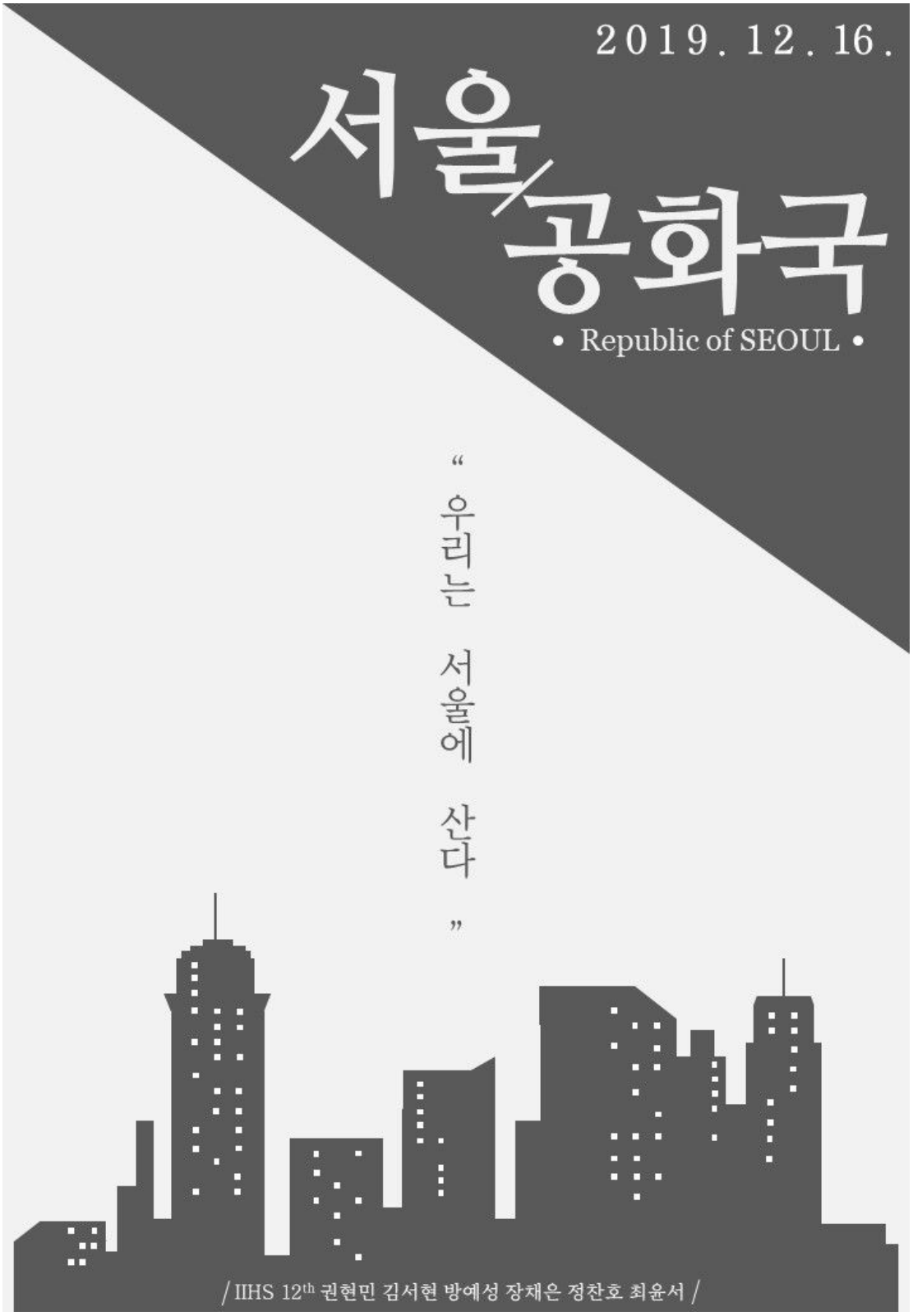
Ⅳ. 요약 및 결론

인프라의 부족, 사람들의 가치관 차이, 지속적인 지방에 대한 편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야기된 ‘서울공화국’ 즉 지역격차와 수도권중심주의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정함을 망치고 불공정한 상황을 지속해서 유도하기에 해결이 시급하다. 따라서 우리 개인들과 기업, 정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방과 서울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서울민국’, ‘서울 공화국’ 이 아닌,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하여 공정한 나라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공화국 문제는 사회의 모든 양상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한 분야에 함몰되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융합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복합적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Ⅰ-1-①: 충북일보 '지역 인재가 충북의 미래다-⑬인재 발굴·육성 인프라 부족'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63015
Ⅰ-1-②: 중도일보 '부족한 인프라에... 지역 예술인재 유출 빨간불'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107010002879
Ⅰ-1-②: 잡코리아 '지방 거주 구직자 45% "취업,채용 인프라 부족해"'
http://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5912&schCtgr=120001&Page=1
Ⅰ-1-②: 네이버 포스트 '병원, 학교, 유치원이 하나도 없는 동네가 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094033&memberNo=34429994&vType=VERTICAL
Ⅰ-1-②: 전남매일 '전남지역 노인 복지 인프라 급하다'
http://www.jndn.com/article.php?aid=1575964978291753008
Ⅰ-2-①: 세미콜론 카드뉴스 '수도권 중심주의 ; 서울공화국'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micolon_project&logNo=221393061854
Ⅰ-2-②: 네이버 국어 사전
지역 방언: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A7%80%EC%97%AD%20%EB%B0%A9%EC%96%B8
표준어: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828917a28e743e2a21ead763b79bd45
Ⅱ-1: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의 예시(사진 자료): web plus news '홍익대학교 학생봉사단 청도군 방문, 교육봉사활동 펼쳐'
http://webplusnews.kr/news/view.php?no=1170
Ⅱ-2: 지역별 예술활동지수(사진 자료): 네이버 블로그 자료
https://blog.naver.com/koenja/220644459865
Ⅱ-2: 구미 산동면의 문화, 복지 인프라 확충 정책(사진 자료) 현대HCN뉴스 '구미 산동면 확장단지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http://srn.hcn.co.kr/ur/so/nc/bdNewsDetail.hcn?method=man_00&p_menu_id=150101&br_id=356947&br_1car_typ_cd=0001&pageType=view
Ⅱ-3: '붓싼뉴스'캡처 화면
https://www.youtube.com/user/DynamicBusan

| 포스터 |


2019. 12. 16.
서울/공화국
• Republic of SEOUL •
“우리는 서울에 산다”
/ IIHS 12th 권현민 김서현 방예성 장채은 정찬호 최윤서 /

| 영상대본 |

2019 PBL 영상 시나리오 및 희곡 대본

서울공화국

<등장인물>
기획: PBL - 105 C조
극본: 권현민, 김서현, 장채은, 최윤서, 방예성, 정찬호

정상경- 정찬호 / 대치동 학생, 상경 아버지- 방예성 / 입국관리직원- 권현민 / 면접관, 아나운서- 최윤서

#1. 공항 입국심사, 분주한 모습의 공항

상경: (설레는 표정으로 입국심사 줄을 서려고 등장)
입국심사 직원: 다음 분 들어오세요~
상경: 네!
입국심사직원: (서류에 눈을 두고, 상경을 힐끔 본 후) 어디서 오셨어요?
상경: 아! 전라도에서 왔어요. (끝 올리며 사투리 드러내기,
입국심사직원: (못마땅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방에서 올라오셨네요. 여기서부터 272 km 떨어진 곳이니까, 하루 당 추가요금 27,200원 부과되실 텐데, 괜찮으시죠?
상경: 하이고마 비싸네… 저 대학 면접보러 잠깐 온건데… 고마 엥가이 깎아 주이소.
입국심사직원: 아 학생이세요? 학 생이시면 요금의 40%만 내셔도 됩니다. 여기 이 학생증명서 작성해주세요.
상경: 아 예, 예… 어휴, 쉽지 않네. (종이에 끄적댄 후 펜과 종이 건내며) 여기요.
입국심사직원: 네 확인 되셨구요~ … 저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서울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멘트를 담은 오디오와 함께 서울공화국 로고가 나오며 #1 마무리.

#2. 상경이의 숙소

상경: 여가 내 지낼 방인가? 아~ 좁네, 그나저나 서울 TV는 어떨라나? 뉴스 함 봐야겠네.
아나운서: 속보입니다. 최근 한반도 근처에서 발생한 태풍 '인국'이 예상보다 적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외출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아 다행이네~ (TV를 끄고) 엄마한테 도착했다고 전화나 해볼까? (전화기를 귀에 대며)
상경 아버지: 여보세요?
상경: 어어 아빠 왜 아빠가 받나? 태풍 괜안나?
상경 아버지: 하이고마 말도 아니다. 지붕 날라가삐고 난~리도 아니다. 니는 개안나?
상경: 방금 뉴스에서 괜안타고 했는데… 아니 근데, 이번 태풍 제일 피해가 적다고 했다 아이가. 아유 우짜꼬~
상경 아버지: 야야야 퍼뜩 끊으라 마, 아이고 퍼뜩 저 날라가는거 잡으라~ 너도 단디하고 (뚝)
상경: 우짜노… 분명히 뉴스에서는 태풍 피해가 적다 캤는데, 뭔 일이고? 서울공화국, 뉴스가 문제네 문제!

#3. 대학 면접을 보러 가는 상경
야외,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보이는 서울의 중심 대학.

상경: 아따 건물들 겁나게 높네.
대치동학생: *(상경을 치고 사과하지 않은 채 지나감)*
상경: (화난 표정으로) 아 저기요! 사람을 치고 왜 사과도 안 하고 가세요?
대치동 학생: (건방지게) 그 쪽이 먼저 치셨잖아요~
상경: 아이, 그건 됐고, 면접 보러 가는 길이세요?
대치동 학생: 아 저는 방금 봤어요. 근데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지방에서 오셨네요?
(혼잣말로) 아 지방에서도 여기를 올 수 있나...
상경: 아니, 니 왜 초면인데 반말을 하니? 그리고, 지방에서 온 게 어때서?
대치동 학생: 딱 보니까 전라도에서 왔구나?
상경: 어떻게 알았나?

대치동 학생: 말하는거 보면 딱알지. 지방 사람들은 질 떨어지게 사투리 쓰잖아?
상경: 니 말 다했나?
대치동 학생: ㅋㅋ (비웃으며) 아 헐 잠시만, 나 현강 가야하는데? 아 까먹어 버렸네!
상경: 현가...? 현강..? 그건 뭔데?
대치동학생 : 현우진직강! 현강이지 그걸 모른다고?
상경 : 직강..? 뭐 하는데 거기서?
대치동 학생 : 학원에서 현우진 일타강사님 수업도 듣고, 뭐 생기부 관리 특강도 듣고 여러 개 하지? 나는 의대 가고 싶어서 입시 코디네이터도 붙였어. (스카이캐슬 주제 음악과 함께) 그 분이 내 학종 다 챙겨주셨지.
상경: 우리 동네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 그 리무진인가 현우진인가 뭔가 하는 사람 안 오는데? 이거 완전 불공정 한 거 아이가?
대치동학생 : 아니 왜 너네 동네를 가 굳이. 서울 학원에서 몇 시간 강의하면 연봉이 얼만데.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수업하고 한 달에 몇 천씩 버는데 굳이 시골에서 자원봉사하고 앉아있겠냐? 당연히 서울이지. 이건 기회의 박탈도, 불공정한 문제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야.
상경 : 뭐어? 굳이라니? 말 다했나? 우린 뭐 인간도 아닌갑제? 우리 동네는 말이야, 학원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서 혼자 수능특강 사구, 혼자서 밤 새면서 공부하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서 무엇이든 혼자 했어. 현장강의? 그런건 아예 없어서,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서 선생님께 하나하나 질문했다고!! 너네랑 이 정도로 다른 수준의 교육을 누렸다니, 정말 너무 속상하다! 그 고생 왜 했는지 싶네.
대치동학생 : 아니 그게 아니고 ㅋㅋㅋㅋ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으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 되지 왜 시골에서 그 고생을 하냐는 거야. 그냥 편~하게 서울애들 가르치고 만다는 뜻이지. 그럼 난 간다? *(멀어지는 대치동 학생)*
상경 : (대치동 학생을 부르며) 야, 야! 어휴, 이게 서울의 행태야 행태! 서울공화국 참 문제네.

#4 대학 면접 (실제 무대 연기 시작)
[놓여 있는 책상 2개, 면접관과 상경이 마주보고 앉아있다. 객석과 대각선으로 앉아 있는 두 사람]

면접관: 면접은 공통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공통질문입니다. *(PPT를 틀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수도권 중심주의, 일명 서울공화국이라고 일컫는 문제입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모두 수도권에 본 캠퍼스와 부 캠퍼스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아주 큰 편이죠.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행위라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울공화국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보세요.

상경: 네… 우선 저는 서울공화국의 폐해 속에서 살아온 장본인입니다.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에서 자라며, 서울 사는 남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교육이든, 문화 시설이든… 무엇이든 하려면 서울까지 올라와야 했고,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혼자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격앙된 감정으로)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최근 며칠간 직접 지역차를 느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거치고 수도권 중심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을 바라보며, PPT 넘기기)* 첫째로, 지방에 본사나 편의 시설 등을 설치한 기업, 혹은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같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근본적으로 장려하는 것이죠.

면접관: 음… 두 번째 해결책은 뭐죠?

상경: 교육측면에서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지방 학교 등으로 가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또한 강원도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인프라를 지방에도 구축해야 합니다.

면접관: (솔깃하며) 마지막은 뭔가요?

상경: 유튜브 채널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지방 사투리를 사용한 유튜브 뉴스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들을 보편화하여 지방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언론은 항상 서울이 1등! 이라는 마인드 없애야 합니다. 즉, 언론의 서울 중심 사고방식을 개편하는 것이죠.

면접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질문인데요, 혹시 우리 대학의 선발 제도 혹은 우리 대학을 소유한 기업은 현재 블라인드 채용과 동시에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발 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상경: 물론 지역할당제의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서울공화국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아주 효율적이죠. 그러나, 서울에서 20년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다가 지방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 할당제의 혜택을 받거나, 지방에서 20년 살다가 대학만 서울로 갔다는 이유로 지역할당제의 혜택을 못 받는 불공정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 혹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등이요.

면접관: 수고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상경: (한숨 한 번 쉬고) 저는, 제 실력이 부족하여 떨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떨어진 경험이 너무나도 많기에, 그 이유로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 차별로 인한 불공정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예방보다는 해결방안에 집중하자면, 대학 등이 지역별로 인구를 비례하여 채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 출신의 정의를 정확하게 마련하여, 불공정한 면접 혜택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 수고했어요. 가 보세요.

#5 면접 결과를 확인하는 상경

[면접관은 퇴장하고, 상경은 혼자 남아 책상에 앉아 면접 결과를 확인하려고 노트북을 켠다. 오디오로 긴장되는 음악 재생]

상경: 제발ㅠ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오디오 재생 후) 우와오아아앗!!!! !정상경 또 해냈다ㅏㅏㅏ!!! 진짜로 이제는 서울공화국을 바꿔보는 거야! 지방 출신의 반란이다!!! 아니지, 이제는 지방 서울 나누지 말고, 서울민국이 아닌, 진짜 하나 된 '대한민국' 으로! 내가 만들어보겠어!

끝 The End

대한민국 기업에서의 불공정

10602 김령은 10603 김은우 10607 송예나
10609 윤려원 10617 김대원 10622 송주영

Ⅰ. 공정(公正)의 정의(定義)

1. 사전적 정의

공정 : [1]집단 혹은 사회의 조직적 생활 과정에서 여러 인격에 대한 대우 또는 복리(福利)의 배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히 하는 것. 대우 혹은 배분의 대상들이 같으면 같이 대한다는 '동일성(sameness)'의 모형과 대상들의 이질성 동질성의 여하에 관계없이 주어진 규정 혹은 규칙에의 적합성에 따라 대하는 '적합성 (fittingness)'의 모형이 있다.

2. 개별 정의

10602 김령은 :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
10603 김은우 : 평등을 추구하며 편파적이지 않고,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
10607 송예나 : 옳고 그름에 관한 윤리적 판단에 따라 공평하게 행동하는 것.
10609 윤려원 : 윤리적 사고에 기반하여 올바르게 행동을 취하는 것.
10617 김대원 :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을 충분히 보장함과 동시에 상호 배려를 통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올바름.
10622 송주영 : 도덕적 판단에 따라 올바르고 평등하게 평가받는 것.

1)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Ⅱ. 대한민국 기업에서의 불공정

1. 기업 (조직) 내에서의 불공정 사례

가. 상사의 갑질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회항시켜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하기(下機)시켰다. 조 전 부사장의 이 같은 행동으로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250여 명의 승객들은 출발이 20분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겪었다.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책임을 승무원에게 떠넘기는 사과문을 발표해 논란을 더욱 가열시켰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했으나, 주요 보직은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됐고, 결국 12월 10일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그리고 조양호 회장과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증거 인멸 시도 등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계속 확산되었다. 이후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 결과는 봐주기 의혹을 일으킨 데다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거짓 진술 강요 폭로 등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이 사례는 '땅콩 회항'이라고 불리면서 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위 대한항공의 사례처럼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향한 고위 상사들의 행동은 지나치는 경우가 심각하게 많다. 이로 인해 '갑(甲)질'이라는 단어가 비일비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영어로 'gapjil'이라고 번역되어 외국에서마저 사용하고 있다.

나.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부당계약

최근 '아프리카 BJ 턱형'이 대표로 있는 MCN ACCA AGENCY에서 유튜버 '덕자'에게 부당계약을 이행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부당계약 이행과 동시에 고지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과정을 통해 계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MCN ACCA AGENCY는 역으로 '덕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계약 해지금 1억과 방송수입 2년분, 그리고 '덕자'의 계정을 회사에 귀속시킨다고 발언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을 주도한 사건, 통화 녹취록, 추가 피해자 증언 등 여러 증거가 공개되면서 MCN ACCA AGENCY는 '부당계약 체결 기업'으로 유튜버 이용자들에게 낙인되었다.

다. 채용 비리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10일 신한은행 조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등은 지난 2013~2016년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져 1년 1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추천 채용은 회사 내·외부에 있는 이들과 같거나 비슷한 사람을 주로 뽑게 되기 때문에 다양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파벌 형성 문제도 심각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추천 채용으로 파벌이 만들어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서 무조건 추천 채용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외부인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당신 회사에 지원했으니 잘 살펴달라'고 말한 게 추천 채용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적절하게 보기 힘들다.

라. 가족 경영 승계 문제 (재벌 가문 문제)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였다.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삼성그룹의 경영권승계의 정통성이 생기지만,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은 3.38%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은 0.57%밖에 되지 않았다. 거대한 상속세를 피하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희석시키고 이재용부회장의 주식을 키워야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삼성물산 주식가치를 희석시키고 이재용 부회장의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의 주식 가치를 높였고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본부를 인수하고, 패션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삼성SDI에 흡수되었다. 자금마련을 위해 삼성에스디에스를 상장시키고, 지배권을 위해 제일모직을 상장시켰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과정에서 엘리엇과 삼성의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하면서, 삼성물산이 된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의 약 17%의 최대주주로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삼성물산 아래 두고 있다.

2. 기업 (조직) 외에서의 불공정 사례

가. 정경유착

2017년 12월 14일,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였다. 최순실과 함께 안종범 前 대통령 경제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박근혜 정권에 민간인 국정농단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경유착 문제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은 최순실과 공조하였고, 박근혜 前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고가의 말을 지원하였다. 한국 사회에서의 정경유착 문제 발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 초대 회장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에게 공조함으로써, 2대 회장 이건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조함으로써 정경유착 문제를 초래하였다.

나. 기업 대(對) 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및 계약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사 간부들이 Mnet 제작진에 회사에 속한 연습생의 방송 분량을 늘리려고 유흥주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 많게는 200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에서 조작으로 데뷔한 멤버는 시즌2에서 그룹 '워너원' 멤버로 데뷔했고 2016년 방송된 시즌1의 1차 투표에서도 연습생 2명이 조작으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 연습생까지 포함시킨 2018년 시즌 3 방송에서는 아예 최종 선발될 연습생 12명을 정해놓기도 했다. 시청자가 참여하는 문자 투표는 1건당 100원이 부과되는데 검찰은 Mnet이 시즌3 투표 조작으로 이 같은 유료 문자 대금 5591만6900원 중 통신사 수수료를 제외한 3600만원을 이익으로 취했다고 봤다. 시즌4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취한 이익이 8864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 담합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총 6회 담합을 의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3회,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가 3회로, 지난 10월 11일 대법원은 이동통신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왔다고 판결했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대한민국 기업에서의 불공정 발생 원인 분석

가. 상사의 갑질

기업을 노동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개인 소유물로 생각해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하인'으로까지 생각하는 대한항공 일가의 태도가 원인이 되었다.

나.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부당계약

불공정·갑을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 전체가 약탈촉진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체계는 불공정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불공정과 싸우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회피하도록 만든다.

다. 채용 비리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이유로 연고주의를 들 수 있다. 연고주의는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목표 달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며 조직 구성원이 자기 능력을 배양하는 데 노력하기보다 조직의 상위계층과 인연을 맺는 데 노력하여 조직의 분파성과 갈등을 조장한다. 이로 인해 개인적인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분위기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연고를 찾아 헤매는 비생산적 활동이 나타나게 된다.

라. 가족 경영 승계 문제 (재벌 가문 문제)

능력이 있고 많은 주식을 차지한 사람을 총수로 올리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 유지를 위해 가족 경영을 지지하고 이를 이루기 재벌 가문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지속해 발생한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혈연주의가 우세하여 위 문제가 더 심각한 편이다.

마. 정경유착

정권교체가 적은 나라일수록 정경유착 문제가 심각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수적인 정권에서 경제 발전 및 시장 체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기업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같은 경우, 기업의 이윤 창출에 있어 정부의 제한이나 압력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의 요구를 따라 정경유착에 협조하는 편이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정권유착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기업과 재벌 가문이 정권에 이용되거나 협조하는 편이다.

바. 기업 대(對) 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및 계약

기업에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서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윤리적 선을 넘게 됨.

사. 담합

몇 개의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는 과점 구조를 만들어낸다. 명시적 담합처럼 대기업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가격을 설정하거나 암묵적 담합 같은 경우 선도 기업이 가격을 시장에 공시하면 후발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추어 가격을 정한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인 완전 경쟁 시장에선 담합이 성립할 수 없지만, 공급자가 극소수인 업종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동종업체들끼리 뭉쳐 경쟁을 자제하고 가격을 똑같이 올리면 자연스럽게 훨씬 많은 이윤을 얻게 된다. 또,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공정위가 처리한 담합사건은 315건으로 이 가운데 13%인 44건만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고 처리한 담합사건은 2017년보다 100건 가까이 증가했지만, 공정위가 경고 이상 처분을 내려 혐의가 인정된 기업 담합사건에서 고발 비율은 2017년 39%에서 2018년 28%로 낮아졌다.

Ⅲ. 해결방안

1. 국가 차원

가. 리니언시 제도 도입 및 강화

[2]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는 이를 행하는 기업 외 제3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경쟁당국이 이를 발견하여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각국은 카르텔의 발견을 위한 입법의 한 방법으로서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라는 자진신고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란 발견과 해명이 곤란한 것에 기초하여 위반 사실을 스스로 보고해 오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발견함으로써 카르텔·입찰담합의 적발, 사안의 신상구명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담합고발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공정위와 검찰이 권한을 공유하면서 전속고발제(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 일부 폐지가 결정되었지만 혐의가 인정된 기업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경고 이상 처분을 내려 결과적으로 고발 비율은 낮아졌다. 공정위·검찰의 완전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리니언시 제도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진신고 비율을 늘린다면 국가 차원에서 공정기업을 확대할 수 있다.

2) 손영화. (2010).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4(2), 285-321.

나. 도드-프랭크법 도입

공정한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국가의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의 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법 중 하나가 도드-프랭크법이다. 도드-프랭크법은 비리제보자의 보호와 포상을 통한 효율적인 비리 적발과 예방을 위하여 종전의 비리제보제도를 대폭 강화한 비리제보제도를 포함하였다. 도드-프랭크법의 비리제보제도는 기업의 비리나 범죄행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법원 판결이나 합의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다른 법집행기관이 회수하는 금액의 10%에서 30%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허용하였다. 이러한 법을 한국의 기업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공정위원회 개혁

공정위 자체도 경쟁촉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피해 당사자와 경쟁해야 하고, 불법을 감시하는 다른 관료조직인 검찰과 경쟁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 내에서 비리나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위 조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기업 차원

가. 관습적 조직 구조 탈피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습적인 피라미드형 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아메바형, 오케스트라형, 팀 구조형, 네트워크형 구조 등 소통이 자유로운 조직 구조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탈관료제 지향을 통해 평등하고 수평적인 임직원 관계를 형성한다면 갑질, 재벌 문제 등이 해소될 것이며, 사원들의 권리가 보장됨과 동시에 조직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다.

나. 공정한 채용 추구

조직의 경쟁력과 사회적 가치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우수 인재 지원 가능성을 확대하여 공정한 채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시행할 방법으로는 블라인드 채용이 있으며, 국가로부터 '공정 채용 우수 기관 인증'을 받아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음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 MUST라는 공정 채용 인터넷 포털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3. 개인적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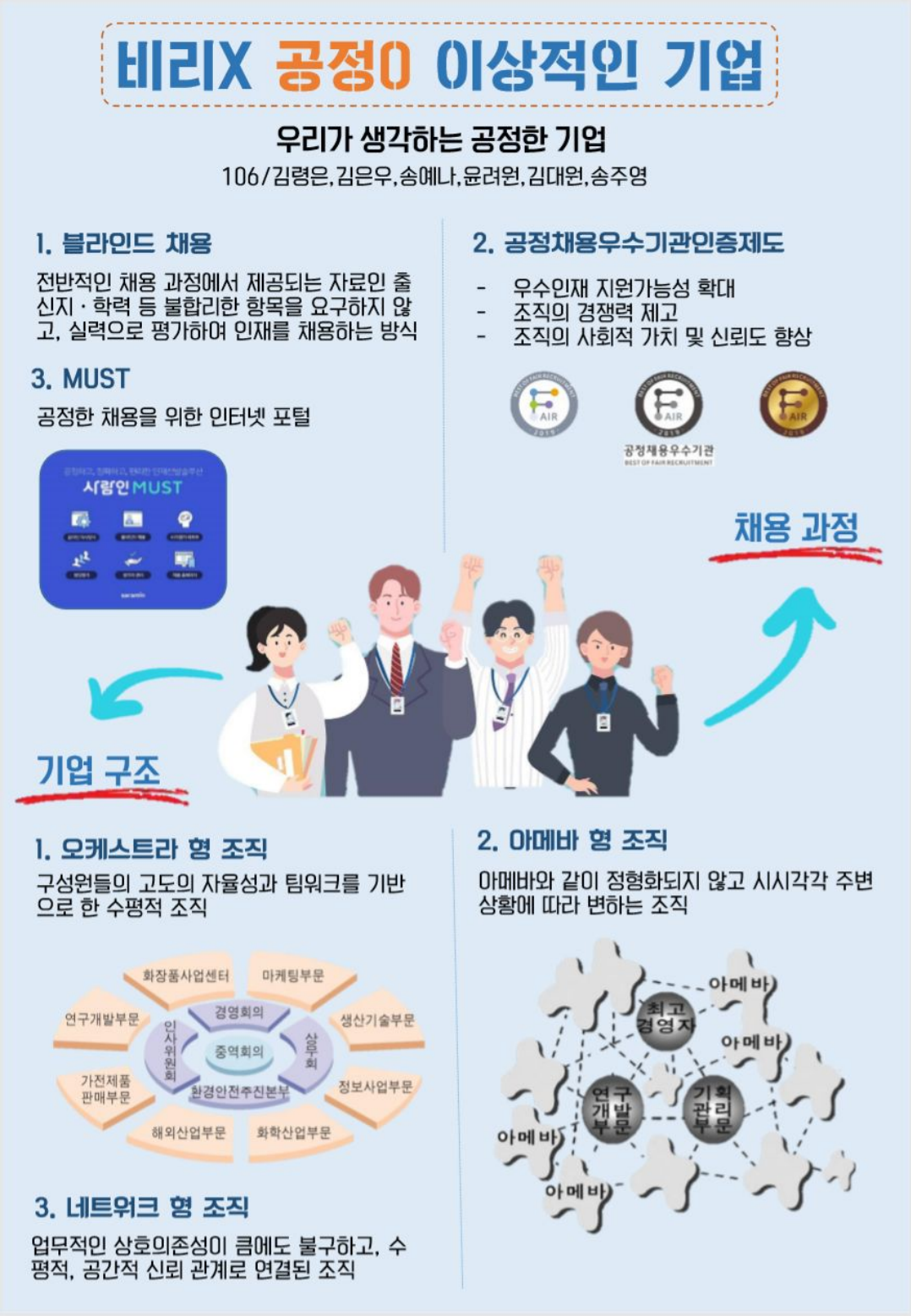
고용인으로서 부당계약을 체결 당했거나, 갑질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른 직원이나 고용인이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에도 리니언시 제도나 도드-프랭크법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신고 및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 소비의 주체로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이콧하며, 기업의 부당한 행태를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제안서 작성, 입법청원서 작성, 캠페인 참여, 불매 운동 참여, 시위 참가 등 시민의식을 지니고 활발히 시민 참여를 하는 것 또한 개인으로서 해야할 중요한 일이다.

참고 문헌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손영화. (2010).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4(2), 285-321.

부 록

〈산출물 2〉 :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정 기업 상상도' 인포그래픽



〈산출물 3〉 : '기업정보요구법' 입법청원서

<입법청원서 (立法請願書)>

청원 날짜 : 2019년 12월 13일
제안자 : 김령은, 김은우, 송예나, 윤려원, 김대원, 송주영
청원 법률명 : 기업정보요구법

소비자 20명 이상이 기업에 불공정거래에 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업은 그 요구에 반드시 부응해야한다.
조항 1. 기업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시해야한다.
조항 2. 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회 검토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조항 2-1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수 과정에는 기업의 사업 유형과 관련이 없는 소비자 2명을 포함해야한다.
조항 2-2 이 과정에서 비리가 일어날 경우, 기업과 검수 과정에 참여한 모두에게 벌금 5000천만원을 부과한다.
조항 3. 만약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에 벌금 5000천 만원과 1달간 그 상품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다.
조항 3-1 담합 의심의 경우 소비자 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정부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제안 법의 필요성 : 2019년 12월 01일자 '쿠우쿠우 사건'과 2019년 11월 24일자 '롯데마트 납품업체 불공정사건'을 보았을 때, 갑질, 불공정 경영의 원인은 우리 사회에서의 규제하는 법률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칭:공정거래법) 외에는 기업의 거래에 관한 규제를 하는 법률을 찾기 힘들다. 기업은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등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며 운영하는, 사회를 위해 윤리적으로 경영해야 한다. 그렇지만 기업에서의 공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잠재적 소비자인 대중들이 기업을 신뢰할 수 있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필요시 정보를 공개하는 법률을 제정될 경우 기업에 관한 대중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 또한 기업 또한 법률을 의식하여 윤리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이 참여하며 견제를 통해 사회는 수평적 구조로 변모되면 사회 누구나 감시를 할 수 있어 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안 법 설명 :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론과 통신을 통해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인 시놉티콘을 가능하게 하였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의 교류, 부정적인 현실의 고발, 중요사안에 관한 의견 결합 등 네티즌들의 조사로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역발상 체제로 이 개념을 사용한 이 법안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기업의 담합, 불공정한 계약 혹은 거래가 의심될 때, 기업 간 거래 과정을 알고 싶을 때 원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서는 소비자 20명 이상이 기업에게 거래 과정이나 계약 내용, 담합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요구할 때 무조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을 보장하기 위해 중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친 후 소비자에게 가게 되는 절차에 관한 조항도 추가되어 기업 비밀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소비자 2명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기업이 부응하지 않거나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벌금 5000천만원에 1달 간 그 기업의 상품이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법의 현실성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감시가 너무 커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존해 있는 단체, 홈페이지인 시민운동에 의한 역감시 강화, 반부패국민연대가 운용하는 '사이버 국민신문고'나 거의 모든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자유게시판'의 이용과 같은 인터넷의 쌍방성을 이용한 역감시의 강화 등이 '감시사회'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본 법률안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수용하기를 촉구하는 바임.

2019. 12. 13

청원서 작성자 : 김령은, 김은우, 송예나, 윤려원, 김대원, 송주영 (인)

현대 사회의 암묵적 계층구조에 대한 고찰 -영화 설국열차를 중심으로

10608 안혜린, 10612 이서연, 10613 이채현
10616 채윤희, 10621 박윤재, 10623 이진우

Ⅰ. 서론

1. 영화 설국열차와 현대 사회

영화 설국열차에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신분과 삶의 방식이 정해진 채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인 열차 밖으로 절대 나가지 못하며, 각자 다른 열차 칸에 격리된 채 분리되어 살아간다. 기차 시스템에 따라, 계층을 구분 짓는 칸 속에서 사람들은 절대 다른 칸으로 넘어갈 수 없다. 그러나 계속된 억압과 인간 이하의 삶에 불만을 가진 꼬리 칸, 즉 최하위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열차의 앞 칸으로 가기 위한 반란을 준비한다. 반란을 시작한 꼬리 칸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열차의 앞 칸으로 나아간다. 앞 칸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꼬리 칸 탑승자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 등장하고 이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목표 또한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을 가져 권력을 쟁취하려는 것이었을 뿐, 차별과 착취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아니었다. 즉, 만약 그들이 반란을 최종적으로 성공시킨다고 해도 권력 계층의 재편만이 있을 뿐 악순환은 계층만이 바뀐 채로 계속될 것이었다. 보안 관리자였던 남궁민수는 열차 바깥의 세상이 전과는 다르게 인간이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마약성 물질을 열차에서 폭파시키고, 살아남은 어린아이 둘이 열차 밖의 세상으로 나가며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 '설국열차'는 지금까지도 현대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 계층 현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영화라고 평가받는다.

2. 연구의 목적

여러 요인에 의해 서열화되어 있는 계층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현대 사회는 다양한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능력, 사회적 지위에 의한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문제 등 각 측면의 불평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함께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 '설국열차'에 투영된 현실 사회의 모습을 분석하고, 사회 계층 구조의 형성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여러 불공정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이론적 배경

사회 계층 현상이란 사회적 희소가치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그 소유의 정도에 따라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근대 사회에서는 고대 노예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 신분제처럼 엄격하게 서열화된 위치가 세습되고, 이것이 사회적 지위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근대 사회에 접어들고, 신분제가 사라지며 사회적 지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세습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암묵적으로 사회 계층을 분리하고 있다. 계층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에는 사회적 가치는 희소한데 이를 소유하려는 사람은 많아 차등적으로 분배되거나, 출신 배경, 학력,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위치가 결정되어 분배 구조나 사회제도가 불평등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회 계층 구조는 사회 이동의 가능성에 따라 크게 개방적 계층 구조, 폐쇄적 계층 구조로 나누어진다. 폐쇄적 계층 구조는 계층 간 수직 이동 가능성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고, 타고난 신분이나 혈통 등에 의한 귀속 지위가 중시된다. 개방적 계층 구조는 계층 간 수직 이동이 원활하고,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등에 의한 성취 지위가 중시된다. 또한,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타원형 계층 구조가 존재한다. 피라미드형은 하층 구성원의 비율이 높고 상층으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특징으로, 봉건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다이아몬드형은 중층 구성원의 비율이 상층이나 하층에 비해 높은 구조로, 현대 복지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모래시계형은 중류 계층이 몰락하여 중류 계층의 비율이 가장 낮고 소수의 상류계층과 다수의 하류 계층이 존재하는 구조로, 사회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계층구조다. 타원형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줄어 중류 계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계층구조로,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화 설국열차의 장면을 각각 분석하여 그 장면에 현대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영화 장면 분석을 통해 사회에 나타나는 계층 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Ⅳ. 결과

1. 영화 장면 분석

가. 달리는 설국열차의 상징성

1) 장면 분석

기차는 종착점 없이 지구를 순환한다. 또한, 기차 안 구분되어 있는 열차 칸은 계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꼬리 칸 사람들은 천한 계급의 취급을 받으며, 앞 칸 사람들은 상위 계급의 대우를 누린다.

2) 영화에 투영된 현대 사회

달리는 열차는 오늘의 자본주의 체제를 상징한다. 봉준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기차는 옛날로 치자면 증기기관이다. 증기기관은 영국 산업혁명의 대명사 격으로 자본주의를 있게 한 핵심 요

소다."라고 언급하였다.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자본을 상징하는 엔진은 멈추지 않는다. 영화 속 각 객차 안의 승객들은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야만 열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말에서 사회 계층론을 떠올릴 수 있으며, 열차의 엔진은 구조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현실 속에 투영해 본다면, 기차 안 구분된 열차 칸은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의 증대와 함께 해석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불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인간은 사회 속에서 계급사회와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 사회시스템은 불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달리는 설국열차의 본모습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투영했다고 볼 수 있다. 불평등과 자본주의로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우리는 불평등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체적 주인 및 노예뿐만 아니라, 타율적인 주인과 노예 역시 가능하다. 부조리는 주체가 원하는 방향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타율적 주인과 타율적 노예가 되는 것을 구조화한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의지와 상관없이 구조가 결정해버리기 때문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을 이기적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규정하고,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인간의 권리, 즉 자연권 확보를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서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국가권력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홉스의 이론 같은 설국열차의 구조와 우리 사회는 오늘날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구조가 확고해지게 된다.

나. 기차의 앞칸과 꼬리 칸이 암시하는 사회적 계층구조

1) 장면 분석

기차 안의 사람들은 철저한 자본주의의 질서에 따라 기차의 앞 칸과 꼬리 칸에서 생활한다. 기차 앞 칸의 사람들은 다양한 사치시설을 차지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며, 술과 마약까지 즐기는 편안한 삶을 누린다. 반면 꼬리 칸 사람들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로만 삶을 이어간다. 이와 같은 영화의 설정은 현대 사회에 드러나는 자본주의에 따른 사회적 계층 구조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열차의 앞 칸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의 자본가 등의 상위 계층을, 꼬리 칸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하위 계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영화에 투영된 현대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따라 생활 수준 등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위와 같은 영화의 장면은 계층의 형성에 따른 국가 간의 불평등, 국내 사회에서의 불평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국가 간의 불평등에 위 장면을 투영해 보면, 선진국을 열차에 앞 칸, 개발도상국을 열차의 꼬리 칸에 빗대어 둘 사이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로는 부유한 선진국과 가난한 개발도상국 사이의 식량 불평등을이 있다.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다. '다이어트'하기에 바쁜 선진국 사람들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 진흙으로 쿠키를 구워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고급 음식과 술을 즐기는 앞 칸 탑승자들과 달리, 바퀴벌레를 갈아 만든 단백질 블록으로 연명하는 꼬리 칸 탑승자들을 비추는 영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열차의 앞 칸과 꼬리 칸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은 각 국가의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계층의 형성에 따라 부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불평등이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흔히 드러나는 소위 '갑질'이라고 불리는 문제점 또한 사회적 계층 구조의 형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국열차의 앞 칸 탑승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상류층들은 자신이 사회적 상위 계급이라고 인식하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다른 쪽에 자의적 권력을 행사한다. 우리는 '갑질'을 행하는 상류층을 '갑', 갑질을 당하는 상대적 약자를 '을'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사회의 관계에서 '갑'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을'은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비용 때문에 이를 용인하는 상호작용의 패턴이 만들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계층구조 형성에 따른 대표적인 불평등 문제라 할 수 있다.

다. 기차 안에서 교육을 받는 앞칸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꼬리 칸 아이들

1) 장면 분석

기차 속 아이들은 기차에 순종하게 만드는 교육을 받고 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엔진 개발자인 윌포드와 윌포드가 발명한 엔진을 찬양하게 하며, 기차 밖으로 나가거나, 기차가 멈추면 모두 얼어 죽는다는 생각을 주입시켜 편향된 사고를 하게 한다. 게다가 교육한 내용을 시험으로 출제하여 아이들 모두가 기차에 대해 세뇌 당한다. 또한 꼬리 칸의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끝없이 달리는 열차에서 부품이 없어서 작고 좁은 틈으로 끊임없이 열차를 조율해 줘야 한다.

2) 영화에 투영된 현대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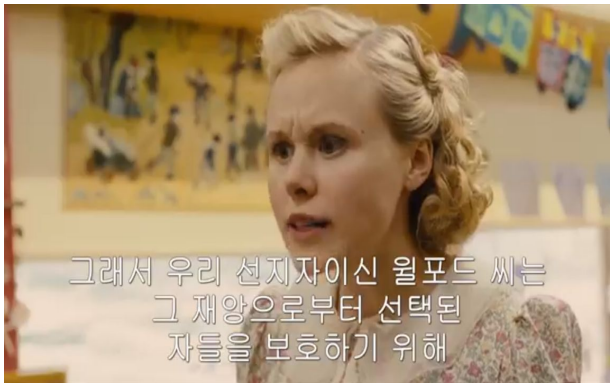
문화 평론가 박민영은 영화의 꼬리 칸 아이들이 엔진 부품으로 이용되는 장면을 세 가지로 해석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엔진의 신화에 세뇌되고, 계급적 위계에 길들여지면 사람이 하나의 기계부품으로서 얼마든지 기존 시스템을 위해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2번의 장면 속에서는 우민화와 신민화의 요소가 다분히 투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차 칸마다 벌어지는 교육 격차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기차 속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위치한 앞 칸의 아이들은 학교 교육을 받지만, 부유하지 못한 꼬리 칸의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이것은 현대 사회 속 교육 격차와 매우 닮아있다.

교육 격차란 교육 투입의 부족 또는 결합 과정이 잘못되어 생기는 교육 산출의 차이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다. 교육 격차는 주로 한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개인 보다 교육의 정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사회 이동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서 개인의 삶의 기회와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 (문정주, 최율, 2019)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교육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교육 격차의 상황에서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져간다. 현실의 주류에 속하지 못한다는 의욕상실은 뿌리를 내려가고, 이에 대한 좌절은 결과의 격차로 증폭된다. 사교육 혜택이 많은 부유층 자녀는 빈곤층 자녀보다 학력이 높거나 명문 학교로 진학하게 되므로 이는 또다시 계급의 격차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한국 부모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자녀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의 자녀교육은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오늘날의 교육은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명문대 입학이라는 관문을 통해 '학벌'을 중심으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유지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엘리트층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진로교육에 관심은 없고, 온 나라가 대학입시에만 집중하므로 취업과 능력의 보장도 되지 않는 궤도에 모두가 진입하여 무작정 달린다. 이렇게 되자 취약계층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교육비를 지불하게 된다. 또한, 공교육 측면에서 사회에서 정한 암묵적인 '과도한 학력'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없게 되자, 교육비 부담에서도 보상에서도 불리한 이중의 불이익을 겪는다.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학벌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학벌의 위상을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심히 하는 노력과 능력보다 학벌을 매개로 경쟁하게 되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학부모들은 계속 사교육 시장을 기웃거리고 시장에 저항하기보다 경쟁의 열에 편입한다. 이와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 교육 시장의 개선보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라. 불공정한 계층구조 심화의 문제점 - 전체주의와의 유사성

1) 장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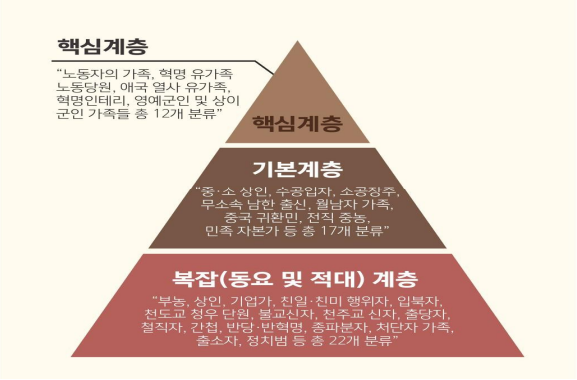


불공정한 계층구조가 심화될 경우 전체주의와 매우 유사해질 위험이 있다. 설국열차 안의 계층구조는 전체주의 국가의 특징을 연상케 한다. 영화에서는 전체주의로 변모해나가는 현대 국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전체주의란 국가나 집단의 전체를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따라 체제를 지배하는 권력자나 권력 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권위적인 통치 질서의 도구로서, 피지배계층의 자발적 순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를 동반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불공정한 계층구조, 즉 권력이 집중된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하는, 불공정한 사회는 전체주의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

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류층, 즉 앞 칸 승객들에게 권력이 집중된 설국열차라는 사회에서는 전체주의적 요소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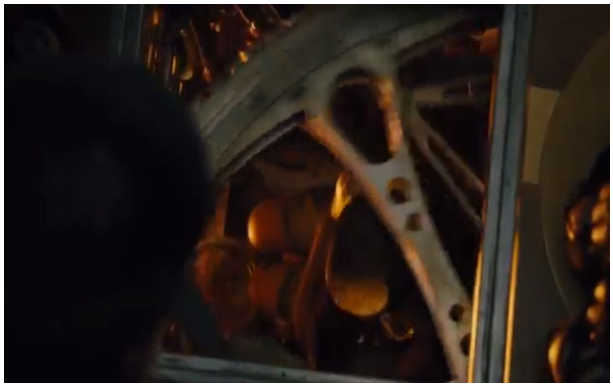
2) 영화에 투영된 현대 사회

가) 중앙집권통치



설국열차 안에서는 열차의 탑승자들은 영원한 엔진과 이를 개발한 윌포드라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신봉하고 있다. 윌포드를 선지자라고 칭하기까지 하며 그를 신격화하고, 윌포드를 엔진 개발자를 넘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누군가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엔진은 영원하다"라는 프로파간다를 아이들에게 퍼뜨리며 윌포드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의미를 아이들에게도 주입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전체주의와 관련된 주체사상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이 떠오른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과 그와 관련된 소수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권력과 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정 집단의 권력 유지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쳇바퀴 위에 있는 북한의 체제와 닮아있다.

나) 개인의 수단화



여느 날처럼 경비대가 꼬리 칸에 와 인원 체크를 하고, 단백질 블록을 나누어 주던 중, 경비대가 이 중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지 묻는다. 한 쌍의 노부부가 자신들이 바이올린 연주를 할 줄 안다며 앞으로 나오자, 경비대는 이들의 손을 본 후 나이 든 할아버지에게 따라오라고 말한다. 이때 경비대는 노인에게 '짐은 필요 없다, 연주할 손만 있으면 되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앞 칸 사람들이 바이올리니스트를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닌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는 손으로 여기는 마치 인간을 부품, 혹은 도구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앞 칸 사람들이 꼬리 칸 사람들을 부품 취급하는 다른 사례를 영화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기차 엔진의 부품이 고장 나자, 위험하고 비좁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작은 아이를 아래 칸에서 데려다가 그 공간에 집어넣고 부품 역할을 시킨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계층의 상류층이 하류층을 부품처럼 도구화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특히 산업혁명 시대에 많이 일어났는데, 상류층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매우 적은 임금을 주고 장기간의 노동을 시킴으로써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며 인간의 기본권,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 등이 높아지며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에서 이러한 행위가 주로 나타나는데, 가장 적합한 예시는 아동 노동 착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가지 못한 채 공장 혹은 농장 등의 곳으로 일하러 나가는 어린아이들에 관한 다큐를 우리는 한 번씩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교육이라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생존을 위해 반강제로 포기하는 것을 강요받고, 위험하고 고된 장기간의 노동을 매우 적은 임금만을 받으며 하게 된다. 이러한 불공정한 노동의 결과로 상류층에 속하는 기업은 가격의 인하라는 경쟁력을,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점을 얻는다. 이러한 행위들은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인간을 인간 자체로 보지 않고 목적의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전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다) 사회적 불만의 해소

영화 속 설국열차는 한 해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며 17년간 윌포드가 개발한 선로를 따라 달리고 있다. 따라 열차라는 한정적 공간에서는 개인의 욕구를 온전하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배출구를 찾아야 했다. 따라서 상류층 계급은 사회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꼬리 칸 사람들과 자신들의 계급 격차를 이용한다. 앞쪽 칸 사람들은 모자이며 꼬리 칸 사람들은 신발이라는 발언, 혹은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라며 순종적 태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구조는 제 2차 세계대전의 주원인이었던 나치당의 정치이념인 나치즘과 매우 유사하다. 나치즘은 독일인이 대표라고 주장한 '아리아 민족'이 타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게르만족'의 우월성과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국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게르만인을 포함한 아리아 인종이 세계의 지배 인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매우 심각한 순혈주의와 초국가주의가 결합한 형태인 것이다.

설국열차의 앞쪽 칸 사람들이 꼬리 칸 사람들을 멸시하며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했듯 나치도 사회적 약자와 다른 민족, 그 중 특히 유대인을 그런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학대했다. 홀로코스트가 바로 이것인데, 홀로코스트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독일 제국과 독일군 점령지 전반에 걸쳐 계획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천1백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학살한 사건이다. 사망자 중 유대인은 약 6백만여 명으로, 그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9백만 명의 유대인 중 약 2/3에 해당했다고 한다. 전체주의를 택하여 개인의 권리가 통제되며 얻는 불만을, 다른 민족을 학살하는 끔찍한 방식으로 해소한 것이다.

마. 꼬리 칸의 반란이 암시하는 사회적 계층구조의 상위층이 되고자 하는 의지

1) 장면 분석

꼬리 칸의 '앞 칸으로 전진'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그것은 반란이면서 계급 상승, 즉 출세와 성공도 의미한다. 계급사회에서 전진의 의미는 자리만 바뀔 뿐 악순환의 연속이다. 체제의 변화가 아닌 자리만 바뀔 뿐이다. 위에서 아래로의 폭력, 아래에서 위로의 폭력은 방향성만 다를 뿐 대칭 구조를 이룬다. 피지배자의 '자유와 평등' 즉, 신분 상승 요구와 지배자의 '균형'과 '질서' 즉, 기득권 유지가 팽팽히 맞선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 영화에 투영된 현대 사회

이 영화에서 꼬리 칸 탑승자들의 반란의 문제점은 그 해결책, 즉 앞 칸의 정복이 시원스러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이다. 탑승자들이 일으킨 반란의 목적은 계층 구조의 파괴가 아닌 자신들이

상류층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었다. 상류층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자리에 앉고 싶은 심리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실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사람들은 부유한 계층의 과시적 소비를 비판하고, 명품 제품을 과도하게 소비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된장녀'라는 단어로 비하하는 등 경제적 상류층, 사회적 계층의 상류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과는 모순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류층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는 한다. 사회적 계층 구조를 파괴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자신들이 사회적 계층의 상류층이 되고 싶어 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최근 구독자 22.1만 명 가까이를 보유한 유튜버 '떴다 왕언니'의 사례에서 이와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떴다 왕언니' 채널은 매우 고가의 명품 제품을 개봉하고 착용하는 콘텐츠의 영상을 게재하는데, 시청자들은 이러한 영상에 대해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제적 부유층의 과시적인 과도한 소비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부정적인 유행어를 생성했던 경향과는 달리 오히려 그에 대한 동경의 태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사람들의 모순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1. 요약 및 해결 방안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영화 '설국열차' 속에서는 암묵적인 사회 계급 발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차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설국열차 내에는 많은 사람이 존재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 열차 안에서도 흔히들 볼 수 있는 계층 사회가 존재하였다. 빈민층은 끝으로 몰리고 상류계층은 앞 칸에서 호화롭게 살아간다. 호화로운 삶 속에서 어린이들은 최하위층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고, 혁명을 통해 밖으로 나가다가 얼어 죽은 사람에 대해 언급하며 혁명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피지배층은 혁명을 통해 변화한다. 불공정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해 혁명을 진행하지만, 결국 그들은 계급이 상승하고,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지배자가 혁명가에게 기득권 유지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영화 '설국열차'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권력 관계, 사회 시스템의 지배방식을 폭로하고 그것에 걸맞은 저항 방식을 묻는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도 많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후기현대적 문제상황 등을 통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지배의 방치에 대한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설국열차〉를 살펴볼 수 있다.

현대 사회와 설국열차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불공평, 불공정 사회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설국열차 속 다양한 장면을 통해 윌포드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서 윌포드를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 대중적 지지를 통해 전체주의 성향을 가진 열차로 재탄생한 것이다. 윌포드라는 한 인물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여 집권자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정치 생활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한다. 설국열차 안에서 전체주의적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다. 윌포드를 숭배하는 것, 앞서 말한 우민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은 근대 사회에서 식민국가에 만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이다. 또한, 폐쇄적 사회라는 열차 사회의 특징을 이용하여 특정 상류층들은 꼬리 칸 사람들과 차별을 두어 그들의 욕구를 해소한다. 현대 사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작은 열차에서 나온 것일 뿐, 결국 우리도 폐쇄적 사회에 있으며, 계층 간 숫자가 증가했을 뿐, 결국 상류층과 꼬리층 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존재한다.

인류는 과거부터 사회 구조에 계급과 차별이 만연하게 드러났다. 과거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식량의 잉여가 발생한 그 순간부터 인도의 카스트 제도까지, 혹은 현대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급 발생까지 인간들의 삶에는 항상 권력과 계급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암묵적인 지배는 교육에서도 완연하게 드러난다. 자본주의의 도래 이후 식민지를 넓혀가는 강대국은 식민지배하는 국가에 본국과 식민 지배국 사이의 교육 차별을 두었다. 기득권층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중의 비판력을 훼손하는 행위를 통해 강대국은 식민 지배를 손쉽게 하였다. 식민 지배를 통한 자본주의 확대와 식민국 시민들의 우민화는 결국 현대 사회의 세계적 남북문제, 국가 내 소득 격차 혹은 계층 발생과 연계된다. 극 중 기차 안에서 앞 칸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만, 뒤 칸 아이들은 기차 엔진의 부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거나 방치되는 등 엄연한 교육 차별을 당한다. 현대 사회 속 교육 시장 역시 설국열차 속 교육 시장과 별 반 다를 바가 없기에 우리에겐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단 것이다.

꼬리 칸 사람들은 대우를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빈민층 사람들은 힘을 모아 상류계층에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전진할 수 있었던 그들은 점점 앞으로 갈수록 새로운 모습에 넋을 놓게 된다. 자신들과는 다르게 호화롭게 대우를 받으며 의료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설국열차는 단지 계급 상승이 아니라 진정한 혁명, 즉 자본주의 및 계급 구조의 파괴와 그로부터의 탈주를 그렸다. 멈추어서는 안되는 열차의 엔진은 너무나 명확하게 자본주의를 상징했고, 열차 앞 칸은 제 1세계, 포드주의, 지배 이데올로기, 타락한 상류계급을 보여주었다. 계급 불평등의 구조는 계속되기에, 단지 열차의 주인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러므로 엔진 자체를 파괴해야 했다, 그리고 열차 밖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었다.

이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드러나는 암묵적 사회 계층 문제를 함축적인 영화 장면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시스템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기차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상징적으로 풀려고 했던 것이

다. 기차는 종착점 없이 지구를 돈다. 고통스러운 기차 안의 체험을 한 사회적 약자들이 시스템 안 기차를 탈출하기 위해 한 해방적 사유, 즉 혁명은 우리 인간들이 불공정에 대항하기 위해 꾸준히 해온 바이며, 인간들이 대표적으로 해온 해결 방안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었다. 역사적 사건을 회고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저항할 때 '혁명'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홍콩 우산 시위, 한국의 촛불시위 등 방법은 다양했다.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계몽한 사람들은 항상 변혁을 꿈꿨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공정에 저항하기 위해서.

사회적 계층 분리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찾은 사회적 계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자들은 사회 계층 분리 완화 도모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부여하는 것이다. 계층 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같은 경험과 재능, 노력, 결과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설국열차에서처럼 불합리한 계층 구조를 파괴하기 위해 기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계층의 분리가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계층 사람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기회균등 제도의 확대이다. 기회균등 제도는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 내에 기회균등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 기회균등 촉진법은 모든 국민이 개인의 신체적, 사회적 조건과 관계없이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기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에서 동일한 기회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영역에서 사용자, 교육기관의 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 등이 타인에 대한 기회균등 기회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으로, 사람들에게 공정한 경쟁 사회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회균등 제도 이외에도 인적자원 투자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 촉진 등을 통해 사회적 계층 분리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인적자원 투자 확대를 통해 빈곤 탈출을 돕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전망을 개선하는 일이 핵심적인 과제로 예상된다. 투자의 효용성을 위해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의해 교육과 기술 훈련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직업훈련의 양적, 질적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계층 간 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계층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각자의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계층 간의 구성원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전에는 성과의 미흡함으로 인해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라도, 성과의 발전이 있다면

발전 그 즉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소위 '계층 사다리'가 있어야 공정한 경쟁으로 이루어진 공정한 사회 계층 구조가 될 수 있다. 불가피하게 계층이 나누어져야 한다면 계층이 나누어질 때, 각자의 성취를 기준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층이 분리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학연, 혈연, 지연 등 인간관계나 혹은 다른 이유로 그 개인의 성과보다 높은, 혹은 낮은 계층에 개인이 속하게 될 경우 이는 명백한 불합리한 계층 분리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붕괴할 것이다. 계층 간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빈곤 탈출을 촉진해야 한다. 2012년 이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 지원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근로자를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부담금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복지정책을 현재의 소득분배 상태를 개선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의 역동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혜 중심이 아닌 고용 창출 복지정책, 사회적 비용 절감 복지정책, 성장잠재력 확충 복지정책 등 새로운 역동성 확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공공교육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전통적으로 학교 교육 효과 연구(예, Coleman, 1966)가 지적했듯이, 학업성취 면에서 교육격차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교육 참여 정도, 부모의 교육적 기대 및 지원 차이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주호, 백종면, 2019) 또한 교육격차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어느 정도 교육여건이나 물리적 학교 환경 차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도시지역으로 몰리게 만드는 현행 우리나라 학교 유형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격차의 해소를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방안은 EBS와 같은 공공교육 플랫폼 자체를 증설하거나 양질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EBS 방송과 같은 공공 플랫폼 자체에서 사교육비 경감뿐만 아니라 학생들, 특히 경제적 소외계층의 학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 공급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장지윤, 박인우, 장재홍, 2017). 따라서 EBS 도입 취지인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의 공평성 측면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과 소외계층 학생에게 공공교육 플랫폼의 방송 및 교재를 홍보하고 지원한 후 접근성을 높인 후에 교육 플랫폼 자체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현행 대학입시 체제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입시 자체의 지역별 정보 습득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플랫폼 자체에서 온라인 강의 등의 형식으로 입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경제적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체주의의 원인을 분석하여 현대 사회에 전체주의의 재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전체주의의 발생은 사람들의 인권을 저해하고, 사회적 계층 구조를 발생시키는 데 일조하는 역할을 한다. 전체주의의 발생 원인을 획일적으로 해명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 지배 형태에서 전체주의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었던 전체주의는 권위주의의 하위 범주에 있으며, 권위주의란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을 권위로 억누르는 이념을 의미한다. 전체주의는 전체 이외의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체주의 사상 아래에서는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소거하게 된다. 전체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 노력을 할 수 있다. 우선, 다당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청원, 혹은 지방 단체에 건의하는 등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회보장 기본법이나 인간의 기본권 혹은 복지를 보장하는 법률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가해 약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 계층 구조가 교육, 정책, 국가 그리고 사상 등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다양하게 드러나기에 해결 방안을 단일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 양극화 극복에 있어서 경제와 교육의 균형적 파트너쉽을 도모하거나, 계층 이동 원활화를 위한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다방면으로 융통성 있게 융합하여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영화 장면을 분석할 때 연구자들의 다소 주관적인 관점과 감정을 통해 해석한 부분이 드러나며, 해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창작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객관적인 해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와 ‘산출물’이라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 가능한 매체를 만들 때는 객관적 시각을 담아내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연구자들이 학문의 역량이 아직 미숙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보다 객관적이고 대중적인 답안을 도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연구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으로 드러났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본 연구의 허점과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완벽한 연구 산출물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내용과 한계점들은 추후의 과제들에서 새로이 다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김작가. 2018.10.21. “모든 관계는 권력관계”. 《브런치북》

박민영. 2013.08.26. “‘설국열차’의 상징과 비유들”.《경향신문》

정한울, 조계원. 2019.「한국 사회의 갑질 문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치 학회보〉

최용성. 2015.「설국열차의 과학기술, 계급지배 시스템과 윤리적 해방의 비전」. 〈한국 민족 문화〉

한승동. 2013.09.13. “1%와 99% 사이를 달리는 대한민국 '설국열차'”.《굿모닝 충청》

Jean Ziegler. 2016.『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3장

언론 | 미디어 | 심리 | 교육 | 인문

국내 문화 산업 내의 불공정 : 스크린 독과점 사례를 중심으로
| 보고서

낙수효과와 불공정에 관한 철학적 고찰
| 보고서, 칼럼

문학작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찾는 사회의 불공정 문제 분석
| 보고서, 소설, 포스터

외모지상주의 [외?! 모! 내 외모가 어때서!]
| 보고서, 인트로 영상

언론 조작과 공정
| 보고서, 연극대본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사회 형성
| 보고서, 사업 제안서, 정책제안서

국내 문화 산업 내의 불공정
- 스크린 독과점 사례를 중심으로

10209 이인서 10211 이하연 10218 송의호
10219 신휘수 10220 이성현 10223 이진섭

Ⅰ. 서론

1. 겨울왕국 2의 스크린 독과점

최근 개봉한 겨울왕국 2가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겨울왕국 2’는 영화 진흥 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 개봉한 첫날 2343개 스크린에서 12998회 상영되었다. 국내 총 스크린 수가 5618개라는 것을 고려하면 스크린 점유율은 39.7%, 상영 점유율은 63.0%였다. 현재(2019년 12월 기준) 겨울왕국 2는 1000만 관객을 17일 만에 돌파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서민 민생 대책 위원회는 지난 1일 “겨울왕국 2는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겨울왕국 2의 독과점을 비난하였다. 또한, 정지영 감독은 자신의 영화 〈블랙머니〉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겨울왕국 2〉로 인해 극장 좌석 수가 97만 석에서 37만 석으로 대폭 축소되어 하루 만에 좌석이 감소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료1 ‘겨울왕국 2’의 포스터

또한, 2019년 4월 ‘어벤져스: 앤드 게임’이 사전예매만 200만 장(예매율 96.8%에 해당)이 넘고, 전국 스크린의 90%가 넘는 2800여 개를 차지한 이후부터 정부는 ‘스크린 상한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2. 스크린 독과점의 역사적 전개

정부는 1961년 9월 11일 '고시 148호'를 발표하고 같은 달 9월 30일까지 새로운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영화사는 다시 등록하게 했다. 정부의 목적은 과도하게 난립한 영화사를 정비함으로써 부실한 업체는 도태시키고 기업 규모를 갖춘 소수 회사를 주임으로 영화 제작을 이끄는 것이었다. 이 고시에 따라, 당시 65개사에 이르던 영화사는 16개사로 통합되었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며 추가로 명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영화사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
2. 한국 영화 제작자에 한해 외국영화 수입권 부여
3. 연간 15편 이상의 제작 의무화

자료2 1962년 정부의 영화법 개정 및 추가 제시안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영화의 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정부 시책이 다시 영화계에 미친 영향은 국산 영화 제작과 외국영화 수입의 일원화, 의무제작으로 인한 제작 편수의 급속한 증가, 외국영화 수입 쿼터 배정에 따른 영화수입의 이권화와 국산영화 제작의 졸속화 등의 긍정적, 부정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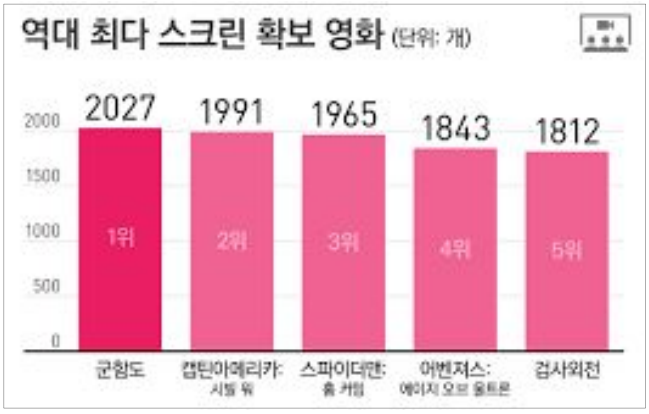
스크린 독과점은 1962년 영화법을 시작으로 일부 기업에 집중된 산업의 형태로 발달하였다. 그리고, 현재에 와서는 외국영화(마블, 디즈니 등)와 소수 영화 기업(CJ E&M, SHOWBOX, 롯데엔터테인먼트, NEW 등)이 영화 산업을 독점하고 있다.

II. 다각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1. 경제, 경영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스크린 독점 배급사가 공통으로 가진 경영방식에 대해 알아보면, 영화 산업에서 배급업자의 수익은 극장(상영업자)의 입장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취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수요의 정도에 따라서 배급업자의 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일반산업과 차이가 있다. 배급업자와 상영업자 간의 관계는 전략적이고 동태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인 관계는 배급업자나 상영업자가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동한

다. 동태적인 관계는 배급업자와 상영업자 간의 거래는 반복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 거래 하고 난 뒤에 거래단절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태적이다. 특히 스크린 독점현상은 당사자 간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그러한 힘은 각 주체 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자원의 규모와 매력도에 의해 결정된다. 배급사의 시장지배력은 영화판권에 대한 통제에서 기인한다. 배급사들은 최근 히트작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한 시간대에 시장에 대해 힘을 가지게 된다. 한 스크린을 채울 수 있는 영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배급사일수록 극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극장의 전략적 자원은 스크린 수와 극장의 접근 용이성, 시설의 편의성 등이 있다. 특히 극장의 스크린 수는 배급사의 블록부킹[1]과 최소상영 기간 요구에 대한 극장의 대응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경영 구조는 멀티플렉스와 대형배급사 간의 독점에 주요 원인이 된다.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살펴보자면, 롯데시네마(롯데 엔터테인먼트 계열), CGV(CJ E&M), 메가박스 (쇼박스)가 있다. 현재 대형주요 배급사는 이러한 멀티플렉스[2] 상영관을 통하여 영화 시장에서 독점을 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멀티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스크린을 차지하기 어렵다.



자료 3 역대 최다 스크린 확보 영화

이러한 독점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에 개봉한 영화 “군함도”가 있다.(2017.7.26. 개봉) 전국 스크린 수가 총 2500여개인 상황에서 군함도는 개봉 당시 스크린 수는 2168개였다. 그동안 2000개의 스크린을 넘어 개봉하는 영화는 없었다. 실제로 군함도의 개봉으로 인하여 당시 다른 영화들의 스크린 수는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같은 시기에 개봉한 영화 “덩케르크”의 경우 개봉(2017.7.20 개봉) 첫 주 1000여개의 스크린으로 출발하였으나 군함도 개봉 이후 600여개의 스크린 수로 줄어들었다. 군함도의 스크린 수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관련이 있다. 군함도의 배급사는 CJ E&M이다. 이 배급사는 같은 계열의 멀티플렉스 상영관인 CGV

1) 블록부킹: 배급을 위해 여러 개의 영화를 묶어서 일괄 판매하는 방식. 주로 영화사가 극장 업자에게 특정 기간 제작하는 모든 영화의 상영권을 일정 금액에 양도하는 방식. 그 결과로 흥행성이 높은 영화에 흥행 가능성이 없는 다른 영화까지 끼워 팔 수 있는 독점적 판매가 이루어짐. 이러한 거래로 발생하는 장점은 제작사 입장에서는 배급사의 극장 라인을 통한 안정적인 상영이 가능하여 배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배급사 입장에서는 제작사에 대하여 독점적 우위의 교섭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임.

2) 멀티플렉스: 여러 개의 스크린이 있는 복합 상영관

3) 2) 멀티플렉스 중 여러 개의 정의: 넓게 보면 2개 이상, 일반적으로는 5개 이상. 유럽에서는 10개 이상. 15개 이상은 메가 플렉스라고 부름, 스크린 수보다 멀티플렉스가 만들어낸 극장 문화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문화는 다음과 같다. - 1.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가던 시대에서 극장을 간 후 영화를 결정할 수 있게 됨. 2. 극장뿐만 아니라 마트, 푸드코트, 쇼핑몰, 각종 오락시설이 함께 있음

를 보유하고 있다. 배급사가 CJ E&M이기 때문에 쉽게 스크린 수를 늘릴 수 있었고 CGV를 독점할 수 있었으며 스크린 독점의 논란이 확산되었다. 극장 CGV의 입장은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개봉 전 군함도는 거대한 제작비와 탄탄한 배우 라인업으로 당시 관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따라서 CGV는 이런 점을 파악하여 군함도의 관객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군함도의 스크린 수를 많이 배정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영화관의 수익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배정하였다. 또 다른 입장은 영화의 인기가 많으니 상영도 많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스크린 수를 늘려서 상영관이 많아지므로 관객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스크린 독점 문제에는 총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왜곡된 독점 체재이다. 두 번째는 스크린 배분의 문제로서 영화를 기획 및 제작하는 배급사와 이를 판매, 유통 상영하는 상영사가 통합되어 배급사 자체 제작 영화를 운영 상영사에 몰아줌으로써 공정한 스크린 배분 및 분배가 어렵다. 세 번째는 수익 확보 판로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영화시장 구조 자체가 '내수시장'에 치중되어 있다. 대형배급사가 100억 원 이상을 자체 투자하여 제작한 영화의 경우 수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이 국내 영화상영과 영화관 운영밖에 없는 구조에서 스크린 독과점은 심화 될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투자-자본 확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소규모 상업영화는 투자사를 찾기 어려워 저예산 영화로 제작될 작사 지원용 모태펀드는 약 6001억 원이었는데 이 중 70%가 3대 배급사에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관객의 선택 자유 문제가 있다. 대중은 박스오피스에 올라온 영화 이외에도 수많은 비주류 영화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들이 소외되지 않는 다양한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즉 배급사의 독과점 체제로 인하여 대중은 선택권을 침해받는다. 이는 군함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설명된다.

2. 윤리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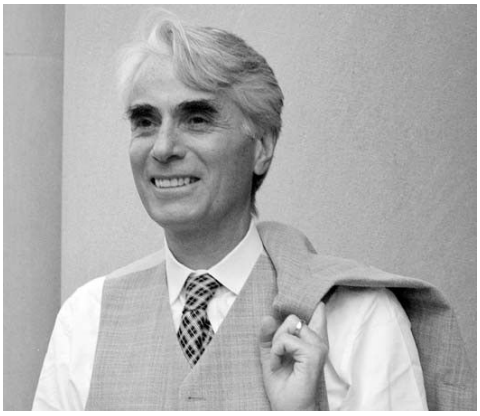
트라시마코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며, 강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며, 권력을 쥔 강자가 재화의 분배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것이 정의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즉, 강자의 이득이 곧 정의이며,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스크린 독과점의 양상도 이와 비슷하다. CJ(CJ E&M), 롯데, 쇼박스 등 대기업이 스크린의 분배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영화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상영하고 있다. 트라시마코스의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이라는 강자가 스크린을 독점하고, 과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가 주장한 정의는 한 가지를 더 충족시켜야 한다. 바로 '남에게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강자에게 복종하여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또한 강자가 자기 이득만을 챙기는 것은 부정의라고 주장한 것이다. 스크린 독과점은 강자가 '남에게 좋은 것'을 실천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이득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독과점이 공정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노직 노직은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국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등이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즉, 대기업이 독과점한다고 해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세금을 걷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곧 스크린 독과점이 공정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 재분배는 공정하지 않다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국가의 형성을 개인과 국가의 사회계약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만일 개인이 근로소득세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 그는 국가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국적을 버리고 무국적자가 될 수도 있고, 국적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이 현재의 국적을 고수한다는 것은 현재 소속된 국가와의 계약을 존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이 계약을 존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계약이란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근로소득세는 일방적인 착취가 아닌 교환과정에 입각한 계약 내용이다. 국가는 개인에게 국적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을 국가라는 제도 안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개인은 소유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안정성을 획득한다. 이때 개인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 비용인 셈이며, 만약 개인이 납세를 거부한다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포기해야 한다.

또한, 노직은 개인이 자신의 노동과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자체로 사회적인 개념일 수 밖에 없다.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은 이에 대한 타인의 인정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어떤 분배원칙을 수립할 때, 이 소유권은 더 강화할 수 있다. 대기업의 독과점과 부의 고착화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민들이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그것으로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붕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배정책은 이러한 각 개인간의 부의 갈등을 완화하면서 오히려 소유권 그 자체를 안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계약설과 소유권이 사회적 차원에서 정의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노직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정당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자료 4 노직

이처럼, 스크린 독과점에 관한 옹호와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주장의 윤리적 근거는 다양한 각도에서 반박할 수 있다.

반면, 스크린 독과점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은 공리주의, 롤스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릴 수 있다.

공리주의 공리주의에선,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효용이 양적으로 최대한 클 때가 정당하다고 본다. 공리주의를 적용하여 스크린 독과점을 봤을 때, 이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의 심화로 이어지며, 대기업 중심의 부의 고착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즉, 스크린 독과점은 대기업이라는 개인의 이익과 대중이라는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의 고착화가 없는 사회에서는 일부 특권계층, 즉 대기업의 효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으므로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은 옳지 않다.

롤스 롤스는 무지의 베일 상태라는,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계층이나 사회적 지위, 천부적 재능 등을 알 수 없으며 자신의 성향조차 모르는 상태를 가정한다. 이 무지의 베일에 있는 사람들은 공정한 상태라는 정의 하에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게 된다. 결국,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부의 재분배 등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 무지의 베일에서 봤을 때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제재가 없고, 그에 따라 부의 고착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어긋나는 옳지 않은 사회이므로, 롤스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기업의 독과점은 옳지 않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과거에서부터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졌다. 즉, 대기업 등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계층은 사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발달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기업은 법만 지키는 준법경영을 넘어 윤리경영을 펼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독과점은 부의 고착화와 대중의 문화 기본권 침해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출혈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III. 현 정책 분석과 개선점

제2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신설 1999. 2. 5.〉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시장구조의 조사·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 2. 5.〉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료 5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자료2에서 드러나듯이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에서의 '제시', 또는 제3조 4항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등의 낮은 강제성을 띠는 성격의 조항이 있다.

프랑스

- '편성 상영협약' : 스크린 9~14개를 갖춘 극장은 최대 3개, 스크린 15~27개를 갖춘 극장은 최대 4개 스크린에서만 같은 영화상영 가능
- 법으로 스크린 상한선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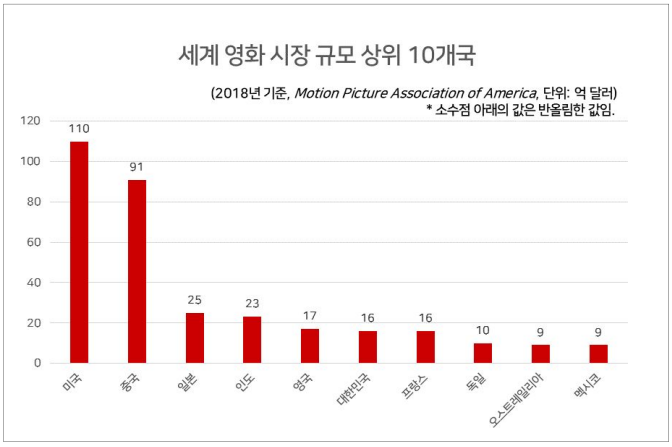
미국

- 최대 상영 회자가 전체의 30~40% 선을 지키는 편임.
- 상영관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 배분율 다르게 함.
- 상영 기간에 따라 극장과 배급사의 수익 배분율 달라지는 시스템. 이를 적용해 장기 상영하는 경우가 많음.
- 여기에 상영 기간에 따라 극장과 배급사의 수익 배분율이 달라지는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해 장기 상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법으로 스크린 상한선을 설정했다. 1일 전체 상영 회차 중 1/3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상영 회차는 취소, 영화관은 60일간 영업 조치가 시행됨.

독일

- 영화관이 낮에 영업하지 않음. 현지 시각 16시~23시까지 오픈함. 이 프라임 타임 시간에 대해 독일 영화시장에서도 인기 영화라 할지라도 스크린을 40%까지만 차지 가능

자료 6 세계 각국의 영화 산업 규제



자료 7 세계 영화 시장 규모 상위 10개국

세계 각국의 영화 산업의 규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방법(슬라이딩시스템 등)으로 스크린 독과점을 해결하고 있다.

자료7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화 시장 규모는 세계 6위 수준으로,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편성 상영협약'을 통해 스크린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대한민국에서도 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IV. 최종 산출물(정책 개선안)

정책 비교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안. 미국의 슬라이딩 시스템을 수정하여 상영관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수익 배분율 다르게 한다.
2안. 스크린 상한제를 통해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기 영화라 할지라도 스크린의 30~40%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다.
3안. 영진위의 강제성을 강화하여 영화 배급사 독과점을 제재한다.
4안. 문화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활동에 대해 정부는 분기별로 감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규칙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자료 8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한 주요 제안점

자료 8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자료 5**를 개선한 정책 개선안을 작성하였다.

제2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규제**를 할 수 있다.

②-1 ②항의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영화 사업 주체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 ·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시장구조의 조사 ·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료 9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선안

V.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대한민국 내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스크린 독과점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영화 산업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화 시장 규모와 비슷한 프랑스의 사례와 영화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영화 산업을 계절과 성수기, 비수기에 따른 변동이 큰 분야이므로 대한민국에서의 규제에 대해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통계를 내리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프랑스의 영화 시장 규모가 30%~40%인 점을 참고하여 개선 내용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에 바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범 운영과 점진적 확대 조치 등을 통해서 정책의 안정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https://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749, 2019년 12월 9일 자 법률신문, “‘스크린 독과점 논란…….’ 영화법‘ 개정논의 불붙여’

[2] http://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14417, 한국경제 사전 중 일부 인용

[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26032, 2017년 8월 1일자 KBS NEWS, ”‘군함도 논란’으로 주목받는 ‘영비법’ 개정안‘

[4] 조희문. 2006.「한국의 영화정책과 스크린 쿼터제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7(5), 982-991

[5] https://www.yna.co.kr/view/AKR20180221049400797?input=1195m, 2018년 2월 25일 자 연합뉴스, “영화관이 고른 영화만 보라고요?”

낙수효과와 불공정에 관한 철학적 고찰

10201 강예린, 10204 박나영, 10208 심정민
10212 전해인, 10215 김은빈, 10222 이영찬

Ⅰ. 주제선정 동기 및 이유

경제성장을 목표로 시작하게 된 낙수효과 정책은 사실상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따라서, 성장과 효율을 위해 공정한 분배와 형평성을 나중의 가치로 생각한 정책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철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낙수효과는 미국에서는 레이건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정책을 중심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반되는 쌍둥이 적자 현상을 야기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부시정권 또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수효과를 이용하였지만, 결국은 거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결국 낙수효과는,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서 배척당하게 되며, 2015년 IMF가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실패한 정책으로 취급받게 된다.

Ⅲ. 탐구내용

1. 벤담

① 벤담의 철학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룰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가장 많은 사람의 이익을 따르는 논리론, 도덕과 윤리의 개입 없이 오직 효

용의 양으로 정의를 판단했음이 특징이다.

② 양적 공리주의와 낙수효과 분석(1)

낙수효과의 목적만을 두고 탐구한다면 벤담은 낙수효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상류층이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 돈은 자연히 내려와 일반 서민의 삶의 질도 높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상류층은 낙수효과를 기대한 지원을 받으며 좋은 삶을 영위하므로 만족하며, 일반인 또한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역시 만족할 것이다. 이는 완벽히 벤담의 논리에 합응하는 정책이다.

② 양적 공리주의와 낙수효과 분석(2)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이 그 돈이 흐르는 물처럼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이 성립하지 못한다. 지원을 받고 좋은 삶을 영위하며,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 만큼은 그들이 소유하므로 더욱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늘어난 행복이 낙수효과의 이익을 보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손해마저 상쇄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2. 밀

① 밀의 철학

‘공리주의’를 쓴 밀은 벤담의 추종자로 그 역시 공리주의를 주장했으나, 공리주의에 대한 많은 반박에 맞서 질적 공리주의를 내세웠다. 본래 공리주의의 함의는 그 어떤 가치도 배제한, 오직 행복의 양으로만 정의를 판단함에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리의 ‘질’이다.

② 질적 공리주의와 낙수효과 분석

낙수효과를 통해 이익을 얻음으로써 행복의 질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익은 본래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도된 금전을 향유함으로써 얻어진 행복일텐데, 그것이 노동으로 하여금 얻은 이익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서민들의 행복보다 더 질 높은 공리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양이 더욱 많을지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3. 마르크스

① 마르크스의 철학

마르크스는 사회를 두 부류의 계급, 즉 부유한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로 구분하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들이 부유한 자본가들에게 노동을 착취당하는 계급착취체제 안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급이라고 말했으며, 이 때문에 불평등이 야기된다고 보았다. 또한 자본가가 그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그 고통이 심화될 것이므로,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통한 계급투쟁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② 마르크스 주의와 낙수효과 분석

그렇다면 그의 관점에서 낙수효과는 본질적으로 부유한 생산수단을 독점한 부르주아들에게 자본을 제공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오, 계급착취체제를 지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실 그 목적 아래 프롤레타리아를 돕고자 하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계급 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마르크스는 혁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전에 부르주아지의 계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많은 사회주의자들에 비해 그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은 곧 그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기저로 낙수효과를 해석해보면 이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확대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 되고 만다.

Ⅳ. 탐구 결과 및 느낀 점 및 제안

세 철학자의 입장에서 낙수효과를 분석해보니 벤담은 본질적으로 낙수효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잘못이루어졌을 때는 공리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고 밀은 본질적으로는 일을 해서 버는 것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공리인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마르크스는 부유한 계급인 부르주아지들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노동자계급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음으로 낙수효과를 비판하였을 것이다.

낙수효과가 먼 이야기인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낙수효과를 불편화없이 수용하였던 것 같다. 낙수효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주의를 갖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 것 같다.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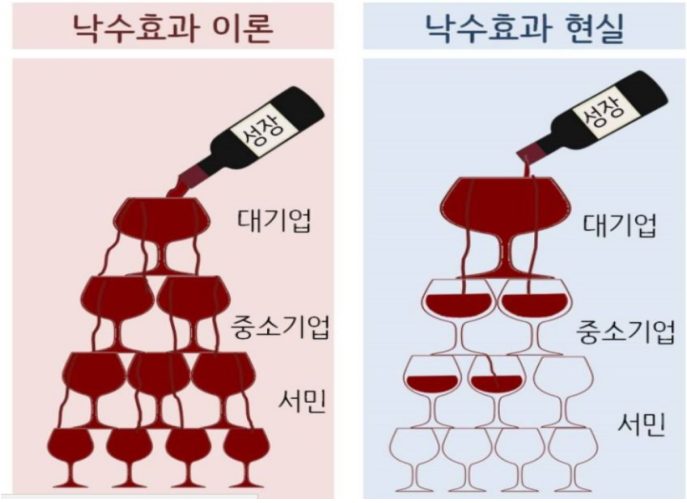
절대적인 소득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낙수효과'. 낙수효과는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의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낙수효과는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근거한다.

해외에서의 낙수효과 등장

미국에서는 레이건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반되는 쌍둥이 적자 현상을 야기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부시 정부 또한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수효과를 이용하였지만, 결국은 거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결국, 낙수효과는 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서 배척당하게 되며, 2015년 IMF가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실패한 정책으로 취급받게 된다.

국내에서의 낙수효과 등장

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가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MB 정부가 추진한 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이 낙수효과를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의 축이 대기업 위주에서 벤처기업과 중견기업 등으로 점차 옮겨가면서 '대기업 낙수효과'가 예전에 비해 약화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여전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중심이어서 '대기업 낙수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낙수효과-샌델의 관점에서

세금 혜택과 수출 호조로 대기업은 많은 돈을 벌었고, 이 돈은 사내유보금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매출 급감 등 위기에 대비해 회사 내에 보관하는 돈이다.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아끼다보니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낙수효과가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부와 소득이 최상위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중하위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늘어나게 되었다.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고용을 늘리지 않으며, 고용을 늘린다 하더라도 노동력과 부지 등의 이유로 많은 대기업들은 공장과 여러 생산 시설들을 동남아, 중국 등의 해외로 이전시키므로 우리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인들의 이기심이다. 이런 부분은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두드러지게 다뤄지는 공정과 부패의 부분에 어긋난다. 공정의 관점에서 본 문제를 살펴보면, 기업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재정적, 사회적 위치가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기업에 경제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이므로 불공정하다. 부패의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면, 갈수록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지원받은 돈을 사내유보금으로 보관하거나, 밖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의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드러난 샌델의 견해를 따라 낙수효과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 공동선을 이루는 정의를 추구했던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들은 좋은 삶을 모두 함께 고민한다고 주장하며, 정의로운 사회 내 시민들은 스스로 사회 전체를 걱정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워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우선 대기업 등 낙수효과의 지원을 받는 이들에게 공동의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해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공동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려고 들지도 모르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을 통해서 모인 돈이 대기업에게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돈이 내려가지 않는 단계에서 낙수효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지원을 받는 대기업 본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그들에게 돌아오는 지원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써의 공동의 책임정신을 상기하지 않고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1)]

낙수효과-벤담의 관점에서

단순히 낙수효과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 외에도 철학자인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이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룰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는 곧 가장 많은 사람의 이익을 따르는 논리론, 도덕과 윤리의 개입 없이 오직 효용의 양으로 정의를 판단했음이 그 특징이다. 그렇다면 낙수효과는 최대 다수의 효용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

1)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2009, 365p

인가? 아마 낙수효과의 목적만을 두고 탐구한다면 벤담은 낙수효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상류층이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 돈은 자연히 내려와 일반 서민의 삶의 질도 높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상류층은 낙수효과를 기대한 지원을 받으며 좋은 삶을 영위하므로 만족하며, 일반인 또한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역시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이 그 돈이 흐르는 물처럼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이 성립하지 못한다. 상류층은 물론 만족할 것이다. 지원을 받고 좋은 삶을 영위하며,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 만큼은 그들이 소유하므로 더욱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늘어난 행복이 낙수효과의 이익을 보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의 손해마저 상쇄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과연 그들이 돈을 쌓아두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보지 못한 서민들, 더불어 낙수효과를 기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쓰인 재정만큼 복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리고 세금을 내는 당사자인 서민들의 고통을 상쇄할 만큼의 효용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정확히 짐작하기는 어렵겠으나, 지금 그들이 쌓아두고 있는 천문학적 금액의 재산에 더해 그만큼을 더 쌓아두는 것으로 얻는 행복으로는 서민들의 고통을 상쇄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낙수효과-밀의 관점에서

물론 그 '정의'라는 가치를 오직 만족과 효용, 고통으로만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공리주의'를 쓴 밀은 벤담의 추종자로 그 역시 공리주의를 주장했으나, 공리주의에 대한 많은 반박에 맞서 질적 공리주의를 내세웠다. 본래 공리주의의 함의는 그 어떤 가치도 배제한, 오직 행복의 양으로만 정의를 판단함에 있다. 이 때문에 밀의 질적 공리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으나, 본문에서 이는 배제하도록 하겠다. 가장 큰 문제는 공리의 '질'이다. 낙수효과를 통해 이익을 얻음으로써 행복의 질은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이익은 본래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도된 금전을 향유함으로써 얻어진 행복일진대, 그것이 노동으로 하여금 얻은 이익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서민들의 행복보다 더 질 높은 공리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양이 더욱 많을지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낙수효과-마르크스의 관점에서

공리주의 입장 외에도 공정을 논할 때 마르크스의 견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로 일컬어지는 그 철학의 모태는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는 사회를 두 부류의 계급, 즉 부유한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로 구분하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들이 부유한 자본가들에게 노동을 착취당하는 계급착취체제 안에서 가장 고통 받는 계급이라고 말했으며, 이 때문에 불평등이 야기된다고 보았다. 또한, 자본가가 그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그 고통이 심화될 것이므로,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통한 계급투쟁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실천방안

을 제시한다. 사회 불평등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며 그 해결책까지 제시한 마르크스의 사상은 시사하는 바가 다양하다. 그렇다면 그의 관점에서 낙수효과는 본질적으로 부유한 생산수단을 독점한 부르주아들에게 자본을 제공하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요, 계급착취체제를 지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실 그 목적 아래 프롤레타리아를 돕고자 하는 저의가 깔려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계급 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마르크스는 혁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전에 부르주아지의 계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많은 사회주의자보다 그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은 곧 그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기저로 낙수효과를 해석해보면 이는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확대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 되고 만다. 1998년 경제위기의 사례를 보아도 그렇다. 경제위기 때 구제 금융을 통해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 내지는 경제 성장을 의도로 지원받아 자본을 축적한 재벌들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자본을 축적시켰다. 그렇다면 이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만큼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삶의 질 또한 높아졌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중요한 차이점은 벤담과 밀 등이 낙수효과가 의도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수행되는 경우에는 낙수효과를 옹호할 수 있다는 점과,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낙수효과를 살펴보았다. 비록 위와 같이 이들 철학자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으나, 결과적으로 낙수효과를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정해진 낙수효과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한 논의점이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었다. 낙수효과는 실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인 거점주도성장 등이 효과를 거두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점차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들이 제공하는 투자가 서민들의 삶에까지 흘러내리는 시간은 길어지기 시작하고 물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낙수효과의 문제는 철학적 관점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낙수효과는 최적의 국가 발전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여 그 돈이 아래로 흘러내릴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들은 대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기업과의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과정에서 불균형한 성장이 야기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벌어졌으며, 이 때문에 실업률 증가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대기업은 국가 경제 속에서 막강한 경제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결국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여 약자의 자유를 강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도 같다. 시민이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더라도 경제적 권력의 오용에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때문에 국가는 어느 누구도 굶어죽거나 경제적 파멸이 두려워 불평등한 관계 속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

펴야 한다.[2]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해내지 못하였고,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불평등이 만연해있다. 대기업이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경제력은 과도하게 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물가는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런데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분배문제를 개선한 국가가 있다. 대만은 대한민국과 달리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이뤄내었다. 이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전면에서 반박하는 예시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할 때 외환 상환 시기가 되면 외환위기에 처하는 등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있었으나, 대만의 경제 상황은 이보다 안정적이었다. 비록 대만이 한국이 기록한 성장률과 같은 경이적인 성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와 같은 성장률의 극단적인 동요를 경험한 적도 없었다. 두 나라의 경제 현실에서 가장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무역수지였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었던데 반해 대만의 무역수지는 1970년을 계기로 오히려 흑자 기조로 돌아섰다.[3] 이는 한국이 현지의 기술 개발에 집중하지 않고 외국의 기술을 이전해오는 것에 의존했던 탓이었다. 반면에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개발을 진행했던 대만은 이보다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던 점에 대해 생각해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이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주었으나,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고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벌려 균형 있게 함께 발전하지 못하였다. 보다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낙수효과만이 최적의 방법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낙수효과의 해결방안

낙수효과는 성장과 효율을 위해 공정한 분배와 형평성을 나중의 가치로 생각한 정책이다. 대기업 규제론자들은 “대기업들이 잘 나가도 협력사들과 지역경제의 고용 증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효과 자체를 애써 축소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친기업 정책은 대기업 집중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낙수효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낙수효과의 지원 범위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부유층의 지원 독점이 아닌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저소득층까지 소득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결방안과 사례 ① - 분수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조금 수정하여 분수효과를 이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분수효과는 분수에서 물이 아래로부터 위로 솟구치는 것처럼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이들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2)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2017, 174p

3) 조준현, “한국과 대만의 경제성장에서 중화학공업화의 성격과 역할”, 80p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총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증가했을 때 고소득층에 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효과가 그만큼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낙수효과에서 고소득층의 돈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았을 때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어긋나는 결과를 도출해냈던 것과는 달리, 양적 공리를 주장한 벤담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수효과의 사례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낙수효과를 노린 친 대기업, 수출 장려 정책들로 진행되어왔다. 대기업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익이 증대되고 재무결과가 좋아지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들이 다수의 저소득층 중산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애초에 정부가 원했던 결과가 구현되지 않고 낙수효과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존의 낙수효과 정책에서 분수효과 경제정책으로 노선을 전환하였고, 그로 인해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등장하게 되었다.

올해부터 적용된 세법개정안은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 세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낮추는 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업들이 돈을 쌓아 놓는 것에 대한 기업소득 환류 세제 등 3가지를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아닌 가계 수입 증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가계 중심의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체크카드 추가 공제 혜택을 늘려 절세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있다. 카드 합산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혜택을 덜 보게 되는 분수효과 중심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정부의 정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임금을 일부 직접 지원하고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있는데, 이 역시 가계의 안정적인 수입을 늘려 서민들의 지갑을 채우고 이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겠다는 대표적인 분수효과를 노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하던 낙수효과정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분배보다는 성장과 효율에 기울어진 정책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저소득층 지원에 중점을 두는 분수효과를 이용하면 성장보다 분배에 중점을 둠으로써 상대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수효과의 단점도 존재한다. 분수는 중력을 거스르는데 그 대가로 동력을 요구한다. 그 동력은 과세와 복지로, 국가의 파산을 담보로 한 동력이기에 적절한 과세 기준을 잡지 못하거나 과도한 복지 지출이 감행되면 경기 침체와 재정 파탄의 우려가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과 연관된 연말정산 결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드러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결방안과 사례 ② - 하도급법의 개선

두 번째 해결방안은 하도급법의 개선이다. 하도급이란 하청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자 체결하는 계약을 이른다. 때문에 하청을 맡기는 일, 곧 대기업의 일을 다른 기업에 맡김으로써 업무를 내려 보내고, 계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이 오고가므로 이를 활용하여 낙수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도급법과 이어지는 낙수효과의 문제점은 대기업이 협력하는 업체를 대부분 자회사로 이어지도록 체결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의 분석 결과,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의 기간 중 위탁 대기업의 이익률과 협력 중소기업의 이윤율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협력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높은 상태였다. 이는 조립 산업을 대표하는 두 사업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어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자회사인 중소기업의 성장 및 투자율을 증대시키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되, 대기업이 자회사를 육성하기보다 중소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을 기저로 기업정책을 세워 이를 재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대기업의 하청 일부분을 자회사, 계열사가 아닌 업체로 이전시킬 수 있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므로 하도급법의 개선을 통해 기업의 하도급 할당량을 규정하고, 의도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과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낙수효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거래 관계의 본질인 계약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거래관계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이 요구되므로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자본이 기업 내의 계열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래로 흘러내리며, 다양한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대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

결론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 더 맞는 것인지는 아직도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해결방법은 두 개 모두 경기의 활성화와 서민들의 경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시기에 맞는 정책을 잘 준비해서 상생의 길을 여는 것이 가

장 밝은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는 빠른 속도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반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안정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키기 어렵다. 낙수효과를 기대한 대기업 중심 투자를 택한 경우 이와 같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세금을 들여 투자하는 것은 그것이 세금을 낸 당사자 국민에게 돌아오는 간접적 투자라는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실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분수효과 등을 기대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두 해결안 모두가 경기의 활성화와 서민들의 경제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부각시켜 시기에 맞는 정책을 준비해 상생의 길을 열도록 하는 것이다.

롤스가 주장한 것 가운데 정의의 두 원칙이 있다. 그 중 제 2원칙인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돼 직책과 권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낙수효과, 혹은 분수효과가 정의로워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언제라도 가장 약자인 자에게 가장 많은 분배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잘 타고난 사람들, 남보다 우월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이익을 얻는 것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결국 그 결과는 그렇지 못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사회라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성립한다면 사회는 불평등하게 분배된 개인의 능력을 역으로 활용하여 이들이 창출하는 부로 하여금 사회의 불평등에 의해 고통 받는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드러난 불공정 문제와 해결책

: 장애인과 빈부격차 문제를 중심으로

10202 김은우, 10203 남수빈, 10205 박사라
10206 박제이, 10210 이채원, 10216 최한별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줄거리 요약

본 연구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 문학작품, 그 중에서도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에 들어선 이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깊은 탐구와 분석 과정을 거쳐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이 때 ‘현대’의 범위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한다. [2]소설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문학 장르이다. 그래서 소설은 인간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작가 또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그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소설 속에는 작가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 글에서 선택한 작품은 [3]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연작으로 1975년 12월부터 3년여에 걸쳐 발표되었고 1978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그 안에서 선택한 작품은 단편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다. 이 책은 이후 줄곧 문학사·정신사·사회사에서 두루 문제작으로 논의된 현대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이 땅에서 거의 최초로 자유와 더불어 평등의 이념을 본격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허둥대던 시절에 사랑으로 더불어 잘살 수 있는 희망과 해방의 조짐을 모색한 문학인 것이다. 현실을 피상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애써 심연에서의 근원적인 인식 지평에서 현실과 대결하고자 했던 작가의

1) 김성연(2019). 작가의 얼굴과 사회 변혁의 힘 : 『‘그’를 버린 여인』 분석을 통해 본 한국 현대사 속의 안네의 초상. 상허학보, 57, 93-126 / 현대의 범위 관련 참고

2) 『난쏘공』에 나타난 1970년대의 사회상과 문학사적 의의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5509039/

3) 대립과 초극의 뫼비우스 환상곡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2006. 9. 18., 최시한, 김영민, 장수익, 강영주, 공임순, 정현기, 류보선, 김주언, 양진오, 이상경, 김미현, 허윤진, 우찬제)

긴장 어린 노고가 거기에 담겨 있다. 물론 치열한 현실 인식만 가지고 소설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현실 인식의 내용이 계속 유효하다고 해서 그 소설이 계속 읽힐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는 것은 더욱 아니다. 소비사회의 추세에 따라 문학작품마저 점차로 패션화되는 경향, 그 생산과 소비, 유통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30년 가까운 세월이란 가히 장중한 무게가 아닐 수 없다. 조세희의『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현대의 살아 있는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그 문학성에 있었을 것이다. 그의 치열한 현실 인식이 도저한 문학적 실험 정신과 어우러져 과연 잘 빚은 항아리 모양으로 생명의 활기를 지피고 있는 형상이다.『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짧은 문장의 절묘한 결합으로 창조해 낸 아주 새로운 이야기 스타일, 리얼리즘과 반리얼리즘의 접합, 문학의 사회성과 미학성(문학성)의 결합, 현실과 이상의 산업 시대 묘사, 신화적 교감과 긴장 등등의 측면에서 작가 나름의 카오스모스(chaosmos, chaos(혼돈)과 cosmos(질서)의 소설 시학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작품이다. 앞서 언급한 소설적 특성을 고려할 때, 조세희는『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통해 당시사회의 삶의 외향과 사회적 분열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점, 그 중에서도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빈부격차의 문제가 주제인 이 책이 우리의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선정하게 되었다.

2. 작품 분석을 통한 문제 확인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난쟁이로 상징되는 못 가진 자와 거인으로 상징되는 가진 자 사이의 대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대립 속에서 난쟁이들의 불행과 비극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이 전면에 걸쳐진 것이었다. [4]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 책은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난쟁이 가족에게 철거 계고장이 날아오며 시작한다.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기는 했으나 난쟁이 가족은 입주할 돈이 없기 때문에 입주권을 헐값에 팔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헐릴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130만원이 필요하지만 입주권은 22만원이고 거기서 전세금을 빼면 7만원이 남을 뿐이다. 즉 130만원짜리 집을 잃고 7만원을 받는 셈이다. 게다가 난쟁이의 아들들이 공장 사랑을 만나 담판을 하려다가 해고당한 사건이 겹쳐 서술된다. 결국 결말에서는 입주권 투기업자를 따라 집을 나갔던 난쟁이의 딸이 입주권을 찾아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난쟁이는 추락사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어디론가 떠난 이후였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줄거리이다.

[5]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는 사회문화적으로 도시의 확대화 대중문화의 확산 등을 가능케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의 빈부격차와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 불균형이 점

4) 조세희,『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 지성, 2005.

5) 이수형.한국문학의 고전

점 심해져 노동자와 농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대화 공해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끔 만들었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과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등을 통해 시작된 민중의 저항은 그때까지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요구하던 지식인들이 민중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그 이후로 민주하와 함께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운동이 동시에 전개되기에 이른다.『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연작은 이러한 197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도시 빈민인 난쟁이가 강제 철거로 인해 자살로 내몰린 이야기에서, 난쟁이의 자살은 단순히 강제 철거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많은 정책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니 이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화두 되는 우리의 과제이다.

Ⅱ.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속 빈부격차 문제

가. 작품 분석을 통한 문제 확인

1) 교육의 불평등

>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 구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공부를 한 자와 못한 자로 너무나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었다. 끔찍할 정도로 미개한 사회였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나는 무슨 책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나는 벽돌 공장 굴뚝 위에 떠 있는 달을 보았다. 나의 라디오는 고장이 났다. 며칠 동안 나는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지 못했다. 나는 명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중학교 삼학년초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계속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밀어줄 힘이 없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부터 발췌된 위 부분에서는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 문제가 드러난다. 빈부격차의 심화와 생계 소득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양의 공부를 하지 못한다.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미성년자임에도 생계를 책임지는 일도 많다.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환경 때문에 의지, 능력과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여유롭지 못한 환경에 놓인 채 살아가야 한다. 이는 공정하지 못하며 교육 수준의 격차를 벌일 뿐 아니라 미래 사회의 발전에도 지체를 가져오게 한다.

6)"지난 15년 동안 소득이 낮은 사람이 기회의 불평등 때문에 경제적 성공을 거두지 못할 확률은 두 배 높아졌습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가난해질 가능성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성장 동력을 얻으려면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 빈부격차 해결 정책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소외화: 주택정책 중심

그때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사람은 개천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고, 우리 동네 건물을 양성화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른들을 따라 크게크게 손뼉을 쳤다. 다음 사람은 먼저 사람이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겠다고 하니 구청장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러이러한 나랏일을 하겠으니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어른들은 또 손뼉을 쳤다. 우리도 따라 쳤다. 커서까지 나는 그때 일을 종종 생각하고는 했다. 두 사람의 인상은 아주 진하게 나의 머릿속에 남았다. 나는 그들을 증오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였다. 그들은 엉뚱하게도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설혹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알아 주고 그 고통을 함께 져 줄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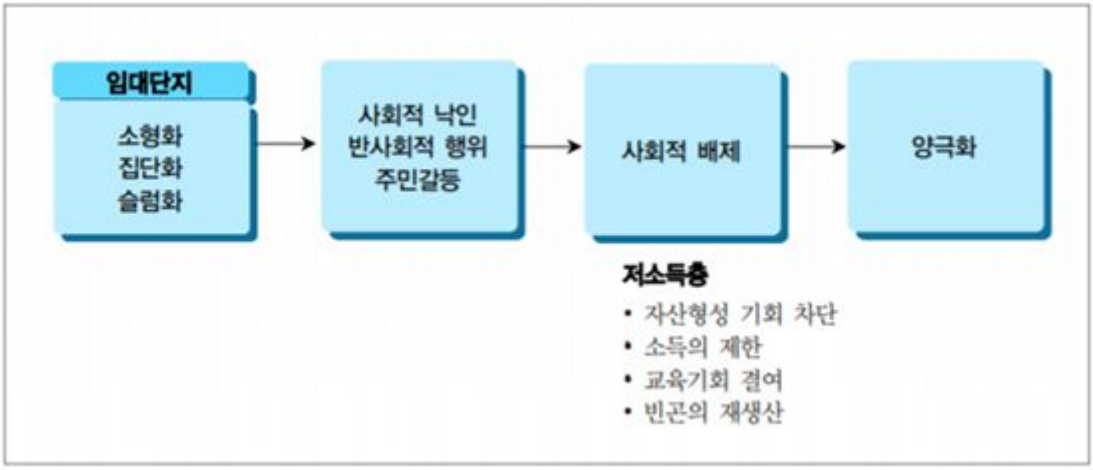
우리를 해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이 일정한 보호 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이질 집단으로서 보호를 받았다. 나는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발췌한 위의 부분에서는 빈부격차 해결이라는 명분 아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부유층, 즉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분리하여 소외시키고,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에서 난장이 가족과 같은 소외계층은 낙원구 행복동에서 모여 살며 빈민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 빈민가의 대부분의 가구는 정식 허가를 받은 집이 아니라 판자집을 만들어 살고 있고, 그곳을 재건축하려는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철거계고장을 뿌리고 임대주택 입주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에 행복동을 떠나고 있다. 정부의 주택 지원금도 너무 적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듯 과거에는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태도는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명시적으로 '분리'하며 소외시키는 양상이었다면, 현재는 그 양상이 바뀌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생활비 지원과 주택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은 과거보다 나아졌지

6)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만, 이제는 공공임대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주거문화와 관련된 신조어가 사용되고 있다. '전거지(전세 사는 거지)' '월거지(월세 사는 거지)' '엘사 (LH가 지은 주택에서 사는 사람)'등, 초등학생들조차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사는 지에 따라 빈부 격차를 인지하고 계층을 구분 짓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층간 융화를 위해 민간 아파트 공사시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섞고 있지만 정보의 전달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정부의 정책은 빈부격차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분리되어 있는 독립형이나 인접형의 경우 주택단지 자체가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외형적으로 담장을 치거나 주거동 형식의 차별, 마감수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시각적, 물리적으로 차이를 유발하여 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



3) 빈부격차의 악순환과 소득 불평등 문제

> "확실히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들이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첫번째 싸움에서 져버렸다. 나는 내가 마지막 눈을 감는 날의 일도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만도 못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은 그들 시대의 성격을 가졌다. 나의 몸은 아버지보다도 작게 느껴졌다. 나는 작은 어릿광대로 눈을 감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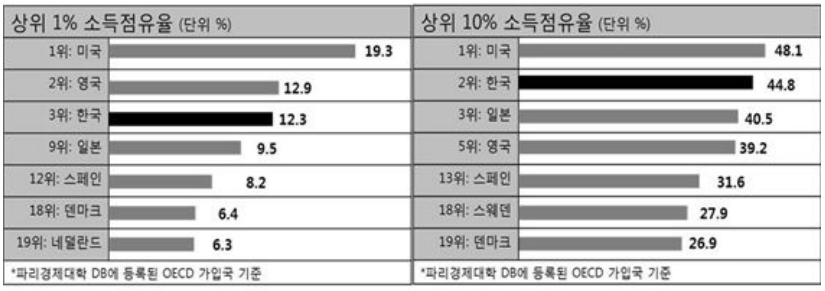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이 부분에서는 빈부격차의 악순환이 드러난다. 책 속 주인공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있었다. 주인공의 부모님은 자식에게도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주인공은 빈곤의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었고 일을 빨리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빈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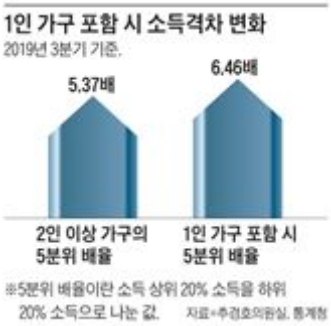
실제로, [7]중앙일보가 실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0명의 빈곤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극빈층의 절반은 부모 때부터 가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50%에 해당하는 65명이 청소년 시절 부모가 하위 계층에 속했다고 응답했으며, 하위 계층을 상중하로 분류하면 하 쪽에 더 몰려 있다. 하 계층에 속해있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부모가 하하(下下) 계층이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5명(19.2%), 하중(下中)이 26명(20%), 하상(下上)이 14명(10.8%)이었다. 2003년 중앙일보가 진행한 기초수급자 조사에서 가난 대물림 비율이 59.7%였는데, 16년 지난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는 조부모대부터 가난했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가난의 대물림은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이 부분에서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온 가족이 모두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난을 겪게 된다. 소득 불평등은 개인 또는 세대 간에 고소득에서 저소득까지 소득분포가 산재해 있어 균등화하지 못한 것이다. 소득 불평등 문제는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킨다. 1976년작인 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소득 불평등 문제는 현재에도 심각하게 드러난다. OECD 회원국들의 세전/세후 지니 계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33개국 중 32위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사회보장지출이 낮고 조세구조에 있어서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도 낮기 때문이다.

7) 중앙일보: 대물림되는 빈곤…극빈층 10명 중 4명 “조부모대부터 가난”





나. 빈부격차 문제의 해결방안

1) 교육의 불평등

1. 빈부격차로 인해 학생들에게 균등한 공부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현 시점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노력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보다 현실적인 여건을 갖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경제 수준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에서 지원의 대상인 학생들의 금전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또한 보충 수업, 방과후 수업등을 통해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현재 여러 학교에서 금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제대로 된 정보의 제공과 개선된 지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천적인 환경으로 인해 공부를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학교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면 학교는 '노력 장학금'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노력 장학금' 제도란 학급 내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공부를 할 수 없지만 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가 강한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물론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확한 학생 환경 파악과 악용을 막기 위한 여러 절차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2) 빈부격차 해결 정책의 미흡성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소외화: 주택 정책 중심

1. [8]우선 최근의 임대주택정책이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의 경우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보기 위해선 먼저 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여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혼합 아파트에서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분양세대의 인식 전환과 이를 위한 정책적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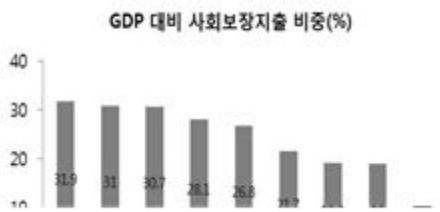
2.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정책으로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단지에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분양 주택과 혼합되어 공급되고 있다. 이 혼합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들의 해결을 위해 선행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을 참고하여 임대 주택과 분양 주택 간의 형태적 차별성, 단지 로고표시나 동별 번호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외관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부대시설과 공용시설 배치에 있어서도 분양과 임대 양쪽을 모두 배려하여 거주자 간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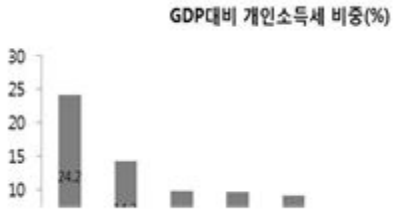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지원의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집단화에 따른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자녀들이 학력에 차이가 없도록 지원하고, 분양주택 거주자와 임대주택 거주자 모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빈부격차의 악순환과 소득 불평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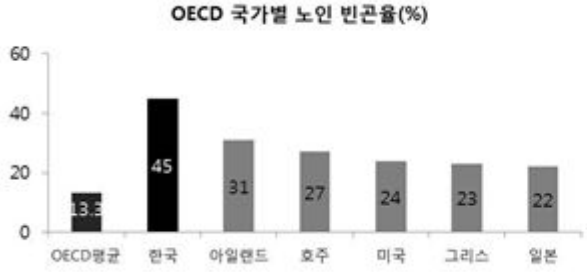
1. ‘조세 제도’와 관련된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들에 비하여 조세제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사회보장지출이 낮고 조세구조에 있어서 GDP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중도 낮기 때문이다. 조세의 사용에 있어서는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고, 조세의 확보에서는 개인소득세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조세제도의 효과를 알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지니계수 개선율이 가장 높은 OECD 회원국은 핀란드(48.1%)였다. 핀란드의 세전 지니계수는 0.495로 한국(0.341)보다 더 높았지만, 세금을 뗀 후 지니계수는 0.257로, 한국(0.302)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핀란드는 세금을 떼기 전 소득 격차는 한국보다 높지만,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로 격차가 줄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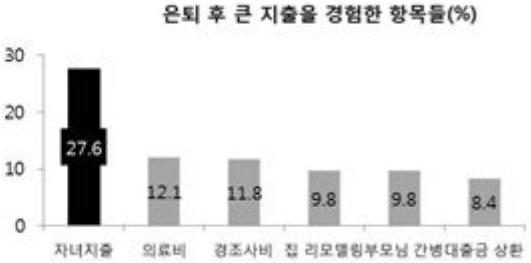
8) 천현숙 (2012).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국토정책 Brief(371), 1-8





2. 노인 소득 불공정에 관한 해결방안이다. 앞선 근로가능가구의 소득계층의 구성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분포 악화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인 60세 이상 고령 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OECD국가들간의 비교를 보더라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정도로 평균인 13.3%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은 공적, 사적, 연금시스템에 의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고, 연금 시스템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 도우미, 경비원, 미화원, 간병인 등의 일이 있다.





3. 부모세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식세대와 관련된 해결 방안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과정, 그리고 그 후의 과정에서 부모세대의 금전적 지원이 필수적인 사회이다. 그리고 부모들은 예적금, 부채, 퇴직금, 개인연금의 해약 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신 사회적 위협에 대한 부분에 맞춘 복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국가는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돈이 부족한 가정을 위한 보조금을 더 지원해야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쓰인 방법은 문학을 통한 고찰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기반으로 여러 자료를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도모했다. 나아가 소설을 구상하며 해결책에 대해 고심하고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문학사적 의의를 탐색했다.

Ⅳ. 요약 및 결론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 현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의 불평등, 빈부격차 해결 정책으로 인한 소외계층의 소외화, 빈부격차의 악순환과 소득 불평등 문제의 양상이 중점적으로 드러난다. 낮은 소득으로 인한 생계비 부족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며, 나아가서는 빈부격차의 악순환을 야기한다.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매년 진행되어 왔고 오랜 고찰과 연구 역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시행 가능한 정책은 결핍되어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결책을 재고심해본 결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보충수업, 방과후 수업의 활용과 '노력 장학금 제도'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가 자본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빈곤계층에 대한 차별 개선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 계층의 분리를 촉구하는 현상은 주택 정책의 시행 이래 지속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정책과 더불어 차별적 인식을 제고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의 형태적 차별성을 탈피해야 한다. 또한 분양과 임대 주택 간의 공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여 거주자들 간 소통을 활발하게 해야한다. 더불어 임대주택거주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빈부격차의 악순환과 소득 불평등 문제는 '조세 제도'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지출이 낮은 저복지 국가에 속하기에, 빈부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빈부격차의 악순환이 극심해짐에 따라 노인계층의 근로자가 많아지고, 따라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보장하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빈부격차 문제는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제로, 최근 들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에 있다. 그 해결방안은 매우 복잡하고 도출하기 어려우나, 사회 구성

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사회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적 담화와 해결책 논의가 시급하다.

참고 문헌

천현숙 (2012).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사회적 혼합방안. 국토정책 Brief(371), 1-8

반정호. (2013).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노동리뷰, (), 62-75.

| 소설 |

부록

○ 인물소개

손병철: 소설의 주인공으로, 지영의 친아버지이며 부인을 자살로 잃었다. 공장에서의 사고로인해 왼속 3개의 손가락을 잃었으며, 이에 따라 동작이 느려 공장에서 번번히 쫓겨난다.

손지영: 병철의 어린 딸로,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 허약하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아기이다.

명희: 병철의 부인으로, 오래전 자신의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영희: 병철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긴 난장이네 집 딸로, 병철을 기억하고 함께 성남으로 간다.

난장이: 병철을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고 돌봐준 사람으로, 굴뚝에서 떨어져 죽는다.

○ 소설

#1. 그의 하루

"너 나가."

차가운 한 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벼팠다. 그의 명찰엔 손병철이란 이름이 기입되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한마디는 차갑다 못해 뜨거웠다. 그동안 그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들었을 이 말. 그는 입을 떼려다 말고 이내 발을 옮겼다. 뭐야, 하며 볼 끝에 맺힌 이슬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집에서 눈도 채 뜨지 못하고 밤이야 낮이야 밥 달라고 울어댈 지영이가 벌써 눈에 선했다. 밥이란 말을 알기 망정이지, 난 그 말 다섯 살 때 옆집에서 처음 배웠어. 나름대로 위로란 위로를 하며, 공장에서 나가서 황무지로 걸어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응시했다. 며칠 날을 새 어둑어둑해진 눈가와 헝클어진 머리, 손 때 묻은 경량 패딩과 인생에 찌든 눈빛. 그는 그의 빨개진 눈가를 비비며 건물을 나섰다.

머리가 지잉 하고 울렸다. 눈알을 한바퀴 굴리고 관자놀이를 꾹 눌러서 정신을 다잡고 집으로 다시 출발한다, 집이랄 것도 없지. 포좡된 길을 걷다 오른쪽으로 돌아서니 자갈이 밟히는 흙밭이 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내려갔다. 행복동의 끝에 이르렀을 땐 이미 하늘이 까맸다. 집에 도착하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집에 가고 싶다.'. 제대로 된 문도 없는 그 방을 들어서기도 전에 지영이의 울음소리가 질퍽거리는 길가에 울려 퍼졌다. 하늘을 올려다 보니 콧잔등에 떨어지는 작은 방울, 코를 매만지며 누울 곳도 없는 그 방을 들어섰다. 온갖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고 녹슨 냄비와 쇠파이프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래고 집안은 너무도 습기찬 나머지 들어서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귀 밑으로 흘러내리는 땀을 열

심히 닦으며 한가운데 그 아기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다. 미안해, 지영-
지영이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야 손병신, 나오라고 새끼야-하고 울리는 그 목소리. 그의 등 뒤에서는 차가운 땀이 흘렀다. 급히 지영이의 입을 막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잔뜩 섰고 얼굴은 종이 한 장으로 물들어갔다-
쇠파이프, 그래 쇠파이프, 그는 지영이를 안은 채 문으로 다가갔다. 몇 번 더 두드리면 부서질 듯한 쇠문은 그를 지켜주지 못해 야속하다 못해 힘겨웠다.

"철거계고장 받은지가 언젠데 더 버틸래? 듣자 하니 오늘 쓸데없는 일 벌였다매, 이제 집도 없고 밥도 없다 니자식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 말은 그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오늘 낮을 회상했다. 그는 자신이 느리다고 쫓겨난 공장을 거친 눈빛으로 바라보다 소리를 질렀다.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그 대가로 그에게 주어진 것은 눈 옆 커다란 피멍이었다.

"집은 절대 안된다, 절대 안돼."

잔뜩 갈라진 그의 목소리는 공중에서 부서지며 사라졌다. 그는 약했다, 밖의 저 남자는 그가 들고 있는 쇠파이프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아이씨, 손병신 씨, 곱게 봐드린다고요. 짐 뺄 시간 준다잖아요. 허 참, 내일까지. 딱 내일까지 시간을 줄테니 짐 다 빼. 어? 돈도 주는데 왜 난리야."

그는 시끄러운 소리에 자지러지게 우는 지영이를 안고 눈을 감은 채 요상한 언어를 중얼거렸다. 쾅-하고 위협적인, 문을 다시 두들기는 소리에 퍼렇게 서슬서려 놀란 그는 지영이를 달래고 벌써 반쯤 부서진 문을 내려다보았다.

#2. 비

추적추적 내리던 비가 밤이 되니 더 거세졌다.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져 병철의 얼굴에 떨어졌다. 급하게 작은 바가지를 들고 와 떨어지는 물을 받았다.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그는 아려오는 왼손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보이지 않게 주머니에 넣고는 한숨을 내뱉었다.

병철은 그 사고 이후, 남들에게 자신을 내보이는 것보다 숨기는 데 익숙해졌다. 오늘, 나가라는 말을 듣고선 그의 손이 잘못인 양 뒤로 감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계속되는 비에 집안 장판은 짙은 갈색으로 물들었고, 병철은 지영이를 안아 들어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다. 하지만 이내 먹은 게 없어 그의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그는 노래를 멈췄다.

“지영아, 꿈에서만큼이라도 여기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

지영이도 배 속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지영이는 울음이 나올 목구멍이 막혔던지, 너무 오래 울었던지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오열을 몇 번 내뱉다가, 이내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곤히 잠든 지영을 내려다보는 병철의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벽을, 그의 세상 앞에 몇 번이고 치솟은 벽을 이제 마냥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는 잦게 마른기침 내뱉고는 떨어지는 비를 피해 장롱문을 반쯤 열었다. 오늘, 그와 지영은 비좁은 장롱 속에서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나는 큰꿈을 펼치고 있었다. 비는 밤새 계속해서 거세졌다.

#3. 결정

손병신씨- 어김없이 그를 부르는 소리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그의 옷은 축축히 젖어있었고 지영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영, 지영이. 지영이, 내 지영이, 내 유일한 핏줄, 그는 심장이 몸을 울리도록 뛰는 것을 느끼며 사색하여 지영이를 찾았다.

“지영, 지영이 어데갔어. 지영이 어데갔어.”

그는 얼버무리며 소리쳤다.

“지영!!! 지영이가 어데갔냐구.”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지영이를 찾았으나 그를 마주하는건 어지럽게 빈 방이었다.

“내가 기회를 줬다고 했잖냐.”

“뭘? 우리 지영이 어디있어. 내 지영이 데리고 와. 지영이-”

쿵, 쿵 하는 도끼 소리에 그는 입을 막았다. 안돼 이놈들아- 우리 집이란 말이다. 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그마치 3대가 다 여기서 컸어. 눕기도 벅찬 이 비좁은 곳이 우리 가족에겐 유일한 안식처란 말이다. 여기가 없으면 순전 길에 나앉아야해, 제발 부탁해. 나한텐 어린 지영이가 있다- 쿵. 제발, 제발 이놈들아- 쿵. 부탁할게 돈 구하는 그날까지만, 딱 그날- 쿵. 아니, 내일까지만- "안 나와 이 새끼야? 벽 무너진다." 잔인한 외침이 울렸다. 딱 내일까지만. 시멘트를 덕지덕지 붙여 바른 벽이 힘없이 무너지는 걸 보노라니 그의 암담함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기죽지 않아, 중얼거린 그는 얄짤없이 휘둘러지는 도끼에 쇠파이프를 던졌다. 꽹 소리와 함께 엇나간 쇠파이프는 벽을 부수는 그들의 눈썹을 추켜올렸다. 얼마 뒤 그는 밟히는 모랫길 위 멍한 눈빛으로 앉아있었다. 지영아, 그가 얕게 내뱉은 말에, 도끼를 휘두른 그들이 품에 징그럽게 마른 아이를 쥐어주곤 떠났다. 지영아.

#4. 결전과 결정

그는 밤을 버텨보려고 했다. 쉼새없이 등장하는 벼룩들을 작은 돌로 눌러가며. 아이는 힘 없이 늘어진 채 아버지의 품에 매달려 있었다. 안쓰럽게 차오르는 무언가를 참으며 그이의 사랑스러운 딸을 내려다 보았다. 새로운 아침이 밝자, 그는 아이를 안고 윗동네로 올라갔다. 그는 곧 윗동네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자신의 요구를 외치는 데 익숙해졌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그의 손에 들려 있는 밥그릇에는 딱딱하고 역한 냄새가 나지만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담겨있었다. 어린 지영이가 음식을 삼키지 못하자, 그는 자신의 입에서 녹인 밥풀을 지영이의 입으로 옮기며 지영이의 하루를 지켜내기를 반복.

그가 자신이 살던 행복동을 재방문하자, 그의 눈에 펼쳐진 것은 멀끔히 자리잡은 건물들이었다. 그는 말라가는 지영이를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서는 매일 새로동을 방문했다. “지영아, 우리도 저기서 살자. 꼭 살자.” 그가 자신의 아이에게 말했다. 그는 배고파 울 기운도 없는 지영이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지영아, 밥 먹자.”

그리고는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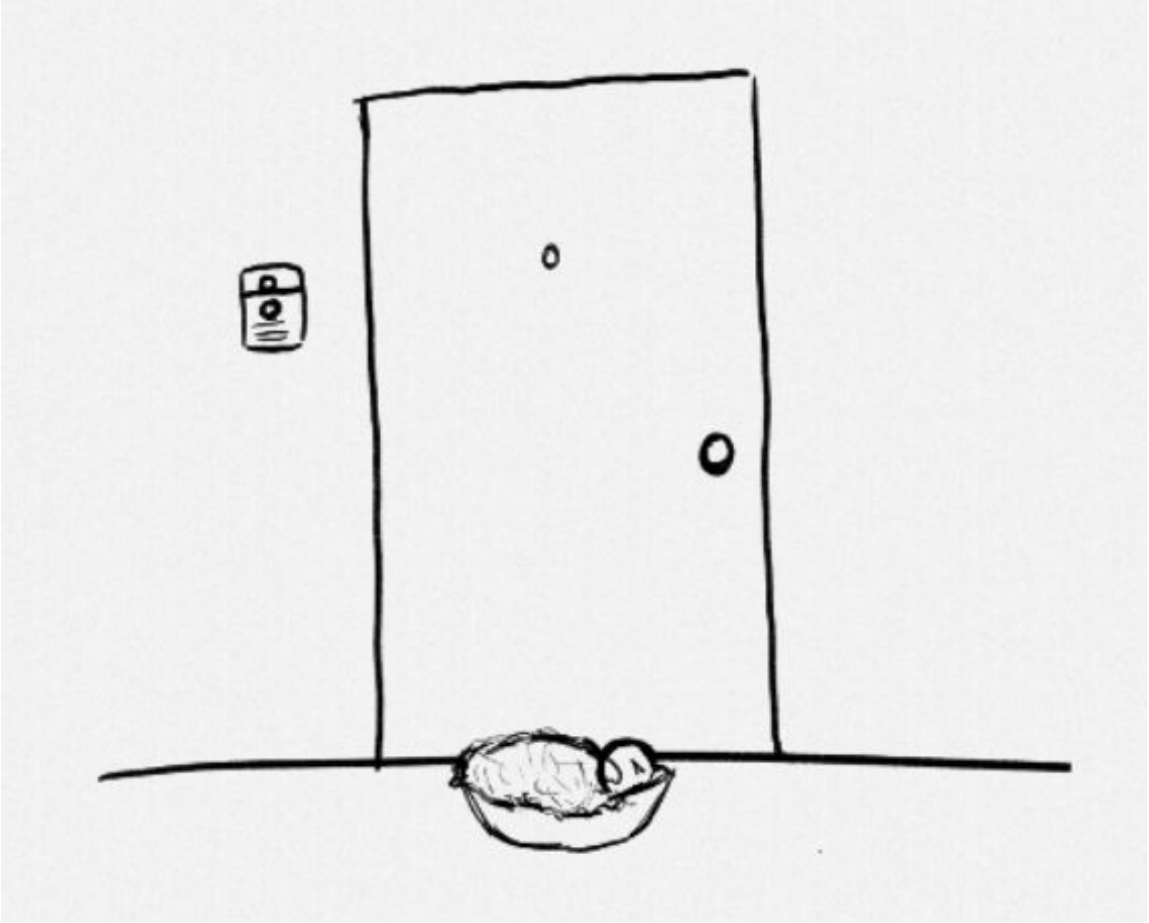
#5. 영희

일요일 저녁, 그는 있는 돈을 탈탈 털어 죽을 한그릇 주문했다. 상점을 들어서자마자 퍼지는 따뜻한 기운과 고소한 냄새는 그의 입맛을 자극했다. ‘윗동네서 먹는 죽이라니,’, 그는 벌겋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비비고 지영이에게 죽을 먹였다. 며칠 만인지 지영이가 미음을 겨우 삼키고, 밥에 반응을 보였다. 약간 젖어 있는 지영이의 눈빛을 보고 있노라니 그의 심장이 아렸다. 밥이 그렇게도 먹고 싶었을까. 웃는 지영이를 얕게 끌어안고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저 눈물만이 흐를 뿐이었다. 그는 죽을 한입도 먹지 않았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오직 빈 죽 한 그릇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새벽, 그는 조용히 움직였다, 매우 조용히. 눈여겨보던 집이었다. 주인 여자는 젊었지만 혼자 사는 듯했고, 가난해보이지도, 부유해보이지도 않았다. 가끔 집 밖에 나올 때면 어두운 낯빛을 하고, 사연을 그 큰 눈에 담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었다.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은 기

계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은 달랐다. 무언가 공감이 갔고 눈이 갔다. 무엇보다, 그녀는 정말 예뻤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영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사랑해, 내 아이 지영아. 자랑스러운 내 딸. 생명의 끈질김으로 버텨온 나날들이 무색해지는 순간. 그는 거한 술냄새를 풍기며 지영을 둘러싼 담요의 냄새를 들이마시었다- 쾌쾌한 땀냄새, 상한 우유 냄새, 그간 노고의 냄새, 지영이의 아기 향, 그리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영이 엄마의 냄새. 옅은 꽃향기가 그의 코를 찌르자 그는 순간적으로 놀라며 물러섰다. 그러나 잠깐의 놀람은 술 한 말에게 패하고 말았다- 그는 다시 지영을 담요에 감싸며 눈물을 참았다.



지영 엄마를 만난 건 벌써 십여 년 전- 그러니까 행복동에서 나날을 보낼 때였다. 옆 난장이집이 주선해준 만남이었다. “명희라고 해,”. 새침하게 뗀 한 마디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 그녀였다. “손병철.” 얼버무리며 대답했던 이름. “너네 집도 행복동 아랫마을이야? 우리집은 저기 밑에, 저 밑에 있어. 너네 집도 행복동이면 가깝겠네,” “응, 행복동.” “얘, 말수가 왜 이렇게 적니? 숫기도 없고 말이야.” “...” 그는 예나 지금이나 같았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암울하다. 당돌한 의지로 학교는 꼭 다니겠다던 명희가, 결국은 독극물을 마셔 생을 마감할 줄

이야. 그는 명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아냐, 명희는 새로동 윗동네에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을걸? 하고 생각하던 것이 벌써 12년째였다. 그는 예나 직금이나 암울하다.
지영엄마, 정말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알코올로 조종된 그의 정신은 그를 지영이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한 걸음, 한걸음-

그는 미친듯이 웃었다. 또다시 미친듯이 흐느꼈다. 그는 지영을,, 그가 결정한 문 앞에 두고 발을 한걸음씩 옮기면서 고통에 찬 눈물을 흘렸다. 그는 계단을 올랐다. 계단이 높아질수록 그의 울음은 더 거세졌다. 그는 마치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 안겨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울었다. 몇만분이 1의 기적으로 이 세상에 얼굴을 비친 것을 후회했다. 어머니의 숨죽인 흐느낌을 먹고 자란 것을 후회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흐느낌을 먹었고, 외할머니도, 외할머니의 엄마도, 그녀의 엄마도 모두 밥 대신 흐느낌을 먹고 자랐다.

그는 이내, 발끝으로 서서 옥상 밑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행복동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자신의 추억이 담긴 그곳이 모두 없어져 있었다. 따뜻하며 차가웠던 어릴 적 그 동네는 온데간데 없고 기계적인 건물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난간에서 발을 뗐다- 왼발부터, 그리곤 정신을 잃었다.

꿈속이었다. 사색하며 헤매던 그는 자신의 망상 속 숲을 노닐었다. 밝은 햇살이 비추는 초록 풀밭을 어린애처럼 뛰어다녔다. 하하, 하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자신의 머릿속을 울렸다. 하하,하하… 그는 웃다 말고 이내 그녀를 마주했다. “병철아.” “어머니,” “엄마가 미안해.” “네?” 그녀는 꾸짖지 않았다, 사과를 거듭 할 뿐이었다.

“엄마가 미안해 병철아..” “어머니, 뭐가요.” “…” “어머니, 나도 미안해.” “병철아,”

“?” “병철아, 일어나라. 엄마가 미안해. 그러니까 일어나, 부탁이다.” “…” “일어나서 지영이를 찾아와. 너는 지금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거다. 지영이를 찾아오고, 제발 조금만 더 버텨.” “…” “병철아. 손병철아.” / 헉,헉-헉 그는 숨에 겨워 일어났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있었고 입술은 새파랬다.

주위를 둘러보니 새로운 방이었다. 꿈인가하고 둘러본 자신의 옆에는 지영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 지영아- 그가 지영에게 손을 뻗자 한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일어났네요.” 그가 지영이를 맡기라라 결심한 그 여자가 눈 앞에 서 있었다. “아…” “정신없죠? 워낙 거하게 취하셔서. 나 알아보겠어요?” 그녀는 작은 웃음을 내뱉었다.

그는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때, 우리 아버지를 난장이라 부를 때.” 그는 흠칫했다. “난장이네 딸 영희 몰라요? 아무도 난장이네 딸이라 믿지 않았던.” “?”

생각의 회로를 굴려보았으나 자신의 기억 속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난장이와 친분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난장이와 그의 아내, 그리고 난장이네 장남과 친한 것이 다였다. “모르는 눈치시네요. 하긴 직접 만나볼 기회는 없었으니까,” 그녀가 한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곤 지영이에게 손을 뻗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하는 눈빛이 서려있었다. 그녀가 순식간에 그의 손을 쳤다. “조금 쉬세요. 아이 깰까 봐요.” 그는 눈빛으로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자신이 한 짓에 치가 떨린다는 듯 온몸을 떨었다. 맑아진 정신을 붙잡고 지영이를 보노라니 가슴이 패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난장이가 워낙 칭찬했던 분이잖아요. 저런 인성과 근성과 성실함을 가진 사람 없다며- 우리 아버지가 칭찬한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사진도 보여주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녀가 계속 말을 이었다. “공장에서도 항상 환영했다고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힘들었겠지만…” 그녀는 그의 왼손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꽤 오랫동안 쳐다보긴 했지만 그의 눈을 피해서 쳐다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알아챘다.. “허튼 소리 하지 마오.” 그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왼손은 엄지와 검지밖에 달리지 않은 채 찌그러져 있었다. 손병신- 그것이 그가 사고 이후 듣던 말이었다.

#6. 사고

그는 정말 총명했으나 학교를 나오지 못했다. 공부를 열망하던 그의 반짝거리는 눈빛에 안개를 씌워준 건 돈이었다. 실은 모두 그랬다. 과거 새로동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학교라는 사치가 어디있어, 그가 말한다. 난장이네 집 장남은 학교를 곡 다니겠노라 말했다. 그 때 그의 친구였던 그도, 새끼손가락까지 걸어가며 약속했고 다짐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벗어나자. 벗어나자, 지금 여기 이곳.

지긋지긋한 현실, 그가 투덜거리며 들어선 곳이 인쇄소였다. 인쇄소는 매우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로 채워졌다. 그는 종이를 여러 장 겹쳐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는 작업을 했다. 그가 종이를 모아 여러겹으로 만들면 거대한 칼날이 움직여 종이를 한꺼번에 잘라내는 것이다. 종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다.

새벽 4시에 도착해서 저녁 11시반까지 일했다. 점심으로 뭉쳐진 밥을 받는 것을 감사해하며 일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열심히 일했다. 종이를 모아서, 자르고. 모아서, 자르…

기계의 고장인지 그의 실수인지, 종이를 모은 손에 그대로 칼날이 떨어졌다. 아악- 하는 소리에 주변 노동자들이 쳐다보았으나 자기 할일에 바바 도와주질 못했다. 그저 연민의 눈빛 한 번, 뿐이었다. 고통에 대한 연민이 아닌, 앞으로 맞닥뜨린 현실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는 자신의 왼손을 붙잡고 다시 일하려고 종이를 집어들었으나 이내 그가 집은 종이는 시뻘건 피로 물들었다. 뭔 일이야 하며 다가온 총책임자는 그의 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 실은 그의 피로 물든 종이를 내려다보며 씩씩거리는 호통을 쳤다. “너 나가!!!!”

그는 치료를 못해 요상하게 말린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후로 그는 수많은 공장을 전전하며 일을 했다. 그의 엄청난 성실성은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였다. 그는 느린 자신의 손가락을 원망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사람들은 그를 손병신아라 불렀다.

“너 나가!!”는 그가 일상적으로 듣던 말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들었던, 자신의 가슴을 아리게 했던 말이었다.

#7. 난장이네 집 딸 영희

난장이는 그를 정말 아들처럼 대했다.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일찍 부모를 여읜 그가 안쓰러웠는지 항상 챙겨주곤 했다. 그는 난장이의 보살핌을 받고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난장이네 집 딸이 자신의 눈앞에 있었다. 철거 계고장을 뺏어서 집을 지켰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엔 약간의 우줄함이 묻어있었다. 한편으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이기도 했다. 나머지 우리 가족은 성남으로 갔어… 가보려고 했는데,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 누가 들이닥칠까봐 무서워서. 그녀가 담담히 말을 이었다. “곧 찾아가려고. 전화도 통 안되더라. 정말 보고 싶기도 하고 내 꼴을 못보여줘 보고 싶지 않기도 했어. 이제는 좀 뭐랄까, 정리된 느낌이라서.” 그녀는 자신의 방을 가리켰다.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열린 문틈새로 보이는 건 각종 서류와 서류철들이었다. “희망도 없었는데. 문득 치른 중소기업 비서 지원에 덜컥 합격했어. 운이 좋았지. 물론, 매우 작은 기업이야. 그렇지만 이젠 내 직장이잖아, 톱밥가루 맡을 일 없는. 서서 잘 일 없는…” 그녀가 말끝을 흐렸다. 그치만 항상 불안한건 마찬가지야, 그녀가 말한다. “아, 아무튼.” 그녀가 헛기침을 한번 했다. “성남에 잠깐 다녀오는 것이 어때, 우리 어머니와도 꽤나 친했잖아.”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말을 높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8. 성남

그녀는 성남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펼쳤다. 세주라고, 그녀가 말했다. “집이 없어졌잖아, 어찌저찌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발을 들였어.” “그녀가 처음 집들이 할 때, 너무도 행복했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그는 지영이를 품에 안고 그렇구나, 하고 끄덕였다. 그녀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거라구. 세주도 첨엔 집만 원했는데, 지금은 차별받기 싫대. 집은 너무 고마운 것이지만 차별이 너무 힘들대.” 그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집이 있으면 된 게 아닌가?

“맞아, 집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윗동네와 이어지는 골목에서, 세주를 보며 불쌍한 것이라며 소리치는 윗동네 초등학생들이 있어. 어떻게 자존심이 안상하겠니. 정말 비참하지.” 그녀가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그래서 내 최종 목표는 정책연구자야- 내가 아님 누가 천신만고를 겪어봤을까. 난 정말 내 하고 싶은대로 해서 사람 여럿 살리고 싶더라니까.” 영희가 고개를 한쪽으로 까딱이며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다. 장난처럼 들렸지만 진심이었다, 진심임을 느낄 수 있었다. “도로명 주소를 바꾸면 되잖아.” “응?” “임대 주택임을 드러내지 않는걸로. 윗동네 아랫동네 구분하지 말고 둘 다 하나의 행복동으로 만들면 되잖아.” 과묵했던 나의 입이 떨어지는 게 신기했다. 영희는 세상 신기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네.”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그런 방법도 있네. 나중에 내가 시행해볼게,”하고 장난스럽게 웃어보였다. 나도, 생각했다. 나도 바꾸어보고 싶었다. 그도 천신만고를 다 겪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9. 성남-2

그와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상점을 들려 미음을 샀다. 급히 지영의 입에 음식을 떠먹이고 자신들도 풀빵을 하나씩 사들고 먹었다. 와- 이거 정말 오랜만인데. 그녀는 신난듯 즐겁게 재잘귀며 빵을 입으로 넣었다. “내가 알아둔 곳이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오라고 남긴 주소야.” 행복 아파트. 그는 글자를 소리내어 읽었다.

도착한 아파트는 멀끔했다. 웬일이야, 하고 영희가 즐거워했다. 7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한 남자가 걸어나왔다. 억! 하고 영희가 놀라서 소리쳤다. 그도 이번엔 단번에 알아보았다. 난장이네 집 둘째 아들. 그도 걸어나오며 놀랐는지 눈을 크게 떠보이고는, 질문도 말도 없이 그녀를 꽉쥐어 안았다. 눈물이 맺혀 있는 영희의 눈을 모른 척 한 채 오랜만에 만난 난장이네 아들의 생김새를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날카롭고 총명히 빛나는 인상이었다. 그는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와아, 오빠 학교 다니나? 영희가 감탄을 연발했다. “아, 뭐..” 그

가 말끝을 흐렸다. “나, 장학금 받고 다녀. 노력 장학금…” 영희는 눈물이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하게 웃었다. 잘되었네, 그녀가 말했다.

그가 눈을 돌린 것은 병철에게로였다. 병철을 한번, 지영을 한번 보았다. 그리고 손가락에도 눈을 한번 두었다. “잘 지내셨어요?” 전보단 밝은 말투. “응, 너도 잘 지냈어? 혹시, 아버지도 계시니?”

그는 난장이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한 말 정도 흘렸다. 말라가는 그의 눈물은 이내 피곤으로 승화했다. 그는 양해를 구한 뒤 방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무거운 그의 눈꺼풀은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꿈속에서 사색하며 다시 만난 명희였다. 명희는 여전했다. 안녕, 명희야- 내가 많이 미안해.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명희가 눈물을 품고 옅은 웃음을 내비치며 속삭였다. “미안할 필요 없어, 앞으로는 새로운 빛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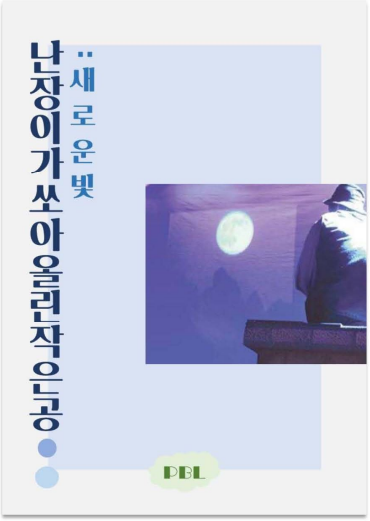
새로운 빛이래.
새로운 빛.

| 소설포스터 |

행복동에는 새로운 빛이 찾아올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행복동 사람들의 두번째 이야기



김은우 남수빈 박사라 박제이 이채원 최한별 저
| PBL 출판사 |

외?! 모! 내 외모가 어때서?

10303 김유진, 10307 박수민, 10311 이도윤
10313 조다빈, 10315 최정민, 10321 이재승

Ⅰ. 서론

최근 외모지상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외모지상주의란 외모에 가치의 중심을 두는 사고방식이다. 예전부터 인간의 외모를 구분하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외모만을 보고 평가하고 기준을 매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비판하는 것이 문제이다.

엠넷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출연자 모집 포스터의 문구가 “예쁜 신입생을 찾습니다” 이고, 아이돌을 뽑는데 노래나 춤은 전혀 보지 않고 오직 외모만 본다고 광고하고 있다. 아이돌은 가수이고 가수는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요소들을 보지 않고 외모만 본다는 것은 외모지상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승무원과 아나운서를 들 수 있다. 승무원은 비행기 또는 기차 내에서 승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탈출을 돕는 데 목적이 있는 직업이고, 아나운서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는 직업이다. 이 두 직업 다 각자의 목적이 있고, 외모와는 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이 직업은 외모가 뛰어나야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꼽힌다. 이와 같이 외모를 중점적으로 보고 뽑는 직업이 많고, 외모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외모에 따른 차별이나 외모로 실력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다. 실제로 외모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90.5%였다. 또 외모가 채용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사람은 66.1%,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33.9%로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2배에 가까웠다. (출처: 통계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지원자의 출신지, 학력,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능력으로만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도 실제 면접 때는 면접관과 지원자가 서로 볼 수 있으므로 외모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 블라인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는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엇이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역사, 철학, 지역, 경제, 과학, 사회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언어

가. 우리가 내뱉는 외모지상주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든 외모지상주의는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흔히 사용하는 은어인 “흑형”, “아프리카 새깜둥이”, “깜둥이”와 같이 피부색을 이유로 나타나는 인종차별에 있어서의 외모지상주의 뿐 만 아니라 “오징어 (못생긴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 “패완얼 (패션의 완성은 얼굴)”, “성괴” 등이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를 잘 나타내는 사례들이다. 설사 이 단어들이 단지 부정적인 의미로만 통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대화의 당사자들 모두 껄끄러운 기분을 느끼지 않고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모두 외모 차별을 희화화하는 언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피부가 검은 사람, 혹은 운동을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 등을 ‘흑형’이라고 부른다. 비록 이 단어가 나쁜 의도로 사용된 것이 아닐지라도 이는 피부색만으로 낙인을 찍어 배제하고 차별하는 인종주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작 흑인들은 이 단어가 인종차별적이라고 불쾌해한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 언어 사용이다.

“오징어”의 경우 외모에 대한 직접적인 언어폭력이라고까지 이야기 할 수 있다.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 식으로 오가는 말일지라도, 특히 이 단어가 다른 예쁘고 잘생긴 틈에 껴 있는 외모가 준수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만큼, 이는 다른 사람과 외모를 가지고 비교하고, 더 나아가 이를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외모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패완얼” 역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우리가 지양해야 할 외모지상주의적인 언어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다른 그 어떤 요소들보다도 얼굴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단어에는 예쁘고 잘생긴 얼굴을 최상위의 가치에 둔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잘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사용은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를 더욱 부추긴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가볍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이러한 언어의 사용은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 외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징어”라는 말을 듣고도 웃어넘기는 사회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깊게 스며든 외모지상주의를 뿌리치는 첫 걸음은 우리가 내뱉는 외모지상주의를 돌이켜 보는 것이다.

2. 역사

가. 과거에는 외모지상주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

1) 우리나라 역사 속 외모지상주의

우리나라에서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외모가 우선시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네이버 웹툰 “외모지상주의”가 나오면서부터였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외모로 인한 불공정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외모=유교 사회의 덕목?

《한서》 세계의 《시》 해설서 《한시외전》에서는 미모를 권력·부·용기·지혜와 동급의 속성으로 보고 있으며, 미모는 조정을 통솔하고 백성을 돌보는 데 쓸 수 있다고 나타나있다.[1)]

당나라 시기부터는 관리 채용에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기준을 두었는데, 여기서 신(身)은 풍채와 용모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송나라 대에도 이어졌다.[2)]

조선시대에는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특정 인물들의 외모를 부각해서 높이 평가한 많은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실록을 보면 장희빈이 너무 미인이라서 장희빈의 외모에 대해 '미색이 있다', '용모가 퍽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그러나 이는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적 욕구에 따른 것일 뿐, 조선시대에도 다른 그 어떠한 능력보다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외모”지상”주의가 심각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화랑”, 신라의 외모지상주의[4)]

진흥왕 37년 봄에 비로소 '원화'를 받들게 되었다. 처음에 군신이 인재를 알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겨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으고 떼지어 놀게하여 <u>그 행실을 보아 거용하여 드디어 미녀 두 사람을 가렸다.</u> 하나는 남모라 하고 하나는 준정이라 하여 사람들의 무리를 300여 명을 모아 <u>두 여자가 서로 어여쁨을 다투며 시기</u>하여,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후, 이를 끌어다가 강물에 던져 죽여버렸다. 준정도 이로 인해 사형에 처하게 되니 .....(중략)

– 「삼국사기」

1) 의복과 용모- 한시외전 https://blog.naver.com/uichol5730/221176852429

2) 두산백과- 신언서판

3) http://www.tourtimes.net/110700

4) 한국의 외모지상주의는 어디서 왔을까? https://yc8663.blog.me/20204824101

(원화 해산) 그 후 다시 외양이 아름다운 남자를 뽑아 곱게 단장 하여 이름을 '화랑'이라 하여 받들게 하니 민중들이 구름이 같이 모여들어.....(중략).... 당의 영호징 신라국기에는 "귀인 자제 중의 어여뿐 자를 뽑아 분을 바르고 곱게 단장하여 이름을 '화랑'이라 하여 나라 사람이 다 높이 섬긴다" 고 하였다.

- 「삼국사기」

이러한 제도들에는 외모를 우선시해서 인재들을 선발하는 외모지상주의가 나타나있다고 할 수 있다.

2) 세계사에서 나타난 외모지상주의, 인종차별

그렇다면 세계사에서는 외모지상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는 과거 집단적으로, 그리고 잔혹하게 발생하였던 흑인 인종차별에서 외모지상주의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백인, 즉 피부색이 하얀 사람이 곧 우월한 인종이라는 인식은 외모지상주의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겉모습을 이유로 이어진 흑인 인종차별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외모지상주의를 또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가) 흑인 인종차별의 전반적인 역사[5)]

〈표 1〉 흑인 인종차별의 역사와 저항의 전개 과정

1442	포르투칼의 아프리카 대륙 발견→ 흑인들이 유럽으로 팔려와 노예가 됨
1619	신대륙 발견 이후 이주 활발→ 처음으로 흑인 노예가 미대륙으로 팔려옴
1629	본격적인 노예제도의 시작
1808	미국 노예 수입 금지
1861~1865	남북전쟁 → 링컨 노예 해방
	여전히 차별 존재, 폭력 증가 ex) 쿠 클럭스 클랜: 흑인들과 흑인들을 후원하는 백인을 살해하거나 폭행
1900년대	흑백 분리 정책 ex) 짐 크로우 법 (1867~1965)
1950~1960년대	미국의 흑인의 시민권 신청과 인종 차별의 해소를 요구한 대중 운동多 ·1956 몽고메리 버스 안 타기 운동 - 인종 분리 버스에 저항 (로사 파크스)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 활발 ex) 마틴 루터 킹의 셀마 몽고메리 행진
1964	→ 민권법 제정→ 흑인 법적으로 완전한 평등 획득
1968	존슨 대통령의 새 민권법: 주택매매와 임대시 차별을 금지
1991	LA 흑인 폭동 사건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아직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2009	오바마☞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백인들이 초기 아프리카에서 붙잡혀 남아메리카로 넘어온 흑인 노예들을 보다 효과적,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인종 차별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이것이

5) 어린이 백과- 인종차별

검은 피부색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되고 더욱 뚜렷하게 백인들과 구별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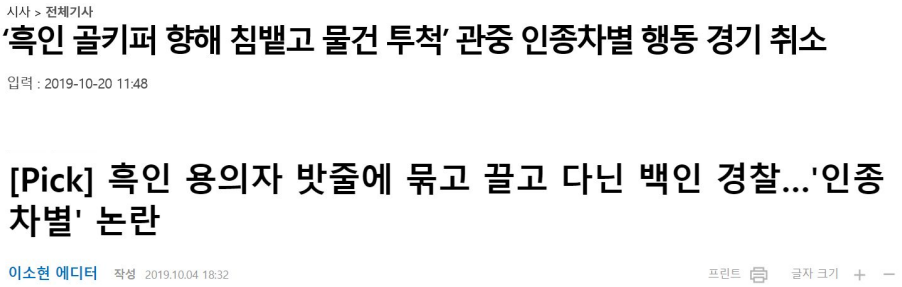
나) 불공정의 시작, 흑인 차별 정책

흑인은 단순히 백인 우월주의라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만 차별 받은 것이 아니라 보다 집단적이고 커다란 규모로서 국가의 “흑백 분리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불공정한 상황과 마주해야 했다.

대표적으로 “짐 크로법”이 있다. 흑인들은 공공건물에 출입할 때 백인이 사용하는 문이 아닌 다른 문을 사용해야 했다. 식당에서 흑인은 백인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할 수 없었고, 화장실이나 물을 마시는 음료대도 백인용과 흑인용으로 엄격히 구별되었다. 버스나 기차를 타도 흑인은 맨 뒷자리에 앉아야 했고, 그 뒷자리마저도 백인이 버스에 올라타면 양보해야 했야 했고, 심지어 공공장소 곳곳에는 "개와 흑인은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여지기도 했다.[6)]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 분리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백인들 위주의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어 인종에 따라 사는 곳도 다르게 하고 출입할 수 있는 곳도 구분되었다.[7)]

즉, 이들에게 흑인은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대로 취급하고 하대할 수 있는 존재였다. 흑인들이 백인과 다른 점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겉모습 하나뿐 인 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이는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있고 난 후 156년이 되어 가는 오늘날에 이른 21세기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 흑인 인권 운동, ‘공정’을 외치다

초기 흑인들이 불공정한 차별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데 반해,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을 “불공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다. 1955년 12월 1일, 당시 미국 남부의 몽고메리 시는 흑백 차별로 버스 좌석이

6) 시사백과사전-짐 크로법

7) 두산백과- 아파르트헤이트

분리돼 있었다. 그 날 로자 파크스는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버스 운전사의 지시에 부당함의 목소리를 냈고, 이로 인해 이후 그녀는 경찰에 체포된다. 이 사건은 이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으로 이어졌으며, 미 전역에 남아있던 인종차별 정당화 법률인 '짐 크로우 법'이 폐지되는 도화선이 되었다.[8)]

흑인 인권 운동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마틴 루터 킹이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일평생을 백인 우월주의 속에서 공정을 외치며 살아왔으며, 비인간적인 차별에도 꿋꿋하게 비폭력의 신념을 지켰기에 현재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9)]

이렇게 권리를 되찾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겉모습만을 이유로 불공정을 야기하는 "외모지상주의"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난 "흑인 인종차별"과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가만히 외모지상주의에 순응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우리는 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왜 차별과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까? 어쩌면 우리도, 10년 전 그들이 보여주었던 반향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지 모른다. 그들처럼, 차별에 익숙해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3. 과학

가. 외모지상주의와 과학기술

1)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과학기술 발전

'외모지상주의'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더 나은 외모를 가지기 위한 과학 기술의 발전 또한 활발해졌다. 과학 기술은 그 기술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 변화가 없어야 윤리적인 기술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외모지상주의에 감싸져 있는 기술은 절대 윤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아래에 이러한 기술의 몇 가지 사례가 있다.

2) '유전자가위 아기'에서 드러나는 외모지상주의

가) '유전자가위' 기술과 부정적 측면

현재 과학계열에서의 '뜨거운 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기술은 "유전자가위 아기"이다. '유전자

8) 두산백과-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9) Basic 고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사전- 마틴 루터 킹

가위'란 특정 염기서열을 인지하여 해당 부위의 DNA를 절단하는 제한효소로서, 인간 세포와 동식물 세포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데 사용된다.[10] 즉, '유전자가위 아기'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유전체 상태에서 유전자를 부모의 마음대로 조작하고, 그 조작된 DNA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박테리아는 저장해 놓았던 DNA를 전사하여 RNA를 만든 다음에 그 DNA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와 결합시킨다. 그리고 같은 염기 서열을 가진 DNA를 인식할 때마다 잘라버리는 것이다.[11] 모두가 신기해하고 있을 때, 몇몇 과학자들은 이 효소의 기발한 응용을 생각해 냈다. 어떤 세포든지 그 세포 안에 있는 게놈 중에서 우리가 망가뜨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염기 서열을 가진 RNA를 이 신기한 효소와 붙여서 같이 넣으면, 그 부분만 망가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배추, 소, 상추 등을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특정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원하는 돌연변이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들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사람에 대한 실험은 하지 않고 있었다.

인간에게 유전자 조작을 활용할 시, 지능이나 외모, 그리고 질병을 가지지 않는 유전자 등을 조작할 수 있다. 실제로 유전병을 예방하기 위한 아기 유전자 조작의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물론 외모에서의 우월함을 위한 유전자 조작의 사례는 적다. 하지만 이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뉴스 기사를 보면 제목은 항상 '뛰어난 외모를 가질 수 있는 유전자가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모'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 자체에는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유전자가위' 기술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유전자가위'는 인간의 특성을 가리는 기술이다.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각자의 존엄성과 특이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유전자 조작을 실행하여 더 이쁘고 잘생긴 외모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특이성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같은 모습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역할조차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같은 역량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쟁'과 경쟁을 위해 필요한 '노력'의 중요성은 점점 감소할 것이다.

또한 이 기술의 사용이 더 커질수록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외모'의 개념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넉넉한 집안에서는 그들의 후손들을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게 할 수 있다. 결국 모든 아이들이 태어난 후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유전자가위 기술로 태어난 아이들이 더 뛰어난 외모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행위 자체가 더 나은 외모를 가지기 위한 행위이며, 이 기술이 확산될수록 더 나은 외모를 가져야만 한다는 인식 또한 확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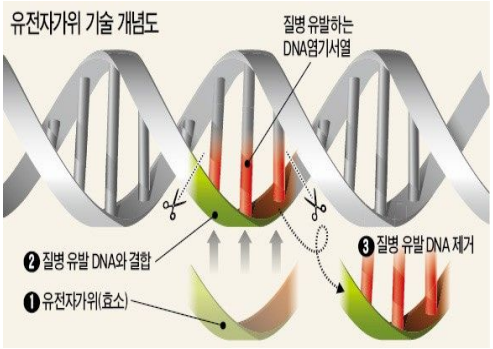
10) 네이버 두산백과 검색 '유전자가위'

11) http://snustudy.com/221410193168 네이버 블로그 - 수재모

나) '유전자가위'와 다른 기술의 차이

유전자가위 기술 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의 연예인의 광고, 성형외과 광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외모지상주의의 만연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가위 기술은 다른 요인보다 좀 더 특정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 속의 문화에서 '외모지상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아이를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외모지상주의라는 인식의 확산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윤리적 차원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신중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런데 잘못된 인식인 외모지상주의가 이러한 위험요소가 많은 과학 기술에 포함되어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과학 기술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인공지능'에서의 외모지상주의

현재 사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에서도 외모지상주의의 폐해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모습을 본뜬 '인공지능'을 생각해보자. 인공지능이란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한 학습으로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비슷하게 실현한 기술이다. 그들은 모두 긴 속눈썹과 큰 눈, 오똑한 코와 두툼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인공지능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자의 마음이지만, 모든 인공지능이 이러한 미의 기준을 통과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이다.

4. 사회

가. 서구화되는 미의 기준

1) 세계화와 서구화란 무엇인가

세계화의 사전적 정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임. 또는 그렇게 되게 함.[12)]'으로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명시되고 있지만, 세계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globalization'의 번역어인 '세계화'라는 용어는 '지구화' 또는 '전지구화'의 용어로 번역되기도 본래는 학문적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으나 세계정치 · 경제의 변화 및 문명사적 변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화는 '지역적인 것', '국가적인 것'들이 '지구적인 것'으로 전환되어 가는 현상[13]을 의미한다. '세계화' 또는 '전지구화'로 번역되는 'Globalization'이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학계에 등장한 것은 20세기 후반이지만, 서구의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시작된 세계화는 대량이주와 운송수단의 발달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전을 기점으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14] 서구화의 사전적 정의는 '서구인의 문화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받아 닮아 감. 또는 그렇게 하게 함.[15]'으로 명시되고 있다.

2) 서구화에 따른 미의 기준의 변화 과정

조선시대 미인의 모습을 담은 대표적인 그림으로 조선 후기의 화원 신윤복의 〈미인도〉가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얼굴이 복스럽고 턱은 둥글고 크며 눈은 가늘고 눈썹이 가지런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밖의 풍속화 등에 그려진 여성들의 얼굴 또한 공통적으로 견실하고 반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처럼 팔등신의 날씬하고 눈이 큰 여성보다는 반듯하고 참한 여성을 선호하였다[16]. 그러나 이러한 일제강점기를 계기로 미인상에 급격히 심화되며 변화가 찾아온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에 의해 해석 및 변용된 서구적 미의식이 선망되고 재생산되었다. 미의 서구화에 앞서 '흰 피부'를 동경하는 성향은 한국과 일본 모두 재래적으로 갖고 있던 미의식이었으나 서구 백인의 미적 기준과 결합하며 더욱 고착화되었다. 1960년 "미국 서독 불란서 각국 원료의 최신 처방으로 생산한다"라는 걸 강조한 여왕미용약용크림은 상품명뿐만 아니라 모델도 백인 여왕을 내세웠다. 하얀 피부는 유색 피부보다 우월하다는 편견과 함께 백인 여성을 닮고 싶고 서양 미인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도 건드렸다. 즉, 하얀 피부는 서구화된 문명의 상징이었다.[17] 흰 피부 외에도 높은 코와 쌍커풀이 근대미의 기준이 되며 이를 위한 '성형수술'도 등장하였으며, 이외에도 긴 속눈썹과 높은 코가 강조된 여성상은 이전 시기의 여성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며 서구적인 미의식을 드러냈다. 이처럼 서구화된 미인상으로의 변화는 당시 보급된 영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었다. 근대기 대중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영화는 1940년 당시 극장의 총 관람객 수가 무려 1,250만 명에 달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18] 또한, 신문 매체에 소개된 서양의 미인대회를 통해 일반 여성 응모자의 심사를

13) http://www.riss.kr/link?id=T13169540

14) 오은경 (2019). 포스트미디어 시대의 문화기술-세계화에 대한 우화로서 옥자 분석.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7, 321-348

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6)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96969&cid=60532&categoryId=60532

17)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40217255118676

거쳐 대표 미인을 공표하는 행사의 규범과 함께 서구적 미인관과 미인상 역시 대중화될 수 있었다. 미인대회에서 미인의 요건으로 얼굴 외에 신체가 포섭됨에 따라, 그 평가 기준 또한 서구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정립되었다. 「누가 제일가는 미인일까, 허리를 재고 빗갈을 심사」라는 당시 미인대회의 문구와 같이, 신체 사이즈와 몸무게로 미를 수치화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서구의 미인 평가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해외 미인대회로부터 명기되기 시작한 것이며, 신체의 계량이 미인대회의 주요 심사 기준이 되어왔음을 보여준다.[19]

1960년 4월 20일 자 부산일보 1면에 실린 영국 여왕의 흰 피부를 강조한 한미화학의 여왕미용약용크림 광고

3) 현대 사회 속 서구화된 미의 기준의 발견 양상

미의 기준의 서구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노스 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저자 러네이 엥겔른은 한국의 쌍꺼풀 수술 열풍을 서구화된 백인의 아름다움을 미의 기준으로 삼는 문화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전 세계 여성이 '외모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20] 세계화 시대, 한국의 변화는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의 산물이자 문화적 전파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 한류는 하나의 소프트파워 자원으로(Nye, 2009)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으며 한국은 한류를 활용해 한국의 문화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어필하고 있다(홍지아·이정환, 2014). 이러한 한류 스타의 매력, 즉 얼굴과 체형이 멋지고, 아름다움이 중국인의 성형 관광 행동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양은주·조민호, 2015), 한류 스타의 인지도와 매력성은 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관광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양승훈・손대현, 2007)[21]. 한류 열풍은 중국인의 한국 성형 관광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성형 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첸잔(前瞻)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의료미용시장은 23.6%의

18) 김지혜 (2013). 한국 근대기 화장품 신문 광고로 읽는 미인 이미지. 미술사논단(37), 153-176

19) 김지혜 (2016). 반도의 비너스, 시각매체에 나타난 미인 표상. 미술사학(31), 117-148

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617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http://

21) 정유리 (2019). 한류스타 이미지와 의료관광 서비스품질이 미용성형 태도와 미용성형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잠재 중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31(5), 109-128

연평균복합성장률(CAGR)을 기록했으며, 2018년 시장규모는 1220억 위안(약 20조원)을 달성했다.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 2대 의료미용시장으로 올라섰다[22)]

4) 서구화에 따른 미의 기준 변화가 불러일으킨 것

인형 '바비(barbie doll)'는 탄생 이후 60여년 간 세계인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미인의 대명사'로 사랑받으며, 바비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0억 개 이상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반 여성들이 바비 같은 몸매를 가질 확률은 10만분의 1 정도이지만, '바비'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성형 중독이나 살을 빼려다 거식증에 걸렸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바비를 가장 괴롭혀 온 비판은 아름다운 백인 여성을 미의 기준으로 세웠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종차별 논란에 매출 하락까지 더해지자, 바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23)]. 제작사는 흑인을 포함한 유색인 바비를 선보였고 2016년엔 통통한 바비, 키 작은 바비 등 보다 현실적인 신체비율의 인형을 출시했다. 지난달엔 휠체어를 탄 바비, 의족을 단 바비를 선보이기도 했다. 디지털 오락상품이 늘어나면서 장난감 시장이 위축되는 추세지만 바비의 매출은 지난해 1분기(1~3월) 매출이 전년 대비 24% 이상 증가했다[24)]. 앞선 통계는 최근 세계 시민들의 변화한 인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서구적으로 획일화된 미적 기준은 21세기에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성숙한 의식의 세계 시민들은 외모지상주의를 부정하며, 개개인의 다양한 외적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강력히 열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중국의료미용시장의 성장 추이 그래프[25)]

22)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4001198

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678935

2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09/94456863/1

25)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4001198

5. 철학

가. 군중심리, 집단주의, 동조현상과 외모지상주의

1) 군중심리와 집단주의

“군중을 구성하는 개인이 누구든, 그들의 생활양식·직업·성격 혹은 지적 수준이 비슷하든 아니든, 그들은 군중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일종의 집단정신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가 고립된 개인으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든다.” 군중심리와 집단주의와 관련된, 프랑스 사회심리학자이자 사상가인 귀스타브 르봉의 말이다.[26)]

2) 대한민국의 집단주의 성향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한 민족이라는 매우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응원 문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민족 감정은 매우 강력하다. 민족 감정은 집단주의를 일으켜 다수의 의견에 동화되고 동조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집단주의란 개인의 의사와 이익보다는 집단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집단주의에 따르면, 사회와 국가는 개인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집단이 유지 존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을 통해서 집단의 목적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27)]

3) 미의 기준에 적용되는 동조현상

이러한 집단주의적 성향은 외모지상주의와 관련하여 생활 속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람들은 개개인의 미의 기준이 다르지만, 다수의 미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미의 기준을 바꾸기도 한다. 이렇게 설정된 획일화된 미의 기준은 외모지상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는 사람들의 군중심리가 적용된 것이다. 이렇듯 여러 사람이 주는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그 집단의 뜻과 행동에 따르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동조’라고 한다. 교사나 경찰, 의사처럼 권위 있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한다면, 동조는 나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28)] 이렇게 동조 현상으로 설정된 미의 기준은 외모지상주의를 심화시키며 동시에 개인을 향한 공정성을 저하시킨다.

---

26) 네이버 지식백과 동조이론

27)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주의-집단주의

28) [네이버 지식백과] 동조 현상

4) 외모지상주의와 팬덤문화

집단주의와 군중심리는 또한 팬덤문화를 형성한다. 외모지상주의가 심화되면서 많은 청소년, 청년들의 우상이자 준수한 외모를 가진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아이돌이 인기를 얻었고, 동시에 이전의 수많은 가수들과는 다른 방식의 팬덤문화를 만들어냈다. 팬덤문화는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외모지상주의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아이돌이라는 존재 자체가 '외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팬덤은 주로 아이돌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특정 아이돌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하면,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는 등 집단주의 성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라는 외모지상주의가 형성된다. 따라서 팬덤문화가 발달할수록 외모지상주의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5) 군중심리로 인한 연예인 모욕

또한, 미디어 매체 속 특정 인물에 대해서 단순히 특정한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비난을 퍼붓기도 한다. 몇몇 사람이 자신의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외모를 비하하면, 다른 불특정 다수들이 그 비난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특정 인물을 모욕하고 비방한다. 이 또한 군중심리의 폐해를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10월 쯤부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3명의 한국 연예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19. 11 29.에 KBS 9시 뉴스는 구하라 자살과 관련한 뉴스 댓글 1만 3천여건을 분석하여 보도했다. 취재진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구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사 5개를 선정해 댓글 1만 3,700여건을 모두 읽고서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다. 댓글 중 의도적 비방이 전체의 19%에 달하는 2,600여건에 이르렀다. 댓글 5개중 1개가 악성 댓글을 넘어선 범죄성 댓글에 해당되는 얼굴이나 성형 수술, 외모를 비하하는 글들이었다. 다짜고짜 구씨의 외모를 비하하면서 독종이라거나 얼굴 성형에 실패해서 자살한 것은 아니냐는 극한 표현도 있었다.[29)]

이는 악플을 달아도 익명성으로 인해 쉽게 보복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악플러들에게 공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 문제 중 하나이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자신처럼 특정 연예인을 비난하는 의견이 많아지면 '나 하나쯤 더 비난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군중심리가 작동해 무차별적인 악플이 양산된다"고 말했다.[30)] 이러한 군중심리를 바탕으로 한 외모 비하와 인격 모독은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내가 유명인이며,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게 외모 비하부터 인격 모독까지 극심한 비방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29) KBS 뉴스 "예쁜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故구하라의 이유 있는 외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7137

30) 그들은 왜 악플을 달까? "부정적 심리보상 추구"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81873029233?did=NA&dtype=&dtypecode=&prnewsid=

6. 경제

가. 외모지상주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성형의 나라, 대한민국

한국은 '성형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성형외과도 많고, 성형을 하고 싶어 하거나 한 사람도 많다. 성형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이고, 과장 광고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무엇일까. 경제적인 관점으로 성형을 보면 단순히 성형이 '예뻐지기 위한 방법' 이 아닌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성형외과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다.

2) 성형외과 밀집 현상

성형외과의 밀집 지역은 서울 강남이다. 강남구 보건소의 의료기관/ 약국 정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서울시 강남구의 성형외과는 모두 390개이다. 성형외과들이 강남에 밀집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남의 특징과 관련이 있을까?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처음에 강남에만 성형외과들이 몰린 이유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중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주로 타깃으로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형타운'을 형성한 후 다른 지역의 여러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한다. 지방에도 성형외과들이 있지만 강남에만 특히 많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강남은 교통의 요지이다. 강남역이 있고 SRT, KTX, 지하철역, 터미널 등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환자들이나 외국 환자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이다. 가게(병원)들은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당연히 강남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전문성이다. 강남에 굉장히 많은 성형외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좁은 곳에 상대적으로 많은 성형외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어떤 병원은 코 전문, 어떤 병원은 안면윤곽술 전문같이 같은 성형외과여도 조금씩 다른 방향을 추구함으로써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의료수준이다. 강남에는 정말 많은 성형외과들이 있지만 계속 성형외과가 개원하고 있다. 강남에 있는 의사들은 실력을 인정받아서 강남으로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도 '잘 하는 병원'으로 소문나 고객이 많은 것이다.

3) 성형외과의 등장과 문제점

성형외과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이다. 경쟁이 심한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큰 경쟁력이다. 외모가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외모의 결점을 보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

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줄 수 있는 성형외과가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여러 위험 요인을 감수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굴을 바꾸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회와 성형외과 광고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해 그 분위기에 휩쓸려 성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 글에서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성형외과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2009년 비급여 의료행위의 할인이 위법이 아니라는 건강보험법을 준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광고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했다. (성형은 비급여 의료행위이다)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던 광고의 범위가 이 판결로 인해 무분별하게 허용되었다.

4) 과도한 수요와 공급

무분별한 광고의 허용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외모지상주의에 맞추기 위해 찾은 성형외과가 외모지상주의를 더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고들은 성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쁘지 않은', '일상생활이 힘든', '성형이 필요한'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 성형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 결과 성형광고 노출 정도가 클수록 매스미디어(정보전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매체)에서 제시하는 외모 기준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기준의 내면화와 외모만족도가 매개하여 성형수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인숙, 2016) 사람들은 성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외모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성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형외과 사업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과도한 광고와 과도한 수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도한 수요 때문에 과도한 공급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도한 수요가 생기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과도한 수요와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과도한 수요가 생기게 된 원인은 외모지상주의이다. 예전부터 인간의 외모를 구분하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타인의 외모만을 보고 평가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비판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외모지상주의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얼짱 신드롬'과 미디어의 확산, 기업의 광고에 출연하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 때문에 면접에서 계속 탈락하고, 내면이 충분히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외모 때문에 소개팅이나 연애에 실패하는 경우 등이 외모지상주의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외모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급(성형외과)이 많아진 것이다. 성형외과들은 많은 수요를 이용해 과장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무분별한 광고는 성형을 하면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정한 '이상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성형을 부추겼다. 성형외과의 과장 광고는 안 해도 될 성형도 많이 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성형의 수요와 공급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31)

32)

미인들의 사진을 내걸고, 성형을 하지 않거나 '예쁘지 않은' 사람들을 뒤처진 사람처럼 규정하며 광고하고 있다.

5) 해결의 필요성

성형외과의 과도한 수요와 과도한 공급을 줄이는 것이 해결 방안일 것이다.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성형 광고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도한 광고와 프로모션, 혜택 등이 성형을 권장하고, 성형으로 만들어진 예쁜/ 잘생긴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7. 지역

가. 세계는, 한국의 강남은, 그리고 우리는

1) 세계의 외모지상주의와 문화

유럽국가인 벨기에에서는 한 기관이 실험을 진행한 결과 잘생긴 사람에게 면접기회를 못생긴 사람보다 42%를 더 제공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목소리로 일을 하는 텔레마케터들도 외모 차별을 당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비만인 사람에게는 텔레마케팅 일을 시키지도 않는 등의 외모차별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중국에서는 외

31) 비급여 의료행위인 성형 시술의 할인 광고. 출처 헬스코리아 뉴스

32) 강남구청 성형외과 광고. 출처 애드온 블로그

모에 따라서 월급을 다르게 준다는 사실도 있다. 외모가 잘생기면 고객들이 더 친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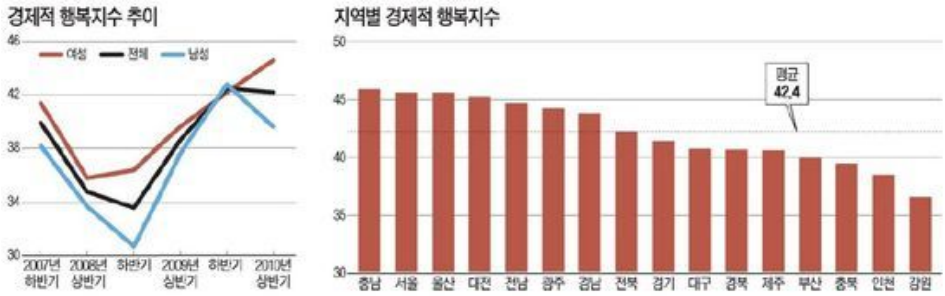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가 많은 지역인 이탈리아에서는 외모지상주의가 우리나라만큼 심각하다고 말한다. 이탈리아에서도 우리나라의 성형외과가 되게 유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사람들의 생김새뿐 만아니라 옷에 스타일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곳에서도 외모지상주의는 존재한다. 그러나 왜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 여러 국가들보다 외모지상주의가 더 심하다고 말하는가?

2)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

외모를 추구하고 자신이 잘생겨 보이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자 본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두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외모차별이 심한 나라이지만 LA타임즈에서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를 비꼬았다. 한 영국인을 소개하며 한국에서 취직을 하려 했으나 한국의 이력서는 외국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문화가 심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지역에 따라서도 크게 구분된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성형외과의 수도 수도권 특히 강남에서는 다른 곳들의 2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강남이라는 지역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이다. 사실 강남은 성형외가가 엄청나게 많은 레드오션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강남에는 여러 개의 성형외과가 올라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지역의 전문성과 자부심 때문이다. 성형외과가 강남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치를 형성하고 자신의 의술에 대한 전문성을 존경받을 수 있기에 인정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33) https://www.youtube.com/watch?v=yCa20QTo2Ck

두 번째로는 집심이익의 공유이다. 사실 일반지역에서는 동종업계가 두 개 이상 있으면 생존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강남은 그렇지 않다. 강남은 한 건물에 두 개 세 개의 성형외과가 위치하면서도 함께 이득을 보는데 그 이유가 전문특화에 있다. 각 성형외과마다 전문적으로 하는 시술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성형외과가 있어도 모든 성형외과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분담화가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의 성형외과가 패배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성형외과가 잘 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문화는 얼굴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얼굴을 중시하고 하얀피부가 좋은 인상과 인식을 안겨준다고 선진국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다르다.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 선진국에서는 콤플렉스가 될지 몰라도 그들은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며 남들에게 떳떳하게 자랑하고 다닌다. 그리고 대중들의 반응또한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함께 장점을 이야기하고 공론화 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왜 이러한 문화 차이가 발생하는지 고려해 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분위기가 이러한 문화형성에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지역, 세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부유한 지역의 사람일수록 자신을 더 정형화된 미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사실 미는 정형화되어있는 것이 아니다. 미는 자유분방한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어렵다. 그리고 더욱 혼란스럽다. 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고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성형을 하는 문화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미의 자유분방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매력을 다른 점으로 표출해내고는 한다.

Ⅲ. 결과 및 논의

지금까지 역사, 철학, 지역, 경제, 과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으로 외모지상주의와 이로 인한 불공정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실태 조사의 결과,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편견을 깨는 광고를 만든 기업들에게 황금시간 대의 방송 우선 배정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편견을 깨는 광고란 외모에 상관없이 광고 모델을 선정하고, 그 모델의 외모보다는 광고의 내용을 강조하는 광고 등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황금시간 방송이나 지원금 같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는 편견없는 광고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광고들이 지속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에게 노출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광고는 아름다운 연예인만 찍는 것'이라는 외모지상주의와 편견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개그맨들의 외모 (얼굴, 몸 등) 비하를 통한 개그를 규제하는 방송심의규정을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여러 방송사에서 개그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외모 비하를 통한 개그가 빠지지 않는다. 무한도전 프로그램 '못생긴 친구를 소개 합니다' 일명 '못.친.소'에서는 프로그램의 기준에서 못생겼다고 생각되는 연예인과 흔히 잘생겼다고 생각되는 연예인이 비교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자신 혹은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며 만들어내는 웃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시청자들의 기분 또한 불편하게 만든다. 따라서 방송사 마다 외모 비하를 통한 개그를 규제하는 방송심의규정을 지정하도록 하여 외모지상주의 풍토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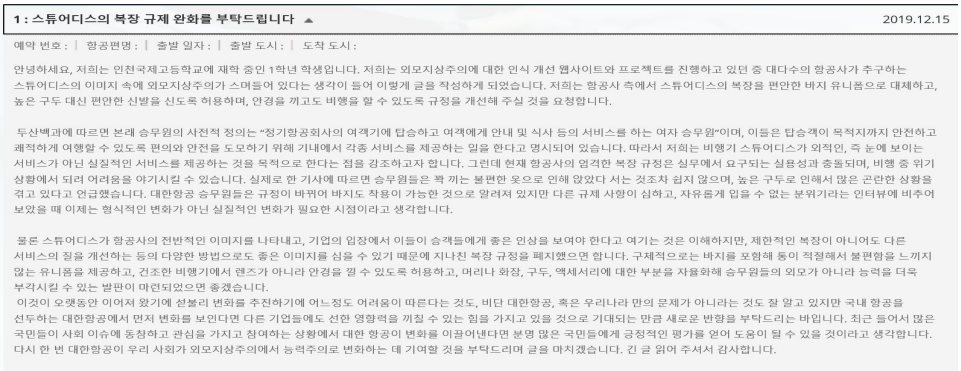
또한 면접관과 응시자 사이를 가려 실질적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것도 외모지상주의를 완화시킬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적 조건(키나 체중)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면접관과 응시자 사이를 가려 블라인드 채용을 실질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외모는 사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퍼뜨려 외모지상주의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를 완화하고 외모가 아닌 해당 업무에 맞는 능력을 더 중요시 여기고 고려하는 사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Ⅳ. 해결방안

1. 항공사 홈페이지에 제언 글 작성

가. 외모지상주의로 나타난 기내 승무원의 복장 규제 완화 제언



1 : 스튜어디스의 복장 규제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2019.12.15

예약 번호 : | 항공편명 : | 출발 일자 : | 출발 도시 : | 도착 도시 :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인식 개선 웹사이트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중 대다수의 항공사가 추구하는 스튜어디스의 이미지 속에 외모지상주의가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항공사 측에서 스튜어디스의 복장을 편안한 바지 유니폼으로 대체하고, 높은 구두 대신 편안한 신발을 신도록 허용하며, 안경을 끼고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본래 승무원의 사전적 정의는 "정기항공회사의 여객기에 탑승하고 여객에게 안내 및 식사 등의 서비스를 하는 여자 승무원"이며, 이들은 탑승객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행기 스튜어디스가 외적인, 즉 눈에 보이는 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항공사의 엄격한 복장 규정은 실무에서 요구되는 실용성과 충돌되며, 비행 중 위기 상황에서 되려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기사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꽉 끼는 불편한 옷으로 인해 앉았다 서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높은 구두로 인해서 많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규정이 바뀌어 바지도 착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규제 사항이 심하고, 자유롭게 입을 수 없는 분위기라는 인터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제는 형식적인 변화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튜어디스가 항공사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기업의 입장에서 이들이 승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이해하지만, 제한적인 복장이 아니어도 다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복장 규정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지를 포함해 통이 적절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유니폼을 제공하고, 건조한 비행기에서 랜즈가 아니라 안경을 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머리나 화장, 구두, 액세서리에 대한 부분을 자율화해 승무원들의 외모가 아니라 능력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에 섣불리 변화를 추진하기에 어느정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비단 대한항공, 혹은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국내 항공을 선두하는 대한항공에서 먼저 변화를 보인다면 다른 기업들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새로운 반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사회 이슈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상황에서 대한 항공이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분명 많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대한항공이 우리 사회가 외모지상주의에서 능력주의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부탁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회의원 및 국민청원에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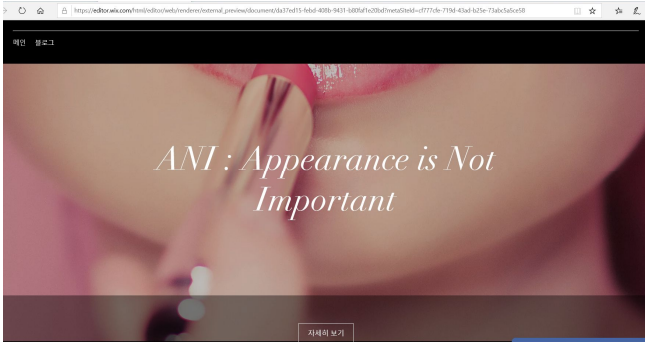
가. 외모지상주의를 촉진하는 성형외과의 과장 광고와 경품 규제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3. 인식 개선 홈페이지 제작

가.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웹 사이트



언론 조작과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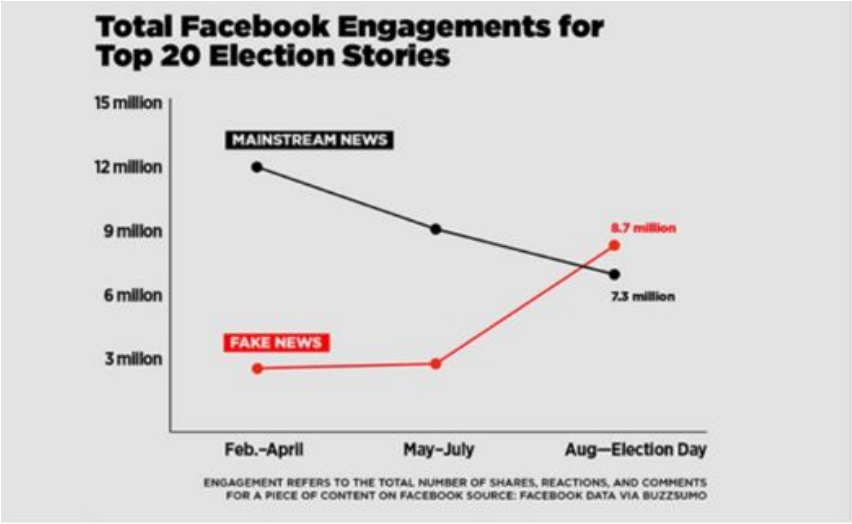
10305 김하은, 10308 박혜상, 10312 정은혜
10314 주에스더, 10316 홍혜연, 10324 정의준

Ⅰ. 서론

1. 연구 동기 및 배경

매스미디어의 보급과 인터넷의 전파로 사람들은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세계 각지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언론의 중요성과 대중의 언론을 향한 관심도는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는 최하위권에 위치한다.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의 2016년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6개국의 뉴스 소비 중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주로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8%이며 이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은 48%로 26개국 중 상위권인 것에 반하여, 뉴스에 관한 신뢰도는 2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가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 신뢰도 저하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언론의 낮은 진실성이다. 많은 여론조작과 거짓 뉴스로 인해 대한민국에 발의되어 있는 입법안은 공직선거법개정안 13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2개, 신문진흥법 개정안 11개를 비롯한 5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언론의 공정한 보도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다. 이러한 언론의 진실되지 않은 보도는 올바른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만들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의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공정한 판단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



가. 연구의 중요성

과거에는 여론이 토론이나 소집단의 대화로 이루어졌지만 현대사회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언론이 여론 형성의 주체로 등장했다. 따라서 언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가짜뉴스와 댓글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과 같은 언론 조작이 나타나며 편향된 여론 형성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언론에 의한 여론 형성능력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에 반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니는 양면성을 띠어 그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언론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구성되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해 전자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 민주주의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일컫는다. 부정적인 측면은 소비자들의 계층과 격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격차가 커지고 미디어의 비인간화가 진행됨으로써 개인을 기술의 지배에 복종하는 신민으로 만들어 모든 개인들을 기술 발전에 종속시킨다는 것이다.

나. 연구의 필요성

언론조작, 여론조작이 증가함에 따라 여론은 판단력을 잃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이러한 의심은 결과로 드러났다. “트럼프에게 내연녀가 있다”, “힐러리가 여론조작을 했다” 와 같은 거짓된 내용을 가진 가짜뉴스가 확산되었고, 페이스북 내에서 뉴욕타임즈나 헤럴드의 기사보다 가짜뉴스의 기사가 훨씬 더 많은 조회수, 공유 수를 기록했다. 가짜뉴스뿐만

아니다. 최근 댓글은 네티즌들의 토론과 지식 공유 수단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댓글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형성했다. 작년에는 드루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논란이 있었다. 비슷하게, 실시간 검색어 차트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벌인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의 실검 전쟁은 실검의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다. 1799년 독일의 철학자 크리스티안 가르베는 "여론이란 한 나라의 시민 상당수가 주어진 문제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반성 및 지식의 결과로 도출해낸 합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라의 문제를 인지하고 합의하여 이성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여론은 언론의 가짜뉴스, 조작된 실시간 검색어, 조작된 댓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연구방법

공정하지 않은 언론 보도의 기준을 잘못된 뉴스와 여론 조작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다. 그 후 이러한 풍토가 만연해지게 된 수학, 과학적 배경을 제시한다. 제시한 거짓 뉴스와 여론 조작의 두 가지 분류는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언론 보도의 경우로 나눈 것이다. 이 때 각각의 사례를 분석한 후 그러한 상황의 발생 원인을 역사, 정치, 심리의 세 가지 다각적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이때 각각의 사례는 원인의 신빙성을 위해 2-3가지로 진행한다. 또한 다각적인 원인으로 접근함으로써 본 문제를 단지 평면적인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 혼재되어있는 문제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여론 조작과 거짓 뉴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더욱 정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Ⅱ. 연구 내용 및 분석

1. 가짜 뉴스

가. 정의

일반적으로 '가짜뉴스'는 정파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과 정보를 사실처럼 가장하기 위해 기사 형식으로 만든 후 고의적,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을 말한다. 학자들은 가짜뉴스의 개념으로 '뉴스형식'을 띤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추가로 의도성을 중시하는 입장도 있다. 가짜뉴스는 금전적 혹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오인할 의도를 가지고 거짓 또는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허위정보라고 정의하면서도 '언론사가 고의적으로 독자를 기만하기 위한 오보'

는 제외하기도 한다. 기존 언론의 오보는 고의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가짜 뉴스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fake news)'는 올바른 정보의 유통을 방해하고 언론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가짜뉴스는 선거 등에서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쳐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 또한 크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뉴욕타임스와 CNN등 기성언론을 '가짜뉴스'라고 지적한 것에서 보듯이 가짜 뉴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서로 다르다. 그렇기에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가짜뉴스'를 무조건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가짜뉴스를 접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언론의 보도만 있을 뿐 실증적 조사는 부족한 편이다.

나. 배경 및 원리

딥러닝 인공지능의 발전이 언론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뉴스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이 가짜뉴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노출빈도를 증가시켰다. 이 때 딥러닝 (행켈 행렬을 기저함수로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이란 심층신경망이라고도 하며 여러 겹의 복잡한 함수가 쌓이면서 예시 모델을 분석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 일차함수 형태라면 여러 x, y값을 계수가 정해지지 않은 함수에 넣어봄으로써 그 알고리즘이 분석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함수가 만들어지도록 계수를 조정해나간다. 이런 원리로, AI는 뉴스의 종류나 성향을 분류하고 이용자들의 뉴스 이용을 하나의 x,y값으로 설정하여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뉴스를 추천한다. 자동 추천 알고리즘이 가짜뉴스에 적용되어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여론을 뒤흔들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개인 맞춤 알고리즘도 가짜뉴스 확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다. 원인

1) 심리적 원인

가) 인지적 종결 욕구 : 아리에 크루글란스키가 제안한 개념.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지적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순화되고 획일화 된 정답을 내고자 하는 욕구이다. 인지적 종결 욕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주제나 쟁점 또는 사안에 확고하고 의심 없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하며,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집단사고화 되기 싶다. 시간상 빠르고 절차상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편향된 사고나 논리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나) 프레이밍 효과 : 행동경제학자 아모스 트버스키와 다니엘 카너먼이 주장한 이론으로,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제공되는 인식의 틀을 프레임이라고 하며, 이 틀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인간은 일생에 걸쳐 정신적, 감정적 이해를 위한 틀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틀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 사용되며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관련된 것이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전략적으로 짜인 틀 속에 넣어 대중에게 먼저 제시하고 규정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승리하며, 이를 반박하려는 쪽은 오히려 상대방의 틀을 더 강화해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선동이 진실을 가장한 것일지라도 대중에게 먹혀들며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반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다) 확증편향 : 자신의 견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취하려고 하는 성향. 반대로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에는 신경을 쓰지 않거나 외면한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성향을 말한다. 이런 천향성은 의사결정 시에만 일어나지 않으며,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일어난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를 찾고,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출처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반복하여 받아들임으로써 기존의 생각을 계속해서 강화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경향이다

2) 정치적 원인

언론의 기득권 편승 : 1970-1980년대 권언유착,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자본 예속화로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와 해당 언론사 구성원들이 언론의 정체성을 잃고 타락하기 시작한 현상. 언론들이 기득권에 의존하여 정부나 대기업 등 기득권의 요구, 혹은 성향에 맞추어 기사를 작성하는 현상이다.

3) 경제적 원인

수익 증진 : 뉴스는 기본적으로 조회 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조회 수가 높을수록 해당 뉴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다양한 광고의 스폰서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정보일수록 그 조회 수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2명이 모여 시작한 '리버티 라이터스 뉴스'는 글 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동영상도 제

작하여 배포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이 때 이 정보들은 대체적으로 왜곡되거나 거짓된 정보들이다. 이들은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는 한달에 1만 달러에서 최대 4만 달러까지 벌었다고 한다.

4) 사회적 원인

가) 기자들의 직업윤리 희박 및 기자로서의 취재 훈련 소홀: 언론에서의 공정성과 정확성보다 당장의 조회 수 증가로 인한 수익성이 강조되어가면서 기자로서의 직업 윤리의 부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사건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팩트 체크는 전무한채 타 언론의 기사를 베껴서 쓰거나 확증되지도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인 뉴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경향이 팽배하며, 이는 결국 기자로서의 취재 훈련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 가치관, 세계관을 앞세워 정파성을 공정보도에 앞세우는 사회 흐름: 보도 있어 공정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보도 지침보다는 정치적인 색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언론의 정치색이 들어간 보도를 해당 지지자들을 위주로 보도하려는 성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 때 신문의 구독률과 신뢰성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정파 저널리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2012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들은 신문 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정치적 편파성'(75.4퍼센트)을 국민 이익보다 자사 이익을 우선시 하는 '자사 이기주의'(79.5퍼센트)에 이어 2위로 꼽았다. '부유층과 권력층 입장 대변'(74.0퍼센트), '선정주의'(72.6퍼센트) 등이 뒤를 이었다. 신문의 정파성은 '여론 다양성'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없으며, 보수 언론의 정파성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한국 신문의 정파성이 심각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과도한 정파 저널리즘이 '우리 대 그들'의 이분법 구도를 부추겨 한국 사회를 정파싸움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김민환은 "소통의 부재에 대해 정치권 탓만 할 수는 없다. 사회에서 바람직한 공론을 창출하여 국민을 통합할 책무가 있는 언론은 혐오스런 정파성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기 정파의 잘못은 바늘처럼 가벼이 여기고 다른 정파의 오류는 몽둥이인 양 키운다. 제3자의 위치에서 정치를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자세는 잊은 지 오래다. 우리 언론은 관전자나 심판이 아니다. 걸핏하면 여야 선수들까지 운동장에서 밀어내고 언론끼리 패가 갈려 백병전을 치른다. 언론을 통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게 하면 예정된 방향으로 모든 것이 자동 조절된다는 자유주의의 기본 가정은 정파 저널리즘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

라. 사례

1)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페이스북 가짜 뉴스 사건

2016년 미국 대선의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다. 미국 대선에서 나돌았던 가짜뉴스들은 아주 깔끔하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얼핏 보면 새로운 언론사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대량으로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미국의 유명한 언론사 홈페이지와 거의 똑같아 보이도록 사이트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그렇게 만든 가짜 뉴스들은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버즈피드(BuzzFeed)의 미국 대선기간 중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퍼져나갔는지 분석하는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초반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에서는 주류 언론사들 기사가 많이 나돌고, 가짜 뉴스들은 별로 많이 공유되지 않았지만 8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기간에는 이런 추세가 역적하여 주류 언론사들의 기사보다 가짜뉴스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공유되고, 더 많은 반응을 얻었다. 이 기간동안 주류 언론 기사들에 대한 반응은 7300만건이었는데, 가짜뉴스에 대한 반응(좋아요,공유 등)은 8700만건으로 집계되었다. 투표 3개월 전부터 투표일까지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얻고 공유되었던 가짜 뉴스 기사 top5는 이와 같다. 1.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2.위키스,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는 사실 확인 3.힐러리의 IS 관련 이메일 유출, 사상초월 4.힐러리는 어떠한 공무직도 할 자격이 없다 5.힐러리의 이메일을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FBI요원이 시체로 발견되었다. 나열된 이 5개의 기사들은 모두 가짜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대선기간 중 나돌았던 가짜 뉴스들의 대부분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고, 힐러리에겐 불리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가짜 기사들은 쓴 곳 중 'Ending the Fed' 라는 곳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가짜 뉴스를 통해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곳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다른 가짜뉴스 제작자들은 클릭을 유도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런 뉴스들이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퍼져서, 페이스북을 페이크북(FakeBook)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는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여 일단은 가짜 뉴스인지 사람들이 체크하도록 해서 그걸 보여주는 방식을 도입할 듯 하고, 후에 인공지능으로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기술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 2006년 12월 13일 RTBF 속보 사건

벨기에 공영방송 RTBF는 당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연방의 큰 축인) 플랑드르가 분리 독립을 선언했다”는 긴급뉴스를 내보냈다. 왕궁, 국회 등 주요 공공기관과 시설에 기자가 급파되어 현장 생방송을 진행하였고 주요 인사 인터뷰까지 내보냈다. 이 보도로 인하여 약 30분 동안 온 나라가 혼비백산이 되었던 끝에 RTBF는 “이 방송은 픽션입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는 ‘단일 국가 벨기에’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려는 ‘다큐-픽션’이었던 것이다. RTBF에는 각계의 비난이 쇄도하였다. 연방총치는 “현역 기자들을 동원한 공영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하였고,

사회당 당수 역시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남용했다, 이 땅에 이런 장난이 설 자리는 없다”며 규탄하였다.

마. 영향

언론은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데 우선 가짜뉴스는 전통적인 뉴스 산업과 저널리즘의 신뢰도 하락을 가속화시키며 정치와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게 적용한다는 것과 가짜 뉴스는 편 가르지와 거짓선동의 방법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민주주의의 폐해를 유발한다. 또한 가짜 뉴스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결정에 영향을 끼쳐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클뿐더러 가짜뉴스의 범람은 전통 언론사의 뉴스매체로서의 힘과 권위 상실을 야기하며 언론의 약화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가짜뉴스는 여론 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며, 제도와 공적 신뢰를 동시에 하락시켜 사회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허위정보에 노출된 시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이로인해 정치참여의 효능감이 떨어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가짜 뉴스의 인식조사에서도 가짜 뉴스의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짜 뉴스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견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가 40.3%, 약간 동의한다가 43.4%로 나타났고, 가짜 뉴스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가 48.1%, 약간 동의한다가 35.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2. 여론 조작

가. 정의

개인이나 공동체가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위. 본 보고서에서는 여론조작을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댓글이나 실시간 검색어 차트를 조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 댓글 : 인터넷 이용자들이 물리적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가상의 토론 공간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해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최근 댓글은 네티즌들의 토론과 지식 공유 수단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댓글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형성했다. 특히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의 SNS 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소셜 댓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뉴스 댓글 작성이 용이해졌다. 이로 인

해 개인의 온라인 뉴스 댓글 참여가 더욱 확대되었고 개인의 실시간 참여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여론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참여 확대와 온라인 뉴스 댓글의 증가는 정보 교류의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익명성을 악용한 무분별한 비난, 욕설, 인신공격 등의 악성 댓글 증가로 댓글문화 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2) 실검 (실시간 검색어) : 네이버의 급상승검색어는 '검색창으로 입력되는 검색어를 분석해 입력 횟수의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검색어 순서대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특정 기준 시간 내에 사용자가 검색창에 집중적으로 입력해 과거 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급격하게 상승한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 된다. 실검을 누른 인터넷 이용자가 관련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위가 오를수록 더 많은 언론사가 관련 기사를 작성한다.

나. 배경 및 원리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서비스'서버를 빌리고 킹크랩을 설치한다. 킹크랩에 기사와 댓글 등을 입력하면 연결된 휴대전화로 명령이 전달된다. 이 휴대전화는 네이버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며 이들이 원하는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한다. 킹크랩 시스템에 '작전관리' 창에는 인터넷 기사 주소(URL)와 공감·비공감, 댓글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작전배치' 창에는 잠수함(휴대전화)를 지정하고, '탄두입력란'에는 몇개의 아이디를 사용할지 입력한다. 가령 3개의 잠수함을 클릭해 탄두입력창에 각각 200개씩 아이디를 입력하면 자동 로그인을 반복하며 600개의 아이디가 순차적으로 공감을 클릭한다. 또 '지뢰관리창'에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어떤 기사에 어떤 댓글을 적을 것인지 작성된 엑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분 상위를 차지한 이 사건 댓글 50개는 킹크랩이 밤새 작동해 공감을 클릭한 것이었다."고 한다. 다음은 '댓글 조작사건'으로 구속된 김동원(드루킹)씨가 2014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드루킹 자료창고'에 남긴 글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댓글의 '순공감순' 정렬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댓글을 위로 올린 것이다. 순공감순 정렬 이전에는 '호감순'이 있고, 이 두 정렬 방법에 의해 베스트 댓글을 만들었다. 베스트 댓글은 순공감순 정렬 방법상 맨 위에 올라 기사를 읽은 누리꾼 70%가 이에 '공감'이나 '비공감'을 누르게 된다. 물론 모든 누리꾼이 누르는 것은 아니다. 순공감순이란, 공감 수에서 비공감 수를 뺀 것으로 이 숫자가 큰 순서대로 댓글이 배치되는 댓글 정렬 방법이다. 그런데 한번 베스트 댓글에 오르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유는 누리꾼들은 처음으로 보이는 댓글에 혹은 첫 화면에 노출된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누리꾼들은 남의 의견에 '싫어요'를 뜻하는 비공감에 클릭하기보다는 '좋아요', 즉 공감을 선호하는 특성 때문에 누군가의 조작이 있지 않은 한 영원히 베스트 댓글로 남게 된다.

다. 원인

1) 심리적 원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손석한 박사는 댓글조작의 심리적인 원인으로 4가지를 꼽았다.

가) 권력 욕구 : 댓글을 다는 사람은 '좋아요' 추천과 칭찬과 지지를 인정욕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인정욕구가 커지면 이는 권력욕구로 변할 수 있다. 인정욕구는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소극적인 자세라면 권력욕구는 이것이 꼭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적극적이고 강요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단지 댓글을 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정욕구'라고 한다면 댓글조회수를 조작하고 여러 아이디로 댓글을 남기는 사람은 '권력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권력 욕구'는 자신의 의도대로 여론이 조성되고 그것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반항을 일으킬 때 충족된다. 권력 욕구가 극대화되면 집단화, 세력화하며 이후에는 만족감과 같은 무형의 것 뿐 아니라 물질적 보상까지 바랄 수 있다. 만일 댓글조작에 보상이 주어진다면 여론 조작을 생업으로 여기는 정도로 극심해질 것이다.

나) 자기 신념의 확인 : 이는 자기 신념을 옳은 신념으로 확정짓고 댓글 조작의 부당성을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들은 옳은 신념을 퍼뜨리려면 논리적 설명보다 감정적 분위기를 이용해 대세를 형성해야 많은 사람이 따라온다고 확신한다.

다) 적개심의 발로 :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댓글 내용과 개수를 파악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대중의 속성을 이용해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며 댓글 조작을 한다. 이들은 상대방의 문제점을 부각해 대중의 혐오감과 증오감을 일으켜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낸다.

라) 양심의 결여 : 조작은 거짓말이자 반칙이며 반사회적 행동에 해당한다. 반사회적 행동을 감정의 동요 없이 하는 사람은 양심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댓글조작을 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가 피해 입을 수 있음을 무시한다.

마) 침묵의 나선이론 : 독일의 엘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이 1974년 제시한 여론을 '획일화의 압력'으로 보는 이론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기 위해 우세한 의견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을 인간들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정치적 원인

가) 정경유착 : 한국 사회에서 만연해져가는 정경유착은 이러한 여론 조작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론 조작에서 중요시되는 대기업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로, 많은 뉴스를 게재하고 거기에서 오는 광고료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 실시간 검색어를 업로드하는 기업들이다. 이 때 이러한 기업들은 정치와 관련된 뉴스가 올라와 정치계에서 특정 인들이 불호하거나 불편해하는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갔을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임의로 그 검색어를 끌어내려 검색 수가 계속 높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는, 사다리 꼴 형태를 이루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게 부정적인 뉴스가 있을 경우 해당 기사에 올라간 댓글 중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들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해당 정당이나 정파를 옹호하는 댓글을 쓰는 등의 일 역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나) 정치계에서의 암묵적인 조작의 허용 : 언제부터인가 정치계에서는 암묵적으로 여론 조작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이나 정파에 관련 없이 여론 조작을 하지 않은 곳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대다수가 대기업이나 언론을 통해, 혹은 특수한 '댓글 부대' 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해 나가는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부재한 채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불문율로 여겨지고 있다.

라. 사례

1)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은 보수 성향인 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 댓글로 여론 조작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드루킹 일당은 정부 여당에 인사 청탁 후 거부된 것에 반감에 갖고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작한 활동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경찰조사를 통해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문재인 정보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드루킹 일당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특별검사(특검)이 도입 되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과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서울 중앙지법은 2 드루킹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판결 내렸고, 김경수 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도지사 직을 상실하며 막을 내린다.

2) 용산 4구역 철거현장 화재 여론조작 사건

2006년 용산 4구역에서 총 30조원에 달하는 뉴타운이라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2007년 주거세입자나 임차상인에 대한 보상문제가 불거졌고, 생존권 보장과 관련한 시위가 벌어졌다. 세입자의 87%가 이미 협상 후 떠난 상태였으나 2008년 용산 제 4구역 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 내용에 반발하는 상가 세입자 26세대가 남아 2008년 4월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

하였다. 겨울부터 강제철거가 시작되었고, 아직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않은 철거민들은 농성에 돌입하였다. 서울시에서는 '동절기 철거 금지'원칙을 밝혔지만, 2009년 2월 착공을 목표로 강제철거가 시작되었다. 2009년철거대책위원회 회원들은 투쟁비용을 마련하고 화염병, 염산병을 제조한 뒤 전국철거민연합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2009년 1월 19일 새벽 3시경 용산 남일당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며 이주대책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성을 벌이며 경찰과 행인, 차량등을 상대로 화염병을 투척하였다. 그렇게 2009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 단순한 화재사건이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겠지만,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이 재개발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건물에서 농성 중이었고, 경찰의 진압에 철거민들이 화염병과 새총형 투석기 등 각종무기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명(철거민 2명, 전철연회원3명, 경찰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상자 1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다. 이후 이 참사의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불법 과격시위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라는 주장과 '과잉진압'이라는 주장이 부딪히며, 당시 논란이 벌어졌다. 철거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있었지만 경찰은 이들을 막지 않았다. 당시 철거업체 직원은 주제넘게 농성을 막아보겠다고 개입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폭력이었다고 고백하며 결국 직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 자신들을 저지하지 않은 건 이상하다고 전했다. 또한 소방관 호스를 연결해서 농성주민들을 쏜 것도 경찰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두 달 뒤 지휘부는 모두 승진하였고, 또한 용산참사를 본따 대테러훈련을 진행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수사국은 여론조성에 나섰다. 직원 1명당 1일 10회 댓글을 적으라고 시키기도 하고, 900명의 인터넷 요원들을 가동한 정황이 밝혀졌으며 이는 최초의 조직적인 댓글 부대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언론계 인사를 이용해 용산참사를 옹호하는 칼럼을 쓰게 하고 등의 용산참사를 덮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이처럼 고위층의 세력이 시민들의 아픔과 죽음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덮어버리고, 돈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주변에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다.

Ⅲ. 결론

1. 해결 방안

가. 가짜 뉴스와 댓글 실검 조작을 없애는 방법: 생산자 측면

1) 언론 조작 방지 및 시민의 인식 향상 관련 시민 단체 기구 조직

가) 경고 마크 부여 시스템 도입

각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조사하여 허위 사실 유포나 왜곡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위원회의 규제서 벗어난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에게 경고 마크를 부여하여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한다. 이때, 언론의 탄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벌은 하지 않고 시민들의 판단에 맡긴다.

나) 언론사 신뢰 등급제 도입

경고 마크의 빈도수에 따라 언론사의 신뢰 등급을 부여한다. 이 등급을 통해 언론사는 자사의 언론 수준을 더 개선할 수 있고, 언론소비자들은 언론사 별 신뢰 등급을 통해 거짓, 허위 보도보다 공정 보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2) 언론 aggregator (여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사이트) 제작

언론 aggregator (여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모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사이트)를 제작하여 인공지능이 특정 사건에 대한 모든 언론사의 보도를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해당 키워드 검색을 하면 그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쭉 나열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이 한 사건이나 수치에 대한 모든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나. 가짜뉴스와 댓글, 실검 조작으로 인한 편향된 여론 형성을 막는 방법: 소비자 측면

1)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방법을 인터넷에 캠페인 등으로 널리 보급한다.

2) 중, 고등학교 정보 교과에 언론 조작, 여론 조작에 대한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서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한다.

3) 생산자 측면의 해결방안에서 언급한 시민단체의 주도하에 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 구별 메뉴얼을 마련하고 기사에 들어갈 때마다 그 내용이 담긴 알림 팝업을 뜰 수 있게끔 설정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보다 더 분별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

참고 문헌

(1)원우현. 1982. 경문사.

(2)천재교육 편집부. 연도미정.《다음백과》.

(3)김진우, 조혜인, 이봉규. 2018. 온라인 뉴스 베스트 댓글의 특성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9(8), 1489-1497.

(4)다응백과. 연도미정.《다음백과》.

(5)두산 다음백과. 연도미정.《정파 저널리즘》.

(6) Craig Silverman. 2016.11.16. “This Analysis Shows How Viral Fake Election News Stories Outperformed Real News On Facebook”.《BuzzFeed News》.

(7) 조은희. 2019.「뉴스 미디어의 이용과 신뢰가 가짜 뉴스의 인식, 식별,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8) 장성주. 2018.05.16. “檢, 드루킹 댓글조작 '킹크랩' 사용법 공개”.《노컷뉴스》

(9) 강준만. 2013.06.28.「대중문화의 겉과 속 - 침묵의 나선 이론」.《다음백과》

(10) 에듀윌 상식연구소. 2019. 05「에듀윌 시사상식 -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다음백과》

| 뉴스데스크 대본 |

오프닝 - 앵커 사건 발생 얘기 - 홍혜연 기자가 상황 설명 - 관계자 인터뷰 - 앵커의 의견(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 이 사건에 대한 분석 및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다 - 전문가 원인(앵커가 질문하고 대답) - 앵커 진행 - 전문가 해결방안(앵커가 질문하고 대답) - 앵커 클로징 멘트

역할 : 앵커 2명(박혜상, 정의준), 관계자(주에스더), 원인 전문가(홍혜연, 정은혜), 해결 전문가(김하은), 기자(홍혜연)

(뉴스 BGM이 재생된다. 20초)

(오프닝 멘트)

앵커 1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IHS 9시 뉴스 박혜상, 정의준입니다.

앵커 2 : 최근 드루킹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에 따라 가짜뉴스, 실시간 검색어 및 댓글 조작이 큰 논란입니다. 이와 같은 언론 조작이 편향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되고 왜곡된 보도가 소비자들의 계층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2 :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김모 씨 일당의 '여론 조작 사건'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앵커 1 : 어제 김모 씨가 현장에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홍혜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혜연 기자?

기자 : (3초 기다리고) 네, 저는 지금 킹크랩 검거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김모 씨는 황의원 국회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황의원의 국밥 무전취식 협의를 숨기기 위해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모 씨는 유사언론 사이트를 제작하여 황의원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 조작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관계자 : 아... 그냥 뭐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서비스 서버를 빌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공감 수와 댓글을 조작한 것입니다.

기자: 아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관계자 : 킹크랩 시스템에 '작전관리' 창에는 인터넷 기사 주소와 공감·비공감, 댓글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작전배치' 창에는 휴대전화, 전문용어로 잠수함이라 하죠. 암튼 잠수함을 지정하고, '탄두입력란'에는 몇 개의 아이디를 사용할지 입력합니다. 가령 3개의 잠수함을 클릭해 탄두 입력창에 각각 200개씩 아이디를 입력하면 자동 로그인을 반복하며 600개의 아이디가 순차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그런 겁니다 예 뭐...

기자 : 네. 언론 조작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나와있던 홍혜연이었습니다.

앵커 1 : 네, 홍혜연 기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앵커 2 : 언론 조작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주에스더, 홍혜연 씨를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앵커 1 : 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짜뉴스는 어디서부터, 대체 왜 생겨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 : 가짜뉴스의 원인 중 심리적인 측면으로는 주로 확증편향을 들 수 있습니다. 확증편향은 자신의 견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취하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라 하더라도 거짓된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 : 정치적인 원인으로는 언론의 정체성을 잃고 타락하기 현상이 있습니다. 언론들이 기득권에 의존하여 정부나 대기업 등 기득권의 요구 혹은 성향에 맞추어 기사를 작성하는 관습이 현재까지 이어져 이러한 가짜뉴스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1: 언론과 정치의 유착 관계가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가짜뉴스의 사회적 원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 :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언론에서의 공정성과 정확성보다 당장의 조회수 증가로 인한 수익구조 때문에 기자로서의 직업윤리의 부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의 직업윤리가 희박해지고, 기자로서의 취재훈련이 소홀해진것이 원인입니다.

전문가 : 둘째로는 가치관, 세계관을 앞세워 정파성을 공정보도에 앞세우는 사회의 흐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보도에 있어 공정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보도지침보다는 정치적인 색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가 가짜뉴스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앵커 2 : 킹크랩 사태에서 보았듯이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댓글이나 실검 조작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댓글, 실시간 검색어 조작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 : 한국 사회에서 만연해져가는 정언유착은 이러한 여론 조작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계에서의 암묵적인 조작의 허용 역시 문제입니다. 정당이나 정파에 관련없이 여론 조작을 하지 않은 곳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대다수가 대기업이나 언론을 통해, 혹은 특수한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해나가는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부재한 채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불문율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1 :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도 정치 분야가 가장 큰 원인이군요. (쉬고) 지금까지 주에스더, 홍혜연 교수님과 함께 여론 조작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앵커 2 : 네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론조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여론 조작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정은혜 전문가님을 모셔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1년동안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요, 우선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 : 네 그러면 생산자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전문가 : 생산자 측면에서는 언론 조작 방지 및 가짜 뉴스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시민 단체 기구를 조직해야 합니다. 시민 단체 조직 시 비정부기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정치와 언론의 유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앵커 2 : 아 정부에서 기구를 조직하게 되면 언론의 탄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민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군요.

전문가 : 맞습니다. 여러 신문사의 기사를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조사하여 허위사실 유포나 왜곡 여부를 판단하고 매체에 대한 패널티제도와 신뢰등급제를 실시해야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언론사는 자사의 언론 수준을 더 개선할 수 있고, 언론소비자들은 신뢰 등급을 통해 거짓 보도를 걸러내고 공정 보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앵커 2 :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기구를 조직해 활동하면서 언론의 공정성을 등급화하려는 것이군요.

전문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규제제도를 확립하는 것 외에도 언론 aggregator, 즉 하나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인공지능이 특정 사건에 대한 모든 언론사의 보도를 수집하고 특정 부분만 추출하여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당 사이트가 개설되면 사람들이 특정 사실에 대해 다루는 모든 언론사의 보도를 한꺼번에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1 : 그렇다면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 측면에서 여론 조작과 언론 조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 첫번째로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 방법을 인터넷에 널리 보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서 선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별 방법을 간단히 표로 만들어 대중매체에 공급하는 것이죠.

앵커 2 : 거짓정보를 전달하는 가짜뉴스나 조작에 의해 편향된 댓글과 같은 왜곡된 여론은 미래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래세대를 위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의무화로써 미래세대의 정보 분별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정보 교과에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포함되고 이것이 모든 학교에서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실시된다면 정보를 분별해 받아들이는 의식있는 시민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2 : 네 지금까지 정은혜 전문가를 모시고 생산자와 소비자 측면에서 여론 조작 및 언론 조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클로징 멘트)

앵커 1 : 독일의 철학자 크리스티안 가르베는 "여론이란 한 나라의 시민 상당수가 주어진 문제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에 대한 개인적 반성 및 지식의 결과로 도출해낸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2 : 나라의 문제를 인지하고 합의하여 이성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여론은 지금, 언론의 가짜뉴스와 조작된 실시간 검색어와 댓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1 : 편향된 측면에서 생성된 여론은 올바른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이끌어진 국가 역시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편향된 사고와 조작된 여론의 심각성을 재고하여 더 나은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앵커 2 : 이상으로 IIHS 9시 뉴스 마칩니다.

앵커 1 :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나는 BGM)

(앵커끼리 종이 정리 탁탁하고 서로 인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사회 형성

10301김민서 10304김은지 10306박서현
10309안가은 10317김주호 10320유건재

I. 주제 선정

1. 주제 선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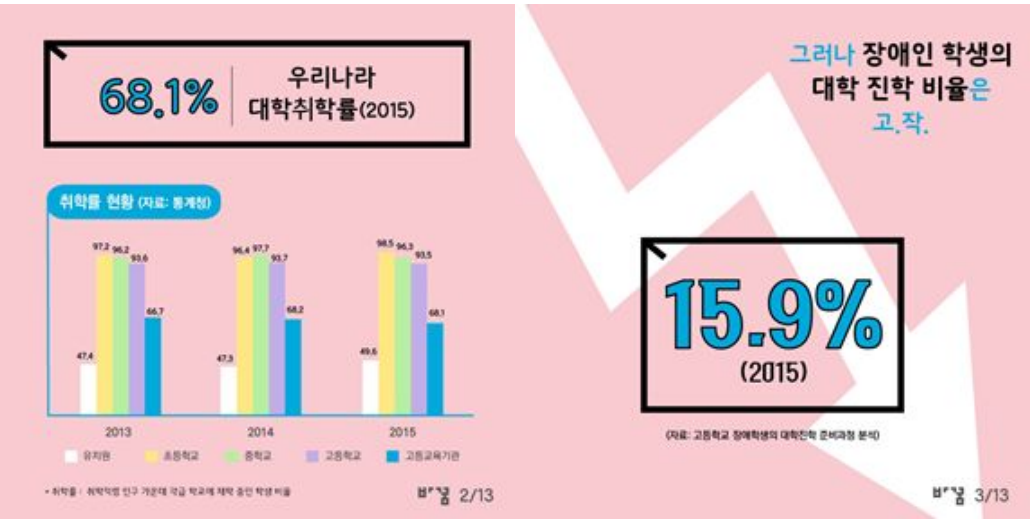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공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었다. 여러 신문기사와 뉴스를 통해 가장 크게 교육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은 장애인 학생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주제의 필요성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정책과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완화시켜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장애인 청소년 대학취학률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대학취학률*은 68.1%이다.[1] 그러나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과정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학생의 대학 진학 비율은 고작 15.9% 밖에 되지 않는다.[2] 그 원인에는 대학입시제도의 부재와 비장애 학생들을 중심으로 편중된 입시정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 학생에 대한 낮은 기대, 대학 내 장애인 배려 시설 부족, 교육격차 등이 있다.

*취학률: 취학적령 인구 가운데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

2. 장애인 교육격차 현황

1) 통계청: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 통계청: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시각장애인 숫자는 대략 25만 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점자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약 70% 가량인 17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점자책이다. 지난해 점자법 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점자책을 만들도록 하고 있지만 각종 참고서나 필독서 등 학습도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필수적인 교육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 의무교육와 무상교육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들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점자 문제집과 자막 인터넷강의 부족, 점자교과서 보급 지체와 같은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다양한 교육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3. 장애인 교육격차 원인

가. 시각장애인

1. 학교별로 개학 직전까지 교과서 채택을 늦추거나 채택한 교과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교육부에서 점역 교과서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 각 출판사가 저작권 문제를 핑계로 파일 제공을 꺼리거나 교재가 출간된 이후에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점역 교과서 제공이 늦춰진다.
3. 시판 문제집은 시각장애인용이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4. EBS 교재는 초등~고교 1·2학년까지는 점역본이 나오지 않고, 고교 3학년용 수능연계 문제집만 점역 교재로 제공된다.
5. EBS 교재 속 영어 지문과 도형은 점자로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청각장애인

1. 수어나 자막을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가 부족해 청각 장애인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
2. 수어 통역사가 없으면 현장 수업을 듣기 어렵다.
3. 현재 자막이 달린 공무원 시험용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공공기관인 EBS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강의 내용이 오래되었거나 사설 학원에서 제공하는 공무원 시험 강의보다 강의 수가 훨씬 적다.

다. 지체장애인

1. 근육을 잘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들은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하기 어렵다
2.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습 보조 공학 기기의 경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E -BOT 어드밴스

3,340,000 원

장바구니 | 새창열기

쓰기보조도구 2

292,000 원

장바구니 | 새창열기

△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습 보조 공학 기기와 그 가격[3)]

III. 용어정의

1. 공정하다

공평하고 올바르다

2. 교육격차[4)]

지역과 제도적 요인, 학교 특성, 개인의 지적 능력, 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따위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수준 차이

3) 아이소리몰(보조공학기기):https://isorimall.com/catalog/ProdList.asp?cate1=1004

4)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89e5ad256efe4771ada1c663aad8674d

3. 기회의 평등[5)]

사회의 모든 제도 및 사회적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

4. 사회적 기업[6)]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IV. 해결방안

1. 사업 제안서

신규 사업 제안서

제안 일자	2019년 12월 13일	제안자	김민서, 김주호 외 4인
제안 분야	교육 서비스업	사업 목표	사회적 소외 계층 대상 교육
주요 시장	점역 교재 및 보조 공학 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및 특수학교		
사업 제목	WINFREE		
개요	장애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사업체 제안 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역 교재 제작 및 판매 ② 장애인을 위한 학습용 보조 공학 기기 판매 및 부분 무상 지원		

사업 동기 및 가치	전국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점역교재 수요는 많지만, 이윤추구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들은 일반교재에 비해 수요가 확연히 적고, 생산과정이 복잡한 점역교재를 생산하지 않는다. 수능 연계율이 70%인 EBS마저 점역교재는 6월이 다 되어서야 출판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불공정에 부딪힌다. 본 사업은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5)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entry/koko/806027667da74019b3b78c14c9709779

6) 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77999&cid=40942&categoryId=31822

	제공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령별, 과목별 문제집 및 자습서 생산을 제안한다. 또한 신체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학습용 보조 공학 기기를 생산 및 판매, 부분적 무상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지체장애인들의 교육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한다.
시장 규모 및 성장성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시각장애인 숫자는 대략 25만 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점자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약 70% 가량인 17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능연계 문제집 점역교재는 일반 교재보다 늦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초등~고교 1・2학년의 점역교재는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 공학 기기를 고용 유지 조건이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유지조건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진다. 학습용 보조 공학 기기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시각장애인은 다양한 교재를 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폭넓은 공부의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학습용 보조 공학 기기의 제공 부재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경쟁 환경	점역교재 생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극소수이며, EBS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교재부터 점역교재를 생산하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이얍' 사이트를 통해 점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7권 3000페이지 까지 대학교재에 대한 점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및 생산 계획	㈜에이블 디자인스, ㈜아이루페의 제로레스체어, 스마트룩스 비롯 장애인 보조 공학 기구들의 특허권을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다.

7)

본 사업은 점역 교재를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역교재 제공과,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체장애 학생들에 대한 학습 보조 공학 기기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본사는 먼저 점역본을 제공하지 않는 사설 문제집들에 대한 대안으로써 점역 문제집을 출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합니다. 초등, 중등, 고등 모든 학년에 대한 문제집을 각 과목별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교육기회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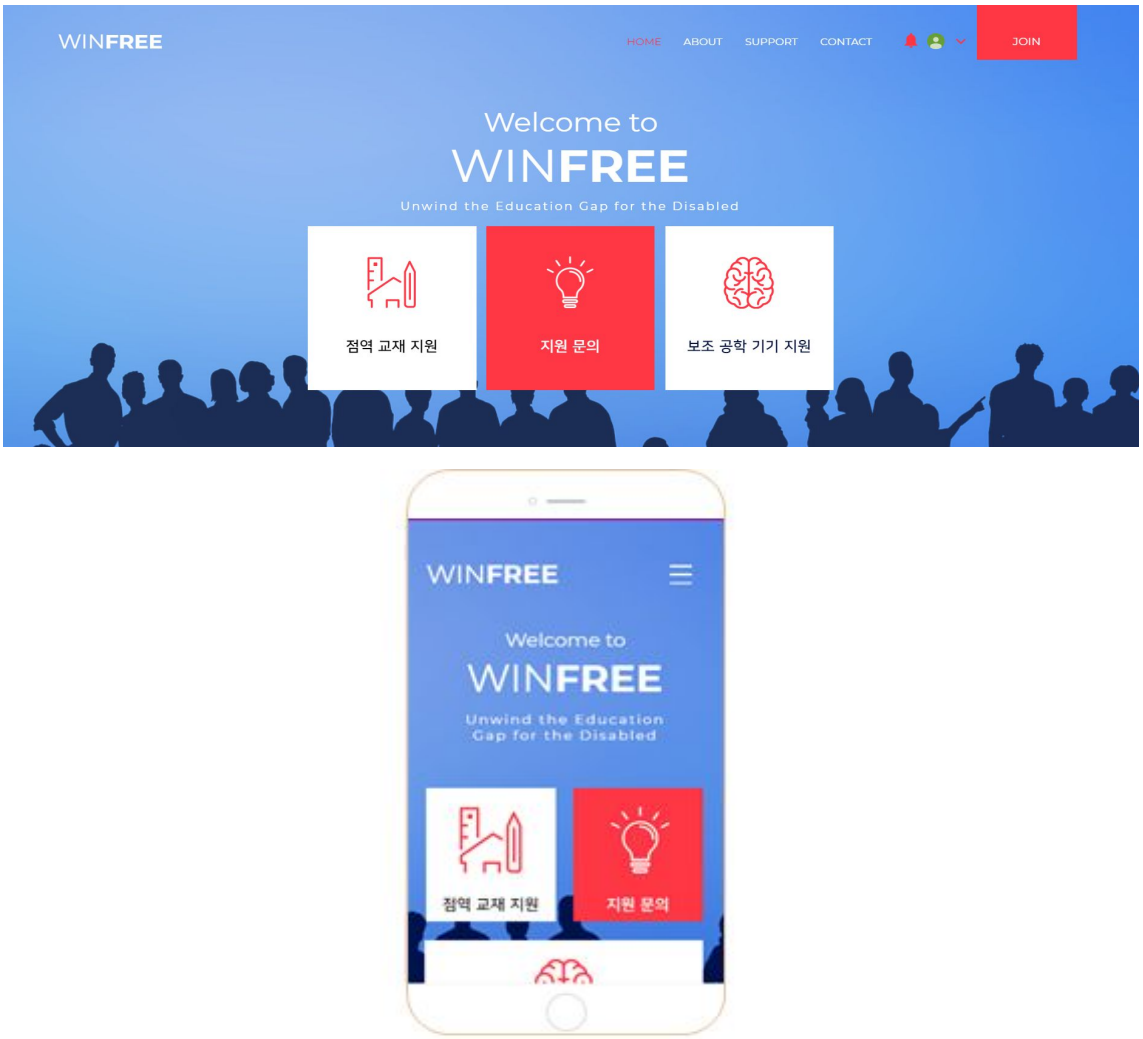
모든 지체 장애 학생들이 학습능력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체 장애 학생들은 학습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에 방해를 받습니다. 지체장애 학습 보조 공학 기기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30941001&code=940100

㈜에이블 디자인스, ㈜ 아이루페 의 특허발명/기술에 대한 제조권, 사용권, 판매권 등을 구매하고 생산 공정을 구성하여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습 보조 공학 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것입니다.

본 사업체의 이름인 'WINFREE' 는 '극복하다', '마침내 자유를 얻다'라는 뜻의 영어 숙어인 'win free'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것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쳐 공정한 교육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극복할 힘, 마침내 자유를 얻을 힘을 주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활동으로도 실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이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WINFREE'는 저소득층 장애학생을 위한 보조 공학 기기 무상지원을 통해 사회적 미덕과 우리의 비전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 PC 및 모바일 지원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

2. 정책 제안서

정 책 제 안 서

1. 제안배경

최근 교육에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 장애 학생들이 공정하게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플랫폼은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정안학생들에게는 1월달에 발급되는 수능 연계 교재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6월달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재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장애인 학생의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점자 교재 제작에 참여했으나, 시간과 비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내용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첫째, 점자 책을 보급하는 WINFREE 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EBS 점역교재를 발행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장애 학생의 학습을 도울 것을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EBS 에서는 시간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정안학생들의 교재에 비해 4개월이나 늦게 발급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WINFREE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모든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EBS와 달리 점역 교재만을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러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인터넷 강의 회사들에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청각 집중적 강의 제공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는 다수의 인터넷 강의들은 청각 장애인 학생들이 단순 배속 조절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청각 집중적 인터넷 강의를 제작할 것을 국가 차원에서 권고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청력 손실로 인해 인터넷 강의를 온전히 수강할 수 없는 청각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인터넷강의 사이트에 자막을 함께

제공할 것을 권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칠판의 판서만으로 강의를 수강하여 온전히 학습하기 어려운 청각 장애인 학생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 첫째, 수능 연계 교재 발급일을 동일화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일보의 두 달 전 쓰인 기사에 따르면,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풀어야 할 필수 교재인 수능 연계 EBS교재의 점역본이 6월 모의평가가 있는 6월에 발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똑같은 시간을 두고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공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각 학교에서는 다음 년도에 채택할 검인정 교과서를 미리 결정하여 교육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 교육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학교에서 출판사에서 저작권 문제를 핑계로 들어 파일 제공을 꺼린다는 이유로 개학 직전까지 검인정 교과서 채택을 늦추거나, 채택한 교과서 정보를 알려 주지 않아 채택된 교과서를 파일로 만든 후 점역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점역 교과서를 정안 학생들과 같은 시기에 공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장애 학생들은 교과서 앞부분만 일부 점역된 교과서로 수업을 하거나 정안 학생들에 비해 한참 늦게 교과서를 받아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의 김재왕 변호사에 따르면 장애 학생들의 점역을 위해 필요한 파일은 시중에 유통되는 형태의 한글 파일이 아닌 암호화된 파일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들어 파일 제공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출판사의 핑계일 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3. 기대 효과

앞서 언급했던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능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제때 문제집을 점역하여 보급함으로써 비장애 학생과의 형평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습하는 데 있어 교과서나 연계 교재와 같이 기본적인 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모두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강의를 듣고 자료를 접하면서 자료의 접근성과 더불어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 자료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의 제안을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V. 결과

1. 결론 및 의의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많은 불공정한 사례 중에서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신문기사와 뉴스를 보고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학생들 간의 교육격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사회 형성'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역 교재 제작 및 판매, 장애인을 위한 학습용 보조 공학 기기 판매 및 부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더불어, '점자 책을 보급하는 WINFREE 에게 보조금 지원 요청,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인터넷 강의 회사들에게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청각 집중적 강의를 제공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인터넷강의 사이트에 자막 제공 권고, 시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수능 연계 교재 발급일을 동일화하는 법률 제정 요청, 각 학교에서 다음 년도에 채택할 검인정 교과서를 미리 결정하여 교육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 요청'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우리가 제안한 사업이 실행되고 정책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갖출 수 있고 모든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문제가 많던 교재 대신 정확한 점역 과정을 거친 점자 교과를 빠르게 제공받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사업과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다수의 장애 학생들이 더욱 더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프로젝트의 목표인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사회 형성'을 실현할 수 있다.

2. 한계

- 제안한 정책이 실현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안과 정부의 지원금을 알 수 없어 정책의 실현 가능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 국가기관이나 각종 인터넷 강의 회사로부터 사업 계획과 자막 제공을 권고한다는 정책 제안 사항을 사전에 문의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을 인증받지 못하였다는 한 계점을 갖는다.

참고문헌 및 자료

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77999&cid=40942&categoryId=31822
통계청: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국민일보:http://m.kmib.co.kr/view.asp?arcid=0006374955#RedyAi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3094100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1200911001
복지뉴스:https://www.jejurehab.or.kr:49288/news/31610
동아일보: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16/97895454/1
EBS 장애인 서비스:https://www.ebs.co.kr/free
DbPia 논문: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41850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06027667da74019b3b78c14c9709779
https://ko.dict.naver.com/#/entry/koko/89e5ad256efe4771ada1c663aad8674d
미디어 오늘 뉴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086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준비과정 분석(국립특수교육원, 2015):
https://www.nise.go.kr/main.do?s=nise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단체: http://change2020.org/
아이소리몰(보조공학기기):https://isorimall.com/catalog/ProdList.asp?cate1=1004

4장

사회 | 역사 | 철학

성과주의 사회가 야기한 불공정한 역사 기록 : 위인 미화를 중심으로
| 보고서, 신문사설, 출판사 독자투고

영화로 알아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공정은 어디에?
| 보고서, 카드뉴스, 모의고사, 영상

게임으로 바라본 현대사회의 불평등
| 보고서

노키즈존 해결방안 : 공정을 중심으로
| 보고서

키오스크로 인한 불공정 – 세대격차 측면 / 노동자 측면
| 보고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 보고서, 정책제안서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 책

성과주의 사회가 야기한 불공정한 역사 기록 : 위인 미화를 중심으로

10102 강민서 10103 김민교 10104 김민정
10105 김윤민 10123 이태양 10124 최재헌

Ⅰ. 서론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인터넷 서점 Y사, A사에 '위인'을 검색하면 나오는 결과는 무려 3227건, 7641건에 이른다. 그렇다면 위인이란 무엇일까? 위인전에 쓰이는 위인(偉人)의 의미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동음이의어인 또 다른 위인의 의미에 주목하였다. 위인(爲人)은 사람의 됨됨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위인(偉人)들의 됨됨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읽어오는 위인전에서 많은 학생들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다. 또한 부모님들은 흔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 위인전에 실려라'라고 말씀하시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위인전에 실린 위인의 '업적'에만 집중하여 그들을 칭송해온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성과주의 사회'의 여파가 미친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지금까지 편향된 시각에서 평가된 그들의 이면을 파헤쳐 학생들 및 위인전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출판사에 미화 요소가 들어간 위인전 수정 또는 공지를 요청하고 신문사 사설란에 투고를 진행하여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를 높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정기고사 서답형 문제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인 '김활란'이 출제되었다. 시험이 끝나고 위인전에 많이 나오는 김활란이 친일파인지 몰랐다며 이번 시험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는 학생들을 상당수 볼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김활란을 조선의 여성 인권 신장 운동가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반성하게 되었다. 팀 내에서 이러한 화제로 토의가 진행되자 역사적으로 미화되어 위인전

에 자주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의 시발점이 성과주의 사회의 폐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 및 위인전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주의 사회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Ⅲ. 연구 방법

업적만을 중시하는 편향된 시각으로 평가된 위인들과 그들의 '미화되지 않은' 생애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역사적으로 미화된 대표적인 위인들은 총 6명으로 간디, 테레사, 에디슨, 김활란, 안익태, 마틴 루터 킹이 있다. 객관적인 정보를 위해 공식적인 신문기사들을 조사했고, 관련된 전문적인 서적을 참고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역사적으로 미화된 대표적인 위인

가. 마하트마 간디

간디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평화적으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추진하여 성공하였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면이 존재하였다. 영국 사회학자 Jad Adams(2012)에 따르면, 간디는 매일 밤 증손녀뻘부터 딸뻘까지의 여성들을 데려와 나체 상태로 동침하였다. 이들 여성 중에는 간디 개인비서의 여동생이었던 수실라 나야르도 있었으며 증손녀였던 18세의 마누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간디의 암자에 있던 추종자들의 부인도 그의 침대에 불려 들어가곤 했다. 간디는 당시 이들 부부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간디의 이런 태도는 그에게 가장 헌신적이었던 이들조차 일부 불만을 표시하게 만들었다. 또한 간디는 평소 흑인을 Kaffirs(깜둥이)라고 낮추어 불렀을 뿐 아니라 미개하고 상스러우며 나태하고 벌거벗은 삶을 사는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무시하였다. 한 사례로 간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우체국의 출입문이 백인용과 흑인용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인도인이 흑인과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인도인용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 간디는 '우리는 너무나 큰 모욕을 느꼈고 당국에 청원해 토착인(흑인), 아시아인, 유럽인을 위한 3개의 다른 출입문이 생겼다'고 말했다.

나. 테레사

테레사 수녀는 평생 가난하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하지만 동시에 테레사 수녀는 사회적 모순과 불의의 원인인, 사회문제로 보아야 할 가난을 하늘의 뜻이라며 왜곡하고 캘커타 민중들의 계급투쟁 전통을 방해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인도주의자, 박애주의자라는 찬양을, 민중들에게는 부자들의 성녀라는 냉소를 받았다. Christopher Hitchens(2012)는 저서에서 테레사의 비리를 폭로했다. 히친스는 이 책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선교 정치와 성녀 만들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더 테레사의 정치적인 면모를 파헤치며 마더 테레사는 정치화한 교황 체제가 파견한 종교사업가라고 주장한다. 히친스는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회'가 보여준 가난에 대한 방관적 태도, 기부금에 대한 불투명한 출처와 사용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결코 성녀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치적 선전을 주도하는 인물이었다고 비판한다. 또한, 그녀는 '고통은 신으로부터의 선물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세상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무자비하고 경멸적인 진술을 하였다. 그녀는 가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고 세계 각지의 후원과 구호 물품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대화된 의료 장비를 갖추는 것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죽어갔다.

다. 토머스 에디슨

에디슨은 백열전구를 발명하였지만 자신과 라이벌 구도에 있던 테슬라의 교류 전기가 장점과 비용 대비 우수성이 점점 더 뛰어나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직류 전기 사업에 위험을 느껴 비도덕적인 행위를 감행했다. 그는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에 대항하는 방편으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 대신 브라운이라는 인물을 앞세웠다. 그는 뉴욕주 전기 제어 위원회 회원 전원, 전기 조명 회사 대표자들, 전기 조합 중요 회원들, 언론사 직원들을 초대하여 동물 실험을 통해 교류 시스템의 위험성을 증명하였다. 커다란 검정 리트리버 한 마리를 끌고 강의실에 들어와 나무 우리에 집어넣고 결박한 다음 리트리버의 다리에 전극을 부착하여 300V, 400V, 600V 전기를 높여 흐르게 하자 리트리버는 격렬하게 떨며 낑낑거렸다. 브라운이 전압을 1000V로 올리자 리트리버는 낑낑대며 고통에 찬 소리를 내며 세차게 떨었다. 그는 일부 청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험을 진행하였고 결국 300V를 맞게 된 리트리버는 죽었다. 그는 청중들에게 지난 한 달간 수없이 많은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다고 보증하며 교류 때문에 개가 즉시 죽었다고 주장했다. 후에는 더 큰 동물들로 확장되어 송아지, 말 등이 희생당하였다. 이러한 동물 실험을 통해 전기의자를 만들고 주지사를 회유해서 그것을 사형 도구로 쓰게끔 만들었다.

라. 김활란

김활란은 이화여대 초대총장을 맡으며 조선의 여성 인권 신장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1936년 이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변절했다. 이화학당의 고등부를 거쳐 1918년 이화학당 대학부를 졸업하고 중앙기독교청년회에서 활동하다가 여자 YMCA를 독립, 1923년 유각경 등과 함께 조선중앙여성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였다.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 학,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 후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교사와 교감, 부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허나 그녀는 1936년 전후로 일본의 강경노선에 따라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하였다. 강연, 논술 활동을 하는 한편 1941년 창씨개명 후 전시 체제에 협력하여 칼럼, 강연, 학도병 독려 등의 활동을 펼쳤다. 여러 잡지에 '징병제와 반도여성의 각오', '뒷일은 우리가', '남자에 지지 않게 황국 여성으로서 사명을 완수' 등의 글을 발표하며 조선 민중들에게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활발하게 종용하는 적극적인 친일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그녀의 일제강점기 활동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 2조 제 11·13·17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4: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 734~789)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마. 안익태

안익태는 애국가의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애국가를 작곡한 그는 동시에 친일 활동과 친나치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해영(2019)에 따르면 1944년 히틀러의 생일 기념으로 파리에서 열린 '베토벤 페스티벌'을 비롯해 동맹국(독일, 이탈리아)과 프랑스에서 30차례의 공연을 지휘한다. 특히 그는 나치 독일에서 유일한 조선 출신 제국음악원 회원이 됐다. 그 회원증에서 그는 출생지를 평양이 아닌 도쿄로 속여서 적기도 했다. 그는 1941년 7월 11일 독일 방송국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방송 타워에서, 1942년 2월 6일 하노버에서 니더작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그가 유럽에서 펼쳤던 활동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일본 스파이 에하라 고이치는 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독일·일본 협회는 그를 후원하거나 연주회를 주최했다.

바. 마틴 루터 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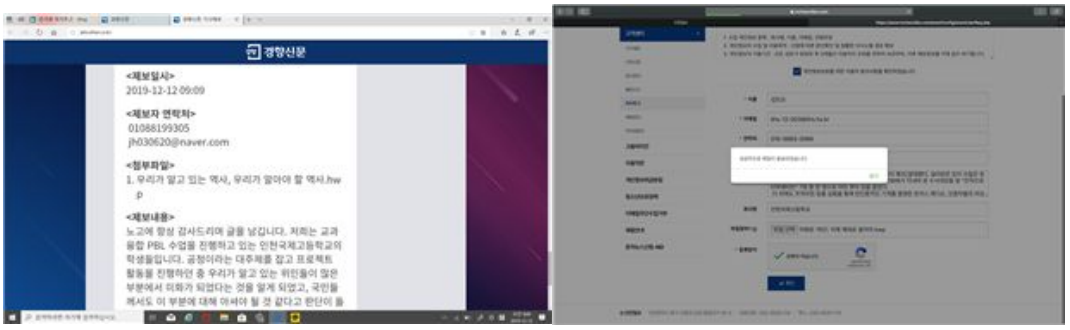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흑인 운동 지도자이자 목사로 비폭력운동을 전개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난잡한 성생활 실태를 소상히 추적, 묘사한 미연방수사국 (FBI)의 기록이 공개됐다. '킹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문서는 킹이 포드 재단에서 받은 돈으로 1968년 2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2주간의 흑인 성직자 리더십 워크샵을 열었는데, 이 워크샵에서 참석했던 한 목사가 워크샵 뒤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음주, 음행, 동성애에 역겨움을

느꼈다고 적혀있다. 또한, 마이애미에 있는 흑인과 백인 매춘부를 불러 테이블을 위스키로 가득 채운 상태로 파티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두 명의 흑인 매춘부가 게스트들을 위해 성행위 퍼포먼스를 50달러에 받고 했다는 말 또한 기재됐다. 킹은 미국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하면서 스스로를 고귀한 존재로 대중에게 알렸지만 사실은 위선자였다. FBI 문서에 킹 목사는 로스앤젤레스의 유명한 흑인 치과의사 아내와도 불륜을 저질러 아이를 낳고 양육비를 제공했으며, 당시 미국의 유명한 인권 가수였던 조안 바에즈를 비롯해 3명 이상의 여성과 깊은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2. 해결방안

자유롭게 독자투고 할 수 있는 신문 사설 제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제점들을 알렸다. 여러 언론 중 경향신문, 네이처포스트, 한겨레, 중앙일보, 인천일보의 사설란에 기재될 수 있도록 독자투고를 하였다.

〈그림 Ⅳ-1, Ⅳ-2〉 경향신문과 인천일보 사설란에 독자투고



또한, 위인전을 집필하는 출판사에 편파적인 평가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독자투고를 진행하였다. 특정 위인전을 선정하여 해당 위인전을 집필한 출판사 한국 헤르만 헤세, 효리원, 비룡소, 예림당, 창비, 자음과 모음에 독자투고를 하여 이미 출판된 위인전 중에서 그 위인의 이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책은 출판사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오류를 밝히고, 앞으로 출판을 계획 중인 위인전은 보다 단계적이고 상세한 검토 후 공정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림 Ⅳ-3, Ⅳ-4〉 창비와 비룡소에 독자투고

Ⅴ. 요약 및 결론

사람들은 지금까지 위인들의 업적, 즉 성과만을 부각하고 편향된 시각에서 과거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미화한 위인전만을 봐왔을지 모른다. 이는 위인전을 읽고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며 성장하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현재 심화되고 있는 성과주의 사회의 폐해로 볼 수도 있다. 물론 그들의 업적은 칭송받아 마땅하고 또 위대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정당화되고 상쇄될 수 있을까? 지금은 성과주의의 양상이 비교적 작은 분야인 위인전의 미화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에 더 심각한 성과주의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결방안들을 실천하면서 역사 미화, 성과주의 사회, 개인의 알 권리 침해 등의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참고 문헌

이해영. 2019.『안익태 케이스』, 삼인.

Adams, Jad. 2012. Gandhi: The True Man Behind Modern India. Pegasus Books.

Hitchens, Christopher./ Mallon, Thomas. 2012. The Missionary Position: Mother Teresa in Theory and Practice. Grand Central Pub

| 신문사설 독자투고 01 |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우리가 알아야 할 역사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최재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화여자대학교의 총장이었던 김활란, 인도의 민족해방운동 지도자로서 20년 동안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진행한 인도의 간디, 미국의 흑인 운동 지도자이자 목사로서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남기고 흑인 인권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신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위인들이다. 때문에 이들이 위인이라는 것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위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미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김활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그녀는 1936년을 전후로 하여 일본의 강경노선에 따라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하였다. 1941년 창씨개명 후 전시 체제에 협력하여 칼럼, 강연, 학도병 독려 등의 수많은 활동을 펼쳤으며, 여러 강연을 통해 조선 민중들에게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활발하게 종용하는 친일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매일신보에 일본군 위안부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수백 편 쓰는가 하면 내선일체를 찬양하는 글도 쓰곤 했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한 과거 그녀의 친일행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I 대학교에는 김활란 동상이 세워져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매년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철거에 대한 요구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인도의 평화운동가 간디 역시도 업적만 봤을 때는 뛰어난 민족지도자였지만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 그의 내막을 고려하였을 때도 과연 그를 위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 국민일보에 따르면 간디는 매일 밤 증손녀뻘부터 딸뻘까지의 여성들을 데려와 나체 상태로 동침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그는 여성들을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대했고,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에게 가장 헌신적이었던 이들조차도 불만을 표시하게 만들었다. 또한, 간디는 평소 흑인을 Kaffirs(깜둥이)라고 낮추어 불렀을 뿐만 아니라, 미개하고 상스러우며 나태하고 벌거벗은 삶을 사는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무시하였다. 2018년 12월 14일자 BBC 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간디의 인종차별 행적에 대항하여 2018년 가나 이크라에 위치한 가나 대학교는 프라납 무커지

인도 전 대통령이 선물한 간디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청원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가나 정부는 당시 간디 동상을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흑인 인권을 위해 평생을 노력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은 링컨 기념관 앞에서 선보인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실상은 매우 문란하고, 부도덕했다. 타임지 기사에 따르면 당시 FBI(미연방수사국)가 킹 목사를 '공산주의자'로 몰기 위해 광범위한 미행과 도청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기록된 보고서에서 실제로 그를 '공산주의자'로 몰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도청을 통해서 알아낸 정보에는 킹 목사의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킹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FBI 문서에는 그가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명연설을 하기 전날 밤, 여성들을 섹스파티에 초대하기 위해 호텔방에서 전화를 걸어댔는데 이 내용이 FBI의 도청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킹이 포드 재단에서 받은 돈으로 1968년 2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2주간 흑인 성직자 리더십 워크샵을 열었는데, 이 워크샵에 참석했던 한 목사는 워크샵 뒤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음주, 음행, 동성애에 역겨움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비밀 해제된 FBI 문서에서는 마틴 루터 킹이 미국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하면서 스스로를 고귀한 존재로 대중에게 알렸지만, 사실은 '위선자'라고 평가했다.

김활란,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위인으로 알려진 인물들 외에도 에디슨, 콜럼버스와 같은 인물들도 그들의 밝혀지지 않은 실체를 파헤쳐 본다면 과연 그들을 위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위인'은 동음이의어로 또 다른 위인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됨됨이', '됨됨이로 본 그 사람'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위인전을 작성할 때도 단순히 업적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만을 위인으로 칭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업적은 물론 됨됨이로 봤을 때도 훌륭한 사람을 기록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친일파에 대한 확실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폐해가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공정한 역사미화로 인해 위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 사회의 측면에서 돌아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증오하는 친일파, 성범죄자일 수도 있다. 공정이라는 미덕이 중시되고 있는 현대 사회이기에 과거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 신문사설 독자투고 02 |

[기고] 미화된 '위인', 이제 제대로 알아야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인터넷 서점 Y사, A사에 '위인'을 검색하면 나오는 결과는 무려 3227건, 7641건에 이른다. 토머스 에디슨, 마틴 루터 킹, 월트 디즈니, 마더 테레사, 콜럼버스, 마하트마 간디,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톨스토이, 안익태, 김활란…. 유년 시절 한 번쯤은 읽었던 위인전의 '위인'들이다. 과연 이러한 위인들은 칭송받아 마땅할 성인(聖人)이 맞는가?

앞서 언급한 인물 중 대다수는 역사의 불공정한 평가에 가려 지나치게 미화되고 있는 인물이다. 마하트마 간디, 김활란, 마틴 루터 킹이 대표적인 예시로 꼽힌다. 비폭력 저항 운동과 소금 행진으로 유명한 간디는 사실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소아성애자였다. 간디는 평소 흑인을 'Kaffirs(깜둥이)'라고 낮추어 불렀을 뿐 아니라, 미개하고 상스러우며 나태하고 벌거벗은 삶을 사는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무시하였다. 간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우체국의 출입문이 백인용과 흑인용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인도인이 흑인과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인도인용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 간디는 '우리는 너무나 큰 모욕을 느꼈고 당국에 청원해 토착인(흑인), 아시아인, 유럽인을 위한 3개의 다른 출입문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간디의 인종차별 행적에 대항하여 2018년 가나 아크라에 위치한 가나 대학교는 프라납 무커지 인도 전 대통령이 선물한 간디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청원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가나 정부는 당시 간디 동상을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철거는 가나 외교부와 지역통합부가 함께 내린 결정이다.

또 영국의 사회학자 재드 애덤스의 저서 〈간디: 벌거벗은 큰 뜻〉에 따르면, 간디는 매일 밤 증손녀뻘부터 딸뻘까지의 여성들을 데려와 나체 상태로 동침하였다. 간디가 어떤 여자와도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다짐을 깼다는 증거는 없지만 간디가 의미하는 성관계는 좁은 의미였다. 애덤스는 "그(간디)는 삽입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비록 적극적 성행위는 아니더라도 육욕을 충족하는 행위로 흔히 간주되는 것을 (성관계로) 간주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간디와 동침한 여성 중에는 간디 개인비서의 여동생이었던 수실라 나야르도 있었으며 증손녀였던 18세의 마누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간디의 암자에 있던 추종자들의 부인도 그의 침대에 불려 들어가곤 했다. 간디는 당시 이들 부부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간디의 이런 태도는 그에게 가장 헌신적이었던 이들조차 일부 불만을 표시하게 만들었다.

여성 운동의 선구자로 이름을 날려 과거 위인전에 이름을 날렸던 김활란 역시 친일을 강조한 인물이었다. 이화학당의 고등부를 거쳐 1918년 이화학당 대학부를 졸업하고 중앙기독교청년회(YMCA)에서 활동하다가 여자 YMCA를 독립, 1923년 유각경 등과 함께 조선 중앙여성기독교청년회(YWCA)를 조직하였으나, 일제 강점기 1936년 전후로 일본의 강경노선에 따라 적극적으

로 친일 행위를 하였다. 그는 강연, 논술활동을 하는 한편 1941년 창씨개명 후 전시 체제에 협력하여 칼럼, 강연, 학도병 독려 등의 활동을 펼쳤다. 1941년 임전보국단 결전부인대회에서 '여성의 무장', 1942년 싱가포르 공략 대강연회에서는 '대동아건설과 우리 준비'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또한 여러 잡지에 '징병제와 반도여성의 각오', '뒷일은 우리가', '남자에 지지 않게 황국여성으로서 사명을 완수' 등의 글을 발표하며 조선 민중들에게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활발하게 종용하는 적극적인 친일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1936년 이후부터 악질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변절해 '아마기 가츠란'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것은 물론이고, 1936년 말부터는 교육과 여성 계몽 분야에서 친일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시작했다.

흑인 인권 운동가, 기독교 평화주의자로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FBI는 마틴 루터 킹에 대한 캐비닛 15개 분량의 기밀문서 내용을 공개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964년 당시의 찰스 브레넌 FBI 부국장은 킹의 사생활에 대한 집요한 도청과 추적 끝에 잔 이스트 상원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난잡한", "음란한", "자유분방한", "야만적인" 등 온갖 수식어를 동원해 그의 성편력을 묘사했다. 또다른 FBI 부국장 윌리엄 C. 설리번은 수사 결과 킹이 SCLC의 자금 일부를 호텔에서 술과 흑/백 창녀들에게 뿌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설리번의 조사에 따르면 킹은 한밤에 두 창녀와 함께 지낼 때가 많았고 술/섹스 파티를 수시로, 많게는 며칠 동안 벌였다. 이 같은 생활 스타일은 킹의 연설/운동 투어에 곁들여진 다반사였다. 킹의 지인이었던 랄프 애버니티의 저서 〈그리고 벽은 내려앉았다〉에는, 킹과 측근들이 최후의 밤을 이 모텔에서 2명의 흑/백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섹스를 하며 지냈고 새벽에는 또다른 한 명을 사디즘적으로 구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 당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지낼 때 킹의 우선적 관심 역시 그곳 백인 성매매 여성들을 자신과 측근들을 위해 확보해 두는 것이었다. 킹에 관한 이러한 도청/추적 조사는 당시 대통령의 동생 라벗 케네디 법무장관이 확인/결재했다. 설리번은 킹이 수많은 유부녀들과도 염문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30년간 FBI에서 지내며 본 수사대상들 중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7명 중 한 명으로 마틴 루터 킹을 꼽았다.

이 외에도 무자비한 동물 실험을 통해 반인륜적인 기계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적 발언을 남발한 월트 디즈니, 나치의 전체주의를 열렬히 옹호한 안익태 등 위인 아닌 위인의 사례는 끝없이 많이 존재한다. 이들은 성인(聖人)인가? 독도, 간도 문제를 언급하며 공정한 역사를 주장하는 우리는 이렇게 편파적으로 기록된 인물들의 전기를 읽고 살아가면서도 '기록의 공정성'을 논할 자격이 되는가? 위인(偉人)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기도 한다.(爲人) 평등, 정의, 공정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특정한 업적만을 보고 인물을 과도하게 미화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 출판서 독자투고 01 |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출판사 '자음과 모음'에 올립니다. 우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출판하여 정보를 제공해주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본 출판사의 위인전을 읽는 과정에서 책에 실린 몇 명의 인물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여겨 이러한 건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출판사의 '마틴 루터 킹(인권 운동과 희망)'위인전에서 '마틴 루터 킹'은 서른 아홉 살의 짧지만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비폭력 인권 운동가, 공공연한 인종차별이 횡행하고 미국 전체가 사회적 혼란에 휩싸여 있던 암울한 시대에 흑인을 비롯한 모든 소외된 자들에게 눈물겨운 저항과 희망의 메시지로 각인되었던 미국의 인권 운동가, 서른다섯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서른아홉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자신의 신념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불꽃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모두 사실이 맞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인정하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동시에 그의 업적에 의해 가려진 과거 그가 저지른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합니다. 윌리엄 설리반 FBI 전 부국장의 조사에 따르면 킹은 술과 성매매를 수시로 즐겼다고 합니다. 설리반은 30년간 FBI에서 지내며 본 수사대상들 중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7명중 한 명으로 킹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논문 표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보스턴대학교, 크로저 신학교에서 쓴 킹의 리포트/논문들은 학적 기준에서 볼 때 숱한 부분들에 표절한 흔적이 역력하며 그의 박사학위 논문 "폴 틸리히와 해리 넬슨 윌먼의 사고에서의 신 개념 비교"는 잭 부저 박사의 학위(Ph.D.) 논문 "폴 틸리히의 신 개념에서의 이성의 자리"에서 50여 군데의 완전한 문장들을 표절하고도 신학부문 Ph.D.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틴 루터 킹'에 대한 위인전을 집필할 때에는 그의 업적에 가려져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출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람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앞으로 출판 계획중에 있는 위인전에는 그 인물의 성과만을 다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전반적인 생애를 기록해주었으면 합니다. 위인의 업적으로 과거 그들이 저지른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를 상쇄시키는 행위는 그들이 분명 윤리적,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그 사실을 모른 체 그들을 오직 긍정적인 이미지의 '위인(偉人: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건의 사항을 요약하자면, 현재 출판된 위인전 중에서 그 위인의 다른 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책은 출판사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여 그 오류를 밝히고, 앞으로 출판을 계획 중인 위인전은 단계적인 검토 후 공정한 정보제공을 해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건의를 통해 자그마한 변화가 생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한 건의 내용을 충분히 숙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2일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 1반 일동 올림

| 출판서 독자투고 02 |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출판사 '한국헤르만헤세'에 올립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책을 집필하기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본 출판사에서 출판한 '에디슨'이라는 책을 읽다가 우연히 수정할 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출판사에서 출판한 위인전 '에디슨'에는 그가 살아 생전에 했던 업적, 예컨대 직류 전기를 이용하여 전구를 발명한 것 또는 탄소 송화기의 연구와 자동 전신기의 실험에서 힌트를 얻어 생각해 낸 축음기 등 그의 생애 속 긍정적인 측면만이 서술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책을 포함한 많은 위인전에서 에디슨은 노력형 발명가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극악무도한 동물실험을 진행한 잔인한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경쟁 사업가 테슬라의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사형도구인 전기 의자를 만든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 엽기적인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에디슨의 일생에는 그의 위대한 업적만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 성품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위인전의 사전적 정의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의 업적과 삶을 적은 글 또는 그런 책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성과, 업적에만 초점을 두어 위인전을 집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전반적인 생애를 다루어 독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선으로 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출판된 에디슨의 위인전에는 미화로 인해 기록되지 않은 그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을 출판사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으로 게시하여 사람들이 그를 오로지 위대한 발명가로서만 기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구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디슨에 관해 그의 업적에 가려져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출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람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앞으로 출판 계획중에 있는 위인전에는 그 인물의 성과만을 다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전반적인 생애를 기록해주었으면 합니다. 위인의 업적으로 과거 그들이 저지른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를 상쇄시키는 행위는 그들이 분명 윤리적,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ex: 에디슨의 동물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그 사실을 모른 체 그들을 오직 긍정적인 이미지의 '위인(偉人: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주장을 요약하면, 현재 출판된 위인전 중에서 그 위인의 전반적인 생애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들의 성과만을 부각한 책은 이러한 사항을 출판사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게시하여 그 오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앞으로 출판 계획 중에 있는 위인전은 더 철저한 검토를 기반으로 그 인물의 전체적인 삶에 대하여 공정한 시각에서 집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의 건의 내용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안한 건의 내용을 꼭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11일

인천국제고등학교 1학년 1반 올림

영화로 알아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공정은 어디에?

10107 노위나, 10112 안소현, 10114 전지현
10116 조은지, 10120 방승원, 10122 이상현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YTN 2019년 12월 10일자 기사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았다. 2017년 말까지 장애인 차별 진정은 1만 1천 건을 넘어섰는데, 매년 1천여 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된 셈이다. 법 제정 당시의 열망만큼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많은 기사를 찾아보며 장애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 기사는 시청각장애인들은 최근 영화가 개봉해도 극장에서 관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밝히며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3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 상영관 측에 스마트 글라스와 같은 기술을 제공하라고 요구했으나, 복합 상영관 측은 비장애인의 시청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맞섰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도 간 심각한 사례였다. 이를 제외하고도[2], 남녀 공용 화장실[3],

1)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100456201489

4)휠체어 경사로 등 다양한 차별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며 평소 무심코 지나갔던 사례들이 장애인에게는 통과할 수 없는 벽이라는 것이 인식되었고, '공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장애인 차별'이 떠올랐다. 또한, 첫 번째 사례 중 영화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노력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영화 속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과 나쁘다는 사실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모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영화 속에서는 어떤 장애인 차별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PBL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례에 대한 논문과 칼럼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연구 문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 차별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논문, 기사 등을 분석하여 현재 현황을 알아보고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복지법에서의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사전적 정의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여러 곳에서 조사한 후 우리가 생각한 정의가 큰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 정의

신체기관 등이 불편해 사회적으로 다른 대우를 받는 자

몸 또는 정신이 약간 불편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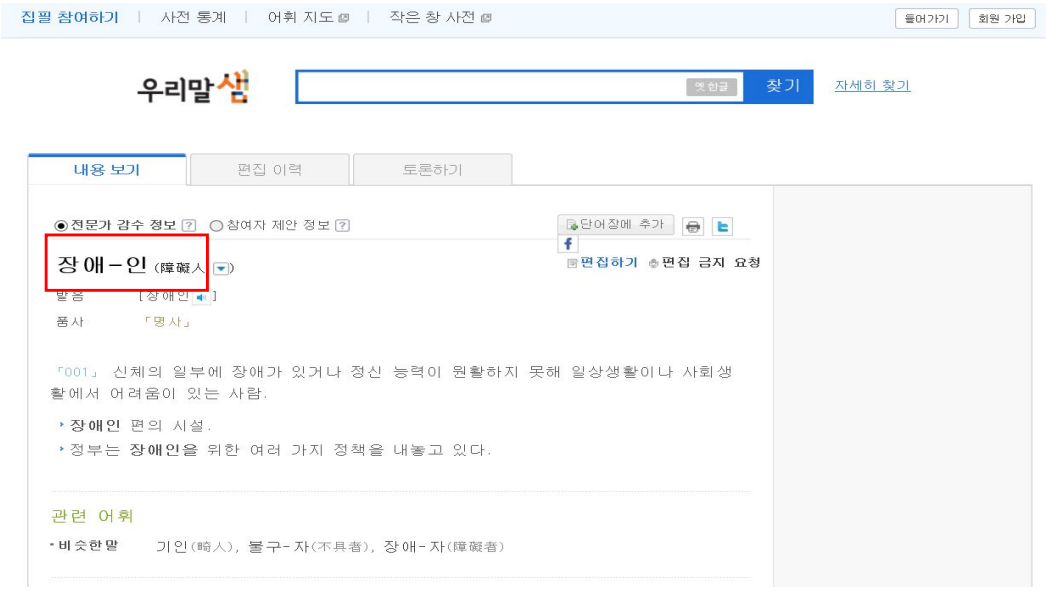
2) http://www.hrkorea.org/bd/zboard.php?id=1004&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5 한국인권행동 인권자료실 자료

3) 성당에 장애인 없다? 없는 것이 아니라 못 오는 것[인터뷰] 장애인 인권 지킴이 박종태 씨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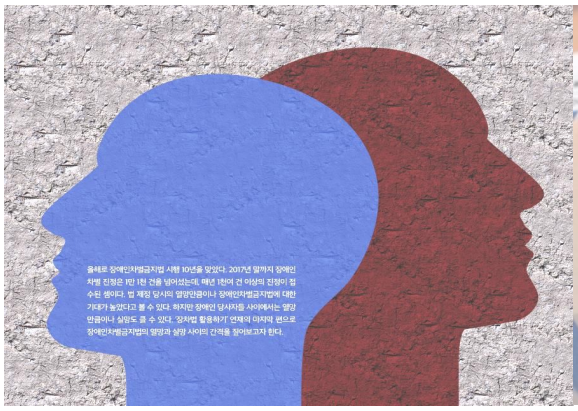
4) 장애인 관객 '경사로 앞 쓰레기통' 두번 운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9112913591925871 3

-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정의

장애인이란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2. 장애인 차별 금지법 알아보기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 금지법)[5]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 1장 총칙 중 제 1조(목적), 제 2조(장애와 장애인), 제 4조(차별행위), 제 5조(차별판단), 제 6조(차별금지), 제 3장 장애 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5)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9794&efYd=20180620#0000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5조(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 · 출산 · 양육 · 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Ⅲ. 연구방법

영화 총 3편을 선정하여 영화 안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점을 알아보고 분석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의 현황, 심각성 등을 알아보고자 논문, 칼럼 등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1. 영화 줄거리 및 논문분석

가. 7번방의 선물(2012)

1) 줄거리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빠 이용구와 그의 딸 예승이는 집에 단둘이 살고 있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용구는 딸이 가지고 싶어하는 세일러문 가방을 구매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한다. 결국, 열심히 일해 세일러문 가방을 살 돈을 모으고, 가방을 사러 가지만, 마지막 남은 가방을 누군가 사버리고 만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집에 온 용구는 어느 날, 세일러문 가방을 메고 지나가던 한 여자아이와 마주치게 된다. 그 여자아이는 용구에게 세일러문 가방을 파는 가게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다. 그 가게를 가던 중 여자아이 머리 위로 벽돌이 떨어져 용구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바지를 벗기고 인공호흡을 하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이를 성폭행으로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6살의 지능을 가진 이용구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고 아동 강간범으로 몰려 결국 감옥에 가게 된다.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감방 동료들과 담당 교도관은 용구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용구를 감옥에서 꺼내주기 위해 용구의 진술서 쓰는 것을 도와주고 재판장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라고 한다. 용구는 감방 동료와 자신을 격려해 준 교도관의 조언을 듣고 재판장에 서기 위한 준비를 하지만 돈이 없던 용구를 변호해주기 위한 국선 변호사는 용구가 경찰청장의 딸을 죽인 거라고 말하면서 변호하기를 꺼리고, 용구에게는 용구가 경찰청장의 딸을 죽인 것이 사실이라 말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용구의 딸이 죽을 것이라고 협박한다.

판사 앞에 서기 전 경찰청장은 용구를 따로 불러내어 폭행하면서 용구에게 죗값을 달게 받지 않으면 용구의 딸도 자신의 딸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한다. 재판장에 선 용구는 판사의 피해자를 죽였냐는 질문을 듣고 갈등하지만 결국 협박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하게 되고 용구는 죽게 된다.

2) 분석(문제점)

• 피고인의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변호해주지 않으려 하는 장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협박하는 것은 보편적 도덕 윤리에 맞지 않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1조와 제2장 8조 제2항의 법률 내용을 위반하는 행동이므로 매우 큰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년에 '국선 변호에 관한 예규'를 발표한 바 있다.

• 피해자 소녀의 아버지인 경찰청장은 '용구'에게 폭행을 가하며 거짓 증언을 하라는 협박

장애인 협박은 현재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조건을 갖춘 그들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성폭행을 가하고 심지어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인 그들을 이용하여 옳지 않은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나. 증인(2018)

1) 줄거리

"목격자가 있어. 자폐아야" '순호'(정우성)는 신념은 잠시 접어두고 현실을 위해 속물이 되기로 마음먹고 민변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이직하게 된다.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걸린 사건의 변호사로 지목되자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소녀 '지우'(김향기)를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우'. '순호'는 사건 당일 목격한 것을 묻기 위해 '지우'를 찾아가지만, 제대로 된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다.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우에게 다가가려 노력하는 '순호',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지우'에 대해 이해하게 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법정에서 변호사와 증인으로 마주해야 한다. 결국 순호는 살인자인 의뢰인을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임무를 포기하고 자폐아 증인인 지우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힌다.

2) 분석(문제점)

- 법정에 선 지우(증인)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장면

지우는 실제로 그 장면을 보았고, 말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지만 사람들은 지우의 지적능력과 인식능력을 괄시한다. 법원에서는 일부로 지우의 인지 능력을 검사한다면서 비장애인도 분간하기 어려운 것을 물어보며 계속해서 증인에 설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장애인은 무엇인가가 '부족한'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립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도를 충분히 만들지 않고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려하지 않는다.

- 장애인의 자립은 능력이 아니라 권리라는 말

'비장애인들이 당연하게 학교에 가고 직장을 다니듯..'이 말은 사회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편견이 있다는 말이다. 사회적 지원을 받아 자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모두 무시하는 모습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다. 지상의 별처럼(2012)

1) 줄거리

인도의 작은 마을, 여덟 살 이샨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이샨의 눈에 비친 세상은 너무도 흥미롭고 신기한 것들뿐이다. 이샨은 언제나 그림 그리기에만 관심이 있고, 글자들이 춤을 추기도 하고, 숫자들이 서로 만나 3 곱하기 9는 3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나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이샨은 학교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선생님에게도 매일 꾸중만 듣는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이샨의 부모님은 급기야 이샨을 엄격하고 강압적인 기숙학교로 보낸다.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된 이샨은 외로움과 자괴감 속에서 점점 자신의 빛을 잃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샨의 어두워진 마음을 환하게 비춰 줄 인생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문제아라고 모두가 외면한 이샨의 놀라운 재능을 미술 선생님 '니쿰브'는 알아보고 이야기가 전개된다.

2) 분석(문제점)

• 이샨이 기존 다니던 학교에서도, 새로 다니게 된 기숙학교에서도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해 친구들에게 놀림 받고 왕따 당하는 장면

특히 이샨이 얼마나 놀림을 받는 중인지를 나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반 친구들이 엎드려 있는 그를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어린아이들에게도 깊이 박혀있는 '조금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과 인식이다. 실제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가 2007년('지상의 별처럼'이 실제 방영된 연도)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마주쳤을 때 '무섭다' '무시한다' 등의 비율이 10%가 넘고, '동정심이 든다' 혹은 '도울 것을 찾는다'라는 장애인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연민을 가지는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한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아직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거나 연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선생님들이 이샨의 부모님에게 '저 아이는 우리 학교의 교육을 따라오지 못하니 떠나야 한다'며 강압적으로 이샨을 퇴학시키려는 모습이 보이는 장면

이것은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한 획일화된 교육을 상징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는 조금 다름을 인정하고, 그 장애인을 위한 다른 방향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샨의 미술 선생님 니쿰브가 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

3) 논문 및 칼럼분석

[1. 유아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통합교육에 대한 신념 및 우려 간의 관계]
{이효림, 박소윤, 배주현, 송민서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 연구 내용: 유아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인식과 통합교육에 대한 신념의 정도, 장애 유아를 지도할 때 겪는 우려 파악 목적

(2) 연구 목적
1) 영유아기는 전 생애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임
2) 현실적 한계

① 개인적 차원: 현장 교사들의 특수교육 및 장애아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② 사회적 차원: 교사들과의 협력의 어려움, 부모들의 인식 및 지원 부족
③ 제도적 차원: 행·재정적인 지원 부족

(3) 연구 기대효과
1) 장애인이거나 장애 위험이 큰 영유아들에 대한 초기 중재는 발달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장애 정도를 감소시키며 부차적 장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2) 교사의 신념에 따라 수업의 목표, 교수 행동이 달라지며 유아와의 상호작용 시 유아들에게 요구하는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지상의 별에게'에서 해당하는 말)

(4) 결과
1) 장애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통합교육에 대한 신념, 통합교육에 대한 우려의 변인
① 장애아 수용에 대한 우려
② 학업성취저하에 대한 우려
③ 업무량 에 대한 우려
2) 유아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이 높을수록 장애 유아 통합교육에 대한 우려가 높음
→ 교사의 인식, 신념이 장애 유아 통합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통합과제 실천 과제 성공의 주요 고려 사항임을 알 수 있음
3) 유아 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우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불편함 인식

[2.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초등학생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주우민 /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1) 연구 계기
1) {2011년 특수 교육 연차보고} :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 표준화된 교육방법이 없어 교육방법이 다양하고 비장애 학생 역시 장애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음

(2) 연구 목적

1)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중재 방법에 따라 비장애 초등학생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알아보고자 함

2)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 간의 적절한 또래 관계 형성 목적

(3) 연구 결과

1)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장애수용 태도 변화가 높게 나타남

2) 인식 교육 중 "이론/체험 교육 병행"의 방식이 가장 높은 변화를 냄

3)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교육 효과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냄

<표 3> 연구설계 모형

"우리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 장애인식개선교육 유인물 -

1. 이름 불러 주기

몸이 불편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필요한 어린이를 특수 어린이, 혹은 장애 어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따로 이름지어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남자",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우리 친구들을 '장애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2. 놀려서 마음 상하게 하지 않기

가장 중요한 일은 놀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난으로 바보니, 병신이니, 심지어는 미친 사람이라고 놀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친구들이지 놀려주면 재미있을 친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친구"와 함께 공부하게 선택된 어린이들이므로 다른 반 친구나 동생들이 놀려도 "그러면 안된다"고 타이르는 어린이들이 되어 주세요.

3. 보통 친구 대하는 습관 가지기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겼다고 계속 쳐다보거나 소근거리는 것도 실례입니다. 놀리지 않더라고 "제 좀 봐라. 이상하게 생겼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하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매우 아프답니다. 따뜻한 시선을 보내도록 하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웃어주는 습관을 가져 보세요.

4. 놀이방법 가르쳐 주기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과 놀고 싶어도 어떻게 놀아야 할 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동생에게 가르쳐 주듯이 친절하게 놀이 방법을 알려 주고 함께 놀아주세요.

5. 맡은 일을 하도록 지켜보고 도와주기

"우리 친구들"도 청소나 당번활동 등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청소나 당번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옆에서 조금씩 알려 주세요.

6. 모범이 되는 행동하기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배우려고 여러분의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행동을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 줍시다. 공부시간에 바로 앉아야 한다는 것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초등학생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주우민)

[3. 이창호칼럼: 장애인, 인식 개선 절실…"누구나 수평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기대하며"]

(1) 장애인 현황 (실태)

1)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 장애 보고서': 전 세계 장애 인구는 약 10억 명으로 추산 (전체 인구의 15% 수준)

→ 그중 약 2억 명: 고용·교육·의료·접근성·빈곤·사회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응답

2) 아시아·태평양 지역: 6억 5000만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3) 2018년 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258만 5,876명(남성: 59%, 여성: 41%)

→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가 90%

→ 아직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장애인을 포함: 약 400만 명 추산

(2) 필자의 장애인 복지 최종목표 정의: *'수평과 참여'*

→ 이웃의 냉대나 무관심에 대한 인식 개선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성공목표로 지구촌의 빈곤 문제 및 불평등의 해결을 핵심으로 설정

→ 성공목표의 달성과 장애인의 수평 권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 필요

(3) 장애인의 복지에서의 고려 사항

1) 비장애인의 '장애'의 의미 숙고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에 대해 모색하는 전략적 정책대안의 제시

3)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마련

(4) '장애우'의 표현

1) 본 표현 의도: '불구자', '장애자' 등 비하 표현을 개선 목적

2) 문제점: '의존성'의 문제 (타인이 장애인을 부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지상의 별처럼' 같은 교육에서 피해를 받는 장애인 사례

장애 아이의 하루 일과를 비디오로 찍어 상영한 담임 교사

김인호(가명 · 10살 · 발달장애인)는 2004년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없었지만, 인호가 비교적 조용한 편이라 어머니는 교장과 상의한 뒤에 아이를 학교로 보냈다. 어머니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담임의 허락을 얻어 인호 옆자리에 앉아 같이 수업에 참여하였다. 교실 청소는 물론이고 학교 일에도 발 벗고 나섰다....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담임이 인호의 학교생활을 캠코더로 찍

어 다른 어머니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 어머니들은 교감에게 몰려가 '어떻게 저런 아이를 우리 반에 둘 수 있느냐'며 항의를 했고, 인호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싸늘해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인호의 부모는 더 이상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인호는 6월말에 집에서 승용차로 10분이나 걸리는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인호와 함께 학교에 가서 짝이 되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지난 학교에서처럼 누구보다 열심히 교실 청소도 하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는다.) 〈2004 대구장애인인권백서 / 대구DPI〉

Ⅳ. 결과 및 논의

1. 해결방안

가) 7번방의 선물(2012)

1. 장애인보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 및 강화하기

현재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여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1년,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법으로 이용당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신속한 법안의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을 협박하고 폭행할 시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장애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횡령 그리고 성폭행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하다.

2.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권 존중 교육 실시하기

현재 많은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옳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이 존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 소속된 장애교육기관은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만들어나가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존중하고 우리와 차별된 존재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장애복지정책 재검토하기

더불어 살고 함께 사는 국가적 정책을 통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증인(2018)

영화를 통해서 발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생해 보았다.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장애'라는 낙인을 주는 그래서 편견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장애인 등급제에 대해 집중해 보기로 했다.

장애인 등급제도는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분류하는 등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 부분도 있었으나, 그에 따른 비판도 받아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이 청한 현실과 장애의 정도가 단순한 숫자로 분류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였고, 개별 장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심사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은 분명히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 획일화된 지원 정책으로 인해 각자의 사정에 맞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 단체와 여러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장애인들이 사정에 맞는 사회적 지원을 가져다 줄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지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더욱 더 혼란을 주고 있다. 여전히 모든 지원의 기준이 기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6441&ref=A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5843&ref=A (신문정리)

(기사 분석)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그 후 장애등급은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되었고, 기존의 1-3급 장애인만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를 모든 장애인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처음에는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종합조사의 방법은 치욕스럽다. 기저귀를 차지 않아도 되는 여성이 기저귀를 차야 하며, 옷 갈아입기, 누워서 자세 바꾸기 등을 하며 점수를 총 532점을 채워야 심사에 통과하게 된다. 심지어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활동지원 예산 또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단가 또한 올라서 잘못된 결과를 불러왔다.

아직 진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2월 3일, 장애인 시민단체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국회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한 민생법안과 예산은 뒷전이라고 비판하며 완전한 폐지를 외쳤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각각의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맞춤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2020년 1월에는 이러한 시위에 힘입어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고 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점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가 발전해나가고 있는 지금. 하루 빨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하고 장애인의 등급을 매기는 종합검사에서 신체 활동에 대한 검사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획일적인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다) 지상의 별처럼(2012)

1.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진행 (통합교육)

(1)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저마다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2) 통합교육의 종류

1) 자료실 방식(resource room plan): 대부분의 학습활동은 비장애 아동과 같은 교실에서 하고, 장애 때문에 함께 학습하기 곤란한 것만 특수교재·교구가 마련된 학급에서 학습하는 방식

2) 협력 학급 방식(cooperative plan): 대부분의 학습은 장애 학급에서 하고, 세밀한 작업이 필요 없는 학습활동은 일반 학급에서 학습하는 방식

3) 고정 학습 방식(day-school plan): 하루 종일 장애 학급에서 수업하는 방식

4) 순회 교육 방식(itinerant teaching plan): 장애아가 지역의 여러 학교에 적은 인원이 산재해 있는 경우, 장애아 교육에 전문 지식이 있는 순회교사를 배치하여 장애아가 있는 학교를 순회한다.

(3) 통합교육의 기대 효과: 교육을 통하여 기존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의 개념을 잘 알지 못했던 장애 학생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강화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의미: 2008년 폐지된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면서 신설된 법

2) 법률의 목적: 장애인 및 특수한 교육환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적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 제정된 법

(2) 특수교육법의 종류

1) 교육감의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지원

2) (대학 이외의) 학교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특수교육대

상자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

3) (대학) 학교장의 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장애학생 수가 0~10명 미만인 경우: 위원회, 센터 대신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 배치 가능

(3) 특수교육법의 효과

1) 장애인의 교육 기회를 폭넓게 함

2) 획일화된 교육을 차별화함으로써, 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의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V. 요약 및 결론

1. 최종 해결방안

가) 정책측면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 시설 수용 정책과 직접적인 장애인 복지 혜택의 비율을 고르게 분배한다.

근거 ① 장애인 복지예산의 평균 약 47%가 생활 수용 시설에 집중, 그러니 이용자 수가 전체 장애인 수의 1% 수준 → 엄청난 예산이 생활 시설에 집중 (2004년 기준)

근거 ② 나머지 99%의 장애인은 각종 할인 제도에 의존 중임

나) 법률측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강화시킨다.

(1)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본 법률이 장애인 인권의 기준이 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임. 이를 강화한다면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애인에게 적용이 될 것이다.

(2) 미국의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1990년)나 영국의 DDA(Disability Discrimination Act)(1995년) 제정 과정을 참고함: 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에 도움이 될 것

다) 인식과 태도 측면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권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인식 개선 교육 진행

(1)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의 개선이 오히려 더욱 근본적인 해답을 제공할 수도 있음
(2)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 더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음
(3) 그러나 캠페인성 홍보 정도로의 인식으로 행동하면 안 됨

2. 기대효과

첫째,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 시설 수용 정책과 직접적인 장애인 복지 혜택의 비율을 고르게 분배한다면 사회적으로 이전보다 더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능한 자원을 연결하는 제 활동(프로그램 등)과 그들이 사회에 통합되는데 장애가 되는 제반 환경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로 장애인에게는 장애의 수용과 강한 재활 동기를 조성해주고 재활을 위한 치료,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부모에게는 장애인 자녀를 수용하고 지원하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법률 측면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강화시킨다면, 본 법률이 장애인 인권의 기준이 되는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를 강화한다면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애인에게 적용이 될 것이다.

셋째, 인식과 태도 측면에서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권력이 있음을 알려주는 인식 개선 교육 진행한다면, 영화에서 언급된 문제점과 같이 또래 또는 거리에서 일어나는 차별 또는 시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마무리

↑국립국어원 자료

‘공정 = 공평하고 올바름.’을 사회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해결방안들을 사회적으로 실천한다면,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불평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감소시킨다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바뀌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참고문헌

박인환. 2019.06.「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를 위한 국제적 모색」. 인하대학교 법학연구.〈학술저널〉

김진우. 2009.04.「지적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월간 복지동향 제 126호.〈전문잡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8.07. [유엔] UN 장애인 권리 협약.〈연구보고서〉

노도현. 2019.12. “ 장애인 자립은 ‘능력’이 아닌 ‘권리’의 문제 ”《주간경향》〈신문기사〉

박소윤, 배주현, 송민서. 2019.11.「유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통합교육에 대한 신념 및 우려 간의 관계」.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학술대회자료〉

김현정, 최경남. 2019.06.「통합교육에 대한 일반유아교사의 인식과 장애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적응 관계」. 동아인문학회.〈학술저널〉

이창호. 2019.11.04. “ [이창호칼럼] 장애인, 인식개선 절실…“누구나 수평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기대하며 ”.《헤럴드경제》〈칼럼〉

전제련, 신현기 2018.08.「동계 패럴림픽 자료를 활용한 장애이해교육이 초등학교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논총 제34권 제1호.〈학술저널〉

게임으로 바라본 현대 사회의 불평등

10302 김서현, 10310 유하임, 10318 박문수
10319 배정민, 10322 장홍준, 10323 정의민

Ⅰ. 서론

1. 연구 배경

공정(Fairness)은 공평과 정의가 융합된 개념이다. 공정은 절대적 공정과 실질적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공정이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른 것을 말한다. 실질적 공정이란 집단 혹은 사회의 조직적 생활 과정에서 여러 인격에 대한 대우 또는 복리의 배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히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차원의 공정성을 다루는 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불공정 사례로부터 야기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 다른 사회인 게임에서 답을 찾고자 하였다.

2. 용어

게임 속에서 공정을 실현하는 방법은 밸런싱이다. 밸런싱이란 게임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게임 밸런스는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게임 밸런스는 게임 디자인의 핵심이며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유저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 기초적인 조건이다. 밸런싱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밸런스 패치이며, 이는 밸런스와 패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밸런스(Balance)는 게임에 등장하는 요소들의 균형, 즉 공정성을 나타낸다. 유저가 게임의 불공정 요소에 불만을 느끼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 밸런스를 맞추어야 한다. 새로운 캐릭터의 도입이나, 새로운 시즌의 시작 등의 방법으로 게임 요소 간의 격차를 조율해 공정성을 실현하는 작업을 밸런싱이라고 한다.

패치(Patch)는 게임 프로그램 자체에서 오류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을 재설치하지 않고 일부 파일이나 소스코드(Source Code)를 변경해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밸런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게임은 다양한 재미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게임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여 시장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캐릭터나 기술, 아이템이 과도하게 강하거나 약할 경우 특정 유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게임에 흥미를 잃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게임사는 게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게임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Ⅱ. 게임의 불공정 사례

게임에서 불공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게임프리크 사의 '포켓몬스터'에는 다양한 타입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18개 타입들은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우위와 열위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존재한다. 하지만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타입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주로 사용되는 메이저(Major) 타입과 잘 사용되지 않는 마이너(Minor) 타입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강철타입은 굉장히 뛰어난 방어상성을 가지고 있어 자주 채택되는 타입이며, 드래곤타입은 매우 뛰어난 공격 일관성을 가지고, 적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 대회에도 자주 등장하는 타입이다. 그에 반해서 풀타입은 많은 약점과 좋지않은 공격시 상성 때문에 외면받는 타입이다. 이처럼 대중화된 게임인 포켓몬스터에서도 타입간의 불평등을 찾을 수 있다. 모바일게임 '클래시 로얄'은 새로운 캐릭터가 도입되었을 때 기존 캐릭터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이게 되어 불공정이 발생한다. 또한 기존 캐릭터에 비해 전반적인 능력치가 높은 캐릭터의 등장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포켓몬스터의 사례와 유사하다. 메이플스토리에는 '직업'이 존재하며, 각 직업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스공략이나 사냥 등에 뛰어나 주로 사용되는 직업이 있는 반면 우수한 특징을 가지지 못하여 외면받는 직업이 존재한다. 비메이저 직업군의 무기는 보통 게임 내 경매장에서 잘 거래되지 않기에 메이저 직업군과 비메이저 직업군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 또한 존재한다.

Ⅲ. 게임의 불공정 해결 방안

운영자는 위와 같은 불공정을 밸런스 패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밸런스 패치는 외부에서의 개입을 통해 공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1. 밸런스 패치를 위한 준비작업

게임 운영자는 밸런스 패치를 위해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준비작업을 수행한다.

1) 의견반영: 게임을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고객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
2) 시스템의 이해: 게임이 운영되고 소비되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3) 데이터마이닝(Datamining): 데이터의 추출 및 분석.

위 3가지 작업을 충분히 수행한 이후, 실질적인 밸런스패치가 이루어진다.

2. 밸런스 패치의 종류

대표적인 밸런스 패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버프와 너프

게임은 균형점을 찾기 위해 밸런스를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밸런스 패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대상을 상향하는것을 버프라고 한다. 또한, 밸런스를 조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상을 하향하는 것을 너프라고 한다. 버프와 너프는 게임의 밸런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게임 내 균형점을 유지한다.

버프와 너프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캐릭터, 아이템, 기술 등)자체 능력치 조정
2) 상성상 우위/하위 혹은 상위호환인 새로운 캐릭터, 기술, 강화 아이템
3) 해당 캐릭터 사용 제한 - 밴(Ban) / 특정 상황에서 금지
4) 대상 삭제
5) 리워크(전면 재조정)
6) 리메이크(재제작)

나. 밸런스 패치의 방법 예시

다음은 모바일 RPG에서 밸런스 패치를 위해 캐릭터의 능력치를 계산하는 식이다. (전준현, 2015)

ICF(Integrated Comparative Figures)= {((최소공격력 + 최대공격력) / 2) / 공격속도) + (마법스킬데미지 / 캐스팅시간) +) * (1 + 적중률 + 크리티컬율)} * 기준 전투 시간 + {((총마나량 / (스킬 치유량)) / (스킬 사용 마나)) * (1 + Tic당 마나 생성률)} * 기준 전투 시간 + (체력 * 방어도) + (마법데미지 * 회피율(%) * 마법저항(%)) + 체력.

3. 효과적인 밸런스 패치의 사례

효과적인 밸런스 패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포켓몬스터

(그림 1) 포켓몬스터: 배틀화면

포켓몬스터의 포켓몬은 각각 불, 물, 전기 등의 타입을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타입 총 18개로, 이중 흔히 사용되는 주류 타입과 그렇지 않은 비주류 타입이 존재한다. 주류타입은 물, 페어리, 강철, 드래곤, 불, 고스트 타입 등이 있고, 비주류타입으로는 풀, 격투, 에스퍼 등이 있다.

[표1] 포켓몬 타입의 구분: 주류 타입, 비주류 타입

	주류 타입 – 메이저(Major) 타입	**비주류 타입** – 마이너(Minor) 타입
정의	게임 유저가 주로 쓰는 타입	게임 유저가 주로 쓰지 않는 타입
종류	물, 페어리, 강철, 드래곤, 불 등	풀,격투, 에스퍼 등
특징	방어 상성이나 공격 상성이 상대적 우위	방어 상성이나 공격 상성이 상대적 열위

이런 타입 간 상성은 게임 플레이뿐만 아니라 포켓몬스터 대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포켓몬과 그렇지 않은 포켓몬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밸런스 불균형 현상은 게임

의 다양성을 떨어뜨리며, 게임 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특정 게임 요소가 유저들에게 소외받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운영자는 다음 과정을 거쳐 밸런스를 맞추었다.

포켓몬은 현재 1세대부터 8세대까지 나와있다. 8세대로 가는 과정에서, 게임 운영자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많은 조정을 거듭했다. 가장 유명한 것이 페어리 타입의 추가이다. 포켓몬스터 5세대까지 드래곤 타입의 포켓몬은 약점이 2개 밖에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격 상성이 다른 타입의 포켓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다. 그러나 6세대에서 페어리 타입이 추가되면서 드래곤 타입은 약점이 3개로 늘어나며 드래곤 타입의 밸런스가 적절히 조정되었다. 또한, 페어리 타입의 약점을 그동안 평가가 좋지 않아 유저들에게 외면받던 독 타입으로 설정함으로써 비주류 타입이 유저들에게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게임 유저들간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해 간접조정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나. 클래시로얄

[그림1] 클래시로얄 로딩

[그림2] 클래시로얄 플레이

클래시 로얄은 유저가 자신이 보유한 카드를 가지고 덱을 구성하여 상대와의 실시간 전투에 사용하는 CCG 게임(수집용 카드 게임)이다. 상대방과의 전투에 승리하면서 트로피를 얻게 되고, 유저의 트로피에 따라 아레나의 등급이 결정되며 비슷한 트로피의 상대와 경쟁시키는 매칭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력에 맞는 유저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밸런스를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카드는 유닛, 건물, 마법이라는 세 가지 종류와 일반, 희귀, 영웅, 전설이라는 네 가지 등급으로 이루어져 다양성을 높이고 카드 간의 상성을 맞추었다. 카드는 등급이 높을수록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밸런스가 유지된다.

[표2] 클래시 로얄의 카드 등급에 따른 희귀성

종류	일반 카드	희귀 카드	영웅 카드	전설 카드
일반카드 기준	기준점	10 배 희귀	200 배 희귀	4000 배 희귀
희귀카드 기준	X	기준점	20 배 희귀	400 배 희귀
영웅카드 기준	X	X	기준점	20 배 희귀

슈퍼셀에 따르면 희귀 카드는 일반 카드보다 10배 희귀하고, 영웅 카드는 희귀 카드보다 20배(일반 카드 기준으로 200배) 희귀하며, 전설 카드는 영웅 카드보다 20배(희귀 카드 기준으로 400배, 일반 카드 기준으로 4000배) 희귀하다. 즉, 전설 카드는 일반카드를 4000개 뽑을 때 1번 정도 나온다는 뜻이다. 이런 확률로 얻은 전설 카드는 초기 능력치 값, 즉 1레벨 능력치가 높기 때문에 얻자마자 좋은 효율을 발생한다. 일반 카드는 초기 능력치 값은 낮지만 강화 단계가 13단계까지 존재해 시간을 투자하여 강화를 마쳤을 때 6단계의 강화단계 밖에 없는 전설 등급에 필적하는 효율을 발휘하게 된다.

일반 카드의 강화 단계를 더 많게 하고, 전설 카드를 존재하게 한 것은 모두 밸런싱 과정과 관계가 있다. 전설 카드는 유저의 소유욕을 자극한다. 확률에 기반하여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나 과금 요소와 상관없이 게임 유저들이 갈망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게임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면서, 카드를 얻기 위해 더 많은 게임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유저를 유도한다. 슈퍼셀은 전설카드가 확률적으로 얻을 확률이 낮기에, 유저가 도달할 수 있는 강화 단계 적정선을 지정하여 유저가 카드 강화에만 집착하여 게임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일반 카드는 전설 카드에 비해 매우 얻기 쉽기 때문에, 전설 카드에 비해 초기 능력치 값도 적다. 그러나 일반 카드의 강화 단계를 전설 카드의 단계로 확정하게 되면 일반 카드는 사용되지 않아 게임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일반 카드의 강화 단계를 전설 카드보다 높게 잡아 유저의 관심을 돌려 밸런스를 조정했다. 이런 시스템의 원리를 현실에 비유하자면,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위주로 진행되는 기업의 채용에 정부 정책으로 대학 졸업을 하지 못한 지원자의 학력 이외의 다른 장점을 부각시켜 기업에서 저학력 지원자에게도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게 학력이외의 다른 능력을 평가하는 또다른 전형을 구축하도록 하는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다.

1레벨 능력치가 높다면 강화 단계의 한정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화로 인한 능력치 변동을 이해해야한다. 카드의 강

화로 인한 수치의 변동에는 다양한 수학적 규칙이 적용되는데, 클래시 로얄에서는 복리, 즉 등비수열의 개념이 적용된다. 클래시 로얄의 경우 카드를 한 번 강화하면 등급에 상관 없이 약 10%의 능력 강화가 적용된다. 복리를 사용하여 능력치를 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alpha \times \left(1 + \frac{\beta}{100}\right)^{n}$$

α : 1레벨 능력치
β : 레벨 당 능력치 상승치 n : 카드의 레벨

쉬운 설명을 위해 특정한 상황을 가정한 후 복리로 능력치를 적용했을 때의 밸런스 조정 효과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A카드와 B카드 각각 100과 200의 1레벨 능력치(알파)를 가지며, 레벨 당 능력치 상승치(베타)의 값을 10으로 두자. 강화가 되지 않은 상태의 두 카드는 100의 능력치 차이를 가진다. 하지만 한 번 강화를 하게 되면 각각 110, 220으로 110의 차이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2레벨인 경우에는 A카드 121, B카드 224로 123의 차이 값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차이 값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화와 레벨에 따라 카드 간의 우위관계가 명확해지며, 이런 시스템은 유저들에게 게임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카드 레벨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이는 재능뿐만 아니라 노력을 게임의 승패 결정 척도에 집어넣음으로써 게임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한 사례이다. 또한 유저의 흥미도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유저가 더욱 오랜 기간 게임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더 정확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그래프 1] 감전마법과 창고블린의 카드 레벨에 따른 능력치 비교(김정선,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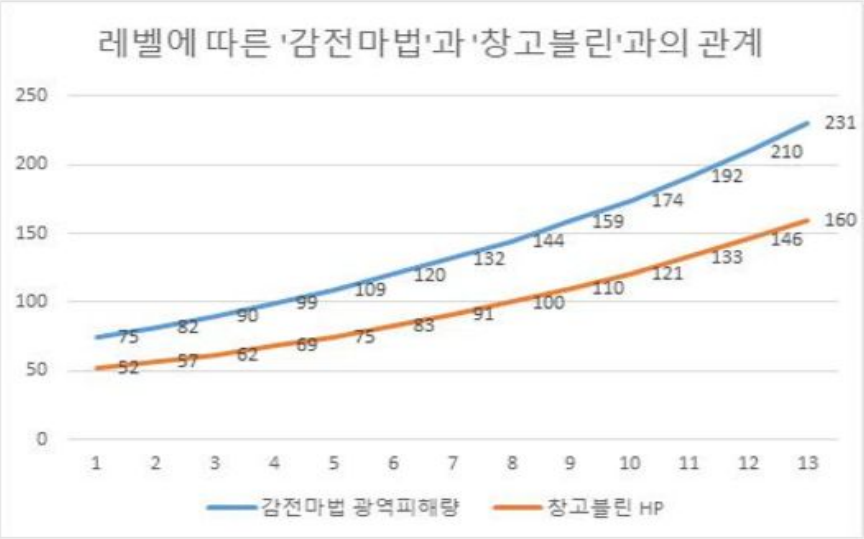


Fig. 3 Graph of property comparison of cards according to level

다음은 클래시 로얄의 카드의 카드 레벨에 따른 능력치이다. 게임 운영자가 창고블린과 감전마법의 레벨이 3~4정도 차이가 났을 경우 창고블린이 감전마법으로 소멸되지 않는 패널티를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는 게임 승리에 아주 큰 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저는 카드의 강화를 위해 게임 내 콘텐츠를 끊임없이 활용하게 된다. 밸런싱 시스템은 이처럼 유저 사이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유저가 다양한 게임 요소를 골고루 이용하면서 불공정을 덜 느끼도록 승리, 수집 등의 다채로운 목표와 함께 재능, 운, 노력 등 다양한 도달 방법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가지 가치 척도를 결과에 반영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시스템은 사회에서,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아무리 공정성이 높은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게임 실력은 유저의 재능에 따라 달라진다. 선천적으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력을 해도 게임 실력의 향상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온전하게 실력으로 승부하는 바둑, 오목과 같은 게임은 실력에 한계가 있다면 게임에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이에 비해 게임 속 캐릭터 강화나 육성은 유저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대부분의 유저가 시간을 들여 강화와 육성을 통해 자신의 승리를 만들어 낸다. 클래시 로얄은 이와 같은 요소를 적절히 혼합하여 유저의 만족도를 높이고 유저의 콘텐츠 사용률을 높일 수 있었다. 이처럼 교육에서도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보는 능력과 암기력 등 공부 실력만을 측정하는, 선천적 재능만을 평가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노력과 과정에도 중점을 두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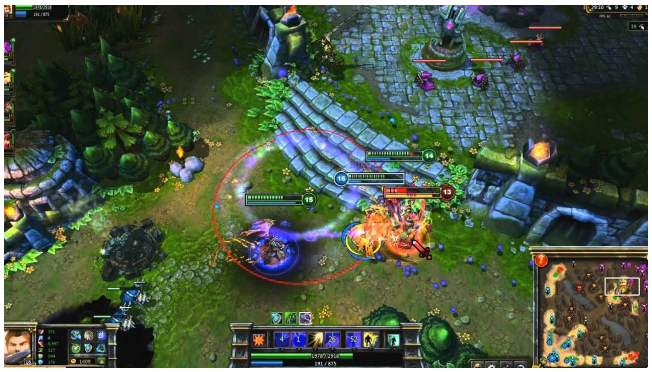
게임 운영자는 등비수열뿐만 아니라, 계비수열, 계차수열,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합 등 여러가지 규칙으로 능력치 변동을 설정할 수 있다. 이때 게임의 특성에 맞는 조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인 유저가 다른 유저와의 대결 없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며 진행하는 게임은 이러한 수학적 규칙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하지만 등비수열을 적용했을 때 레벨 당 능력치 상승치가 너무 커져버리게 된다면 게임 내 능력치 수치가 지나치게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수 차례의 대규모 패치 이후 역대 최대 피해량이 99,999에서 199,999, 999,999, 50,000,000으로 바뀌었다. 현재 그 수치는 10,000,000,000(100억)으로, 등비수열이 적용된 능력치 증가 요소가 동시에 곱해져 수치가 결정된 것이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던전앤파이터',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등비수열을 적용할 때는 레벨 당 능력치 상승치(∞)가 100보다 작게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수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러한 기하급수적 수치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신규 카드가 출시 되었을 때 조정이 필요해진다. 이 때 신규 카드에 너프를 적용하거나 기존 카드에 버프를 적용하며 공식으로 도출된 값에 약간의 증감을 가하여 밸런스 조정을 한다.

클래시 로얄은 Pay to Win의 특성이 존재한다. 등급이 높은 카드가 나올 확률이 높은 상자를 P2W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결코 격차를 만들지 않는다. 초반에는 더 높은 레벨의 덱을 만들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 1에서 볼 수 있듯이 카드가 최고 레벨에 올라갔을 때는 더 이상 강화할 수 없게 된다. 카드의 레벨로 인해 올라갈 수 있는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상대의 카드 역시 자신의 레벨과 동등하기 때문에 카드의 레벨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높은 아레나로 올라감에 따라 게임 진행 실력이 카드의 레벨보다 더 중요해진다. 또한 상자를 사는 것은 카드를 얻을 확률을 높일 뿐, 좋은 등급의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얻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모바일 RPG 게임처럼 P2W유저가 눈에 띄게 강해지지 않는다.

다.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림3]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리그 오브 레전드는 플레이어가 한쪽 진영의 영웅 캐릭터를 선택해 적의 본진 점령을 목표로 상대편 플레이어와 전투를 벌여나가는 게임이다. 리그오브레전드의 과금 체계는 P2W(Pay to Win)을 지향하지 않는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과금을 통해 살 수 있는 재화는 스킨이나 닉네임 변경권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화들도 반드시 과금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게임 내 밸런스 유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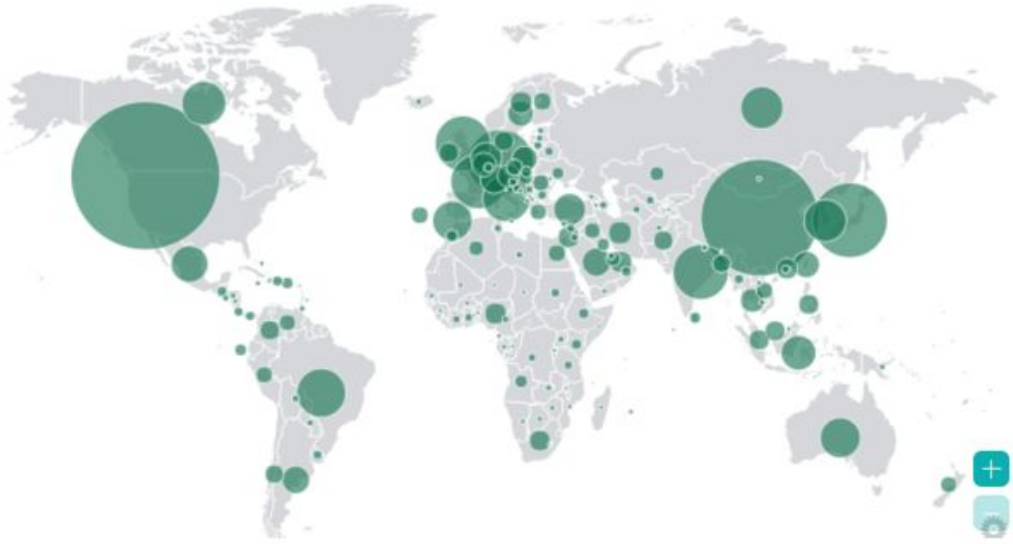
리그 오브 레전드는 지속적으로 게임을 모니터링 하면서 한 해에 30회를 웃도는 패치와 밸런싱을 한다. 이는 거의 1.5주에 한 번 꼴로 패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지속적인 밸런스 패치로 인해 리그 오브 레전드의 밸런스는 타 게임에 비해 알맞게 유지되는 편이다.

이처럼, 게임사는 외부에서의 개입을 통해 게임 시스템 내에 공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비슷한 사례를 현실세계 속에서 찾아보자. 현실에서도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불공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로 교육과 입시 문제가 있다. 사교육 사업이 비대해진 지금 교육은 가장

공정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불공정한 분야이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사교육 혜택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교육 혜택을 흡수하는데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교육 혜택을 받은 것과 못 받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개입을 통한 불공정 해결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사교육과 관련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정책을 펼쳐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기회균등특별전형을 통해 불공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회균등특별전형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차이가 야기한 사교육 불공정 문제로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Ⅳ. 국제 사회 측면

[그림4] IMF 전세계 GDP 순위(2017, 명목금액 기준)



본 연구는 불공정 사례로 먼저 국가 간 불평등에 주목하여, 게임 속의 불평등 요소를 조율하는 밸런싱 과정을 국제사회에 적용해보았다. 여기서 국가 간 불평등이란 한 나라의 국민 개개인을 모두 그 나라의 생활수준 평균값으로 놓고 계산하여 국가 별로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불평등이다. 국가 간 불평등은 무역 구조의 불평등, 산업 구조의 불평등, 국내 총생산(GDP)의 격차 등으로 나타난다.

과거 국가 간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성장의 논리 때문이며 글로벌 경제가 지리적으로 확산되는 순서와도 관련이 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산업혁명이 먼저 서유럽 국가들의 급격한 성장을 견인했다. 그 뒤에는 미국, 그리고 과거 서유럽 식민지였던 신대륙의 경제 성장이 이어졌다. 약 150년 전에는 글로벌 경제 성장이 대체로 이들 지역에서만 이루어졌으며 당시 이 지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20퍼센트 정도에 못미치는 정도였다. 그렇게 당시에는 지역적인 성장으로 인해 국가 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불평등 지수가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고, 현재는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공업국을 제외했을 때 아직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경제적 격차는 막대한 실정이다. 현재의 불평등 완화는 개발도상국의 성장보단 신흥공업국의 급속한 성장이 주된 원인이다. 선진국의 기술 개발 속도가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모방 속도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불평등이 완화되는 듯 보이나 신흥공업국을 제외한 몇몇 최저개발국들은 이러한 모방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무역 구조의 불평등, 교육 수준의 미달로 인한 개혁의 부진 등이 그 원인이다. 현재 상위 10개국 국민이 하위 10개국 국민들에 비해 90배나 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며, 인류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5분의 1이 생존을 위협받는 상태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국제사회 속에서 불공정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게임 내 밸런싱 과정에 주목을 하였다. 이때, 국가는 게임 유저로 치환된다. 각국의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게임 유저와 닮았기 때문이다. 이때, 국제기구는 게임운영자로 치환되어 국가를 넘어선 상위기관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운영자와 같은 기구의 존재는 찾기 어렵다. 국제사회에서 상위의 운영기구가 탄생하기 위해선 국가가 아닌 다른 조직체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국제 사회의 주권을 가진 기본 단위는 각국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가 아닌 조직체는 각국의 정부가 운영하기 마련이고, 정부가 모인 기구는 제 3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기구의 힘이 여러 국가의 힘을 능가해야 게임 운영자와 같은 강제성을 띨 수 있다. 제 3의 기구의 존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제 사회에서 구현된 가장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모색해보았다.

가장 비슷한 역할을 맡는 것은 UN과 같은 국제기구이다. 국제 기구가 세계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적 개입을 수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계 경제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은 자체의 재정자금을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순수한 원조를 공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적 개발 원조는 직접 조정에 해당된다

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제재하는 결의안을 내는 경우가 있다. 2017년 12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북한의 유류 공급 제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 확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닌 수출, 수입 등의 부문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게임에서의 간접 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공정 무역은 기존의 국제 무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적 접근으로서, 생산자와 무역업자들,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들의 파트너쉽에 기반하고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fair trade international)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인지도가 높은 공정무역 시스템이다.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국제 공정무역 기준을 수립하고 전 세계 생산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그에 따른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접 조정에 해당된다. 또한,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한국, 폴란드 등 전 세계에 있는 공정 무역기구들은 공정무역 인증제품을 위한 시장을 형성한다. 이는 공정무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간접 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 상황과 같은 긴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결의사항에 대한 강제성을 가지기 힘들며 권고조치 등 약한 수준의 외부개입만이 가능하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 사이에는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보다 더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으며 게임 유저들은 버프나 너프의 외적 개입을 쉽게 수용하는데 비해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의 표출이 명확하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게임 운영자와 유저 사이의 갈등보다 과격하다. 경제적 제재, 문화적 갈등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전쟁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에서 발생하는 밸런스 패치 수준의 외부 개입은 국제 사회에서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외적부에서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극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 내의 정부 측면에서 탐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V. 국가 내부 측면

1. 정부와 게임 운영자 비교

현실 세계, 즉 국가에 게임의 밸런스 패치를 적용했을 때에는 정부가 게임 운영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운영자가 게임을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이윤을 극대화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비슷하게 정부는 국가의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끊임없이 계획한다. 게임 운영자는 게임의 효율적 운영과 유저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세 가지 작업: 의견반영, 시스템의 이해,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을 진행한다.

가. 의견반영

게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 의견 반영, 즉 유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게임을 유저 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하지만 유저는 사적 편익의 증대를 위해 행동한다. 따라서 동일한 캐릭터 또는 아이템을 사용하는 유저들간의 파벌 형성, 밴드웨건 효과로 인한 물타기식 의견 몰이, 개인의 직감과 체감에 의존한 밸런스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지적이 수반된다. 따라서 유저의 의견 반영으로 밸런스를 완벽히 조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게임은 웹사이트에서 유저 커뮤니티 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게임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인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적인 게시판 운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 같은 경우, 밸런스 패치에서 숙련도가 높은 유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커뮤니티에 들어가 티어가 높은 유저의 의견을 확인한다고 밝혔다.(뉴스 게임플) 게임의 정확한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저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게임의 운영에 유저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유저와 게임 운영자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더 많은 피드백 참여와 동시에 게임의 요소를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분석하는 유저의 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이를 현실 사회에 대입해보자.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모두 각자의 사적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점에서 게임 유저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게임 운영 측면에서 유저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토론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게, 현 정부는 국민청원 제도를 운영하여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청원 제도는 국민 누구나 정부의 정책 또는 법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게임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무분별하고 의미 없는 청원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고, 모든 의견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청원에 게시된 의견을 정책에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게임 운영의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국민 청원 제도는 정책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청원으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일부 도입하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려는 정부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하기에 국민과 정부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국민의 더 많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동시에 사회 현상에 대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비판하는 사회 참여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시스템은 게임 운영자와 정부 모두 실질적 공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체감으로 느끼는 공정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나. 시스템의 이해

게임 운영자는 게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시스템의 구동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밸런스의 조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게임 자체가 진행되는 방식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의 동향을 파악했을 때 게임의 밸런스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수반되지 않은 채 밸런스 패치를 진행한다면 패치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5] 메이플스토리2: 게임 로딩 화면

‘메이플 스토리 2’의 경우 게임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유저들이 퀘스트의 선행 조건이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유저들의 반발과 논란이 이어졌다. 유저들의 반발에 대한 긴급 패치를 진행하였으나 패치 이후의 신규 유저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지 못해 오류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이루어진 이벤트와 패치로 인해 유저들

에게 혼란을 발생시키고 조급한 대책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의 발생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성급한 밸런스 조정은 여론의 악화, 또 다른 문제의 야기라는 문제를 낳았다.

시스템의 이해는 현실 사회에서 정부가 정책을 펼치기 전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제 정책을 내세우기 전에 경기 동향의 변동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부문에 있어서 그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다.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은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이다. 게임의 전반적인 양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상의 수치를 활용한다. 주로 게임 캐릭터의 승률을 분석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단순 통계라는 점에서 수치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 할 수도 있으며 수치는 전체적인 결과의 차이를 보여줄 뿐 실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분석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 마이닝과 의견 반영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데이터 마이닝으로 도출된 정보들을 적용할 때, 유저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 정보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 마이닝에서 의견 반영은 선택적인 반면에, 의견 반영은 데이터 마이닝을 필수로 한다. 데이터 마이닝 없이 의견 반영을 진행한다면 유저의 의견을 반영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게임 운영에서 데이터 마이닝의 중요성은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단지 게임 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국가 운영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토안보부를 신설하여 비주얼 애널리틱스(Visual Analytics)를 시행하고 있다. 비주얼 애널리틱스(Visual Analytics)란 기존의 정보 시각화에 분석적인 이론을 결합한 것이다. 이 기술은 전반적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새로운 대처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기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웠던 국가 안보의 위협을 쉽게 파악하도록 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대한민국 역시 전자정부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있다. 정부는 전자정부법 제 2조 1호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에 의거하여 정부 24시 운영, 재난 정보 등 여러 부분에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해 정보를 제공 및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면서 그 우수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자정부 사업목표인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과 전자정부 성과가 국민체감 만족도 향상 또는 정부조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박승범, 2016)

위와 같은 의견 반영, 시스템의 이해, 데이터 마이닝은 모두 국가 운영에서도 필수적인 작업이었다. 본 연구는 게임 운영에 국가 운영을 대입해 게임 유저와 가계, 기업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게임 회사와 정부 간의 문제점 해결 방식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게임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의 국내 측면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게임으로 비춰보는 국가 내부의 불공정 사례 및 해결방안

게임에서 드러나는 불공정사례는 현실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국가 내부에서 해결이 필요한 불공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Pay to Win 시스템

“Pay to Win(이하 P2W) 시스템”은 과금(유료결제) 시스템이 도입된 게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게임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유저의 지갑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돈의 소비가 게임의 승리나 업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말 그대로 유저들은 게임 내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돈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P2W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만 최상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
- 아이템 강화, 업그레이드 등이 캐시 결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과금으로 즉시 획득할 수 있을 경우

*P2W 시스템*의 문제점은, 모든 플레이어가 동등한 법칙과 룰 아래에서 게임할 수 있는 공정함의 전제조건을 비틀어버린다는 것이다. 이는 게임 요소 내의 불공정 요소가 없더라도, 유저의 체감 불공정 수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자본주의의 요인이 게임 속으로 침투한 사례로서 게임이 즐거움과 실력 겨루기의 영역을 넘어서 자본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1세기에 넘어와서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어 게임이 e스포츠라고

불릴 정도의 입지까지 가지게 되었다. 게임이 스포츠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P2W 방식은 스포츠로의 전환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사고는 게임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요소이며, 실력으로 하는 게임의 자본 경쟁적 요소가 승패에 대한 영향을 더욱 더 많이 미칠수록 게임의 본질은 타락된다.

게임사는 이익을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P2W을 추구한다. 이것은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의 원인이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P2W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이나 기회의 창출면에서 우리 사회도 P2W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교육 시장의 과열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자녀의 성적이 달라지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돈을 더 많이 씀에 따라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아무리 돈을 들여도 자녀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선천적으로 공부가 아닌 다른 것에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사교육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성적 향상에 소용없을 수 있다. 이는 게임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금 결제를 하지 않은 무과금 유저들이 현금 결제를 한 유저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무과금 유저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불공정으로 주목한 것은 경제적 격차에 따른 사교육과 공교육의 질적 차이, 또는 교육적 접근의 기회의 차이이다. 정부는 게임사와는 다르게 부유한자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 사회의 P2W화를 막으려 노력한다. 공교육의 확대나 과도한 사교육의 규제등이 이러한 P2W를 막으려는 시도에 포함된다. 게임에서도 최근 과금 유저와 무과금 유저간의 불공정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클래시로얄과 같은 게임에서 볼 수 있는 과금 시스템이다. 클래시 로얄에서는 과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없다. 과금을 하더라도 랜덤으로 카드가 나오는 아이템만 구매할 수 있다. 단지 일반 유저가 과금없이 획득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카드가 등장할 뿐이다. 과금에 확률적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과금의 메리트를 떨어뜨리고, 무과금 유저 역시 확률적으로 전설 카드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공정 요소를 상쇄한 것이다.

나. 독과점

독과점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시장구조가 경쟁 상태를 결여하여 하거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다. 독점과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퍼센트를 차지하는 과점을 합친 용어로서, 경쟁이 결여된 시장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일 경우에는 완전 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시장의 수요 공급상의 결과가 아니라 독과점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에 의한 공급 제한을 원인으로 하며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6] 트리오브세이비어: 플레이 화면

게임에서도 현실에서와 같이 독과점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넥슨이 운영하는 ‘트리오브세이비어’(이하 TOS)에서 발생한 일명 ‘포션대란’이 있었다. TOS에는 체력회복 아이템인 포션을 만들 수 있는 ‘알케미스트’라는 직업이 있다. 이 직업군을 악용한 유저들은 게임 출시 초기에 모든 포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해 물약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 이들은 알케미스트의 독점적 권리를 악용하여 다른 서버의 물약 가격에 비해 몇 배에 이르는 포션가격을 책정하여 유저들의 원성을 샀으며, 이는 알케미스트의 포션이 몬스터 드랍 아이템에 포함되게 하는 간접 너프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면서 마무리되었다. ‘포션대란’은 현실에서 기업 간의 담합이 이루어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끼리 공급량을 조절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것은 독과점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림7] 메이플스토리: 경매장

또 다른 예시로 넥슨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자유거래 시스템’을 찾아볼 수 있다. ‘자유거래

시스템'은 경매장에서 유저가 자유롭게 아이템을 판매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때, 희귀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유저들은 아이템을 쉽게 경매장에 올리지 않는다. 이들은 가치가 높은 아이템의 공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희귀 아이템의 가격은 원래의 높았던 가치보다 더욱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독과점 유저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다. 이벤트성 아이템의 소유는 게임에 오래 머무른 유저만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과점은 신규유저와 기존유저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유시장체제에 맡겨 유저들이 스스로 물가를 조정하게 한다. 이는 메이플스토리 운영진 측에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를 자유거래 시스템의 문제 해결에 적용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런 경우 게임 운영의 해결방안을 우리 사회에 직접 적용 하기는 힘들다.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은 그 종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만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유저에게 풀린 재화나 유저의 수, 인플레이션의 속도도 다르다. 화폐의 유통을 게임 운영자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유저가 언제든지 몬스터를 잡아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유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기에 온전히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또한, 능력치가 높은 아이템을 제작하는 것에는 다른 공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 단순히 현금(캐시)과 게임 내 일반 화폐(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간의 연결이나 협업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메이플스토리로 시뮬레이션한 것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과거 1929년에 벌어진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의 출현으로 그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현실 사회에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끊이질 않고 있다.

다시 한국을 보자. 대부분의 일감이 대기업 혹은 대기업의 자회사로 몰리면서 대기업은 더욱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쇠퇴하는 기업간 빈부가 심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독과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경제 각 분야의 시장구조를 조사분석하여 발표한다.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도 한다.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제한해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아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확보한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63조 제1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독과점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경기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뜻으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환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써 정치·경제·사회 등 다방면에서 널리 쓰인다. 어느 한쪽의 경쟁 주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나 질서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정치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치적 진영이 다를 경우,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의 인구수가 청년층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아지면 머릿수가 적은 쪽이 기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패배하게 되는 상황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비유한다.

[그림7] 크레이지아케이드: 서버 선택 화면

게임에서는 초보서버를 만들어서 비슷한 수준끼리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다. 대표적으로 '크레이지 아케이드'와 '서든어택'에서는 초보서버를 따로 개설해 게임에 익숙하지 않거나 신규 유입된 유저들끼리 경쟁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보자.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경제분야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기술을 두고 특허분쟁을 벌일 경우, 장기간 소송에 드는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무너져 결국 소송에서 패배하거나 승소하더라도 경영에 큰 타격을 입는 상황 등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다음과 같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의 휴무일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들과 전통 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 사이의 상생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면서 중소 유통업체들 사이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제도를 게임에 비유해보자면, 게임 신규 유저들이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설된 초보 서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가 현실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여러 게임이 실행하고 있는 '신규유저 보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신규 유저는 다른 유저에 비해 상대적으로 레벨과 실력, 소유하는 아이템이 부족하여 경쟁하는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가진다. 따라서 게임은 신규 유저 보상 이벤트를 통해 출석과 간단한 미션 수행만으로 여러 보상을 제공한다. 이벤트를 통해 얻은 보상을 통해 신규 유저들은 기존 유저와 평평한 경기장에서 오직 실력을 통해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규유저를 과도하게 지원하는것은 기존유저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대두되는 역차별 문제다. 적극적우대조치와 역차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것이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 모두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부로 인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을 법률로 보장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수급자의 법적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여 공공부조 수급권을 프로그램 규정설에 입각한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임을 인정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학 입학의 사회 통합 전형 역시 부로 인한 격차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사회 통합 전형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학생 등 사회배려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이다. 사회 통합 전형 역시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정원 내외 합산 10%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있다. 이 또한 균형점을 찾는것이 중요하겠다.

라.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보상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로 구분된다. 외부불경제는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음의 외부성이라고도 한다. 외부경제는 어떤 행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편익을 유발하는 것으로, 양의 외부성이라고도 한다. 외부

불경제의 예로는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을 들 수 있고, 외부경제의 예로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과수원 근처에서 양봉을 하면, 봄이 되어 과수원에 꽃이 피었을 때 주변의 벌들이 꽃에 모여들어 양봉업자는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고, 과수원 주인은 과일나무의 꽃에 수정이 많이 돼 더 많은 과일을 얻을 수 있다.

[그림8] 메이플스토리: 버닝필드

게임에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외부효과를 개선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메이플스토리이다. 메이플스토리에는 14개의 서버가 존재한다. 게임 운영측은 서버의 안정화를 위해 각 서버에 균등한 인구가 배분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서버와 인구수가 적은 서버가 존재한다. 인구수가 많은 서버를 도시서버, 적은 서버를 시골서버라고 한다. 여기서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내가 시골서버에 들어가는 사적편익이 게임 전체가 추구하는 사회적 편익보다 적기때문에 나는 시골서버를 적게 소비한다. 시골서버를 회피한다. 외부경제다. 반면 도시서버는 아이템 물량이 풍부하고 다른 유저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들이 선호한다. 따라서 많이 소비한다. 외부 불경제다. 메이플스토리 운영자는 도시-시골서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메이플스토리는 RPG류 게임이다. 본질적으로 경험치를 획득해 높은 레벨을 달성하는것이 게임의 최종목표이다. 따라서 경험치획득을 목표로 하는 유저들을 유인하기 위해 시골서버에는 경험치 혜택이 존재한다. 이를 '버닝 필드'라고 한다. 도시서버에서 몬스터 하나를 잡을때 경험치를 100을 준다고 가정한다면 시골서버의 버닝필드에서는 같은 몬스터를 잡아도 180전후로 경험치를 획득하는 구조이다. 실제로 이에 따라 다수의 유저가 도시에서 시골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U턴 현상이 일어났다. 보조금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해 외부경제라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꼭 닮았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게임사만의 독특한 불공정 해결 방식을 현실세계에 대입할 수 있는지 논의하려한다.

Ⅵ. 외적개입- 불공정 해결 방안

게임에서 불공정 해결을 위해 이루어지는 외부에서의 개입을 사회에 비추어보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포켓몬스터- 타입간 불균형 해결 위한 신규타입 추가
- 클래시로얄- 강화 비율 차등 적용
- 리그오브레전드- 잦은 빈도의 밸런스패치
- 크레이지 아케이드, 서든어택-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위한 초보서버 개설
- 트리오브세이비어- 독과점 해결위한 공급 소스 다양화
- 메이플스토리- 외부효과 개선을 위한 버닝필드

운영자는 위와 같은 불공정을 밸런스 패치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밸런스 패치는 외부에서의 개입을 통해 공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외적개입이라고 정의한다. 외적개입은 상위기관의 일률적인 조정이 가능해 효율적인 반면, 조정 대상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직접 조정과 간접 조정

연구결과, 외적개입은 직접 조정과 간접 조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직접 조정이란 버프와 너프 대상의 수치 자체를 변화시켜 변동 대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캐릭터 자체의 능력치 조정이 직접 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간접 조정이란 주변 환경을 바꾸는 등 변동 대상과 관련된 외적인 요소를 조정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맵 변경, NPC의 능력치 조정이 간접 조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너프가 키를 줄이는 것이라면 간접 너프는 자주 신는 신발의 깔창을 빼는 것이다.

[표3] 외적 개입의 구분: 직접조정, 간접조정

외적 개입	
직접 조정	간접 조정
대상 (캐릭터 등)자체 능력치 조정	조정하는 대상과 관련된 대상(아이템 등) 변경
해당 캐릭터 사용 제한 / 특정 상황에서 금지	플레이 맵 추가/변경
캐릭터 혹은 능력 삭제	상성상 우위/열위인 캐릭터 도입

Ⅶ. 결론

현실에 게임과 같은 외적개입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임 상에서 외적개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밸런스 조정 대상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켓몬스터 게임사가 피카츄를 너프한다고 해서 피카츄가 반발하거나 거부하지는 않는다. 물론 피카츄를 애용하는 유저가 반발하긴 하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사회 주체간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강력한 상위기관의 독단적인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보여준 한계가 좋은 예이다. 독단적 조정은 현저히 떨어지는 합리성과 효율 저하를 유발한다. 따라서, 사회의 상위기관이 예측 결과에 따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 및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는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게임을 하나의 작은 사회로 인식하고 현실에서의 불공정 해결을 위해 게임의 사례를 차용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게임을 단순히 쾌락 위주의 오락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게임은 하나의 작은 사회다. 경제 체계가 자리잡고있으며, 이익 집단이 각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며,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낸다. 이는 경제학의 한 분야인 게임이론과 같다. 경제학에서도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하나의 ‘게임’ 상황을 가정한다. 이번 연구는 ‘게임 이론’ 과 같이 현실의 방대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축소판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분석하고, 게임의 해결 방안에 착안해 다시 큰 세계로 눈을 돌려 적용하려 했다.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보다는 관점을 전환해 유연하게 사고하는 역량 향상을 시도했다. 본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과 사회의 상호 연결성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참고문헌

김정선 (2018). 클래시 로얄의 사례를 통한 게임 밸런싱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6(2), 112-115

박찬일, 양해술. (2007). 캐릭터간의 대전 시스템을 위한 밸런스 구현.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7(3), 23-30.

이건 (2015).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27-51

전준현, 정의준 (2015). RPG 전투밸런스 평가모델 연구.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5(4), 49-58

세계화 시대의 불평등 문제 - 프랑수아 브루기뇽

기울어진 운동장-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70705&cid=43667&categoryId=43667

외부효과-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00362&cid=43665&categoryId=43665

대한민국 UN 외교부

http://www.mofa.go.kr/www/wpge/m_3873/contents.do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3%B5%ED%8F%89

게임플 뉴스

http://www.gamep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324

'게임 만드는 구본일'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onlybest01/221402449879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8일 의무휴무일

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315956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http://fairtradekorea.org/main/index.php

이만재 (2011). 빅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활용, 47-60

http://www.bigbook.or.kr/bbs/data/file/bo07/764605828_B8qsjWf9_C7D1B1B9BBE7C8B8_BAAFC8A3BFCD_B9CCB7A1_C0CEC5CDB3DD_C1A4C3A5-B1E8BBE7C7F5_C3D6BBF3C8C628IIS_C1A62B1C7_C1A62C8A3_201129.pdf#page=48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701000000008

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 https://maplestory.nexon.com

트리오브세이비어 인벤 http://www.inven.co.kr/board/tos/4198/84309

노키즈존 해결 방안: ‘공정’을 중심으로

10404 박소민, 10407 이다빈, 10408 이연주
10412 정지원, 10413 최세진

Ⅰ. 주제 선정 이유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노키즈존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부모의 부주의와 이이들의 사고로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는 아이들의 권리 침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 조은 논란이 많은 우리 사회의 문제 중 "공정"에 포커스를 맞춰 노키즈존을 선정하게 되었다. 본 조의 목표는 이를 연구함으로써 몇몇 사람들의 불편함으로 아이들의 출입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Ⅱ. 노키즈존 국내 현황

1. 국내 현황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노키즈 존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특정 행동이나 소음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는 아이의 소란스런 행동과 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방관과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 등이 있다.

강남이나 홍대 등 상업지구의 카페나 음식점에서 시작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등 어린 아이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다.

*노키즈존 시행 매장 사례

자료: google images(https://www.google.co.kr)

2. 노키즈존 확산 원인 분석

가. 아이의 소란스런 행동과 이에 대한 부모의 방관

카페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을 부모가 저지하지 않거나, 최근에는 카페나 음식점 내에서 기저귀를 갈고 치우지 않는다거나 컵으로 아이의 소변을 받는 등 일부 부모의 행동이 논란을 야기하면서 노키즈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킴.

나.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업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법원의 판결

2011년 부산시내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혀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종업원의 부주의와 식당 주인의 직원 안전 교육 미흡을 이유로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2012년 강원도 춘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찌개를 운반하던 중 유모차에 탄 아기에게 국물을 쏟아 아기 허벅지에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은 식당의 책임을 70%, 부모의 책임을 30%으로 판결함.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종업원과 어린 아이 간의 안전사고 발생이 업주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나오면서 노키즈존 도입을 고려하는 영업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이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는 경우 그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여 손님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하고, 특히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경로에 유아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그 주의를 보다 더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함에 따라 이사건 사고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을'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은 피고 '을'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 : 사건번호(2014가단44161).

자료 : 의정부지방법원(uijeongbu.scourt.go.kr).

Ⅲ. 노키즈존 해외 현황

"노키즈존" 확산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해외의 경우 드레스코드가 있는 고급레스토랑이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을 받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노키즈존을 도입해 이것이 미국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위배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 해외에서의 노키즈존 사례

가. 영국

영국은 1995년에 부모가 아이를 동반할 경우 아이도 펍(대중적인 술집)에 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 법률 개정 전에는 만 14세 미만은 펍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음. 법률 개정 후 '부모를 동반한 어린이의 펍 출입'이 논란이 되면서 BBC는 2010년 시청자 토론방 개설. "소란스럽고 우는 아이들 때문에 분위기를 즐길 수 없다" 또는 "펍은 어른들의 전유물로 남겨둬야 한다" 는 의견이 압도적

나. 미국

미국에서도 어린아이를 동반한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레스토랑 증가 추세.하지만 어린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는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위배된다는 주장 제기(미국 민권법은 인종이나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 볼 때 노키즈존도 위법하다는 주장).

다. 일본

일본 오카야마현의 한 식당에서 어떤 아이들이 가게 종이 창호를 파손했는데 이를 방치하고 돌아간 부모님들의 태도에 식당 주인은 충격을 받았다며 트위터에 글을 올린 후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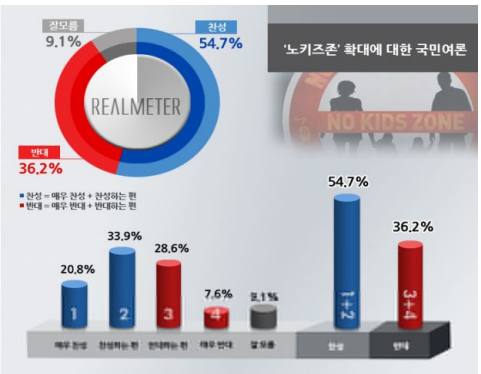
라. 어린이와 일반 고객의 탑승 공간을 구분하는 항공사도 확산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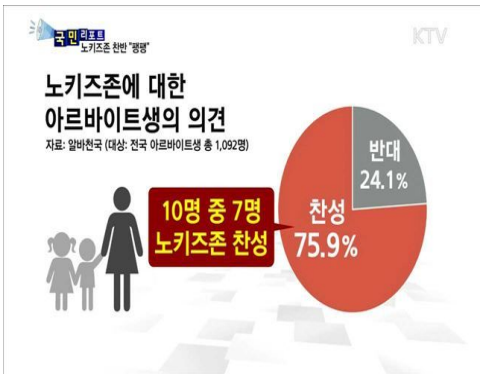
1) 2012년 말레이시아 항공은 12세 이하의 아이와 동승자는 항공기 아래층 지정구역에만 착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입.
2) 에어아시아 엑스는 항공기 내에 '콰이엇 존(quiet zone)'을 설치하고 있으며, 스쿠트 항공은 2013년부터 아이들을 위한 전용좌석제 실시.

*에어아시아의 '콰이엇 존'

자료 : AirAsia사이트(http://www.airasia.com/kr/ ko/home.page).

Ⅳ. 노키즈존에 대한 대중의 인식





*자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노키즈존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자료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국민은 54.7%로 과반수가 넘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들을 접하고 아르바이트생 또한 75.9%가 노키즈존을 찬성하고 있다. 아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신들이 겪는 불편함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Ⅴ.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 의견

1. 찬성

가. '영업의 자유'도 헌법상 기본권

영업의 자유 역시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측에서 근거로 삼은 '평등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에 속한다. 사실 노키즈존 문제를 법의 시선으로 보면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인데, 이처럼 기본권이 상충할 경우,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인권위가 평등권을 근거로 삼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헌법은 원래 국가와 개인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노키즈존 논란처럼 개인 사이에 벌어진 권리에 끌어들인 잘못이 있다는 것 이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노키즈존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인권위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 인종·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 매우 민감한 영미권국가에서도 노키즈존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 ‘영업주의 자유’이자 ‘소비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주는 방안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각자 영업 방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노 키즈 존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시켜 준다고 생각한다. 노 키즈 존이 생기면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는 이를 피해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고, 조용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이들이 없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노 키즈 존은 필요하다. 사업장에서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 안전사고가 생길 위험이 크고, 이에 방해받는 손님이 생길 수 있어. 업주는 이런 피해를 막고자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울 권리가 있다.

다. ‘함께 공간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 보호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 올라오는 일명 ‘무개념 부모’의 사례가 심각해지고 있다.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건 바람직하지만, 부모들이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점은 문제이다.

라. 어쩌면 ‘육아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지’

최근 맘충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많은 육아맘들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맘충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눈치를 보는 엄마들이 생기고 있다. 이들에겐 오히려 노키즈존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이 정서적으로 편할 수 있다. 또한 노키즈존은 아이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므로 장소를 선택할 때 노키즈존을 아예 제외하고 고르는 편리함도 생긴다.

마. 노키즈존 영업자들도 ‘손해를 감수하고 내린 선택’

노키즈존이라는 조건을 내거는 상점 또한 손해를 감수하고 내린 선택이다. 오히려 아이와 함께하는 손님과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손님 사이의 논쟁을 막아 주는 배려라고 볼 수도 있다.

2. 반대

가.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어린이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본래 미성숙한 존재로 이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두는 것보다 아이와 동행하는 부모에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안내문구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는 소수의 부모들로 인해 다수의 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소비자를 선별하여 거래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파스타 스테이크 등 아동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A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 차별 행위라고 판단해서 사업주에게 앞으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A 식당의 경우에는 특별히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도 아니고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의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 아니다. 식당의 이용 장소와 연령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동의 이용을 금지하지 말라는 권고를 한 것이다.

나.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자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보다 우선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서도, "이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가 된 이탈리아 음식점의 경우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 소수의 경우만을 바탕으로 일반화한 것이 노키즈존

인권위는 또한 "사업주인 피진정인이 일부 아동의 산만한 행동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모든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라. 노키즈존은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악영향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식당 사업주의 노키즈 존 운영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활동, 예술에 관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을 들며 “아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됨이 우려되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Ⅵ. 노키즈존에 대한 쟁점

1.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의 자유에 해당하는가?

가. 노키즈존 찬성 입장

어린이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영업방침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 15조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업주의 영업방침은 업주의 고유한 기본권.
2) 영업공간에서 사고가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업주에게 귀속되므로 영업방침 규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
3) 택시와 같이 공익성이 인정되고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여객의 승차 거부 행위를 금지하지만, 카페나 음식점은 공익성이 인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키즈존 설치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나. 노키즈존 반대 입장

노키즈존은 일반불공정 거래의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

1)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노키즈존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에 해당.

-〉 이에 대한 노키즈존 찬성 입장: 공정거래법은 일반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므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사항 없음.

2. 고객의 행복추구권과 아이의 기본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가. 노키즈존 찬성 입장

소란스런 아이나 이를 방치하는 부모는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이다.

1)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
   ex)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였을 때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을 상위 기본권으로 인정
2) 노키즈존은 헌법 제 10조가 보장하는 아이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3) 하지만 노키즈존은 어린이의 기본권과 업주의 기본권, 일반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충돌하는 사례로 누구의 권리가 상위 개념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
   〈아이의 기본권 vs 고객의 행복추구권〉(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 2016)
4) 응답자의 63.5%가 '고객으로서 소란스런 아이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7%에 불과

5) 아이의 기본권보다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고 보는 견해는 51.4%인 반면, 아이의 기본권이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는 15.7%에 불과

6) 고객의 행복추구권과 아이의 기본권이 모두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 14.4%

나. 노키즈존 반대 입장

노키즈존은 아이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와 함께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일반논평을 통해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아동을 '문젯거리',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우려. 또한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

2) 일반적으로 출입제한이나 규제는 특정한 사물이나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가령 흡연이 문제가 될 경우 흡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이나 노키즈존은 어린이를 잠재적 위험 집단을 간주하고 사전 차단하며 구체적 행위나 대상이 아닌 '아이 전체'를 배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자료: [응답하라1331]13세 이하 아동 식당 출입 전면 금지?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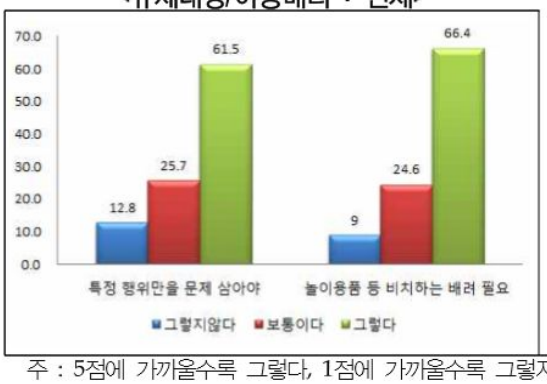
*픽토그램

자료: Naver images(https://www.nav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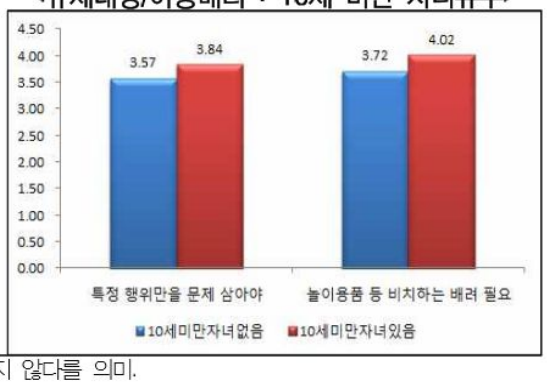
픽토그램(pictogram)이 보여주는 것처럼, 노키즈존은 아이를 담배나 애완견 등과 등치시킨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픽토(picto)와 텔레그램(telegram)을 합한 말로.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림문자를 뜻함)

Ⅶ. 노키즈존에 대한 해결책

<규제대상/아동배려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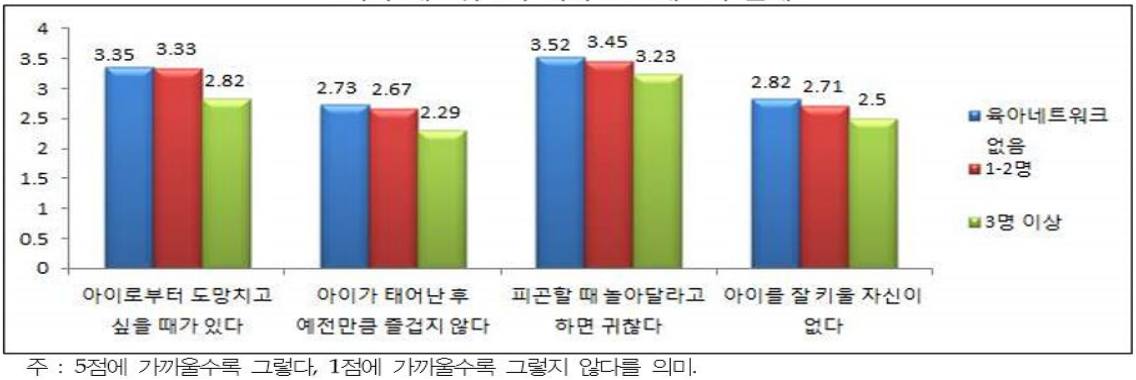


<규제대상/아동배려 : 10세 미만 자녀유무>



주 : 5점에 가까울수록 그렇다, 1점에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다를 의미.

<육아 네트워크와 육아 스트레스의 관계>



주 : 5점에 가까울수록 그렇다, 1점에 가까울수록 그렇지 않다를 의미.

자료 : 경기연구원 모바일 설문조사(2016)

1. 아이라는 집단 전체가 아니라 아이의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

가. 특정 행위는 규제하면서도 아이를 배려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노키즈존보다 우선적으로 필요.

1) 아동집단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는 노력 필요

- 설문결과 아동집단 전체가 아니라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61.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령 ‘뛰는 행동 금지’, ‘소란 금지’ 등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를 통제하고, 관련 픽토그램을 개발·보급할 필요 있음

2)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놀이용품을 비치해 두는 배려도 필요

- 아이들의 행동을 무작정 통제하기 보다는 아이들을 특정한 행동으로 유도할 수있는 조치들 필요
- 응답자의 66.4%가 색연필이나 종이접기, 그림책 등 놀이용품을 비치해 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

나. 노키즈존이 불가피한 경우 ‘아이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1)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노키즈존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 필요

- 아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노키즈존 논란 과정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있음
-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의 출입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노키즈존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2) 상황과 장소에 따라 어린이의 출입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노력 필요

- 연령 제한 영화나 공연, 클래식 콘서트 등과 같이 사회적 통념상 아이의 출입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어린이 출입 제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2. 교육기관(학교, 어린이집 등) 차원의 인성교육과 육아 네트워크 다변화가 필요하다.

가.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캠페인과 인성교육이 필요.

1) 카페나 음식점이라는 공간에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노력은 부족.

- 캠페인을 통해 공공장소 이용과 예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 필요.

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방안전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듯이 공공장소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함.

- 설문 결과 만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엄마들의 90.6%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에서 공공장소 예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49.8%로 절반에 육박.

나. 고립된 육아로부터 탈피하고 육아 네트워크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 하다.

1) 출산율 저하로 육아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육아 스트레스 증가는 오히려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 모성의 역할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육아 스트레스를 높이고, 이와 함께 아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초래할 가능성 있음.
- 아래 설문조사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방치하는 행동이 육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2) 주위에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에 따라 육아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차이 존재.

- 고립된 육아는 부모들이 자녀와 거리를 두고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주된 장애물로 작동.
- 주위에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 육아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반면, 주위에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3명 이상인 경우 육아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경향 보임.

3) 고립된 육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육아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

- 엄마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육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육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

- 또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부모들이 62.6%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간제 보육반을 늘려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 필요

다. 아이들의 공공장소 인성교육과 육아네트워크 다변화를 위한 노력

1) 아이들이 공공장소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앱 개발서 제안

- 최근 어린 아이들까지도 스마트폰, 테블릿 등을 통한 네트워크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에서 공공장소 예절에 관한 게임 혹은 짧은 애니메이션 등을 무료로 보급.
- 손쉽고,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인성교육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공공장소 인성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2) 식당, 카페와 같은 공공장소 곳곳에 어린 아이들이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짧은 만화(4컷, 8컷의 새로운 만화, 또는 기존의 만화책) 배치

-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공공장소에 갈 때마다 만화를 접함으로써 공공 예절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정부 혹은 기업이 SNS를 통한 공공예절 만화 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공공장소에 부착할 만화를 모을 수 있음
- 만화를 접하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모전 소식을 접하거나, 혹은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공공장소 예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음.

3) 어린 아이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적힌 에티켓 카드 발급

- ‘어린 아이’라는 집단 전체에 대한 배제가 아닌 행동에 관한 권고. 아이들은 사회의 문제로 여겨 배척시키는 태도를 예방할 수 있음.
- 실제로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아이의 소란과 다른 손님들의 불만이 줄어들었다고 함.

*유럽의 한 식당에서 만든 어린이용 에티켓 카드

자료 : 지식채널e-노키즈존과 '맘충'(https://www.youtube.com/watch?v=pSzSs8Kiso0#action=share)

4) 어린 아이들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 모유 수유 공간, 아기 의자등의 배치를 위한 법률 제안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공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KTX 18개 객실 중 단 1개 객실에만 유아 동반실이 있음(총 805석 중 56석)

자료 : 지식채널e-노키즈존과 '맘충'(https://www.youtube.com/watch?v=pSzSs8Kiso0#action=share)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실제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는 부모 78.7%

자료 : 다중이용시설 기저귀교환대 안전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2017

-공공장소에서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꼭 해야 하나 별도의 시설, 장소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줄어들 것 임(기저귀 갈기, 모유수유 등)

Ⅷ. 마무리 말

사람들은 각자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직업과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키즈존'을 두고 둘러싼 갈등 역시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어린 아이와 부모의 권리가 충돌하여 결국 각자의 이익을 위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갈등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공정'의 가치이다. 서로가 동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지, 각자의 이익이 모두의 이익으로 파생되어 성공적인

협상으로 끝마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렇기에 공정이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우위에 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이는 사회에서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노키즈존'에 대한 현황과 찬반, 쟁점, 해결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여론이 거세며, 일부 예절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과 그것을 방치하는 부모들로 인해 어린아이를 가진 가족 모두가 배척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황도 살펴보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앱 개발, 법률 개정, 만화 보급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 아이들의 공공예절 준수 의식을 높임으로써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을 더 포용하고, 그 결과 어린 아이라는 집단 그 자체가 배척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했다.

키오스크로 보는 불공정: 세대격차

10402 김민하 10403 김어진 10405 박소은
10409 이정연 10414 최현승 10415 홍유림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말한다. UN에서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로 구분 짓고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의 대한민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768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9%를 차지한다고 한다. 나아가 통계청은 2060년 대한민국의 고령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41%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과 미래에는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그들의 사회 적응도다. 우리는 그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2017년 OECD가 실시한 국제성인역량조사에 따르면, 16~24세 청년 근로자의 디지털 숙련도와 55세~65세 고령 근로자의 디지털 기술 숙련도의 격차는 60% 포인트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OECD 평균인 27% 포인트의 두 배를 넘는 수치이며 터키에 이어 격차가 두 번째로 심하다고 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고령화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노년층과 청년층의 정보 격차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노인과 청년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과 청년 사이의 정보 격차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인 키오스크에 대한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의 키오스크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키오스크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나아가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의 정보격차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 선행 연구 분석

1. 키오스크의 이해 및 현황

키오스크란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으로, 대개 이 방식을 적용하여 정보를 얻거나 구매, 발권,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 식당, 버스터미널, 지하철, 관공서,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고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키오스크는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층에게 유용하게 적용되며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가 장점이다. 국내에서 키오스크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무인화 바람이 불기 전 약 600억 원 규모이던 것에 비해 5배, 연평균 13.9%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한다. 키오스크가 가장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매장 중 하나인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도입률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기준, 롯데리아는 1350개 매장 중 825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영 중이다. 롯데리아는 2014년 직영점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를 시험 도입해, 지난해 무인화 운영률이 50%를 넘어선 이후로 현재는 60%에 도달했다고 한다. 전체 매출 가운데 계산원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무인 매출 비중도 2015년 8.6%에서 2017년 24.1%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다른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 역시 키오스크 도입 매장이 10곳 중 6곳에 이른다. 2015년 도입 이래로 현재는 전체 420여개 매장 중 250여 곳(59.5%)에서 키오스크를 가동하고 있다.

2.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석

〈표 Ⅱ-1〉 KFC 키오스크 디자인 분석

KFC	
메인 화면	키오스크에서 결제 가능한 수단 및 카운터 이용이 필요한 상황 명시
메뉴 선택 화면	-상단에 제품군 카테고리를 배치하여 사용자의 시선 흐름을 고려함 -한 지면 안에 많은 수의 메뉴를 배치함 ① 글씨 및 사진의 크기가 다소 작음 - 메뉴를 선택하면 사진이 주문 내역 공간으로 이동한 뒤 글자로 표시됨 ① 사용자가 원하는 메뉴를 올바르게 선택했는지 직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 ② 시각적인 재미 제공

	-'이전','다음'버튼 및 페이지 안내 내비게이션이 있어 위치 확인이 수월함
주문 내역 확인 화면	- 메뉴 결정을 마친 뒤 '주문'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으 로 나타남 - 상단에는 곁들여 주문하면 좋은 메뉴들을 안내 및 추천 ① 소비자들의 자연스러운 구매를 유도함 ② 효율적인 콘텐츠 표시로 사용자의 불필요한 행동을 최소화 및 대기 시간 감소
이용 방법 안내 화면	- 이용 방법 안내 버튼은 홈 버튼, 영양 정보 안내 버튼, 언어 선택 버튼과 함께 화면 우측 상단에 위치함 ① 타이포그래피를 크게 하여 장노년도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음 ②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어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명확한 이해가 어려움

3. 노년층을 위한 디자인 요소

〈표 Ⅱ-2〉 노년층을 위한 디자인 요소

레이아웃	이전·다음·Top 등의 아이콘 사용
타이포그래피	- 돋보기 기능과 음성인식 기능으로 시각적 불편함 해소 - 한 줄에 40~50 문자, 14pt 이상, 산세리프체 사용
색채	비슷한 색상이나 낮은 채도의 조화 지양
그래픽	미세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지양
아이콘	문자와 그림 혼합 사용, 구체적인 형태

4. 키오스크 디자인 고려 요소

〈표 Ⅱ-3〉 키오스크 디자인 고려 요소

경제성	중요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차별화하기 위해 GUI의 활용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지와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운 요소를 최소화시켜 사용자가 정보를 이해하는데 발생 가능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
안정성	안정성은 사용자가 친근한 정도에 따라 편안함을 느끼고 실수에 대하여 당황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한두 번의 실수 이후에는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
의사소통	GUI가 직관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적합한 요소 들을 사용하여 시스템과 사용자 간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항목

Ⅲ. 디자인 연구

1.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

〈그림 Ⅲ-1〉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 1

		10대 (18)	40세 이상 (18)
접근성	O	18	16
	X	0	2
사용	O	18	16
	X	0	2
편리성	편함	14	0
	불편함	4	16
선호	키오스크	12	5
	면대면 주문	6	13

단위: 명

〈그림 Ⅲ-2〉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 2

<table>
<tr><th></th><th>10대</th><th colspan="2">40세 이상</th></tr>
<tr><td>메뉴 선택</td><td></td><td colspan="2">- 화면 조작 및 메뉴 찾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
- 메뉴 조합에 대한 어려움
- 한 화면에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복잡
- 기업의 의도된 메뉴 순서 마케팅</td></tr>
<tr><td>결제</td><td>- 현금 사용 불편</td><td colspan="2">- 현금 사용에 대한 어려움
- 카드 결제와 할인 혜택에 대한 어려움</td></tr>
<tr><td>추가 정보 획득</td><td></td><td colspan="2">- 말로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편리
- 자문을 얻기 힘듦</td></tr>
<tr><td rowspan="2">기타</td><td rowspan="2">- 다음 고객의 재촉
- 앞 고객에 대한 기다림
- 종업원과의 대화가 없어도 됨</td><td>기계</td><td>- 도중 취소 시, 재시작에 대한 불편함
- 서툰 기계 사용
- 오류 발생에 대한 불편함
- 매장마다 다른 키오스크 사용법</td></tr>
<tr><td>그 외</td><td>- 오래 걸리면 눈치 보임</td></tr>
</table>

〈그림 Ⅲ-3〉 사용성과 사용자 경험 3

	10대	40세 이상
키오스크	- 메뉴 주문 시 종업원의 눈치를 볼 필요 X	- 눈치 볼 필요 X - 기계의 정확한 계산 - 직원의 불친절에서 탈피 - 사용할수록 익숙해질 것으로 전망
면대면 주문	- 메뉴 질문 가능	- 익숙한 방식 - 일자리 창출 기회 증가 - 부가 선택 편리 - 키오스크의 불편한 메뉴 조합 과정 - 할인 및 쿠폰 사용의 편리함

2. 맥도날드 키오스크 디자인 세부 분석

〈표 Ⅲ-1〉 맥도날드 키오스크 디자인 분석

메인 화면	신제품 광고화면 차지 비율이 전체 화면의 80%-〉 '주문'화면의 가시성이 떨어짐
'매장식사-테이크 아웃'선택 화면	옵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잘 드러남-〉 개선 필요 X
'카운터 결제-바로 결제'선택 화면	옵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잘 드러남-〉 개선 필요 X
메뉴 카테고리 선택 화면	세로열에 카테고리가 작게 분포하여 있음-〉 메뉴 카테고리 선택의 어려움, 카테고리 글씨 크기와 굵기가 노인층의 가독성을 떨어뜨림
세부 메뉴 선택	특정 카테고리 선택 후 메뉴를 결정하면 세부 메뉴 선택 화면이 뜸-〉 복잡하지 않고 선택한 것만 화면에 나타나 안정성을 높임-〉개선 필요 X
주문 내역 확인 박스	화면의 하단에 위치, 전체 화면의 약 10%의 크기-〉 자신이 주문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수량 선택 아이콘의 크기가 매우 작음
'주문 확인-취소' 선택 화면	화면 전체에 '확인'과 '취소'아이콘이 뜸-〉 선택 과정이 원활, 개선 필요 X
결제창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 방법이 두단계의 큰 그래픽으로 설명되어 이해하기 쉬움-〉 개선 필요 X

3. 개선 가이드라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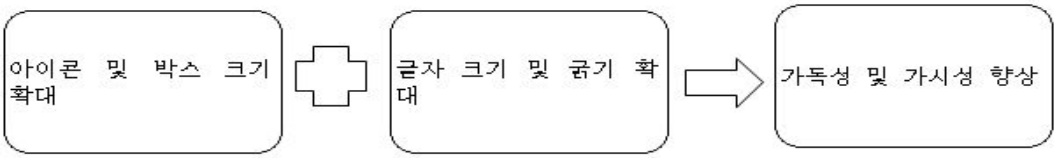
가. 메뉴 카테고리 아이콘의 크기 확대

나. 메뉴 글씨 크기 및 굵기

다. 주문 내역 확인 박스의 크기 확대

라. 수량 선택 아이콘 확대

〈그림 Ⅲ-4〉 개선 가이드라인



Ⅳ. 연구 결과

1. 디자인 개선 요소 및 결과

가. 주문 시작 버튼 크기 확대

1) 화면 정 중앙 위치

2) 전체 화면의 40%

나. 카테고리 선택 버튼

1) 카테고리 터치 스크린 -〉 버튼

2) 왼쪽 테두리 위치 -〉 화면 상단 2줄(첫 번째 줄 4개, 두 번째 줄 3개)

3) 전체 화면의 15%

4) 색깔 (녹색 강조 6, 60% 더 밝게) -〉 가시성 향상

다. 메뉴 글씨

1) 크기 20% 확대

2) 굵기 10% 확대

라. 화살표

1) 화살표 터치 스크린 -〉 버튼

2) 색깔 (빨간색)

마. 메뉴 주재료 표시

1) 메뉴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주문하는 노인층의 특성 고려

2) 메뉴 아이콘 박스 내부 오른쪽 위치

바. 주문 내역 확인 박스 크기 확대

1) 전체 화면의 40%

사. 수량 선택 아이콘

1) 20% 확대

2) '+' 아이콘 색 변경 (검은색 -〉 빨간색)

3) 아이콘 굵기 (실선 -〉 굵기 30% 늘리기)

〈그림 Ⅳ-1〉 키오스크 화면

추천
디저트
해피밀
버거
사이드
음료
세트
추 천 메 뉴
[쇠고기] 5900원
1955 버거 세트
[쇠고기, 베이컨] 5900원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세트
[닭, 토마토] 5900원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
[새우] 5900원
슈슈 버거 세트
주문내역
세 트 메 뉴
[더블 베이컨] 6900원
1955 스모키 더블 베이컨 세트
[버섯, 발사믹] 8000원
그릴드 머쉬룸 버거 세트
[쇠고기] 6500원
빅맥 세트
[닭] 4300원
맥 치킨 세트
1955 스모키 베이컨 세트
1
[더블 베이컨] 6900원
1955 스모키 더블 베이컨 세트
재료 추가 / 삭제
원래 메뉴를 유지하시고 싶으시면
측면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양파
토마토
추가
삭제
사이드
후렌치 후라이
골든 모짜렐라 치즈스틱 (두조각)
주가
+ 500원
음료
코카 콜라
환타
원하시는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신 메뉴를 확인해주세요
- 매장 식사
- 카드 결제
- 1955 스모키 더블 베이컨 세트 (1개)
> 후렌치 후라이
> 코카 콜라
변경
확인
아래 설명에 따라 결제를 진행해 주세요
IC신용/체크카드 사용시
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결제 오류 시, 카드를 긁어주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V. 결론 및 제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노인층의 정보 소외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년층과 청년층의 정보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무인 계산대 즉 키오스크가 있었다. 청소년층, 중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키오스크 사용'에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년층을 포함한 정보 소외 계층의 사용 불편도는 매우 큰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 결과와 기존의 맥도날드 키오스크 디자인을 분석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했다. 개선된 디자인은 정확도와 빠른 주문 등 기존의 장점은 유지하되 정보 소외 계층의 활용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인층이 어려움을 겪었던 경제성 부문 즉,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운 요소를 최소화시켜 사용자가 정보를 이해하는데 발생 가능한 오류를 줄이고, 사용자와 기계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맥도날드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자인을 시범 도입할 것이 권고된다. 이후 노년층과 중년층의 활용성과 편의성이 증대됨이 확인된다면 다른 패스트푸드점이나 공공장소 역시 새로운 키오스크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노년층과 장년층의 키오스크 사용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청년층과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 문헌

김동주. 2019.11.21.“키오스크의 그늘①] 패스트푸드 매장 점령한 무인화 기기”.〈메디컬투데이〉

김연지, 이소정, 이수민, 한수경, 한정민, 이민구. 2019.「고령층을 위한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인터페이스 디자인」. 한국정보과학회 2019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류기락. 2014「노동시장 제도와 미스매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제21권 제4호.

심규석. 2016.09.09.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6곳 '초고령'… 65세이상 20% 넘어”. 〈연합뉴스〉

하지은. 2018.12.31."키오스크〈무인주문기〉 1대가 직원 3명 대체…인건비 절감 자구책"〈이코노미조선〉

황성원, 김현석. 2019.「패스트푸드점의 무인주문결제 키오스크 사용자 경험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 제20권 제8호.

키오스크로 보는 불공정: 실업

10402 김민하 10403 김어진 10405 박소은
10409 이정연 10414 최현승 10415 홍유림

Ⅰ. 서론

최근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그 전년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었고, 2019년에는 그에 비해 10.9% 인상된 8350원이었다. 2020년에는 2.9% 인상하여 8590원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이는 키오스크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키오스크란 본래 공원이나 역에서 신문·담배 등을 파는 간이매점을 가리켰지만, 현재는 음식점이나 영화관, 카페에서의 무인 판매대 혹은 무인 주문기기를 말한다.

키오스크를 도입할 시 무인으로 주문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인력이 줄어, 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이 임금 지출 절감을 목적으로 키오스크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들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롯데리아는 전체 매장 중 61.1%의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하였고,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각각 59.5%, 67.8%의 도입률을 보였다. KFC는 무려 100%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키오스크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의 효율성은 확연히 증가한다.

그러나 본래 근무하던 직원들을 키오스크가 대체하게 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키오스크 사용으로 인하여 지출이 줄게 된 기업과, 일자리를 잃게 되어 소득이 줄고 구매력이 낮아진 노동자 사이의 불공정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최저임금을 감소시키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될 경우 고용의 질이 감소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노동환경이 열악해지고 양극화의 심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해결책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가?

Ⅱ. 키오스크

1. 키오스크의 정의

키오스크(Kiosk)란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의 일종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란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를 이용한 옥외광고, 즉 공공장소나 상업 공간에서 문자 ·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mnex). 대개로 무인발권기, ATM기, 미디어폴 등이 이에 해당하며, 키오스크 또한 포함된다.

키오스크 제작 회사인 ㈜터치넷에 따르면 키오스크는 포르투갈어 "Quiosque(신문판매대)"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매점, 가판, 자판기 등을 뜻하는 단어이나 현재는 무인정보단말기, 더 나아가 무인주문기계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키오스크는 관공서의 민원 안내 시스템, 도서관의 도서목록 안내 및 대출반납절차안내, 백화점 매장 안내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글에서 키오스크는 이런 광범위한 분야가 아닌, 무인주문기계라는 좁은 의미의 키오스크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키오스크, 즉 무인주문기계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키오스크 현황

1999년 키오스크 사업 규모는 100억원대, 2006년에는 600억원에 그쳤지만,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그 규모는 대략 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13.9%로, 1999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도의 사업 규모는 무려 30배가 증가했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키오스크 시장 규모도 만만치 않다. 시장조사회사 MarketsandMarkets는 세계 대화형 키오스크 (Interactive Kiosk) 시장이 2015년 473억 달러에서 2020년 734억 달러로 9.2% 증가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또한 2015년에는 ATM기가 84-87%, 키오스크가 13-16%를 차지하겠으나, 2020년에는 16-2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bcc Research 또한 2015년 492억 달러에서 2020년 835억 달러로 8.9%의 성장률을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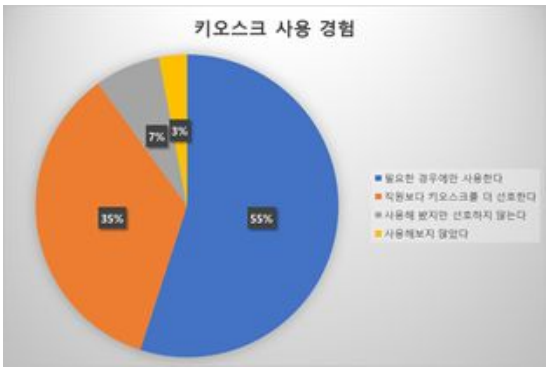
국내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사용률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롯데리아는 전국 총 1350개의 점포 중 826개의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했으며, 이는 61.1%의 수치이다. 맥도날드 또한 59.5%에 달하고 있고, KFC는 전국 200개의 점포 중 200개 전부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므로서 100%를 달성했다. 마지막으로 버거킹이 67.8%의 수치를 보이면서, 국내 유명 햄버거 프렌차이즈의 경우 전부 50% 이상의 점포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826/1350(61.1%)	250/420(59.5%)	200/200(100%)	230/339(67.8%)

3. 키오스크에 대한 인식

키오스크 사용 증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키오스크의 편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카운터 주문이 편리하다는 것이 다수이다. "무인화 추세를 앞당기는 키오스크(김용균)"에 따르면 IT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가 55%로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원보다 키오스크를 더 선호한다"가 35%로 이를 뒤쫓아오며 급작스러운 키오스크 확산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를 선호하지 않거나 사용경험이 없는 경우는 각각 7%, 3%로 큰 수치는 아니었다.



2018년 두잇서베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14-99세 남녀 35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65%P 이다.

먼저 상품 주문용 키오스크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간 만족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30.1%로 그 뒤를 이었다. 이후로는 매우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순서였다. 이에 따라 불만족 11.8%, 보통 30.1%, 만족 58.2%인 것을 볼 때, 전반적인 주문용 키오스크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직원 안내 서비스 선호도의 경우에는 상관없음이 전체의 42.1%, 직원안내가 39.2%, 키오스크가 18.7%로 나타났다. 상관없음을 제외하고, 성별에 따른 키오스크-직원안내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남자 26.2%, 여자 16.6%로 여성의 키오스크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았다. 연령에 따를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원 안내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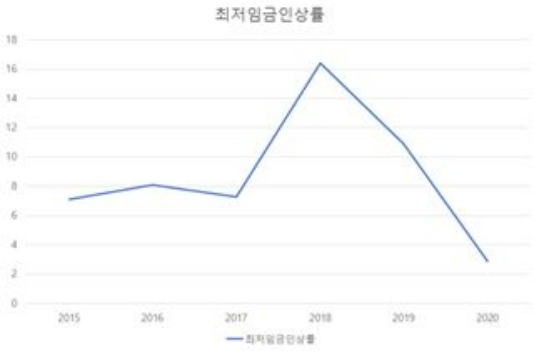
문항/보기	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100점환산
주문용 키오스크	22 (1.7%)	134 (10.1%)	401 (30.1%)	493 (37%)	283 (21.2%)	52.5점

	전체	남	여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N=3528	1402	2126	67	850	1251	863	497
키오스크	18.7%	17%	19.9%	25.4%	22.7%	18.9%	16.2%	15.1%
직원안내	39.2%	43.2%	36.5%	25.4%	27.4%	39.4%	47.4%	45.3%
상관없음	42.1%	39.8%	43.6%	49.3%	49.9%	41.3%	36.4%	39.6%

두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사람들은 직원안내를 조금 더 친숙하게 여기되, 상대적으로 전자기기 접근률이 높은 10대와 20대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반면, 고령으로 갈수록 키오스크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키오스크와 직원안내 중 큰 선호도 차이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대체적으로 키오스크 사용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인건비 증가와 키오스크 확산에 따른 실업

1. 최저임금 현황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8,350원으로 작년 대비 10.9% 인상한 수치이다. 2018년의 경우 전년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2001년 16.6%이후 최고치다. 이렇듯 두 차례의 10%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실직률 증가가 우려됐다.

통계청이 12월 11에 내놓은 2019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은 67.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고 청년층은 44.3%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했다.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고, 청년층은 7.0%로 전년동월대비 0.9%하락했다. 그러나 16.4%에 이은 10.9%의 최저임금인상이 실업률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일용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그 수치가 명확하게 확인됐다. 일용근로자는 11만 1,000명 감소했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만 6,000명 감소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5만 3,000명이 증가했고, 이 중 '쉬었음'인구는 20대 이상의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했다.

2. 인건비와 키오스크의 비용 비교

인건비와 키오스크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키오스크 관리비, 설치비, 임대비, 구매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키오스크의 월 관리비는 25,000-33,000원이다.

2.최초 설치비는 300,000원이며 이는 설치 시 1대당 1회 사용되는 금액이다.

3.키오스크 구매/임대 업체인 H사의 무인결제 키오스크 임대비는 다음과 같다.

4.구글 쇼핑 정보에 따르면 키오스크(무인셀프주문결제기)의 최고가는 P사의 1,080,000원이며 최저가는 O사의 390,000원이다(카페/식당 전용. 대형 프렌차이점 부적합). 대형 프렌차이점에 적합한 대형 키오스크의 경우 200만-800만원이다.

	RENT 36	RENT 24
15인치 키오스크 (벽걸이형/탁상형)	58,000원	90,000원
15인치 키오스크 포스 (탁상형) 〈키오스크+POS결합 모델〉	70,000원	100,000원
21.5인치 키오스크 (벽걸이형/탁상형)	95,000원	140,000원
15인치+현금 키오스크 (스탠드형)	110,000원	165,000원
21.5인치+현금 키오스크 (스탠드형)	147,000원	215,000원
43인치 키오스크 (스탠드형)	150,000원	220,000원

H사의 43인치 키오스크(스탠드형)을 36개월 임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1대당 필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설치비 300,000원

월간 이용 금액:월 관리비 25,000원+임대비 150,000원= 총합 175,000원

수리비, 전력비용 등 기타 비용 제외

최저임금 8,590원인 2020년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는 1명당 다음과 같다.

하루 8시간, 주5일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은 160시간(한달 근무일수 20일)

8,590×160=1,374,400

매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주휴수당은 68,720원, 4주로 환산하면 274,880원

총합 1,649,280원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음

"무인화사업(김민경)"에 따라 무인주문기 한 대당 1.5명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키오스크 비용: 인건비는 키오스크 초기 비용 제외, 525,000:3,298,560인 셈이다. 이에 더해 키오스크를 사용한 광고 수입이 추가된다면 비율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키오스크 도입과 함께 연상되는 실업률 걱정은 중요한 문제이다. 키오스크뿐만이 아니라, 부분무인화를 거쳐 완전무인화로 나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실업은 현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Ⅳ. 해결방안

1. 키오스크세

키오스크로 인한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실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키오스크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키오스크 확산 억제 및 정부 예산 편성을 꾀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실업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 붇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일자리 사업 예산안 현황

키오스크 이전에도 실업률은 꾸준히 논란거리였다. 최근에는 실업률이 대폭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일자리에 대한 재정지원은 증가하고 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안은 25.8조원으로 전년 대비 4.5조원, 21.3% 증가했다. 이 중 직접일자리가 8,462억원(+40.7%)로 가장 큰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소득유지및지원(+30.9%), 고용서비스(+23.0%), 직업훈련(16.9%), 고용장려금(+14.3%), 창업지원(-5.8%)이 뒤를 이었다.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내 의무지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여지가"있으며, "전체 일자리 예산의 지원배분 및 규모 결정 시 의무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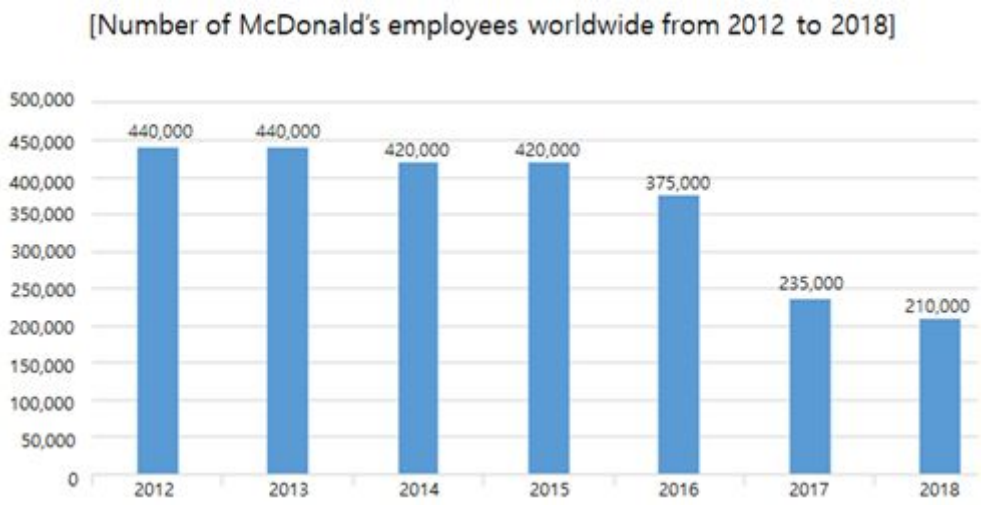
[유형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구분	직업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유지 및 지원	합계
2019(본)	20,779	19,610	9,867	57,883	25,097	79,139	212,374
2020(안)	29,241	22,917	12,133	66,166	23,631	103,609	257,696
증감	8,462	3,307	2,266	8,283	△1,466	24,470	45,323
증감률	(40.7)	(16.9)	(23.0)	(14.3)	(△5.8)	(30.9)	(21.3)

(단위: 억 원, %)

나. 키오스크 도입으로 예상되는 추가 지출

이러한 상황에서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율은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로 추산된 바 없다. 그러나 키오스크의 아르바이트생 대체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맥도날드는 2020년까지 14,000개 이상의 매장에(글로벌 시장 포함) 무인서비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2, 2013년 맥도날드 직원 수는 440,000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10,000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수천 개 이상의 점포 확장을 반영한 수치다.(Jon Miltimore.2019)



키오스크로 인건비 감소를 꾀하는 곳은 대형 패스트푸드점만이 아니다. 9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의 A갈비집은 키오스크 도입해 월 7백만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한

돈카츠 전문점 직원은 무인주문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직원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키오스크 1대당 직원 1.5-3명과 비슷한 효율성을 가진다는 연구와 실제로 아직까지는 키오스크가 직원 3명 해고까지의 결과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키오스크 1대 도입은 직원 1-2명의 감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을 이용하면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한 실업률 보완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부지출을 도출할 수 있다.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는 대개 비전문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이며 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이 사회초년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을 지원하는 취업장려금 중 대표적인 것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다. 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므로, 키오스크 1대로 인해 미취업자가 1-2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추가적인 비용은 최대 300-600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비용 계산은 간단하지 않다. 40-50대의 장년층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키오스크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그들이 은퇴한 이후 주 수익이 되기도 하는 아르바이트 분야가 감소하여 생기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안 경정을 위한 비용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지 못했다.

다. 키오스크의 편익과 세금 제정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월 20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을 계산한 월급은 165만원이다. 키오스크 도입으로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키오스크 사용비 제외, 매 월 165만원에서 330만원 사이다. 키오스크의 월 사용비는 임대기준 약 18만원, 키오스크 구매 시 3만원대로 그 간격이 매우 크다.

인건비 감소로 얻은 기업의 수익이 다른 방향에서 생산량 발전을 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키오스크에 총합 200만원의 세금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6개월기준) 매월 33만원의 세금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키오스크 사용시 필요한 전력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수치다. 물론 키오스크의 종류에 따라 감소하는 인원이 다름으로 이 비율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키오스크 유지비가 아닌 구입비에 따라 세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으나, 대략 300만원 선의 기계에 200만원 대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기업이 감당하기 힘들고, 무엇보다 전자의 경우 6개월 뒤에는 200만원 이상의 정부 수입을 야기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일회성이 강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존 키오스크 사용비가 20만원 내외인 반면(임대 기준) 세금의 경우 그 두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면, 키오스크 판매/ 임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라. 고용증대에 따른 감세 정책

단순히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사회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즉, 키오스크세는 효율성이 아닌, 기업과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공정, 즉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인건비를 축소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다고 해도, 그 이득은 전부 순수익이 되진 않는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인건비로 축소한 양만큼, 혹은 더 투자하여 신메뉴/신제품 개발이나 매장 확대 및 축소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러한 순환이 생긴다면 고용률, 특히 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일자리의 질을 확보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키오스크 사용에 동등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기업이 추가적인 예산을 사용해 다른 방향에서 고용 증대 효과를 이루어 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선사할 필요가 있다.

맥도날드는 지난 14일 신메뉴를 개발하며 기존 직원 80명 외에 신메뉴 전담 인력을 30명 추가 채용했으며, 다른 분점에도 각각 35명씩 70명의 추가인력 채용을 계획 중이다.

또한 맥도날드 매장당 근무자수는 40명에서 100명 사이이다. 맥도날드 분점이 하나 늘 경우 이에 대한 고용 증대 효과를 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의 추가 인력 채용은 대부분 일용직이 아니며,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임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감소하는 일자리에 비해 적은 일자리가 생성될 것이다. 또한 이는 비숙련자 노동직과 숙련자 노동직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맥도날드의 추가 매장 증설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 도입과 함께 직원 수가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투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키오스크에 세금을 부과하되, 기업이 자기업 고용 창출에 대한 보고를 할 경우 "일정한 양"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를 보완하되 각 기업의 생산량 증대를 고려한 적절한 수치가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천여 명 대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기계부수기운동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기술발전을 멈출 수도, 기업이 무인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다.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증대를 꾀하고 이는 결국 사람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조선시대의 귀족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기술 발전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키오스크 도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인건비 감축을 목표로 확대된 기술인만큼 일자리 감소 폭은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제시한 대처방안은 간단하다. 미취업자들에 대한 복지 시스템을 구성하면 된다. 키오스크 이용에 세금을 매기고 이에 따른 정부 수입으로 미취업자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기

업이 생산성 증대는 새로운 분야의 고용 창출 효과를 제시할 경우 일정 부문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무인화의 장점이 퇴색되지 않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키오스크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술발전과 완전 무인화로의 한걸음은 취업과 관련된 두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대로 4차산업혁명이 진행된다면 세상의 모든 부는 피라미드 꼭대기 층에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미취업자에 대한 복지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키오스크에 대한 세금을 이를 위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김민경. 2010.「무인화 사업」. 한국산업연구원.

박선정. 2019.9.16. “육수당, 매장 키오스크 도입... 효율성 강화”.《식품외식경제》.

지연진. 2018.9.9. “월 인건비 220만원 절감... 알바 자리 넘보는 키오스크”.《아시아경제》

이지선. 2019.1.22. “‘무인화의 역습’ 키오스크 시대의 명과 암”.《MBC》

박민해. 2019.3.29. “터치 몇 번으로 주문을! 키오스크 전성시대”.《포항공대신문》

박지훈. 2019.8.29. “완전 무인시대 이끄는 ‘키오스크’ 산업-인건비 넘어 임대료까지 확 줄여”.《매일경제》

이훈. 2019.8.20. “맥도날드, 고용 창출에 ‘앞장’... 시그니처 버거 전담 인력 70명 추가 채용 ”.《쿠키뉴스》

조성훈. 2017.11.30. “매년 알바 300명 정규직 채용...‘맥도날드 미라클’”.《머니투데이》

나성원. 2019.1.4. “‘무인화 기기’ 여룽.. 최저임금 인상의 씁쓸한 풍경”.《국민일보》

김보라. 2018.7.17. “최저임금 인상 ‘과속’에 확산되는 무인 주문기”.《한국경제》

| 정책제안서 |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질 개선을 위한 고용주의 올바른 교육 이수 의무화 법률 개정 및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 제안

10406 오은빈, 10411 정수진, 10418 권윤석
10420 석지웅, 10422 윤서준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888년에 배재학교가 설치한 자조부이다. 이후로 꾸준히 확산된 아르바이트는 성인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산업혁명 이후 노동력의 수준 향상에 따라 조금 더 나은 조건과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권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의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분명히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많다. 그리고 그중 큰 문제인 것이 바로 청소년 아르바이트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펴낸 '청소년 근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알바를 하는 고교생 10명 가운데 3명은 부모의 재정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생계형 알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0%가 '현재 하고 있는 알바를 계속하겠다', 70%가 '최저시급이 올라도 알바 시간을 줄일 의사가 없다'고 답한 것도 10대 청소년의 알바가 과거 '한시적·경험적 일'에서 '장기적·생계형 일'로 성격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는 근거가 되었다.

아르바이트가 생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인권 침해 또한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 또는 작성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 20.8%, 부모동의서 32.1%, 가족관계증명서 19.2%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근로계약서의 작성 비율이 20.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근로 보호 수준이 열악함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경험을 했는지 여부를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맡은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억지로 한적이있다'는비율이16.8%로가장높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6%,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14.2%, '임금을 제때받지 못한적이 있다'는 12.6%,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11.8%로 나타나는 등 많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중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조사한결과, '참고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응답 비율이 24.3%로 나타났고,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3.8%, '교사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1.2%, '상담소나 민간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0.7%에 그쳤으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도 9.8%에 달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중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알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음을알수있다. 노동 인권 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7.5%에 불과하였다.

임금 관련 부당 대우는 많지만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해당되어 합의로 끝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정웅 알바노조 비대위원장은 "처벌보다는 합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관행 때문에 더욱더 사용자 측에서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당 대우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고용주와 청소년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해 정확한 정보,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비율이 20.8%에 불과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과 근무 시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이 71.8%였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는 물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학생은 71.1%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통계 자료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법률 지식 수준이 현저히 떨어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만 법률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즉 고용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인지하고 있어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을 속이고 고용하기도 한

다는 점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과정의 부당 대우 발생을 증가시킨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인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청소년 근로 기준법을 살펴보면 고용주의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더 강력한 법을 구조화하여 청소년들이 근로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을 감소시켜야한다. 청소년 근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용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올바른 고용에 대해 고용주의 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전국의 모든 고용주를 소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주에게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한다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권을 지급하여 고용주의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총합 7시간의 인터넷 강의를 듣고 마지막 단계에서 간단한 필기시험을 통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에도 불구하고 부당대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강력한 처벌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실상 위와 같은 제도적 차원의 해결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까닭으로 개인적 차원의 해결방안 또한 제안하여 이를 홍보하고자 한다.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모르는 청소년은 약 10명 중 7명에 달한다. 이 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미리 예방한다거나 심지어는 아예 알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인식개선을 위한 첫번째 해결방안으로 SNS를 통해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확산시키는 방법이 있다. 10대 SNS 이용률은 약 50%로 2명 중 1명 꼴로 SNS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청소년 알바 10계명 등의 부당한 대우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들은 널리 퍼뜨린다면 그들의 근로에 대한 인식 수준이 고취되어 부당한 대우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두번째 해결방안으로는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있다. 강원도에서 2019년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박람회에서는 청소년 근로자에게 각종 부당한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세번째 해결방안으로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연락하는 것을 제안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 연락하여 고용주를 고소한다던가 고용주와 협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주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고용주 교육을 통해 청소년 부당대우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기본적 근로 지식 향상을 통한 문제 파악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 연락하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해결방안들을 통해 노동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 모의고사 |

2019 PBL 역량평가 1

제 0 교시

공정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1~4] (가)와 (나)는 기사문이고 (다)는 위 기사문과 관련된 통계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알바를 하는 고교생 10명 가운데 3명은 부모한테 용돈을 받지 못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는 '생계형 알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펴낸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고교 재학생 200명 가운데 부모한테 용돈을 받지 못해 교통비·통신비·급식비·간식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스스로 벌어 쓰는 학생들이 29.0%나 됐다. 부모에게 용돈을 받지만 자신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소비를 위해 알바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9.0%였다. 김 연구위원은 "2013년 기준 근로 청소년은 대략 22만여명 정도로 15~18살 중고생의 3분의 1 이상이 알바를 경험한다"며 "단순 경험이나 추가적인 소비를 위한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일상생활과 생계 유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근로 청소년의 비율이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7.1개월로 알바가 고정적인 수입원 구실을 하고 있었다. 알바 기간이 1개월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5.5%에 그쳤으며, 2~4개월(36.6%), 5~15개월(37.0%), 16개월 이상(11.5%) 등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재 하고 있는 알바를 계속하겠다'(80.5%), '최저시급이 올라도 알바 시간을 줄일 의사가 없다'(70.5%)고 답한 것도 10대 청소년의 알바가 과거 '한시적·경험적 일'에서 '장기적·생계형 일'로 성격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렇듯 공부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또한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역 청소년단체들로 이뤄진 '대구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는 18일 "대구지역 특성화고교 19곳의 아르바이트 경험 있는 학생 790명을 지난해 6월 방문해 설문조사했더니,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32.1%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또 27.5%는 '작업현장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 또는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했고, 22.3%는 '임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기도 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의 18.7%는 '약정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무급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17.5%는 '일하면서 식사를 받지 못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만두고 싶어도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도 16%를 웃돌았고, 10%는 '일하는 곳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5.4%는 '일하는 곳에서 성폭력을 포함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43.8%가 '참는다'고 대답했다. '관리자와 직접 해결했다'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대답은 각각 28.1%와 21.9%에 그쳤다. '참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56%), '귀찮아서'(24%), '보복당할 것 같아서'(16%) 등을 들었다.

(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임금 체불, 미지급, 차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임금 관련 부당 대우는 많지만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해당되어 합의로 끝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정웅 알바노조 비대위원장은 "처벌보다는 합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관행 때문에 더욱더 사용자 측에서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 대우를 받는 것은 임금과 관련된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폭언,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맞닥뜨릴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무시, 폭언 등의 부당 대우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근로 조건에 처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실제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터뷰를 진행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을 시작할 때에 제대로 된 업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냥 눈치 봐가면서 옆에 사람 따라하고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데 뭘 물어보면 "이것도 모르냐"면서 면박을 주기도 하고 "이래서 학생들은 안 된다"라는 발언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거기다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거기다 항의나 불만을 표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알바에 관련된 부당 처우가 청소년과 사용자 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들도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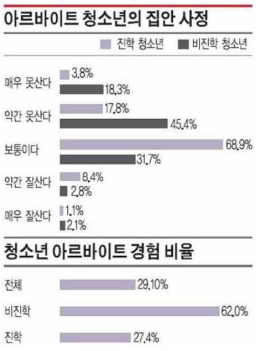
2 공정 영역

일례로 웨딩홀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많은 고객들을 상대해야 한다. 거기다 연회장에서 술을 많이 마신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도 비일비재하다. 계속 나오는 뷔페 접시를 치울 때마다 쉴 새 없이 "실례하겠습니다"를 말해야 하고, 접시를 여러 개 쌓고 한손으로 들고 나르는 중간, 중간에 고객들의 요구를 또 한 다 들어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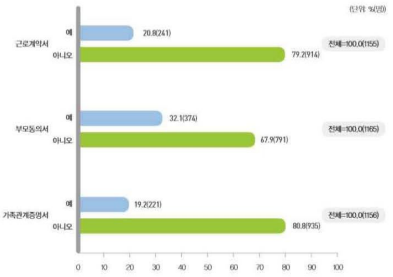
연회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은 36.6%로 적은 수치가 아니다. 심하게는 규정상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을 거절해서 폭언·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고객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당했지만 싫을 내색을 하지 않고 참아야한 적이 있었던 경우가 그런 편이 28.8%이고, 매우 그런 편이 4.7%로 나왔다.

(다)

[자료1]



[자료2]



[그림 3] 서류 작성 및 제출 여부

[자료3]

[표 6] 업무상 재해 경험 빈도

(단위: %(빈도))

내용/구분	없다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이상	N
뜨거운 것에 덴 적이 있다	68.0(793)	12.5(146)	8.4(98)	4.3(50)	6.8(80)	100.0(1167)
날카로운 것에 베인 적이 있다	75.7(884)	11.8(138)	5.7(67)	2.7(32)	4.0(47)	100.0(1167)
뼈가 부러지거나 뺀 적이 있다	95.1(1111)	2.5(30)	1.1(13)	1.1(13)	.1(1)	100.0(1167)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96.6(1128)	1.7(19)	1.0(12)	.7(8)	.0(0)	100.0(1167)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친 적이 있다	90.4(1054)	5.0(58)	2.3(27)	1.2(14)	1.2(14)	100.0(1167)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다	87.6(1023)	7.0(82)	2.6(30)	1.3(15)	1.5(18)	100.0(1167)

1. 다음 기사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경험을 위한 목적을 넘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다.
② (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근로 청소년은 대략 22만여명 정도로 15~18살 중고생의 3분의 1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다.
③ (나)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사용사에게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④ (나)에 따르면, 성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 수준에서 문제 상황이 끝나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의 경우 엄히 처벌된다.
⑤ (나)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 및 처우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2. 기사 (가), (나)와 (다)의 자료들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의 [자료1]에서 비진학 청소년의 63.7%가 '못산다'로 응답한 것을 보아, (가)에서 드러난 청소년들의 생계형 아르바이트 발생의 원인이 경제 환경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군.
② (다)의 [자료2]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9.2%인 것을 보아 (가)에 드러난 것처럼 임금 관련 부당 대우가 발생해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군.
③ (다)의 [자료3]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과 (나)에서 감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아 청소년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군.
④ (다)의 [자료2]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무 시 부모동의서는 제출하는 비율보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비율이 훨씬

공정 영역 3

높은 것을 보아 부모의 동의가 제대로 있는지 의문이 드는군.

⑤ (다)의 [자료1]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비진학 청소년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료3]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아 한국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군.

3. <보기>를 보고 (가), (나), (다)에 대해 알맞게 유추하지 못한 것은?[3점]

<보기1>

< 연소자 보호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 99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함(2013. 5~7)

내용	인지 여부		
	안다	모른다	전체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에 걸리면 고용주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45.7	53.3	100
고용주는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경우 부모님(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함	41.3	58.7	100
만 18세 미만인 자를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28.9	71.1	100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도 3년 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음	28.3	71.7	100
일하다 부당한 처우 시, 청소년을 도와주는 신고전화 (☏1644-3119 또는 ☏1388)가 있음	25.9	74.1	100
고용주(사장)는 일을 그만둔 지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함	15.2	84.8	100
고용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등 보상 신청 가능	8.7	91.3	100

<보기2>

제12조②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80조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① <보기1>을 보니, (가), (나)에서 드러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부당 대우는 법률에 대한 인식 부재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② <보기1>과 <보기2>를 비교할 때,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에 따라 고용주의 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학생들의 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고용주 임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④ (다)의 [자료3]에 근거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중 재해가 발생해도 청소년들의 법 이해가 부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⑤ <보기1>에 따라 고용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등 보상 신청을 할 수 없고, 학생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4. 빈칸 ㉠에 들어갈 인터뷰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르바이트 근무 조건이) 6시에 도착이었어요. 6시 1분에 도착하면 1만원 씩 깎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러한 규정은 미성년자 알바생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었어요..."

② "점심시간도 안 주시면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더해졌다 그러니까 3시간을 빼야 한다 라고 말을 해 주시니까...."

③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심지어 이 xx, 저 xx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욕으로 사람을 호명한다. 직급이 높으면 무조건 양해 없이 하대한다."

④ "다른 직원이 하는 거를 따라해야 한다. 손님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해야 한다."

⑤ "당연하다는 듯이 주휴수당도 챙겨주시지 않고, 학생이랑 성인이 시급이 다르다면서 더 조금 받고 일해라..."

[5~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지하실에 현관문도 잠기지 않는 집이 몹시 위험해 보였다. 강후의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지, 아니면 잘 못 들었는지 당진 아줌마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까이 다가가서 다시 질문을 하려는 참에 사장이 불쑥 들어왔다. 넥타이까지 맨 말쑥한 양복 차림이었다. 표정을 보니 천둥이 칠 조짐이 느껴져 불안했다. "야, 인마! 너 왜 거기 서있어! 설거지하는 거 처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서 가서 네 일이나 해!" 일찍 나와서 시간 여유가 있었다. 아직 홀 서빙 담당 아줌마들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장은 강후한테 계속 호통을 쳤다. 더위를 먹었거나 집에서 사모님이랑 부부 싸움이라도 했나보았다. ㉡"이봐요, 당진댁~. 널찍한 주방 놔두고 왜 여기 나와서 해요?" 반대로 당진 아줌마한테 건네는 말은 나긋나긋했다. 걱정이 듬뿍 담긴 말투였다. 아부 끼가 다분히 느껴졌다. 극에서 극으로의 순간 이동이다. "주방장이 여기서 하라고 그랬어요." "주방 싱크대에서 하는 게 편하지. 여기 쪼그리고 앉아서 하면 힘들

4 공정 영역

지요?" "괜, 괜찮아요" "야! 이것 좀 주방으로 들어다 줘!" 홀을 거쳐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강후를 사장이 불러 세웠다. 주방에서 한바탕 잔소릴 퍼붓고서 밖으로 나온 사장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살폈다. 하늘이 흐릿하기는 했지만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다. 큰비가 한번 쏟아져야 시원할 텐데 벌써 열흘 넘게 비소식이 없었다. 마른장마라나 뭐라나? 이상한 일기예보가 얼마 전에 있었다. "에이!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물가가 천정부지로 자꾸 오르기만 하고 내려갈 줄은 모르니 원! 이번에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해. 우리 같은 서민들이 도대체 살 수가 있어야지. 크악 퉷!"

(나)

사장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게다가 ㉢개 밥그릇처럼 심하게 찌그러져 꼭 송충이 씹는 표정이었다. 괜히 말했나? 며칠 동안을 망설이다 겨우 한 말인데! 하지만 이미 말을 했으니 되돌릴 수는 없었다. 입을 꾹 다물고 사장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윽고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짓이겨서 끈 사장이 윽박지르듯 물었다. "너,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 "저, 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일을 해야 한다고....." "누가 그따위 말을 해 , 자식아?" 욕설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기분이 상해 강후도 인상을 쓰고 대답했다. "그거 작성 안하면 불법이라고 그래서요." "불법? 아냐, 인마! ㉣작성 안해도 괜찮으니까 가서 일이나 해!" 불법이라는 말에 오리발은 흥분을 해 손을 내젓고, 핏대를 세우고, 침을 튀겼다. 멱살이라도 틀어잡고 흔들 것 같았다. 강후는 겁이 나서 한발 물러났다. "내가 고깟 돈 몇 푼 떼먹을까봐 그딴 걸 써달래? 이 자식이 사람을 뭐로 보고." 독이 올라 붉으락푸르락하는 사장의 얼굴에 강후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잘못하면 뺨이라도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니? 화는 내가 더 내야지, 왜 지가 더 흥분을 해서 저 난리야?" 열을 받아 은행나무 가로수를 힘껏 걷어찼다. 나뭇가지가 놀라 흔들려 잎들이 파르르 떨었다. 열을 식히려고 심호흡을 했다. 그러면서 저 멀리 월계교차로 건너편 성북주유소를 살폈다. (중략)

"야, 인마! 너 왜 그래?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어? 거기서 동전 주웠어?" "아, 아니요." "저 숯불 잘보고, 퇴근 시간 됐다고 얍삽스럽게 후다닥 가지 마! ㉤역긴 영업이 새벽 2시까지이니까 손님이 많고 바쁜 것 같으면 한 시간 정도 더 일을 해. 그러면 내가 그걸 모른 척하겠냐? 시간 외 수당으로 다 쳐주지. 알았어?" "예? 예! 예!" 강후는 습관적으로 허리를 굽히며 예! 예! 소리를 연발했다.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일단 사장의 비위를 맞춰줘야지 그나마 한 달 치 알바 급료를 받을 수 있겠다는 계산에서였다.

-다음은 위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굳은 얼굴로 다가오는 사장. 그리고 퉁명스럽게 내뱉는 거친 말. "야, 인마! 이 박스 이거 귀한 거야." "그래요?" "그래, 인마! 이 박스 가져가게 하면 절대 안 돼!" 숯을 담은 박스라 내부가 시커먼 숯가루 투성이였다. 그런데 귀한 거라니? 무슨 말인지 몰라 멀뚱히 사장의 얼굴을 쳐다봤다.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너, 여기 쓰여 있는 글씨 안 보여?" "글씨요?" "여기 인쇄돼 있는 이 글자 말이야." 박스 겉면에는 '백운참숯'이라고 큼직하게 쓰여 있었다. 눈에 확 띄는 고딕체였다. "백운참숯요?" "그래, 인마! 이건 진짜 국산 참숯이란 말이야. 중국제 가짜가 아니야," 사장이 심하게 인상을 썼다. 말투도 한층 더 거칠었다. "뒷마당 창고에 가면 '오대참숯'이라는 숯 박스가 가득 차 있어. 시간 날 때 놀지 말고 이 빈 박스를 가지고 가서 그 숯을 채워다가 여기에 쌓아! 오가는 사람들이 잘 보도록." 편의점 사각형 몬스터가 한 말이 떠올랐다. 이게 바로 눈속임이군! 중국산 숯을 국산 참숯 박스에 옮겨 담는 이른바 박스 바꿔치기! 속으로 말하며 사장의 눈치를 살폈다.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 지시대로 똑바로 해!" "예, 사장님!"

-양호문, 「별 볼 일 있는 녀석들」

5. 다음은 ㉠부터 ㉤까지의 설명이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사장'은 성인 근로자들과 달리 청소년 근로자인 '강후'의 이른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
② ㉡: '사장'은 성인 근로자인 '당진댁'과 청소년 근로자인 '강후'에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며 차별하고 있다.
③ ㉢: '사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탐탁지 않게 여김을 알 수 있다.
④ ㉣: '사장'이 작성을 안해도 괜찮다고 한 것을 보아 근로계약서작성은 '사장'의 자율임을 알 수 있다.
⑤ ㉤: '사장'은 '강후'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

6. 다음은 <그렇습니까?기린입니다>의 줄거리의 일부이다. 다음의 '나'에게 위 작품의 '강후'가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는 전형적인 프리타다. 아침에는 푸시맨, 오후에는 주유소,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번다. 푸시맨은 시간당 3000원, 주유소는 1500원, 편의점은 1000원을 받는다. 코치형에게 사준 250원짜리 카프리썬은 편의점 알바 인생의 25분이다. 콜라와 오예쓰를 사느라 쓴 1500원은 푸시맨 인생의 30분에 해당한다. 나는 편의점에서 받는 1000원은 적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1시간에 1000원어치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사장은 말한다. "그러면서 세상을 배우는 게야."

① "너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는 거야, 그거 작성 안하면 불

공정 영역 5

법이래."
② "너네 사장님도 너한테 많이 욕하시니?"
③ "너도 사장님께서 손님이 많으면 일 더 하라고 하시니? 우리 사장님은 그러면 시간 외 수당으로 더 쳐주신대."
④ "너도 사장님이 임금을 떼먹으시니?"
⑤ "나는 사장님 비위를 맞춰야지 급료를 받을 수 있니?"

7. 다음은 <보기>는 근로기준법이다. 이를 통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 근로자인 '강후'에게 사용자인 '사장'이 계속 호통을 치며 윽박지르는 것을 통해 제4조의 '동등한 지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② 사용자인 '사장'이 '강후'에게 '어서 가서 네 일이나 해'라고 말한 것을 통해 '강후'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제7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③ 청소년 근로자인 '강후'가 사용자인 '사장'이 '멱살이라도 틀어잡고 흔들 것 같았다'고 느낀 것을 통해 제8조를 위반했다고볼 수 있다.

④ 제7조와 제53조의 4항을 고려할 때, 사용자인 '사장'이 청소년 근로자인 '강후'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초과근무이다.

⑤ 제56조 1항을 고려할 때, '강후'의 기본 시급이 8,350원이라 고가정하면 '사장'은 '강후'에게 1시간의 초과 근무 수당으로 12,525원을 지급해야 한다.

[5~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주변에서 본래 직업이 아니라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단기간, 이니면 임시로 고용되어 히는 일을 히는 시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을 아르바이트라고 한다. 현재, 많은 청소년이 모종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하는 아르바이트를 "청소년 아르바이트"라고 부른다.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뀜에 따라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의 부당 대우에 대하여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커지고, 해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부당 대우 문제 또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사상들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인 (가)자유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며 개인의 좋은 삶을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나)공동체주의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유주의 이론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개인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하는 사상이다. 그렇기에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도 무한정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근거하여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노동에 대해 자본주의 이론에 기초한 입장을 가진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임금)의 결정을 따르며, 노동의 유연성을 중요시한다. 노동시장에서도 공유가치의 창출을 중요시하고,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추구한다. 노동 또한 결국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서로 간의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와 피고용자 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제재나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의 부당 대우에 대하여 해당 문제가 사전에 계약상으로 자발적인 동의 하에 합의된 것이 아니기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생각하여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합의 과정에서 노동 조건에 대한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었다면 괜찮은 것으로 간주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나 재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파악한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청소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사용자들을 처벌하는 일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간섭이나 개입을 부정한다. 전통적인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성인에 비해 능력이 부족하고 감정적인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것이 시장의 기능을 저해한다고 본다.

이러한 자유지상주의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사회적 조절 기능을 맹신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자 등장한 것이 평등지향적 자유주의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자

6 공정 영역

유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기회를 줄 것을 주장한다. 대표적인 평등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로 롤스가 있다. ㉠롤스는 공정한 사회계약에 대해서 역설한다. 그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계약이란 우리가 미리 어느 사회적 지위에 위치될지 알 수 없다면, 즉 무지의 베일 속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다. 롤스는 노동에 대하여서도 평등의 원칙을 적용시킨다. 취직이나 임금 등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이러한 분배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여건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재능이나 가정 환경 등 임의적인 요소들을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롤스는 청소년 부당 대우에 대해 어떤 측면에서 비판을 가할까? 롤스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배경을 지적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좋지 않다면, 그들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렇듯 좋지 않은 조건에 처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큰 이익이 돌아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합의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공정한 결과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와 대조적인 입장을 가진다. 공동체주의자들은 효용의 확대를 넘어서 인간의 좋은 삶, 선의 추구에 대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한다. 권리보다는 공동선이 앞서는 가치라는 논리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노동에 대해 단순히 시장 가치만으로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 인간의 '좋은 삶'을 영위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노동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 문제를 시장의 조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개인 간의 자발적인 동의를 넘어선 도덕적 의무에 대한 추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 ㉡마이클 샌델은 자유주의가 간과하는, 재화가 갖는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를 강조한다. 샌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에 대해 이러한 공동체주의 사상적 배경을 전제로, 앞서 언급한 비효율성과 공정성의 측면을 넘어서서, 다른 측면에서의 반박을 할 것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는 청소년의 기본적 가치를 타락시키고 저하시킬 수 있다. 지나치게 어릴 때부터 사회에서 교환 가치로 취급받고, 본인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청소년을 노동 시장에 투입시키고 그들로부터 교육의 기회를 앗아가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부패이다. '청소년'의 가치는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인격체로 대우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를 정하기 위한 시민적 토론이 필요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자유지상주의에 내맡기는 것은 좋지 않다. 청소년에 대한 자격이나 규범을 결정하지 않고 미루어 놓는다고 해서 아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청소년의 가치를 결정해 버릴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청소년이 노동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 및 착취를 당한다면 공동체의 '연대 의무' 차원에서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합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당한 조건에서라도 동의 하에 노동을 할 권리보다 '옳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샌델의 입장이다.

각기 다른 사회사상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를 두고 각기 다른 입장에서 그것의 불공정성을 주장한다. 이렇듯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 문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다. 또한, 문제를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8. 위 글에서 제시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사회 또는 정부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② (가)는 (나)와 달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한다.
③ (나)는 (가)와 달리 개인 간 합의의 자발성만을 정의의 기준으로 두지 않는다.
④ (나)는 (가)와 달리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권리보다 좋은 삶과 공동선이 우선이라고 본다.
⑤ (가)와 (나) 모두 청소년 부당 대우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

9. 위 글과 <보기>를 보고 추론할 수 없는 것은? [3점]

<보기>

This laissez-faire argument invites two kinds of objection. One is about coercion and unfairness; the other is about corruption and degradation. The first objection accepts the principle of choice but questions whether every instance of market choice is truly voluntary. The coercion objection maintains that market relations can be considered free only when the background conditions under which we buy and sell are fair, only when no one is coerced by dire economic necessity.

The corruption argument points to a different set of moral ideals. It appeals not to consent but to the moral importance of the goods at stake, the ones said to be degraded by market valuation and exchange.

① 'coercion objection'은 공동체주의만이 청소년 부당 대우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드는 근거이다.
② 'laissez-faire argument'는 개인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공정 영역 7

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를 불공정하다고 본다.

③ 'corruption objection'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의 불공정성을 언급할 때 합의를 넘어서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

④ 'corruption objection'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대우가 청소년의 가치를 타락시킨다고 주장한다.

⑤ 'laissez-faire argument,' 'coercion objection'은 같은 사상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

10. <보기>에 제시된 사례를 보고 ㉠, ㉡이 할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올해 서울의 한 특성화고 2학년이 되는 이아무개(17)군에게 이번 겨울방학은 휴식이나 공부가 아닌 '알바'(아르바이트)를 위한 시간이었다.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 대비 학원에 등록하는 데 39만원이 필요했지만 노점을 하는 아버지는 "학원에 안 다니면 안 되겠냐"고 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 2주 동안 하루 6시간 닭갈비 전문 식당에서 일했다. 이군은 3월 개학을 하면 학교가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알바를 다시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군은 "용돈을 달라고 하면 주시지만 계속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학원비도 계속 들어갈 테고, 취업하기 전까지 알바를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① ㉠: 이아무개 군의 가정 경제 상황을 볼 때 그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② ㉠: 이아무개 군은 분배의 과정에서 약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정부의 노력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받아야 해.

③ ㉡: 이아무개 군이 처한 아르바이트 환경이 교육의 기회를 앗아간다면 그것은 청소년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이야.

④ ㉡: 이아무개 군이 겨울방학을 휴식이나 공부가 아닌 알바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아무개 군에게 바른 공동체의 가치가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적 토론이 필요해.

⑤ ㉠,㉡: 자유지상주의는 이아무개 군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어.

[1~3] (가)는 인권 동아리에서 진행한 토의 내용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부장: 얘들아 우리 인라이튼에서 이번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부당 대우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기로 했어! 그러기 위해선 어떤 내용으로 제안서를 작성할지 먼저 토의를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학생1: 좋아, 그럼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부당 대우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제안하면 되는 거지?

학생2: 응, 요즘 근로기준법에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자세한 규정을 덧붙여 명시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성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어. 내 주변에도 무시를 당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최저임금,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학생2: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학생1: 음…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그들의 인식 수준을 개선해야 할 것 같아.

학생3: 내 친구는 저번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대.

학생1: 그런 경우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연락하거나 2019년부터 새롭게 개최되는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박람회에 참가해서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2: 청소년 교육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내 친구는 악덕 고용주를 만나 고용에 대한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고, 초과근무를 강요받고 있어서 부당함을 겪고 있대.

학생3: 맞아. 내가 어제 토의를 준비하다가 법령을 살펴보았는데, 고용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은 부족한 것 같아.

학생2: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청소년의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청소년 고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서 정책제안서에 넣어야겠어.

학생1,3: 좋아.

부장: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제안서의 개요를 작성해 보았어. 이걸 바탕으로 정책제안서의 초고를 완성해보자.

(나)

[개요]

Ⅰ. 서론
  1.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황
  2. 청소년들이 근로 중 겪는 부당 대우 사례

Ⅱ. 본론
  1. 부당 대우의 원인 분석
    가. 근로기준법에 대한 청소년의 정보 부족
    나.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준수의식 부족
  2. 해결방안
    가.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 홍보
    나. 고용주 의무교육 이수 제도 마련

Ⅲ. 결론: 해결 방안의 기대 효과와 의의

11. (가)에 나타난 동아리부장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장은 제안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8 공정 영역

② 부장은 토의 중간에 끼어들어 토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③ 부장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배경지식을 밝히고 있다.
④ 부장은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토의를 시작하고 있다.
⑤ 부장은 공식적인 상황에 알맞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12. 다음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가)의 토의 내용을 고르시오.

①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박람회에 참가한다.
② 주변의 어른에게 부당함을 알린다.
③ 고용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④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연락한다.
⑤ 청와대에 부당한 근로에 대한 청원글을 올린다.

13. 다음 중 밑줄 친 ㉠을 대체할 수 없는 말을 고르시오.

① 소상히 ② 빈틈없이
③ 상세히 ④ 곰곰이
⑤ 구체적으로

14. 당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었던 서준이는 근로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고 부모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2015년 1월 1일부터 고깃집에서 일주일에 4시간씩 알바를 했다. 그 당시 최저시급은 8000원이었다. 최저시급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도보다 9%씩 증가하고 1년은 52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서준이는 악덕사장을 만나 최저시급만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2019년 12월 31까지 서준이가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은 얼마인가? (단, $1.09^6 = 1.5$)

출처
기사문 (가)
"알바 안하면 교통비도 없어요"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생계형' (한겨레, 2016. 2. 15.)
알바 고교생, 폭행, 폭언, 부상, 체임에 시달려(한겨레, 2017. 1. 18.)
기사문 (나)
웨딩홀 알바 뽑으면서 '키 166 이상 아리따운 여성'
[웨딩홀 청소년 노동자②]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웨딩홀 아르바이트생(오마이뉴스, 2017. 9. 7.)
[자료1]
중앙대 산학협력단
[자료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위원, 9쪽)
[자료3]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위원, 10쪽)
<보기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위원, 8쪽)
<보기2>
근로기준법
독서 지문 참고문헌
본문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3장, 6장, 9장, 10장)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마이클 샌델, 명명권)
보기 출처
2번 문제- What Money Can't Buy(Michael Sandel, 186p, 112p)
3번 문제-
"알바 안하면 교통비도 없어요"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생계형' (한겨레, 2016. 2. 15.)
독서 지문 참고문헌
본문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3장, 6장, 9장, 10장)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마이클 샌델, 명명권)
보기 출처
2번 문제- What Money Can't Buy(Michael Sandel, 186p, 112p)
3번 문제-
"알바 안하면 교통비도 없어요"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생계형' (한겨레, 2016. 2. 15.)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책 |

Written by

IIHS 105 GROUP A

정보화 시대의 불공정

정보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정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과융합 PBL

10501 강윤아 10507 박민서 10518 박준원
10519 박준표 10522 이유준 10524 최민재

#DIFOR
EVER

CONTENTS

CHAPTER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보란?

CHAPTER 2
정보화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 구조

CHAPTER 3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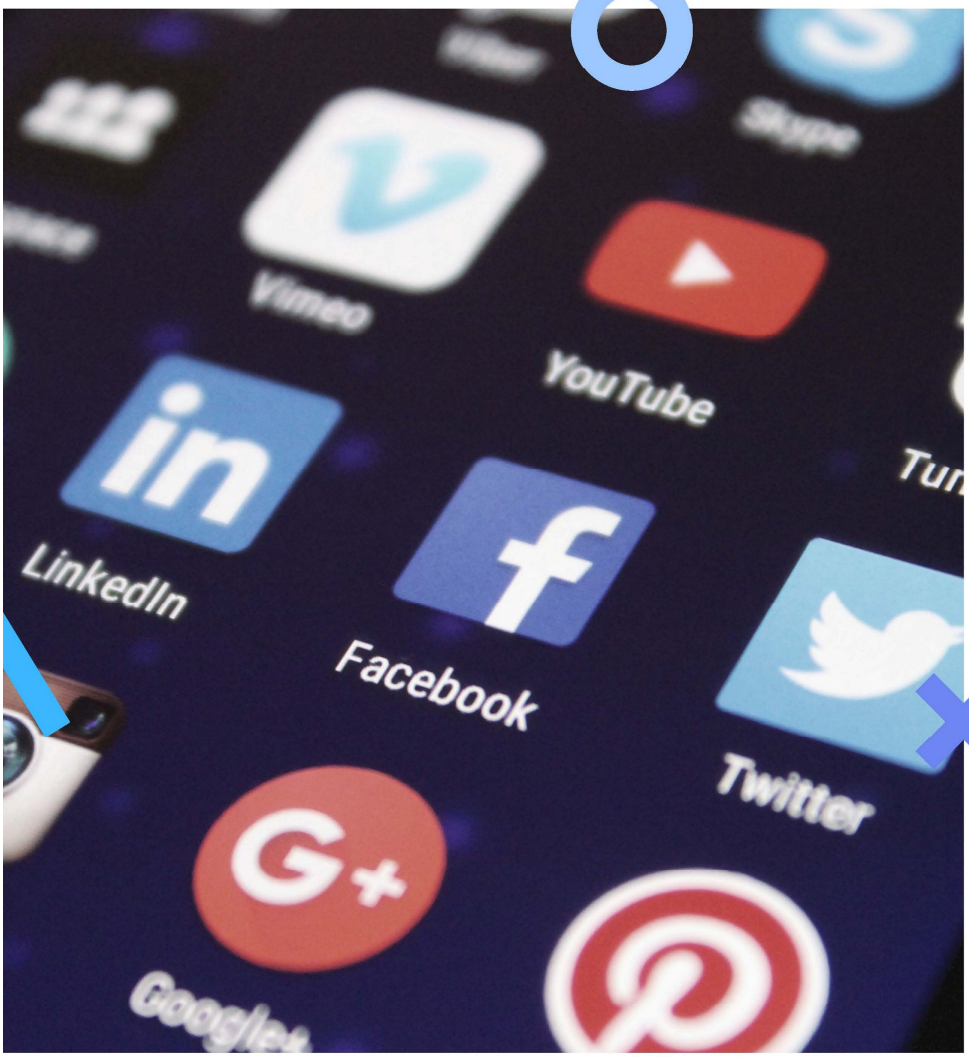
CHAPTER 4
우리를 속이는 정보들

CHAPTER 5
정보화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IIHS 105 GROUP 1

Chapter 3

정보 소외 계층의 정보 격차



"The digital and physical worlds are starting to come together more seamlessly – it's only the tip of the iceberg in terms of what's coming." - Mark Parker

1

정보 격차란?

정보 격차의 역사

현대 사회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쳐 현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향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이루어졌던 3차 산업혁명은 공장의 기계화 및 자동화에 의한 생산 규모의 확대와 수학적 알고리즘의 성립을 바탕으로 한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 보급이 중심이었다. 2018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발표에 의하면 수학적 알고리즘의 활성화로 전 세계 인구 총 77억명 중 약 39억명이 인터넷을 이용할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미국에 있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9일, 전 세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발표한 후부터 가속화되었다. 그 뒤를 이은 4차 산업혁명은 생산현장의 제어 및 통제까지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담당이 된 혁명이다.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사회·경제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빅데이터의 발달로 하나의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한 뒤 가장 최적의 상품을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정보매체의 급속한 보급 속에서 전자상거래, 전자비즈니스, 공공부문의 전자공문서와 전자입찰, 지역정보화, 가상공동체 등으로 사회전반의 정보흐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사업기회, 직업기회, 그리고 소통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듯

산업혁명의 결과로 인간의 삶은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으며,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점점 우리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편리한 삶이 제공됨과 동시에 세계는 다양한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일자리 부족 현상,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에 따른 인간 지위 위협 등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대면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시급한 관심이 필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 바로 정보 격차 문제이다. IT 산업과 모바일 기기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재정적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기술의 발달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에서 소외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계층 역시 존재한다. 한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정보가 곧 자본이자 힘이 되는 시대 속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따른 불공정한 정보 격차 문제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 심각성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 격차의 의미

그렇다면 정보 격차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 사회에서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발생할까?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보 격차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본 개념에서 더 나아가 이 책에서는 정보 격차를 '디지털 갭(Digital Gap)'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디지털 갭은 정보 불균형을 의미하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의미하는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을 합쳐 만들어진 단어이다. 이 단어들은 모두 정보 격차로 해석되지만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디지털 디바이드는 단순히 정보의 불균형을 의미하지만 디지털 갭은 정보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의 의미까지 내포한 정보격차라는 점이다.

18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촉발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는 대량생산의 시대를 불러오면서 전세계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업자 증가,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의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전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마찬가지로 21세기에 정보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정보의 접근성과 정보 활용의 효율성이 높은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나뉘면서 또 하나의 격차인 정보 격차가 만들어졌고, 이 격차는 산업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커져가고 있다.

정보격차는 특히 사회적 삶이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보확산과정의 격차는 네트워크의 외부성이라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사회적 강제인 포섭과 배제에 의해 독특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는 특정 계층의 정보접근 및 활용능력 저하, 그리고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부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 등 삶의 기회를 제약하고 그를 통해 삶 자체를 제약한다. 즉 정보격차는 단순히 정보의 차이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문화적 불공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불평등 요소였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불공정과 그로 인해 심각해진 경제적 불평등이 공존하게 되면서 한 사회에서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정보 격차의 현황

그렇다면 정보 격차는 현재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을 4대 정보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3.8%p 증가하여 일반국민의 68.9% 정도라고 한다. 이 중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86.8%로

일반국민과 격차(13.2%p)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장애인은 74.6%, 농어민은 69.8%, 장노년층은 63.1%로 일반국민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높다. 디지털정보화수준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인 접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 중에서 디지털접근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8.9%p 작은 것으로 드러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디지털 역량 수준과 활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격차는 4대 정보 취약계층 내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4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저소득층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94.9%에 육박하며 가장 낮은 디지털정보화수준을 기록한 장노년층(63.1p%)과 31.8%p의 차이를 보였다.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을 보유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정보취약계층 역시 장노년층이었다. 일반국민의 보유율 80.3%p에 비해 52.4%p를 기록한 장노년층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디지털 기기 보유수준 모두 4대 취약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디지털 4대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는 일반 국민의 수치와 차이를 매년 좁혀가고 있으나, 실제로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수치화한 디지털 역량수준과 활용수준은 접근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취약 계층 내에서도 정보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보가 곧 중요한 자원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즉 탈산업 사회가 점점 도래하고 있는 지금, 이들의 정보 격차를 온전하고 명확하게 좁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융합 PBL

부록

디지털정보화수준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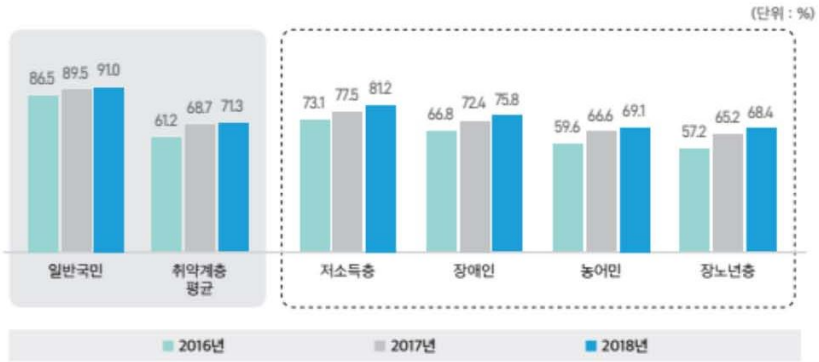
디지털정보화 수준 [단위 : 점]

	디지털정보화 수준			
	종합 수준	접근 수준	역량 수준	활용 수준
2014	50.1	72.3	34.6	47.7
2015	52.4	73.7	37.4	51.6
2016	58.6	84.5	45.2	59
2017	65.1	91	51.9	65.3
2018	68.9	91.1	59.1	67.7

▶ 디지털정보화수준(종합) = 디지털접근수준(0.2) + 디지털역량수준(0.4) + 디지털활용수준(0.4)

▶ 디지털정보화수준 :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 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

인터넷 이용률 및 스마트폰 보유율 - 한국정보진흥원



2018년 정보 취약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1.3%로 전년(68.7%) 대비 2.6%p 상승하였으며, 일반국민 스마트폰 보유율(91.0%) 대비 19.7%p 낮은 수준이다. 인터넷 이용률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보유율도 저소득층(81.2%)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장애인 75.8%, 농어민 69.1%, 장노년층 68.4% 순으로 나타난다.

2

왜 정보 격차가 문제인가?

사회적 측면에서 본 정보 격차의 문제점

2019년 현재, 탈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보와 지식은 기존의 자본과 상품을 대신하는 주요한 사회적 화제로 등장하였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령층 등 정보 소외 계층은 인터넷을 배울 기회나 PC등 관련 기기의 부재 등으로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에 노출될 기회가 일반국민에 비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정보의 격차는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으로 디지털 정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도태되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또 다른 빈부격차의 등장이 있다. 쉽게 말해 빠르게 디지털 사회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어리둥절해 하고 압박감을 느끼는 장노년 세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없어 빈곤의 악순환에서 자포자기하는 빈곤계층, 신체적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사회적 재기가 더욱 좌절되고 있는 장애인들은 디지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보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세상의 비주류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것과 관련된 현상이 바로 스마트폰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계층 간의 단절과 소외를 뜻하는 '모바일 디바이드(mobile divide)'이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 속도는 가히 폭발적으로, 지난해 3월 152만 명이던 가입자가 불과 1년만인 지난 3월에는 1천만 명을 돌파했고 연말에는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터넷 도입 때와 비교해도 훨씬 빨라진 확산 속도에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과거 인터넷의 도입 때도 디지털 디바이드가 비슷한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때와 현재의 모바일 디바이드가 양상이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 집단 사이에 하나의 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한국의 정보사회는 새로운 '이중적 분할'(double divide)에 직면 해왔다. 그 첫 번째 분할은 스마트폰 이용자와 비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집단 간 분할'(inter-group)의 문제이며, 두 번째 분할은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집단 내 분할'(intra-group)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스마트폰(디지털 기기)에 적응해 변화하는 21세기에 살아남은 계층과 이러한 계층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에서 도태된 계층으로 분리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정보 격차의 문제점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상품교환을 매개로 하는 재화의 유통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득분배 면에서 항상 불평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재분배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한다. 이것은 다시금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개인 또는 세대 간에 고소득과 저소득까지 소득분포가 산재해 있어 균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유층은 자신의 친족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당연한데, 이렇게 되면 부유층의 친족들은 노력 없이도 부를 가지고, 노력을 더 많이 한 빈곤층들이 부를 얻을 기회를 그만큼 방해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들이 지식 기반 사회라고 불리우는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 녹아 '정보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정보격차 또한 커진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한 국가 내에서도 학인 할 수 있는데, 이를 잘 나타낸 하나의 일례로는 텍사스의 12살 토니와 11살 이사벨라 남매가 있다. 대한민국과 달리 땅이 넓고 인터넷이 전국 곳곳에 보급되지 않은 미국은 초등학교 담장

Team #DiForEver

옆 비좁은 인도는 와이파이에 연결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남매가 학교 숙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집에는 인터넷이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몇 달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는 상황이고, 식당 보조로 일하는 아버지가 벌어오는 얼마 안 되는 돈이 가족이 기대고 있는 수입의 전부이다.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수많은 편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인 형편이 정보화 시대의 불평등을 일차적으로 발생시키고, 모두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낸 도구가 다시금 새로운 문제들을 초래해 또 다시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어낸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시 '정보 격차'라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정보화 시대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3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정보 격차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정보 소외 계층의 어려움이 제대로 와닿지 않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는 어플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지식을 쌓기 위해,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디지털로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것은 전혀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보 격차 첫 번째: 무인화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되며 새로 생겨난 현상인 무인화는 사전적 정의로는 '생산 공정과 기계 작업 따위를 사람 없이 진행하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해 원래는 사람이 해왔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현상을 뜻하데, 이 현상은 생산직의 실직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기업의 운영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편리하다는 점에서 최근 우리 주변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

키오스크란?

무인화 현상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곳 중 하나는 바로 '키오스크'이다. 키오스

크란 사전적 정의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 단말기'라는 뜻인데, 일종의 '무인 자판기'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직원들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들을 현재는 키오스크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인화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키오스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일상 속 키오스크

그렇다면 주로 어떤 곳에서 키오스크를 볼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은행과 음식점이다. 먼저 은행에서는 과거 은행원을 통해서만 예・적금 신규 가입, 카드발급과 같은 은행 창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에 신한은행은 은행 창구 업무의 9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편의점에 설치해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우리은행 역시 은행 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위버스마트 키오스크'를 명동금융센터 등 39개 점포에 배치하고 있었고,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도 키오스크 도입을 검토중인 상태이다.

그다음 음식점에서는 과거엔 주문, 계산과 같은 일들을 종업원들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해지고 있다. 키오스크는 음식점들 중에서도 주로 패스트푸드점에 많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메콘뉴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롯데리아는 지점들에 총 460여 개의 무인 판매대를 설치했으며, 버거킹은 전국 268곳 중 47곳에 무인 계산대를 설치했고, 맥도날드는 2017년 상반기에 250여 개의 매장에 무인결제 패널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도입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키오스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이처럼 키오스크는 실생활 속에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적응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도 있다. 바로 정보 소외 계층,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과 시각 장애인이다. 노인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고, 시각 장애인은 터치스크린 방식인 키오스크의 화면을 볼 수 없으므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은행, 음식점 등 키오스크가 있는 곳을 가보아도 이 두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불공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직원과 키오스크가 같이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최근 키오스크만 존재하는 매장도 늘고 있어 이 두 계층이 느끼는 불공정의 빈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가 노인 계층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고, 시각장애인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와 같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 격차 두 번째: 스마트폰 어플

미국 시장 조사기관 퓨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는 총 50억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이었던 국가들 중 대한민국은 휴대전화 보급률 100%,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를 기록하며 대다수의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1993년 애플이 출시한 뉴턴 메시지 패드, 1999년 삼성전자의 애니콜 풀터치 PDA폰에서부터 시작된 스마트폰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을 이룩하며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해나갔다. 전화 통화, 웹서핑, 이메일 등의 기본적인 소통수단부터 게임, 메신저, 음악과 같은 여가 생활을 모두 하나의 기계 안에서 아우르는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작은 직사각형의 기계를 손에 들고 거리를 걸어가며 자신에게 맞는 어플을 수십 개씩 다운받고 살아간다. 이러한 어플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며 게임, SNS뿐만 아니라 교육, 뉴스, 도서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스마트폰 안에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어플들을 누르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지극히 당연한 존재인 스마트폰과, 그 안에

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편리함들이 누군가에게는 까마득히 먼 세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Z세대'라는 말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들에 노출되며 그것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세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휴대전화 같은 통신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태어나 급격한 변화를 겪는 세대들이 이들처럼 잘 터득하고 활용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을 장만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들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더 싸게, 더 편하게

한 가지 예로 여행 앱이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면 트리바고, 트립어드바이저, 에어비앤비 등 숙박, 식당, 교통수단까지 모든 것을 더 싼 가격으로,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앱들이 즐비하다. 인터넷에 '여행 앱'이라고만 쳐도 '해외 여행 고수들은 다 있다는 "필수 앱" 8가지'와 같은 제목의 게시글들이 다수 나온다. 이 앱들의 사용 횟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2018년 이데일리에 의하면 대한민국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야놀자'로, 전년에 비해 사용자 수가 약 50만 명 가량 증가하였다. 이렇듯 오늘날에는 여행을 하고 싶을 때 수많은 앱의 도움을 받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을 다녀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어플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어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 물론 이들도 패키지 상품과 같은 것들을 골라 여행을 갈 수 있다. 하지만 패키지 상품 외에도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두 가지 유형의 편익을 각각 비교한 후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항

공권 특가, 자동으로 환율을 계산해주는 가계부 등을 제공하는 어플을 모두 활용하여 가지고 있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것과 가격 자체에 상관없이 정보의 양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쇼핑도 마찬가지이다. 근처 마트의 전단지를 살펴보는 것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할인 상품들을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더욱 똑똑해진 사이트들이 내가 클릭한 상품과 연관된 상품을 계속 띄우도록 해서 나의 선택의 폭은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알아보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훨씬 넓어진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화장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화해' 등의 앱을 통해 화장품의 사용자 리뷰, 성분, 맞춤 랭킹과 같은 정보를 토대로 편익을 극대화하는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매직패스

매년 6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롯데월드는, 주말이나 연휴에 가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비는 곳이다. 특히 한여름의 경우, 땡볕 아래 끝없이 뻗어진 줄 아래 서 있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해, 롯데월드는 롯데월드 앱을 통해 지도와 매직패스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지도를 통해 현 위치를 파악하고, 놀이기구별 대기 시간을 확인하며, 티켓 1장당 3장 제공되는 매직패스를 이용해서 인기 놀이기구를 기다림 없이 탈 수 있도록 한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지점의 어플을 다운받으면 놀이기구의 평균 대기시간과 나의 실시간 위치, 각 놀이기구나 매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 등을 제공받아 보다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플 하나만 다운받으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놀이공원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의 존재를 알고 활용할 줄 아는가의 여부가 우리의 놀이공원 체험의 질을 바꾼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매우

크다. 하지만 그 말은 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제품 선택에서부터 시간 단축까지, 어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바뀌고 무인화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이 현상은 점점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4

정보 격차의 해결방안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세계적 해결방안

해결방안 1: 정보화 교육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방안은 단연 정보화 교육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 격차의 해결방안'하면 떠올릴 것임이 분명할 정도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교육이 정보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정보화 교육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정보 격차의 차이는 정보 교육의 불평등에서부터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공교육, 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면 소득격차, 세대격차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는 초등학교 때는 정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대한 기초적인 기술을 익히고 정보 교육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정보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실질적인 정보교육에 초점을 맞춰 학교 자체에서 자격증 시험 형식의 정보시험을 치뤄 학생들의 이수여부를 판단하며, 졸업 때까지는 전학생의 이수를 목표로 실용적이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교육을 실시한다. 이렇듯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총 9년 동안 지원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정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익힐

것이며, 이를 통해 접근성을 확연히 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흥미를 유발해 디지털 활용 수준과 적용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현황(03-1)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취약 계층 내에서도 낮은 디지털정보화수준을 기록했던 장노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정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정보화 교육이 많은 시·구청에서 실시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생각해보자면 정보 소외 계층 중에서 습득이 빠른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일정 수준의 급여, 또는 수고비를 지급한다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때는 소득을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해결방안 2: 인식의 개선

마이클 샌델이 그의 저서 'What Money Can't Buy' 에 언급했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대중은 더 많은 광고를 접하고 있고, 그 영향력 역시 어마어마해지고 있다. 이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거부감 없이 광고를 대한다. 이러한 광고는 그 광고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끌리도록 제작되는데, 예를 들어 정부는 담배나 마약 등을 제재하는 공익광고를, 기업은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여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한 광고를 제작한다. 이 중에서 공익광고는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인간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탐색한 뒤, 그 문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 교육의 내용을 담은 공익 광고를 널리 퍼뜨리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어떠한 불편함을 겪는지, 그 불편함은 사회 내에서 어떠한 분열을 초래하는지, 전세계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국민, 또는 그들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광고가 적절할 것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보 소외 계층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이며 그들의 어려움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디지털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계층이 그렇지 못한 계층의 삶에 대해 다시금 성찰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이다.

해결방안 3: 어플 개발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생겨났고, 정보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스마트폰에는 많은 앱들이 생겨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앱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기, 메모장 등부터 토스, 페이스북 등까지 각자의 필요,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따라 다양한 앱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는 광고, 앱 설치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캐시슬라이드"와 같은 앱들이 있다. 이러한 앱들은 첫 설치 시 시작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한 다른 추천 앱을 설치하거나, 휴대폰을 켰을 때 슬라이드를 통한 잠금해제 등의 활동을 통하여 돈을 얻을 수 있다. 이 돈은 기프티콘을 사는 데 사용이 가능하여 실제 돈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에서 흥행 중인 앱이다. 그렇다면, 캐시슬라이드의 방식을 정보 교육에 활용한다면 어떨까? 첫 설치 시 시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고, 주요 디지털 정보를 종합하여 만든 정보 관련 퀴즈를 맞추거나, 제휴를 맺은 다른 디지털 앱을 설치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돈은 캐시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정보를 배우는 데에 있어서 동기부여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고 정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앱이라는 점에서 정보소외계층이 과연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앱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큰 제약이 없도록 회원가입 간편화, 구체적인 사용방

법 설명과 같은 세심한 구축을 기반으로 한다면 정보소외계층 역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정보소외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것 역시 퀴즈의 문제로 내거나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시된 해결방안들은 모두 국가적, 세계적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 국가가 이런 걸 하면 되겠네'하며 이 챕터를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 격차처럼 문제 자체도 크고 해결방안도 국가 단위로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존재한다.

활동 1: 정보의 날

대한민국은 매년 4월 22일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 종업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의 날'을 제정하였다. 이 날을 '정보의 날'로 활용하여, 정보 소외 계층이 겪는 어려움과 정보 격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 단위로, 또는 동아리 단위로 주관하여 '정보 격차'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정보 소외 계층이 실제로 겪을 만한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정보 소외 계층 중, 장애인, 특히 시각 장애인은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기 위해 운영진은 정보의 날 전에 스케치북에 키오스크처럼 메뉴, 주문 등의 아이콘들을 그려 놓는다. 그런 다음 활동 시작 전 참가자는 안대를 착용하고, 운영진이 음식을 제시하면 활동 참가자는 제시된 음식을 최대한 빨리 주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또

한 뱃지나 엽서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이 외에도 구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식의 활동을 진행한다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정보 소외 계층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활동 2: 한 학급 한 정보 나누기

국제구호기구 월드 비전이 진행하는 기부 프로젝트인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는 많은 학교 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월 3만원을 모아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구촌의 한 아이에게 전달하는 이 활동은 세계시민의식 고취, 기부의식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내적성장처럼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활동을 토대로 주제를 '정보 격차'로 옮겨 '한 학급 한 정보 나누기'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매달, 또는 분기별로 학생들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봉사활동을 가거나, 장노년층을 위한 간단한 카드뉴스나 인포그래픽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일깨우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직접 생각해내어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클 것이다.

-The End of Chapter 3-

Team #DiForEver

Chapter 3 맺음말

세계화 시대가 도래해 수많은 국가들이 모두 관계를 맺고 지내는 이 시대는 그만큼 세계 각국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도 중요한 이슈이다. 이 이슈들 대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공정', 즉 부정의와 불평등에서 기인하는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해결방안은 다각도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한 개인이나 국가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정보 격차'도 세계에 존재하는 불공정의 일종으로, '정보'를 자본으로 하는 탈산업 시대가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그 심각성이 불거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와이파이조차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전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수의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서 넘쳐나는 정보들로 인해 오히려 제대로 된 정보들을 찾아내야 하는 우리들은, '넘쳐나는 정보' 자체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동등한 양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깨닫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보가 필수적인 세상 속에서 '공정'을 향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계가 앓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보 격차'도 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힘을 보탤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책에서 사용된 Team #DiForEver는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한 1학년 5반 A조의 팀명으로, 'DiForEver'는 'Digital For Everyone'의 약자이다.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희망하며 챕터 3을 마친다.

2019학년도 교과융합-PBL(Project Based Learning)
최종산출물 자료집

기획	교사 김종혁, 교사 육성일, 교사 이화영
	교사 주 연, 교사 이현승, 교사 임정환, 교사 이의원
디자인	표지디자인 10514 장채은
	속지디자인 10404 박소민
발행일	2020년 2월
발행인	교장 류 기 서
자 문	교감 이 임 구
발행처	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74-40
전 화	032-745-4500
팩 스	032-746-7510
홈페이지	http://ii.icehs.kr